

# 국역 승총명록

-1-

구상덕 지음

경상남도 고성군청

한국학중앙연구원

\* 구상덕의 《승총명록》(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43호, 총5권) 중 1권~ 3권을 번역하였음.

\* 번역기간 : 2013년 7월 22일~2014년 2월 21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연 구 원 : 김건우(전주대학교 교수)

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상현(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十六丁卯去執或雲十七戊辰如昨  
 十八己巳陰  
 十九庚午極熱  
 廿辛未細雨  
 廿一壬申雨沾  
 廿二癸酉夕雨濕地面  
 廿三甲戌或雲或陽早懸肆塵  
 方行祈雨余赴龍水岩禱事  
 廿四亥還家露霖  
 廿五丙子祈雨碧山夜雨大至  
 廿六丁丑仍雨夢巧果通二  
 廿七戊寅雨斷續  
 廿八己卯常雨  
 廿九庚辰雨正  
 卅辛巳雨  
 六日小  
 初壬午  
 初二癸未未朝雨未  
 初三甲申快晴  
 初四乙酉雨又漸續  
 初五丙戌夜雨  
 初六丁亥或雨余友錫旅李君元幹兄弟未訪仍留  
 初七戊子或雨余李諸君錄向晉州都倉  
 初八己丑極熱  
 初九庚寅朝雨  
 初十辛卯極熱  
 十一壬辰如昨  
 十二癸巳乍雨  
 閏京城今初二日始雨移移云  
 十三甲午極熱  
 十四乙未如昨  
 十五丙申如昨夜中勸講舍性觀夕還  
 十六丁酉如昨  
 十七戊戌十八己亥  
 十九庚子如昨  
 廿辛丑時有沫雲成陰  
 廿一壬寅  
 廿二甲辰極熱李座首度錫有疾未寓于齋中  
 廿三乙卯極熱  
 廿四丙辰極熱  
 廿五丁巳極熱  
 廿六戊午極熱  
 廿七己未極熱  
 廿八庚申極熱  
 廿九辛酉極熱  
 卅壬戌極熱  
 卅一癸亥極熱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43호 《승충명록(勝聰明錄)》 원본

## 승충명록(勝聰明錄) 권1

《승충명록》 5권은 공(公)이 20세인 을사년(1725 영조1)부터 56세인 신사년(1761 영조 37)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37년간의 일기이다. 제1권은 공의 나이 20세 을사년부터 26세 신해년(1731 영조7)까지 7년간의 일기이다. 신해년에는 일기를 자세히 적지 않았고, 대략 월만 기록하였다. 책장수는 78장이다.

1권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신해년  
2권 임자년 계축년 갑인년 을묘년 병진년 정사년  
3권 무오년 기미년 경신년 신유년 임술년 계해년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4권 경오년 신미년 임신년 계유년 갑술년 을해년  
5권 병자년 정축년 무인년 기묘년 경진년 신사년  
도합 37년

서기 1706년(숙종32) 병술 12월 초8일 생.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강희(康熙) 45년  
1권 서기 1725년 영조대왕 즉위 2년<sup>1)</sup> 을사년 청나라 세종(世宗) 옹정(雍正) 3년. 공의 당시 나이 20세.

전몽 대황락(旃蒙大荒落)<sup>2)</sup> 을사년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89년, 금상(今上) 2년, 옹정(雍正) 3년.

7월 29일(무진) 개령(開寧)<sup>3)</sup>에서 열리는 감시(監試)<sup>4)</sup>를 치르기 위해 타는 말과 짐말을 마련했다. 몽고현(夢古峴)<sup>5)</sup>에 이르러 타는 말을 되돌려 보내고, 짐말을 겸하여 타고 진성(晋城)<sup>6)</sup>에 갔다. 이날 비가 내리다가 그쳤으나, 구름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았다.

7월 30일(기사) 종일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진성에 머물렀다.

8월

8월 1일(경오) 자(字)가 재태(再泰)인 생원(生員) 정태래(鄭泰來), 대아(大雅)<sup>7)</sup> 이방협(李邦協)과 동행하여 백야치(白也峙)<sup>8)</sup>로부터 승산(勝山)<sup>9)</sup>을 거쳐서 염창강(鹽倉江)<sup>10)</sup>을 건넜다.

1) 영조대왕 즉위 2년 : 1725년은 왕력(王曆)으로 영조 1년이다.

2) 전몽 대황락(旃蒙大荒落) : 고갑자(古甲子)로, 전몽은 을(乙)을 가리키고, 대황락은 사(巳)에 해당한다.

3) 개령(開寧) : (지명) 경상북도 금릉군 개령면. 본래는 군(郡)의 하나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면(面)으로 강등되었고, 아울러 김천군에 편입되었다.

4) 감시(監試) : (제도) 소과(小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성균시(成均試), 사부시(詞賦試)라고도 이른다. 이른바 '감시'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국자감(國子監)을 통하여 진사(進士)를 뽑던 시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5) 몽고현(夢古峴) : (지명) 몽골계.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尺亭里) 척곡(尺谷)에 있는 고개.

6) 진성(晋城) :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진성면. 본래는 진주목에 속한 현(縣)의 하나였으나,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내진성면(內晋城面)이 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다시 진성면이 되었다

7) 대아(大雅) : 나이가 서로 비슷한 친구나 문인에 대한 존칭.

8) 백야치(白也峙) : (지명) 마실고개.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勝內里) 승산동(勝山洞) 북쪽에서 청담리(淸潭里) 마실로 가는 고개.

의령(宜寧) 부곡(釜谷)<sup>11</sup>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어화촌(漁火村)<sup>12</sup>에서 묵었다.

8월 2일(신미) 새벽에 출발하여 새벽에 출발하여 석곡(石谷)<sup>13</sup> 주막에서 아침밥을 먹고, 초계(草溪) 회래치(回來峙)<sup>14</sup> 아래 팔진역(八鎭驛)<sup>15</sup>에서 점심을 먹고, 잔산(蠶山)<sup>16</sup>에서 묵었다. 이날 저녁에 비가 내렸다.

8월 3일(임신) 벌판의 냇물이 넘쳤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나섰다. 고령(高靈) 안림역(安林驛)<sup>17</sup> 앞내를 간신히 건넜다. 역리(驛吏)<sup>18</sup> 곽(郭)씨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고령읍(高靈邑)을 지났다. 대교천(大橋川)<sup>19</sup>에 이르러 도저히 물길을 건널 수 없었다. 성주(星州) 추산리(楸山里)<sup>20</sup> 마을에서 묵었다.

8월 4일(계유)

새벽에 길을 나섰다. 성주 안원(安院)<sup>21</sup>의 한 주점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성주읍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날 청동전(靑銅錢) 20전으로 장요미(長腰米)<sup>22</sup> 8되를 샀다. 대마평(大馬坪)의 북협촌(北峽村)<sup>23</sup>에서 묵었다.

8월 5일(갑술) 새벽에 나섰다. 개령 부상역(扶桑驛)<sup>24</sup>의 한 주점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동전(銅錢) 20전으로 술값을 치렀다. 벼들과 함께 개령 본읍(本邑)으로 들어갔다. 객사(客舍) 문밖의 사령(使令)<sup>25</sup> 유헌룡(劉獻龍)의 집을 하관(下館)<sup>26</sup>으로 정했다.

8월 6일(을해) 비가 내렸다.

9) 승산(勝山) :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승산동에 있는 산.

10) 염창강(鹽倉江) :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염창(鹽倉) 마을 앞을 흐르는 남강(南江)의 중류. 마을에 ‘염창터’가 있고, 마을 앞에 ‘염창나무터’가 있다.

11) 부곡(釜谷) : (지명) 가매실.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華陽里)에 있는 마을.

12) 어화촌(漁火村) : (지명)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雲谷里) 운곡(雲谷) 동남쪽에 있는 마을.

13) 석곡(石谷) : (지명)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夕谷里).

14) 회래치(回來峙) : (지명) 아막골재.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衙幕里)에 있는 고개.

15) 팔진역(八鎭驛)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에 있는 역이다. 구상덕의 첫째부인 밀성박씨(密城朴氏)의 친정 이 있던 곳으로, 박씨의 증조부가 이곳에 정착하였다.

16) 잔산(蠶山) : (지명) 각산(角山), 갈산.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上新里)에 있는 산.

17) 안림역(安林驛) : (고적)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안림동(安林洞)에 있던 역.

18) 역리(驛吏) : (관직) 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역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로, 주로 지방의 이서(吏胥)들이 기용되었다. 역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로 찰방(察訪)·역승(驛丞)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관료층 빈객의 접대, 진상품의 수송과 관리, 역마의 관리 따위와 같은 잡무는 역리가 주관했다.

19) 대교천(大橋川) : (지명) 대가천(大伽川). 모듬내, 회천, 가천이라고도 이른다. 경상북도 금릉군 증산면 남동쪽 두리봉에서 발원하고 성주군과 고령군 고령읍을 경과하여 낙동강과 합류한다.

20) 추산리(楸山里) : (지명)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신동(上新洞)에 있는 마을. 추산(楸山)은 상신동에 속한 당안 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21) 안원(安院) : (지명)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동(上彦洞)에 있는 마을.

22) 장요미(長腰米) : 낱알의 생김새가 길쭉한 쌀, 또는 그 품종으로, 좋은 쌀을 가리킨다.

23) 대마평(大馬坪)의 북협촌(北峽村) : (지명)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동(大獐洞)에 있는 마을.

24) 부상역(扶桑驛) : (고적) 경상북도 금릉군 남면 부상동(扶桑洞)에 있던 역.

25) 사령(使令) : (관직)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범칭. 사령의 임무를 맡던 조례(阜隸)를 ‘사령’이라고 별칭하기도 하였다.

26) 하관(下館) : 여관(旅館). 여기서는 특히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일행과 함께 묵을 민박집을 뜻한다.

8월 7일(병자) 비가 내렸다. 동전(銅錢) 50전으로 쌀 5말을 샀다. 저물녘에 날이 개었다.

8월 8일(정축) 구름이 끼어 흐렸다가 잠깐 개었다. 이날 동접(同接)<sup>27</sup>이 모두 뒤따라왔다. 시지(試紙)<sup>28</sup>에 관인(官印)을 찍었다.

8월 9일(무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10일(기묘) 구름이 끼었다가 맑았다가 하였다.

8월 11일(경진)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시제(詩題)가 ‘임금이 베푸는 잔치를 즐기고 충효를 보인다.[樂天宴, 見忠孝.]’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다. 이에 고체시(古體詩)를 읊되, 압운(押韻)은 ‘연(宴)’자였다. 내가 시(詩)를 다 짓고 막 정서(正書)를 하려고 하는데, 노유(奴儒)<sup>29</sup> 정산(正山)이 먼저 바치면서 시통(試筒)<sup>30</sup>을 지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동접 가운데 정중걸(鄭仲杰), 이방협(李邦協)과 나 세 사람은 모두 시지가 없게 되었으나, 드러내 놓고 정거(停擧)<sup>31</sup>를 시키니, 울분이 가슴에 차고 또 찼다. 이날 날씨가 맑았다.

8월 12일(신사) 날씨가 맑았다.

8월 13일(임오) 과장에 들어갔다. 날이 저물지 않은 때에 나왔다. 시지(試紙) 2권을 적었다.

8월 14일(계미) 새벽에 비가 내렸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부상역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진주(晉州) 접우(接友)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성주 사촌(沙村)<sup>32</sup>에서 묵었다.

8월 15일(갑신) 새벽에 길을 나섰다. 회연(檜淵) 한강서원(寒岡書院)<sup>33</sup>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묘실(廟室)에 들러 절을 올리고 한강대(寒岡臺)<sup>34</sup>에 올라 푸른 물을 굽어보고 바람을 쐬고 내려왔다. 이어 망운암(望雲庵)에 올랐다. 망운암은 강당(講堂)의 동쪽에 높은 누각(樓閣) 하나를 따로 세워 두었는데, 편액(扁額)은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선생이 전서(篆書)로 쓴 것이다. 또 암자의 결문으로 나가니 신도비(神道碑)가 있었다. 밥을 먹은 뒤에

**27) 동접(同接)** :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 동아리. 여기서는 특히 과거 시험을 위한 결사체와 그 구성원을 뜻한다.

**28) 시지(試紙)** : 과거(科擧) 시험지. 부정을 막기 위하여 관인(官印)을 찍었다.

**29) 노유(奴儒)** : (속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에 개입하는 하인(下人)을 가리키는 말.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문장에 능숙한 이를 ‘거벽(巨擘)’이라 이르고, 글씨에 능숙한 이를 ‘사수(寫手)’라 이르고, 뜻자리·우산·냄비 따위의 도구를 맡아 나르는 이를 ‘수종(隨從)’이라 이르고, 수종으로서 신분이 비천한 이를 가리켜 ‘노유(奴儒)’라고 이르고, 노유로서 선봉을 맡은 이를 ‘선접(先接)’이라 일렀다.”라고 하였다. (《經世遺表》〈春官修制〉科擧之規(1))

**30) 시통(試筒)** : 과거 시험장에서, 이른바 ‘동접’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된 시험지를 한데 모아 보관하고 있던 통.

**31) 정거(停擧)** : (제도) 과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유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과거를 못 보게 하던 벌. 여기서는 공인된 시험지를 빼앗긴 탓에 무자격자로 입장한 셈이 되어 벌칙에 저촉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32) 사촌(沙村)** : (지명) 사드래.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봉두동(鳳頭洞)에 있는 마을.

**33) 회연(檜淵) 한강서원(寒岡書院)** : (고적) 회연서원(檜淵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新亭洞)에 있던 서원.

인조 5년(1627)에 세웠고, 숙종 16년(1690)에 사액을 받았다.

**34) 한강대(寒岡臺)** : (지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양정 마을 서북쪽에 있는 대.

가야산(伽倻山) 금당사(金塘寺)를 지나 조금 쉬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 홍류동문(紅流洞門)<sup>35</sup>으로 들어갔다. ‘홍류동문’ 네 글자는 바로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857~?)이 쓴 것이다. 곁에 문창공이 지은 시 한 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sup>36</sup>

첩첩산중 돌 사이로 미친 듯 흐르니      狂奔疊石吼重巒  
말소리 지척이라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人語難分咫尺間  
시비 따지는 소리 귀에 들릴까 늘 두려워      常恐是非聲到耳  
일부러 흐르는 물로 산을 모두 들렀단다      故教流水盡籠山

글씨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상공(相公)이 썼다. 동구(洞口)로 죽 이어진 길에는 차필암(泚筆岩), 취적봉(吹笛峯), 분옥뢰(噴玉瀨)<sup>37</sup>, 낙화담(落花潭), 첩석대(疊石臺)가 있는데, 모두 문창공 최치원이 노닐며 즐기던 곳으로서, 크나큰 돌에 글자를 새기되 글씨의 크기가 사슴의 목만큼 굵었다. 밤에 절로 들어와 묵었다.

8월 16일(을유) 불전(佛殿), 경각(經閣)<sup>38</sup> 및 여러 방사(房舍)를 두루 둘러보았다. 경각은 두 채가 있는데, 저마다 60칸이고, 또한 장관(壯觀)이다. 불전이 또 하나 있는데, 왼쪽 디딤돌은 33층이고 오른쪽 디딤돌은 28층으로 되어 또한 보기 드문 건물이다. 이어 학사대(學士臺)<sup>39</sup>에 올랐다. 학사대는 문창공 최치원이 손수 심어 만들었던 송단(松壇)이라고 하는데, 또한 활쏘기로 사람의 덕성(德性)을 보던 장소<sup>40</sup>가 되었으니, 지금도 과녁을 세웠던 기둥이 썩은 채로 서 있었다. 또 임진왜란 때 도우러 왔었던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sup>41</sup>이 썼던 관(冠),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남긴 글씨, 우리 선조(宣祖) 임금인 유정(惟政, 1544~1610) 스님에게 내린 서간(書簡)과 유정 스님의 벽옥(碧玉)으로 만든 바리때를 살펴보았다. 또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1556~1618) 공(公)이 서로 주고받은 시가 있었다. 나는 그 운자(韻字)를 써서 ‘진경(眞境)을 찾아 머문 기록’이라고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구름 깊은 곳 그윽한 경치 찾아가니      慧雲深處訪幽奇  
마침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때라      正值秋風葉落時  
천년 후 신선 자취 찾으려고 하니      仙蹟欲探千載後  
노승이 와서 옛 솔가지 가리키는구나      老禪來指古松枝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냇물이 흐르는 동구를 돌아 나와 무릉교(武陵橋)<sup>42</sup>를 건넜다.

35) 홍류동문(紅流洞門)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구원동(舊源洞) 서북쪽 홍류동(紅流洞) 마을의 어귀를 표지한 바위와 여기에 새긴 글씨이다.

36) 문창공이 지은 시 : 최치원의 문집 《고운집(孤雲集)》 권1 〈가야산 독서당에 제하다[題伽倻山讀書堂]〉라는 제목으로 나온다.

37) 분옥뢰(噴玉瀨) : (지명) 분옥폭(噴玉瀑)라고도 한다.

38) 경각(經閣) : (고적)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건물로, 여기에서는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각(八萬大藏經閣)을 말한다.

39) 학사대(學士臺)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繼仁里) 해인사(海印寺) 경내에 있는 누대.

40) 활쏘기로 사람의 덕성(德性)을 보던 장소 : 《예기(禮記)》 〈사의(射儀)〉에 “활쏘기를 통해 성대한 덕을 볼 수가 있다.[射者 所以觀盛德也]”라고 하였다.

41) 이여송(李如松) : (인물)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명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했는데, 당시 명나라 최고 지휘관이 이여송이다.

42) 무릉교(武陵橋)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홍류동 마을 골짜기의 하류에 놓인 다리.

무릉교는 절에서 10리쯤 떨어져있는데, 돌을 다듬어 만든 무지개다리를 동구의 큰 시내에 걸쳐 놓은 것으로서 참으로 장관이었다. 이연서원(伊淵書院)<sup>43</sup>에 이르렀다. 이연서원은 곧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선생,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선생의 묘실이다. 서원을 보건한 곧 추모심을 일으키는 형상(形狀)이다. 점심을 먹은 뒤에 자리에서 물러나 길을 나섰다. 저녁은 화산서원(華山書院)<sup>44</sup>에서 묵었다. 마을 이름은 화양(華陽)이었다.

8월 17일(병술) 아침에 화산(華山)에서 합천읍(陝川邑)으로 들어갔다. 이때 비가 올 조짐이 보였다. 아침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함벽루(涵碧樓)<sup>45</sup>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 삼가(三嘉)<sup>46</sup> 신기(新基)<sup>47</sup>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다. 생원 남도원(南圖遠)을 찾아가 술자리를 벌였다. 저녁에 의령 모아(毛兒)<sup>48</sup> 마을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매우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었다. 이때 또 비가 내렸다.

8월 18일(정해) 비가 그쳤다. 진주 안간역(安干驛)<sup>49</sup>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저녁은 신당서원(新塘書院)<sup>50</sup>에서 묵었다. 신당서원은 곧 지족당(知足堂) 조지서(趙之瑞, 1454~1504) 선생의 묘실이다.

8월 19일(무자) 새벽에 길을 나섰다. 소촌(召村)<sup>51</sup>에서 아침을 먹었다. 진성에서 묵었다.

8월 20일(기축) 밥을 먹은 뒤에 진성에서 길을 나섰다. 계동(契洞)<sup>52</sup>에 사는 유(柳)씨 매형(妹兄)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적지 않았다.

---

**43)** 이연서원(伊淵書院)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梅岸里)에 있던 서원. 선조 20년(1587)에 세웠고, 1660년(현종1)에 사액을 받았다.

**44)** 화산서원(華山書院) : (고적) 화암서원(華巖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華陽里)에 있던 서원. 1653년(효종4)에 세웠고, 1727년(영조3)에 사액을 받았다.

**45)** 함벽루(涵碧樓) : (고적)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陝川里) 황강(黃江) 물가에 있는 누각.

**46)** 삼가(三嘉) : (지명)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三嘉面). 본래는 군의 하나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면으로 강등 되었고, 아울러 합천군에 편입되었다.

**47)** 신기(新基) : (지명)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文松里) 중문동(中文洞) 서남쪽에 있는 마을.

**48)** 모아(毛兒) : (지명) 못안.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랑면 가계리(可溪里) 방골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秋山里) 장들 마을과 맞닿아 있는 까닭에 ‘의령’에 속한 지역으로 적었던 듯하다.

**49)** 안간역(安干驛) : (고적) 경상남도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安干里)에 있던 역.

**50)** 신당서원(新塘書院) : (고적) 경상남도 진양군 집현면 신당리(新塘里)에 있던 서원. 숙종 36년(1710)에 세웠고, 숙종 44년(1718)에 지족당(知足堂) 조지서(趙之瑞)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액(賜額)을 받았다.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이다.

**51)** 소촌(召村) :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蘇文里)에 있던 역참(驛站) 마을이다. 일찍이 여기에 소촌역(召村驛)이 있었다. 현재는 소촌역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소환(李昭漢)의 문집 『현주집(玄洲集)』 2권 「진양록(晉陽錄)」에 따르면, 소촌역은 경상남도 진양군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靑谷寺)에서 진주읍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다고 하였다.

**52)** 계동(契洞) : (지명) 계동(桂洞), 잣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基月里)에 있는 마을.



8월 24일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sup>53</sup>와 동행하여 함안(咸安)에서 열리는 동당(東堂)<sup>54</sup>을 향해 갔다. 진해(鎭海)<sup>55</sup> 대산(大山)<sup>56</sup> 마을에서 묵었다.

8월 25일 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함안읍(咸安邑)에 들어가, 재종 공흥도(孔興道)의 집을 하 관으로 정했다.

8월 26일 (기록하지 않았음)

8월 27일 진주(晋州)의 접우(接友)들이 뒤따라 도착했다.

8월 28일 날씨가 청명하였다.

8월 29일 저녁에 비가 조금 내렸다. 나는 광정촌(廣井村)<sup>57</sup>에 갔다가 돌아왔다.

9월

9월 1일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호남(湖南)의 고사(高士) 안학증(安學曾)이 자못 도와주는 의리가 있었다.

9월 2일 다시 진해(鎭海)의 대산(大山) 마을에 이르러 숙박하였다.

9월 3일 종일토록 비가 그치지 않음.

9월 4일 식사 후 대산 마을을 출발하여 우비현(牛飛峴)<sup>58</sup>에서 잠깐 쉬었다가 지나던 중 배둔(背屯)<sup>59</sup>에 사는 대장(代將) 성이진(成爾焄)을 방문하고, 또 창명(昌明)에 사는 도유사(都

---

**53** 정창래(丁昌來) : (인물) 정창래의 본관은 창원(昌原)으로, 저자 구상덕과는 6촌이며, 함께 공부하고 유람했던 절친한 벗이었다. 고성 향교의 중수(重修) 및 액외교생(額外校生)의 일로 통영관아를 수시로 출입하였다. 특히 구상덕은 정창래가 죽은 후 그의 효행을 포양하기 위해 1750년 11월 13일 문장(文狀)을 작성해서 관아에 올렸다. 이후 그의 효행사실이 1759년(영조 35)에 입계(入啓)되어 1762년에는 복호(復戶)를 받았다.

**54** 동당(東堂) : (제도) 동당시(東堂試).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 동당은 곧 궁중 안의 친시처(親試處)를 뜻하는 말이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소과 생원진사시와 본시험에 해당하는 대과(大科) 문과(文科)로 나누고, 본시험 문과를 달리 동당시라고 일렀다. 따라서 동당초시는 문과초시, 동당복시는 문과복시, 동당방목은 문과방목을 뜻한다. 아울러 동당시를 지방에서 치르면 동당향시, 성군관에서 치르면 동당관시라고 이른다.

**55** 진해(鎭海) : (지명) 경상남도 창원군 특수 지역. 본래는 진해현(鎭海縣)이었으나 선조 34년(1601)에 함안으로 편입되고, 광해군 17년(1639)에 복구되어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순종 2년(1908)에 다시 창원군에 편입되었다.

**56** 대산(大山) : (지명) 큰내끝.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 임곡리(林谷里)에 있는 마을.

**57** 광정촌(廣井村) : (지명)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伽倻邑) 광정리(廣井里). 본래는 함안군에 속했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가야읍에 편입되었다.

**58** 우비현(牛飛峴)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의 회화면 어신리에서 창원시 진전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울비타’라고 한다. 우비치(牛飛峙)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59** 배둔(背屯)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본래 고성군 회양면(華陽面)의 한 지역으로, 배둔이라는 지명은 지형이 배가 머문 형국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각지의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정착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구상덕 당시에는 배둔에 역(驛)이 설치되어 있어 자주 그곳을 경유하면서 말(馬)을 먹이고 식사를 하였던 장소이다.

有司) 이현석(李顯錫)에게 문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9월 5일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6일 청명하였다.

9월 7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 이날 진성(晋城)에 사내종을 보냈다.

9월 8일 청명했고, 저녁 구름이 흰 베를 편 듯하였다. 사내종이 진성(晋城)에서 돌아왔는데, 접중(接中) 편지를 전달하였다. 접장(接長) 정생원(鄭生員)이 내일 회시(會試) 양장(兩場)에 응시한다고 하였다. 밤에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9월 9일 비가 내렸다.

9월 10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 사문(赦文)이 고성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9월 11일 구름이 걷혔다가 저물녘에 다시 흐려졌다. 사문(赦文)이 거제(巨濟)에서 고성현으로 들어왔다. 대략적인 내용은 김일경(金一鏡)<sup>60</sup>과 목호룡(睦虎龍)<sup>61</sup>이 역적질을 했는데, 그 잔당 이징검(李徵儉)과 이삼(李森)<sup>62</sup> 등 여러 죄인은 혹 유배를 보내거나 감옥에 가두었다. 김공 창집(金公昌集), 이공 이명(李公頤命), 조공 태채(趙公泰采), 이공 건명(李公健命)의 관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추증하며,<sup>63</sup> 또 김운택(金雲澤), 김용택(金龍澤), 윤각(尹愨), 백시구(白時壽) 등 여러 사람을 신원(伸冤)했다고 한다. 향교에 머물렀다.

9월 12일 계동(契洞)에 갔다가 아침밥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또 두포(頭浦)에 사는 상인(喪人) 이동식(李東植)의 모친 초기(初基)에 가서 조문하였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9월 13일 비가 개었다. 매형 이여섭(李汝涉)<sup>64</sup>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

그리고 구상덕과 교유한 성이전(成爾燧)과 최엽(崔曄)이 배둔에서 거주하였다.

**60** 김일경(金一鏡) : (인물) 김일경(1662~1724)은 신임사화를 일으킨 소론의 거두로, 1724년 영조의 즉위로 노론이 재집권 하자 유배된 뒤, 신임사화가 무고로 조작된 것이라는 노론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고 투옥되어 친국(親鞫)을 받은 뒤 참형 당했다.

**61** 목호룡(睦虎龍) : (인물) 신임사화의 고변자(告變者)로, 서얼 출신으로 어려서 풍수술(風水術)을 배워 지사(地師)가 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노론의 상소로 신임사화가 무고로 일어났음이 밝혀지자, 김일경과 함께 체포되어 죽었다.

**62** 이삼(李森) : (인물) 이삼(1677~1735)의 자는 원백(遠伯), 본관은 함평(咸平)이다. 1705년(숙종31) 무과에 급제,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총융사(摠戎使)·어영대장을 거쳐 훈련대장이 되었다. 영조 1년 11월 이삼은 경상도 곤양군(昆陽郡)의 아주 먼 변지(邊地)에 안치(安置)하였다. 그 후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으로 함은군(咸恩君)에 봉해졌다.

**63** 김공 창집(金公昌集)……추증하며 : (역사) 1725년(영조1) 3월 2일에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致祭)하였다.

**64** 이여섭 : (인물) 구상덕의 매형으로, 거주지는 두포(頭浦)이며, 면임(面任)의 직임을 맡았다. 벽방산(碧芳山) 기우제를 치르기 위해 구상덕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여섭은 좌수 이경석(李慶錫)의 일로 검률(檢律)을 만나러

9월 14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추웠다.

9월 15일 서리가 눈처럼 두터웠다.

이하 15일 동안은 기록하지 않았다.

10월 당시 고성 현감은 이후 상순(李侯尙純)<sup>65</sup>이고, 순상(巡相)은 조공 영복(趙公榮福)<sup>66</sup>이고, 통사(統使)는 이공 재항(李公載恒)<sup>67</sup>이다.

10월 1일(을축)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이상은 기록하지 않았다.

10월 6일(경오) 걸어가서 유월치(柳月峙)에 사는 첨사(僉使) 허영원(許榮遠)이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보았다. 이날 저녁 칠촌 숙부 구충의(仇忠義)<sup>68</sup> 덕에서 묵었는데, 통영(統營)의 파총(把摠) 홍여방(洪汝芳)과 두포(頭浦)에 사는 매형 이여섭(李汝涉)과 나란히 잠을 잤다. 초경 즈음에 비가 내렸다. 삼종형(三從兄) 구석주(仇碩柱)가 술을 가지고 왔다.

10월 7일(신미) 매형 이여섭과 재종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돌아왔다. 지나던 중 계동(契洞)과 신기(新基)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진해(鎭海)에 사는 빙숙(聘叔) 박상인(朴喪人)에게 내환(內患 아내의 병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내증을 이른 새벽에 보냈는데 사내증이 돌아와서 이미 초상이 났다고 알려왔다.

10월 8일(임신) 유과(油果)를 만드는데 기름을 잘못 끓이다가 하마터면 집을 거의 태울 뻔하였다. 진해의 향교(鄕校) 마을 사람 현용서(玄龍瑞)가 와서 유숙하였다.

10월 9일(계유) 현생(玄生)이 새벽에 통영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날 어머니의 기운이 편치 않아 갈산(葛山)<sup>69</sup>에 사는 누님이 어제 왔다가 오늘 머물렀다. 내일 신행(新行)을 맞이할 날

---

대구로 갔으며, 잘못된 군포 징발의 피해를 입었다. 이여섭의 막내아들이 갈산(葛山)에 사는 백준건(白俊健)의 사위이다.  
**65** 이후 상순(李侯尙純) : (인물) 이상순은 1725년(영조1) 4월 16일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하직인사를 하였다. 《승정원일기》

**66** 조공 영복(趙公榮福) : (인물) 조영복(1672~1728)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신임사화 때 소론에 배척당하여 파직되고, 선산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영춘(永春)에 이배되었다. 1725년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 공조참의·참찬관·승지·경상도감사·도승지를 역임하였다.

**67** 이공 재항(李公載恒) : (인물) 이재항(1672~1725)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망(君望),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6대손이다. 1724년(경종4) 노론인 이이명(李頤命)의 일파라 하여 삭직되었다가, 영조가 즉위하자 다시 기용되어 삼도수군통제사에 이르렀고, 풍비(風痺)로 54세에 세상을 떠났다.

**68** 구충의(仇忠義) : (제도) 충의(忠義)는 충의위(忠義衛)로, 조선시대에 양반 특수 병종(兵種)이다. 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다.

**69** 갈산(葛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이다. 본래 고성군 광일면의 지역으로서 같이 많았다고 하여 ‘갈산’

짜를 잡았는데, 진해(鎭海)에 초상이 있기 때문에 기약을 뒤로 물렸다. 그리하여 가리동(加里洞)<sup>70</sup>에 사는 장의(掌議)인 이호징(李虎徵)이 방문했다가 돌아갔다. 통영에 사는 홍파총(洪把摠)과 유월(柳月)에 사는 칠촌이 같이 와서 유숙하였다.

10월 10일(갑술) 홍(洪)·구(仇) 두 칠촌 숙부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동문(東門) 밖에 사는 첨지(僉知) 박이계(朴而溪), 곡산(曲山)<sup>71</sup>에 사는 풍헌(風憲) 허수(許洙), 통영에 사는 김숙(金淑)이 방문하였다. 박이계와 김숙은 취한 몸을 겨우 가누며 돌아갔고, 허수의 경우 너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해 그대로 유숙하였다.

10월 11일 어머니께서 용담탕(龍膽湯)<sup>72</sup>을 처음 복용하셨다.

10월 12일 용담탕을 두 번째 복용하셨다.

10월 13일 삼초탕(三椒湯)을 복용하셨다. 병환에 차도가 있었다.

10월 14일 어머니 환후가 조금 좋아졌다. 정재중(丁再從)과 함께 대산(大山)에 사는 박상인(朴喪人)의 아내 상장(喪葬)에 가서 조문하였다.

10월 15일 박상인(朴喪人) 집에서 장례식을 끝내고 산역(山役) 뒷자리 만드는 일 후에 출발했다. 지나는 길에 대장(代將) 성이전(成爾焮) 집에 들렀다가 말여물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이상은 기록하지 않았다.

10월 22일 천동(泉洞)에 사는 누님이 오셨다.

---

또는 '갈촌(葛村)'이라고도 한다. 갈산은 구상덕의 매형인 윤씨가 살고, 교류하던 최선여(崔善餘), 최석유(崔錫裕), 백준건(白俊建) 등이 거주하던 곳이다. 구상덕이 능화판(菱花板) 인쇄를 위해 그 곳에 가기도 하였다.

**70** 가리동(加里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다. '加里洞'이라고도 표기한다. 가리동은 장의(掌議)인 이용정(李龍徵)과 백봉년(白鳳年), 윤덕휘(尹德輝) 등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다. 구상덕은 1729년 2월 19일 가리동 윤덕휘의 서당에 가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구상덕의 둘째아들 구봉관(仇鳳觀)이 가리동 서당에서 독서하기도 하였다.

**71** 곡산(曲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위치한다. 이곳에 봉수대 터가 있다. 곡산에는 구상덕의 재종형(再從兄) 재원(再元)이 살았고, 생원 이여기(李汝杞), 정태방(鄭台方) 등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최운회(崔運會) 모친의 산소가 곡산에 있었다.

**72** 용담탕(龍膽湯) : 용담은 용담과(龍膽科)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뿌리의 맛이 몹시 써서 용의 쓸개와 같다고 하여 용담이란 이름이 붙여진 풀이다. 8~10월에 자주색 꽃이 피고, 사과(蒴果)를 맺는다. 뿌리는 말려서 건위제(健胃劑)로 쓰인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안문(眼門)〉 [草龍膽] : 양 눈이 붉게 붓거나, 눈동자가 붓거나, 예막(瞖膜)이 생기거나 별건 살이 높게 부어올라 아프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눈병에 반드시 써야하는 약이다. 환으로 먹거나 달여 먹는데, 모두 좋다.

10월 23일 국수를 만들었다.

10월 24일 아침에 날씨가 청명하고 온화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이날 신행(新行)<sup>73)</sup>의 후객(後客)<sup>74)</sup>은 바로 생원 김중엽(金重燁)이다. 이날 손님들이 많이 모여 소 한 마리로는 부족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더 잡았다. 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혼례를 치르지 못해 모인 손님들도 역시 대부분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경(二更) 즈음에 비가 개고 구름이 사라져 날씨가 휘영청 밝아 은하수가 빛을 발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누님은 병환으로 오지 못했다.

10월 25일 아침에 혼례를 행하였다. 일도산(一道山)에 있는 논 5배미 3두락지와 이도산(二道山)에 있는 콩밭 2두락지를 별급(別給)하였다. 유사(有司) 강성주(姜聖周)가 집필(執筆)하였다. 식사 후 손님들이 흩어졌다. 유월(柳月)과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들은 계속 머물렀다.

10월 26일 두 칠촌과 누님들도 모두 돌아갔다. 이날 우산(牛山)<sup>75)</sup>에 사는 좌수(座首) 이석점(李錫漸) 댁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예식이 있어 가서 보았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내릴 기미가 산에 가득하였다.

10월 27일 구름이 짙게 끼고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28일 이른 아침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10월 29일 둘째 형님이 읍에 들어가 전결문서(田結文書)를 수정하였다.

10월 30일 우산(牛山)에 사는 좌수 이석점(李錫漸)이 세상을 떠났다. 이공(李公)은 바로 우리 고장에서 명망 있는 분이였다. 이 때 이공은 상정<sup>76)</sup> 도감(詳定都監)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오늘 저녁 본가(本家)에서 읍으로 들어왔다가 삼경(三更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갑자기 내장풍(內臟風)을 맞아 즉사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11월

11월 1일(을미) 삼가(三嘉)에 사는 함장(函丈) 박돈명(朴墩明) 중씨(仲氏)의 개장(改葬) 날짜가 8일로 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산물을 샀다. 증조모의 기제사를 지냈다.

11월 2일

11월 3일 기록하지 않았다.

73) 신행(新行) :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74) 후객(後客) :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상객(上客), 위요(圍繞), 요객(繞客), 후배(後陪)라고도 한다.

75) 우산(牛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에 있다.

76) 상정(詳定) : (제도) 국가의 세액(稅額)과 공물액(貢物額)을 조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 뜻이다.

11월 4일 진주(晋州) 정수(丁樹)에 가서 박함장(朴函丈)의 모친 한부인(韓夫人)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이어 원장(院長) 한명석 천뢰(韓命錫 天賚) 댁에서 유숙하였다.

11월 5일 진성(晋城)에서 묵었다.

11월 6일 새벽에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광점 진여(李光漸進汝)<sup>77</sup> 댁에 갔다가 아침밥을 먹은 후에 돌아오던 중 명전촌(明田村) 앞에서 비를 만나 윤의빙(尹義聘)의 집에서 묵었다. 밤에 천둥이 쳤다.

11월 7일 비가 그치자 새벽에 출발하여 계동(契洞)에서 아침밥을 먹고 곧 우산(牛山)에 사셨던 이좌수(李座首)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고, 그 길로 장대(長大)와 송정(松亭)을 들렀다가 돌아왔다.

11월 8일 허서(許澈)가 상정 도감(詳定都監) 일을 맡게 되었다.

11월 9일 가리동(加里洞)에 사는 장의(掌議) 이용징 운서(李龍徵雲瑞)가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1월 10일 이장의(李掌議)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이른 아침부터 눈도 조금 내렸다.

11월 11일 날씨가 매우 추웠다.

11월 12일 이백(李白) 장편시를 연속해서 읽고 외웠다. 조(租) 7되로 남초(南草) 한 묶음을 샀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11월 13일 구름이 짙게 끼고 날씨가 추웠다. 형님이 더 경작한 일<sup>78</sup>로 태(笞) 12대를 맞았다.

11월 14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추웠다. 이 날 저녁 하늘이 맑고 달이 밝았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가 날고 있었다.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질은 구름 한밤에 걷히고 달빛 명랑한데	陰雲夜捲月光明
서리 내린 추운 날씨 기러기 떼 놀라네	霜落寒天鴈陣驚
시인은 흥취 솟구치는 걸 견디질 못해	騷客不勝清興發
시 읊조리며 거닐다가 삼경에 이르렀네	吟詩散步到三更

**77** 이광점(李光漸) : (인물) 본관은 고성이고, 자(字)는 홍우(鴻于), 호(號)는 남해(南海)이다. 문집으로 《남해공유집(南海公遺集)》이 남아 있다. 이안재(易安齋) 정기림(鄭起林)에게 학문을 익혔다. 구상덕 등과 함께 옥천사(玉泉寺) 관음전에서 과거시험 공부를 위해 자주 거접(居接)하였다.

**78** 더 경작한 일 : 원문 ‘가경(加耕)’은 관아에서 금단하는 장소에 화전(火田) 등을 통해 농사를 더 짓는 행위를 말한다.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돌아가는 기러기 향해 묻노니	爲向歸鴻問
어찌하여 잠시도 한가하질 못하나	如何不暫閑
다만 음양의 절기를 따라	只順陰陽候
남으로 갔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구나	南征復北還

또 눈앞의 경물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하늘 한복판에 추운 달님 하얀데	天心霜月白
구름 너머로 기러기 소리 길게 들리네	雲外鴈聲長
맑은 경치가 시흥을 재촉하기에	清景催詩興
시 읊조리며 차가운 상에 앉는다고	沈吟坐冷床

11월 14일 새벽에 서리가 눈처럼 두텁게 쌓였다.

처갓집에서 내일 며느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팔진(八鎭)에 갔다. 배둔(背屯)에서 말여물을 주었는데 주인이 출타 중이라 계집종을 불러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어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필마를 타고 찾아오니	匹馬來相訪
소나무 언덕에 자리 절로 차갑구나	松壇席自寒
채찍 휘두르며 부질없이 돌아가다가	征鞭空往返
학을 불러 평안한 소식 알리노라	喚鶴報平安

11월 16일 흐렸으나 날씨는 따뜻했으며 저녁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지자 퍼붓듯이 내렸다. 신행(新行)이 비를 맞으며 왔다. 후행(後行 후객(後客))<sup>79)</sup>은 바로 신부의 숙부 서원주(徐元柱)였다.

11월 17일 비가 개었다.

11월 18일 동지. 날씨가 매우 춥고 북풍이 심하게 불었다. 돌아가던 중 석전치(石田峙)에 이르러 생원 최규(崔珪)를 만나서 말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다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9일 추웠다. 그제서야 《구운몽(九雲夢)》을 구해 한 번 읽어보았다.

11월 20일 매형 이여섭(李汝涉)과 함께 계동(契洞)에 사는 문유사(文有司)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예식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

79) 후행(後行) : 기출

11월 21일 날씨가 온화하였다.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2일 날씨가 추웠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이 왔다.

11월 23일 날씨가 추웠다. 우산(牛山)에 사는 형수(兄嫂)가 해산해서 여아를 낳았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이 돌아갔다.

11월 24일 날씨가 추웠다. 《기조(箕藻)》와 《찬영(纂英)》<sup>80)</sup>을 필사하였다.

11월 25일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청어(靑魚)를 천신(薦新)<sup>81)</sup>하였다.

11월 26일 대구어(大口魚)를 천신하였다.

11월 27일 따뜻하였다.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전질 16권을 전(錢) 4관(貫)을 주고 샀다. 남산(南山) 아래에 사는 벗 박범석(朴範錫)이 방문하였다.

11월 28일 향교에 통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향교에 들어갔다. 가동(可洞)<sup>82)</sup>에 사는 칠촌 이 적(以迪)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11월 29일 큰 눈으로 땅이 뒤덮였다. 집으로 돌아갔다.

12월

12월 1일(갑자) 《사기》와 《한서》 책갑을 만들었다.

12월 2일(을축) 날씨가 추웠다.

12월 3일(병인) 날씨가 추웠다. 아버님이 가동(可洞)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셨다. 통영에 사는 김명흡(金命歙)이 방문하자 종일토록 바둑을 두었다.

12월 4일(정묘) 날씨가 추웠다. 장식하고 옷칠한 찬합(饌槩)이 통영에서 왔다. 이날 눈이 휘 날리며 떨어졌다.

12월 5일(무진)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가끔 눈이 오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

**80)** 《기조(箕藻)》와 《찬영(纂英)》 : (책명)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표작을 모은 시선집 《기아(箕雅)》인 듯하나, 미상이다.

**81)** 천신(薦新) : (민속) 철 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이다.

**82)** 가동(可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에 위치한다. 가동에는 강성주(姜聖周), 강도희(姜道羲), 제하백(諸夏伯), 제하봉(諸夏封) 등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구상덕은 뒷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동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12월 6일(기사) 날씨가 추웠다. 벗 박범석(朴範錫)과 바둑을 두면서 소일하였다.

12월 7일(경오) 날씨가 추웠다. 고성 사또가 소고기와 술을 장만하여 부민(富民)을 소집해서 대접하면서 권분(勸分)<sup>83</sup>해서 진흙 자급에 보탬을 주도록 청했다. 이날 처갓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2월 8일 날씨가 추웠다.

12월 9일(임신)

12월 10일(계유) 추웠다. 20동(銅)으로 거구어(巨口魚) 2마리를 샀다.

12월 11일 추위가 혹독하였다.

12월 12일 춥고 바람이 불었다.

12월 13일 따뜻하고 바람이 없었다. 김명흠(金命欽)이 또 방문하였다.

12월 14일(정축) 눈이 몇 치나 쌓였는데 밤중에 갑자기 날씨가 개었다.

12월 15일(무인) 밤에 보니 눈 속 달빛이 휘영청 밝고, 소나무가 새하얀 명주 같았다. 시인(詩人)과 묵객(墨客)의 흥취가 꽃피고 따뜻한 봄날 성곽의 시절보다 더 좋았다. 만일 왕공(王公)이 이런 경치를 보았다면 일엽편주 타고 하필 산음(山陰)을 방문했겠는가.<sup>84</sup>

12월 16일(기묘) 따뜻했다가 추웠다 했는데 바람은 없었다.

12월 17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 추웠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갔다가 곧 돌아오셨다. 계동(契洞)에 있던 누님이 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조(租) 5승(升)으로 남초(南草) 1과(把)를 샀다.

12월 18일(신사) 따뜻하였다.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방문하였다.

12월 19일(임오) 따뜻하였다. 대아(大雅) 우홍범(禹洪範)이 와서 말안장을 빌려갔다.

12월 20일(계미) 춥다가 따뜻했다가 하였다. 근래 한질(寒疾)이 있어 이불 덮고 땀을 줄줄 흘렸다. 계동에 사는 매형이 돌아갔다.

**83** 권분(勸分) : (제도) 고을 수령이 관내(管内)의 부자에게 권하여 극빈자를 구휼(救恤)하게 하는 것.

**84** 산음(山陰)을 방문했겠는가 : (고사)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눈 내린 밤에 친구 대규(戴逵)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산음에서 배를 저어 섬계(剡溪)의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任誕》 여기에서는 이곳의 경치가 산음보다 더 좋다는 말로 쓰였다.

12월 21일(갑신) 따뜻하였다. 상인(喪人) 이귀징(李龜徵)이 개토(開土)<sup>85</sup>하는데 아버님이 가서 보았다.

12월 22일(을유) 따뜻하였다. 아버님이 김선명(金先明)의 일로 점발(占發)과 정시적(丁時迪)을 데리고 진주(晉州) 소촌(召村)으로 갔다.

12월 23일(병술) 햇벌이 나왔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가리(加里) 이장의(李掌議)가 방문하였다.

12월 24일(정해) 따뜻하였다. 생원 우홍주(禹洪疇)가 환자[還上]를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통영(統營)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내가 조(租) 몇 말[斗]로 급한 사정을 구제하였다. 매형 이여섭과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이상인(李喪人)의 산역(山役)을 보았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12월 25일(무자)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12월 26일(기축)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또 향교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12월 27일(경인)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우산(牛山)에 사셨던 이좌수(李座首)의 장지(葬地)를 팔천산(八泉山)에 정하였는데, 상여가 마을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버님이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정리(情理)로 월치(月峙)<sup>86</sup> 길 왼쪽에서 제전(祭奠)하였다. 또 향교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이는 회강(會講)의 일을 연유한 것이다. 생원 남이규(南以奎)가 방문하였다. 당시 좌수였던 생원 최진중(崔震宗)이 환자를 미납한 건으로 통영에서 장(杖) 10대를 맞았다.

12월 28일(신묘) 햇벌이 나고 바람이 차가웠다. 또 읍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9일(임진) 햇벌이 나와 따뜻했는데 바람이 약간 불었다. 아버님이 술과 음식을 장만해 고연리(古延里)에 사는 정노(正奴)가 갓을 쓰는 예식[着笠]에 직접 갔다.

12월 30일(계사) 매우 따뜻하고 청명하였다. 정노협(丁老峽)이 외손주 사위 황치흥(黃致興)을 맞이하였다.

병오년(1726, 영조2)

1월 3일 입춘(立春), 18일 우수(雨水).

1월 1일(갑오) 새벽부터 아침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아버님이 고연리(古延里)에서 돌아오셨다.

**85)** 개토(開土) : 피를 쓰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86)** 월치(月峙)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銀月里)에 있다. ‘달(月)’자와 고개를 뜻하는 ‘치(峙)’자를 합하여 ‘월치(月峙)’라고 하였으며 ‘월치고개’ 또는 ‘달티고개’라고도 부른다.

1월 2일(을미) 햇볕이 나왔지만 추웠다. 벗 박범석(朴範錫)과 생원 최석경(崔錫慶)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했다. 두 형님이 읍으로 들어갔다.

1월 3일(병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생원 이호징(李虎徵)과 갈산(葛山)에 사는 여러 백씨(白氏)들, 그리고 계동(契洞)과 갈산(葛山)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를 파하였다. 곡산(曲山)에 사는 재종형(再從兄) 재원(再元)의 상(喪)이 있었다.

1월 4일(정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큰 형님이 새 집을 짓는데, 오늘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하였다. 갈산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1월 5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원 우홍주(禹洪疇)와 벗 박사도(朴師道)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파했다.

1월 6일(기해) 미풍이 불고 갑자기 추워졌다. 생원 안서구(安瑞壽)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했다.

1월 7일(경자) 인일(人日).<sup>87)</sup> 서풍이 불고 차가웠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이 와서 유숙하였다.

1월 8일(신축) 조모님 기제사를 지냈다. 아침부터 서풍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계동(契洞)에 사는 초관(哨官) 정한주(鄭翰周)가 사위를 맞이하기 때문에 정재종(丁再從)과 정재장(丁再長)과 함께 가서 예식을 보았다가 한 밤중에 돌아왔다.

1월 9일(임인) 아침에는 바람이 없다가 식후에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나는 진성(晋城)에 사는 생원 정림일(鄭林一)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도 추워 사람과 말이 모두 피로했기 때문에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광점(李光漸) 댁에서 묵었다. 그 댁에서 양산(梁山) 최응린(崔應麟)과 밤중에 대화를 나누었다.

1월 10일(계묘)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진성(晋城)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1월 11일(갑진) 혹한(酷寒)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2일(을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13일(병오) 온화하였다. 장의(掌議) 이국주(李國柱)가 방문했다가 이어 남촌(南村)을 향해 떠나갔다.

---

**87)** 인일(人日) : 음력 1월 7일의 별칭이다.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6일까지 각각 차례로 닭·개·돼지·양·소·말을 점치고 나서 7일에 사람을 점치고 8일에 곡식을 점치는데, 기후가 청명하고 온화하면 번식과 안태(安泰)를 미리 알 수 있고, 기후가 음한(陰寒)하고 참렬(慘烈)하면 질병과 쇠모(衰耗)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1월 14일(정미) 잔설이 땅에 떨어지고 동풍이 약간 불어왔다. 식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으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1월 15일(무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흐림과 맑음이 서로 반반이었다. 달이 탑(塔) 위로 올라왔는데, 노인들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하였다.

1월 16일(기유) 증조부님 기제사를 지냈다. 새벽에 구름이 하늘을 가리다가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렸다. 가동(可洞)에 사는 유사(有司) 강성주(姜聖周)가 방문하여 밤새토록 문장에 대해 토론하였다.

1월 17일(경술) 비가 개고 동풍이 불어 추웠다. 이날 은정(銀亭)<sup>88</sup>의 신(神)에게 동제(洞祭)를 치렀다. 강악봉(姜岳奉)과 김태방(金太方)이 그 일을 맡았다. 은정에서 치르는 제사는 경자년 우역(牛疫)이 크게 발생했을 때 효험을 보아 시작하게 되었다.

1월 18일(신해) 매우 추웠다. 이광점(李光漸), 유창수(柳昌壽), 남국승(南國升)<sup>89</sup> 등 20여 명과 함께 옥천사(玉泉寺)<sup>90</sup> 관음전(觀音殿)에서 거접(居接)하였다.

1월 19일(임자)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이날부터 제술(製述)을 시작하였다.

1월 20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쌓인 눈이 녹으려고 하였다.

1월 21일(갑인) 날씨가 따뜻하였다.

1월 22일(을묘)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생원 광기한 사종(郭起漢士宗)이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1월 23일(병진) 날씨가 따뜻하였다. 접장(接長) 정생원(鄭生員)이 도착했고, 생원 이광점(李光漸)은 부모님을 뵈려고 갔다.

1월 24일(정사) 쌓인 눈이 녹았다. 거접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모아 정생원에게 지급하였다.

---

**88** 은정(銀亭)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율리에 있다. 거류산 아래에 위치한 은정에서는 활터가 있어 무인들이 무과시험을 보거나 시합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동제(洞祭)를 치른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은정에서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구상덕이 축문을 짓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적 조사(弔事)가 있을 경우 망곡례(望哭禮)를 행하던 장소였다.

**89** 남국승(南國升) : (인물) 본관은 의령(宜寧), 자(字)는 사진(士晉), 호(號)는 내와(耐窩)이다. 이안재(易安齋) 정기림(鄭起林)에게 학문을 익혔고, 제산(霧山) 김성탁(金聖鐸)과 구와(懼窩) 이광점(李光漸)과 교우 관계가 있었다.

**90** 옥천사(玉泉寺) : (건물)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에 있다. 옥천사는 676년(문무왕 16)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 고려 진각국사(眞覺大師)가 중건한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으며 해방 이전만 하더라도 옥천사 규모는 경상남도 지방에서 손꼽히는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구상덕이 과거공부를 위해 벗들과 자주 거접(居接)하였던 산사(山寺)로, 그 곳의 승려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구상덕의 아들 구봉관(仇鳳觀)도 공부를 위해 옥천사에서 거접하였다.

1월 25일(무오) 햇벌이 나고 추웠다. 이진여(李進汝)가 올라 왔다. 오후에 잠깐 비가 내렸다. 정생원이 마암(馬岩)<sup>91)</sup>을 향해 갔다.

1월 26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스님 회은(會恩)이 막걸리를 주자 나는 2잔을 마셨다.

1월 27일(경신) 햇벌이 나고 따뜻하였다.

1월 28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정선생(鄭先生)이 마암(馬岩)에서 소사(蕭寺)에 도착하였다. 백일장을 치렀는데 내가 장원을 차지했다.

1월 29일(임술) 조금 따뜻해졌다.

1월 30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장 정선생(鄭先生)이 진성(晋城) 본가로 되돌아갔다. 과거시험 날짜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제술(製述)을 중지하고 각자 시가(詩歌)를 읽었는데, 나는 성당시(盛唐詩)<sup>92)</sup>를 읽었다. 밤 삼경(三更 밤11 시에서 새벽1시 사이)에 동풍이 크게 불었다.

2월 소월(小月). 3일 경칩(驚蟄), 18일 춘분(春分).

2월 1일(갑자) 아침에 구름이 끼었으나 얼마 뒤에 걷혀 매우 맑아져 따뜻하였다.

2월 2일(을축) 햇벌이 나와 따뜻했으나 가끔 동서풍이 불어 갑자기 추웠다.

2월 3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불경(佛經)을 보았는데, ‘하루아침에 고향 길 밟으니 중도에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비로소 느끼네[一朝踏着家鄉路, 始覺中途日月長]’라는 구절이 있어, 마음 느끼는 점이 있었다.

2월 4일(정묘) 잠깐씩 해가 났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이진여(李進汝)가 또 기제(忌祭)를 치르기 위해 내려간다고 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다른 벗들이 파접(罷接)하려고 해도 그대는 뜻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마시게.”라고 거듭거듭 말하였다. 오후에 청계당(淸溪堂)으로 이접(移接)했다.

2월 5일(무진) 동풍이 갑자기 불고 소낙비가 내려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다.

---

**91)** 마암(馬岩)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馬岩面)이다. 고성읍에서 13km 동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회화면, 남쪽은 고성읍과 거류면, 서쪽은 대가면과 개천면, 북쪽은 구만면과 접하고 있다. ‘마암’이라는 명칭은 마암면 석마리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옆에 화강암으로 만든 2구의 말(馬) 조각상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 말 조각상은 시도민속자료 제1호(경남)이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암에는 구상덕의 형님이 살았고, 또한 마암에는 강수룡(姜守龍)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1756년 윤8월 7일 구상덕이 그 곳 묘소를 둘러보고 왔다.

**92)** 성당시(盛唐詩) : 성당(盛唐)시기 즉, 개원연간(713~741)과 천보연간(742~755)의 시를 가리킨다. 당나라의 최전성기로, 문학 역시 아름다운 수사(修辭)가 극도로 발달하였다.

2월 6일(기사)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2월 7일(경오) 아침에 따뜻하다가 저물녘에 바람이 불었다. 이진여가 사내종을 보내 나를 만류하였는데, 내가 머무를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별감(別監) 배순석(裴舜錫)이 와서 방문하였다.

2월 8일(신미) 따뜻하였다.

2월 9일(임신) 아침부터 흐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내가 불목하니[負木漢]<sup>93</sup>를 집에 보내 사내종과 말이 함께 오도록 하였다.

2월 10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사내종과 말이 도착했는데, 생원 김유문 계환(金有文啓煥)이 말을 빌려 타고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월 11일(신술) 새벽부터 큰비가 내렸다. 사내종과 말이 김계환(金啓煥) 집에서 아직 오지 않았다. 오후에 대아(大雅) 남국승(南國升 자(字)가 사진(士進))의 사내종과 말이 도착하자 어서 재촉해서 돌아갔다. 나는 입으로 나오는 대로 읊조려서 이별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잠시 지팡이 짚고 화봉에 이르러	暫擲幽筇到華峯
함께 시와 술로 봄바람을 애석해했지	共將詩酒惜春風
사귀는 정이 너와 나 구별 없다 말했으니	交情自道無人我
사는 곳이 같고 다름을 어찌 따지랴	居地寧論有異同
옥동의 연하는 시에다가 읊조렸고	玉洞烟霞吟嘒裡
청산의 구름과 달은 담소 나누었는데	碧山雲月笑談中
진세의 소식에 한가한 꿈 놀라 깨어	塵寰消息驚閑夢
슬퍼라 이별 회포 물은 동으로 흐르구나	悵缺離懷水注東

2월 12일(을해)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종과 말이 늦게야 두곡(杜谷)에서 왔다. 습한 구름이 온 산을 휘감고 서산의 해가 고개에 저물기 때문에 내가 출발할 수 없어 그대로 소사(蕭寺)에 머물러 홀로 탈원 대사(脫遠大師)와 대화를 나누었다.

2월 13일(병자)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였다. 경치를 보다가 탈원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한시를 읊어주었다.

어제 내린 비가 막 걷혀 밤빛 맑아지니	宿雨初收夜色晴
온 산의 광경이 정신과 합치되네	滿山光景契神精
바람은 안개를 불어 제천 <sup>94</sup> 이 맑아졌고	風吹慧霧諸天淨

**93)** 불목하니[負木漢] : 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길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94)** 제천(諸天) : 여러 신상(神像)이 모셔져 있는 곳이란 뜻으로, 사찰의 별칭이다.

달님은 빈 숲을 비취 자던 새가 놀라는데 月照空林宿鳥驚  
 봄 깊어 석탑에 고운 풀 푸르러지고 石榻春深瑤草綠  
 비 넉넉해 경단에 자주빛 영지 돌아나네 瓊檀雨足紫芝生  
 맑은 계곡에 복숭아나무 심지 말아야하니 清溪莫種桃花樹  
 뒷날 속객들 발걸음을 인도할까 두려워라 恐引他時俗子行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4일(정축)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성당시(盛唐詩)를 읽었다.

2월 15일(무인) 아침부터 해가 나왔으나 저물녘에는 구름이 끼었다. 구천(九天)이 통하고 구천이 열리는 꿈을 꾸었다.[夢九天通九天開] 초저녁에 가랑비가 내려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2월 16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벗 이희삼 대지(李希參 大之)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2월 17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많았다. 둘째 형님이 이대지(李大之)와 함께 남촌(南村)의 양무창(養武倉) 감(監) 양기하(梁起河)를 보기 위해 갔다가 왔다. 오후에는 서산(西山)에 갑자기 찬비가 지나갔다.

2월 18일(신사) 새벽꿈에 바닷물이 산에 넘실대자 험한 길을 따라 부여잡고 올라갔다. 봄꽃이 뜰에 가득하자 맑은 술잔을 잡고 읊조렸다. 이날 장의(掌議)인 이기석 군언(李祺錫君彦), 이국주 여직(李國柱汝直), 이국배 춘백(李國培春伯) 그리고 이춘석 희삼(李春錫希參)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했다.

2월 19일(임오) 아침에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다가 황혼 무렵에는 미풍이 살짝 불고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으며, 잠시 후에 비가 갑자기 그치더니 눈이 바람에 날렸다.

2월 20일(계미) 확 트이고 맑았다. 한 밤중 청산에 수많은 나무가 배꽃[梨花]이었는데,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온 산에 차가운 눈이 자연히 녹아 집집마다 처마 아래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올해 춘궁기가 정유년(1717 속종43) 봄보다도 심하였다. 촌락이 썰렁하고 오직 식량 대신으로 칩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2월 21일(갑신) 아침에는 햇볕이 나왔으나 저녁에는 흐리고 동풍이 기세를 부리고 음산한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강금산(剛金山) 길옆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송전(松田) 마을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불을 꺾다.

2월 22일(을유) 흐리고 바람이 불었으나 날씨는 춥지 않았다. 한밤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그쳤는데,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2월 23일(병술) 아침에 보니 산머리에 눈꽃이 하얗게 쌓였다.

2월 24일(정해)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정재명(丁再明)이 장등산(長登山)에서 목을 매고 죽었다. 저물녘에 시신을 찾아서 왔다.

2월 25일(무자) 정노(正奴)를 보내 옥천사(玉泉寺)에서 예전 빌려 먹었던 식량을 갚았다. 이날 이웃집 상(喪)으로 과업(課業)을 빠뜨렸다. 초당에서 봄잠을 자다가 감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한가한 지역 차지하니 특별한 세상이라 点95)得閑區特地天  
작은 계곡 가에 풍진조차 이르지 않구나 風塵不到小溪邊  
우는 새는 봄이 지는 걸 안타까워하는가 啼禽似惜春將晚  
숨어사는 사람의 낮잠을 불러 일으키네 喚起幽人午枕眠

저녁 후 날씨가 흐렸다.

2월 26일(기축) 따뜻하였다. 인제(姻弟) 박군 시화(朴君始華)가 두역(痘疫 홍역)을 잘 치렀다고 들으니,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2월 27일(경인) 하늘이 맑고 미풍이 불었다. 초당에서 홀로 술 마시다가 경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맑고 깨끗한 초당 몇 칸 지어놓으니 瀟灑茅齋結數間  
대 울타리와 꽃 언덕이 푸른 시내 둘렀네 竹籬花塢碧溪環  
소나무 덩굴 비친 달빛에 술잔 기울이니 淸樽更酌松蘿月  
세상만사에 무심히 등한시하리라 萬事無心付等閑

2월 28일(신묘) 청명한데 추웠다.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방문해서 의상암(義湘庵)에서 독서 하자고 날짜를 약속하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월 29일(임진)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 정도 나뉘었다. 날씨가 추워 서늘하였다. 서풍이 불었다.

3월 초4일 청명(淸明), 초5일 한식(寒食), 19일 곡우(穀雨)

3월 1일(계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도령(都令) 우홍범(禹洪範)이 방문했다가 하루 종일 바둑을 두었다.

3월 2일(갑오) 구름이 끼었다. 조(租) 4되로 남초(南草) 10속(束)을 샀다.

---

95) 点 : 占의 오자인 듯하다.



3월 3일(을미) 약간 흐렸다. 심군(沈君)이 와서 함께 의상암에 올라갔다. 심군이 전(錢) 9푼(分)으로 남초(南草) 1과(把)를 사서 선물로 주었다.

3월 4일(병신) 큰 형님이 왔고, 사내중 역시 양식을 굶어지고 왔다. 나는 심군과 안정사(安靜寺)<sup>96</sup>에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어서야 올라왔다.

3월 5일(정유)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왔다. 성당시를 범위를 정해 읽는데 매일 10번씩 읽는 걸 과업으로 삼았다.

3월 6일(무술) 우박이 떨어졌다. 심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3월 7일(기해) 구름이 조각조각 날리고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다.

3월 8일(경자)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암자 스님 천준(天俊)을 보내 집안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3월 9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우며 저녁 즈음에는 우박과 비가 섞여 떨어졌다. 심군이 올라 왔다.

3월 10일(임인) 구름이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비가 절간 처마를 적셨다.

3월 11일(계묘)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이 되자 비가 지나갔다.

3월 12일(갑진) 동풍이 불고 더러는 흐렸다가 해가 났다가 했지만 날씨는 따뜻하였다. 동산(桐山)에 사는 이생원(李生員)의 편지가 왔는데 나와 함께 공부하자고 청하는 내용이었다.

3월 13일(을사) 새벽하늘이 맑디맑았다. 옥동(玉洞)에 먼지라곤 없고, 신기루[海蜃]가 안개를 불어 수면(水面)을 자욱이 뒤덮고 있었다. 조금 뒤에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히자 하늘과 바다가 한 색깔로 어우러졌다. 심군과 함께 제2봉을 올랐는데, 작년 중춘(仲春) 19일에 우리 형제들과 매형 이국즙(李國楫),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 벗 박범석(朴範錫), 그리고 정재장(丁再長)과 함께 노닐었다. 바위에 기록해 적어놓았던 글씨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드디어 그 바위 아래에서 바람을 쐬고 ‘태산(泰山) 높다하되’라는 시조를 노래 부르고 올라갔다가 다시 소암(蕭庵)으로 내려왔다.

3월 14일(병오) 약간 흐렸으나 바람이 없어 날씨가 따뜻하였다. 성당시를 연송(連誦)하는 공부를 끝마치고, 어제부터 우리나라 한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사내중 늦산(麓山)을 데리고 올라왔다.

---

**96** 안정사(安靜寺) : (건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다. 구상덕이 젊은 시절부터 과거공부를 위해 다니던 산사(山寺)로, 인근 양반들과 교유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구상덕 집안은 안정사의 중들과는 수시로 내왕하며 서로 조력(助力)하였다. 《승충명록》에 ‘安靜寺’, ‘安精寺’, ‘安井寺’, ‘安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3월 15일(정미) 산단(山壇)에서 기도를 올렸다. 새벽에 ‘부처가 이르면 즉시 밝아진다[佛到即明]’는 글을 꿈에서 보았다.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고 저녁에 또 가랑비가 내렸다. 아버님이 도로 가셨다. 이날 저물녘 일식이 있었다. 은정(銀亭)의 나뭇잎이 한 번에 일제히 피었다고 한다. 밤새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16일(무신) 큰비가 이른 아침에 내리다가 밤이 되어서야 구름이 걷혔다.

3월 17일(기유) 새벽부터 서풍이 불고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었으나 식후에는 바람이 그치고 따뜻해졌다. 비로소 진달래꽃[杜鵑花]을 맛보고 또 썩떡[艾餅]을 먹었다.

3월 18일(경술) 날씨가 따뜻하였다. 둘째 형님과 두포(頭浦)에 사는 이매형(李妹兄) 그리고 정재종(丁再從)이 올라 와서, 함께 동봉(東峯)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고 날이 저물려고 할 즈음 내려갔다. 나는 심군(沈君)과 함께 그대로 소암(蕭庵)에 머물러 공부를 하였다.

3월 19일(신해) 동풍이 불었다. 오후에 심군과 함께 바위 위로 올라가서 노닐며 구경하였다. 가노(家奴)가 와서 순제(巡題)<sup>97</sup>를 알려 와서 드디어 심군(沈君)과 함께 내려왔다.

3월 20일(임자) 매우 따뜻하였다. 심군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시 한 수를 지었다. 갈산(葛山)에 사는 벗 유선한(柳善漢)이 방문해서 공부하다가 그 자리를 파했다. 갈산에 사는 누님이 왔다.

3월 21일(계축) 비가 내렸다. 오촌 정과총(丁把摠)이 집안에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집에 와서 머물렀다.

3월 22일(갑인)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내렸다. 향교 하인이 와서 순제(巡題)의 시부(詩賦)를 거두어갔다.

3월 23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물녘에 이슬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고 하늘에 우레가 쳤다. 아내는 임신부로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머물게 할 수 없어 친정집으로 가게 하려고 할 작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몸소 갈산(葛山)에 가서 벗 최석경(崔錫慶) 집에서 교마(驕馬) 가마와 가마를 메는 말)를 빌려 오셨다. 갈산 누님이 내려갔다.

3월 24일(병진) 일찍 아침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상령(常令)<sup>98</sup>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렸다. 막 대산(大山)에 도착할 즈음 우박과 비가 한참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고 하늘에 또 우레가 쳤다. 오후에 노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우선 우리집 말은 남겨두었는데 내가 본가로 돌아갈 때 타고 갈 계획 있었다.

3월 25일(정사) 매우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으며 저물녘에 약간 흐렸다. 나는 생원 김중엽

97) 순제(巡題) : (제도) 관찰사나 도사(都事)가 고을을 시찰하면서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이는 시험과 과제를 말한다.

98) 상령(常令) : (지명) 상령역(常令驛)으로, 진해현에서 서쪽 5리 지점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진해현(鎭海縣)》

(金重燁)·중려(重呂) 형제를 방문하였다.

3월 26일(무오) 날씨가 따뜻하고 서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왔다.

3월 27일(기미)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오후에 약간 흐렸다. 대산(大山)을 출발해서 배둔(背屯)에 사는 장의(掌議) 최엽(崔曄), 두포(頭浦)에 사는 장의 이국주(李國柱)를 방문했다가 돌아왔다. 심군(沈君)이 며칠 전에 방문했다가 내 작은 거울을 닦고 갔다.

3월 28일(경신) 비가 내렸다. 처갓집에서 말구종하는 사내종이 왔는데 비에 막혀 돌아가지 못했다.

3월 29일(신유) 비가 그치지 않고 구름이 걷히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대산(大山)에 사는 처갓집 사내종이 돌아갔다.

3월 30일(임술) 햇무리에 구름이 어둑하였다. 5촌 정과총(丁把總)이 지금 또 안생원(安生員) 집에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나는 밤에 안생원 초당(草堂)에서 묵었다.

4월 5일 입하(立夏), 20일 소만(小滿).

4월 1일(계해)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사내종 정산(正山)을 통영에 보내 창감(倉監)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빗을 받고자 한 것이다. 못자리를 밟았다.[踏秧基]<sup>99)</sup>

4월 2일(갑자)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진주에 사는 대아(大雅) 정중걸 겸삼(鄭仲杰兼三)이 방문하고 계속 머물렀다. 마구간 똥을 치웠다.[出廄糞]

4월 3일(을축) 구름이 질게 끼었다. 정겸삼(鄭兼三)이 황리(黃里)<sup>100)</sup>에 사는 좌수 허표(許標)의 우소(寓所 임시 처소)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또 머물렀다. 저물녘에 구름이 걷혔다.

4월 4일(병인) 동풍이 불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정겸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종자성책(種子成冊)을 관아에 올렸다.

4월 5일(정묘) 동풍이 불어 나뭇가지에서 소리가 났다. 원산(園山)에 올라 노닐고 구경하다가 왔다.

4월 6일(무진) 동풍이 불었다.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의상암(義湘庵)에 올라서 그대로 머물

<sup>99)</sup> 못자리를 밟았다.[踏秧基] : 봄날 우마(牛馬)를 몰고 나와 종일 밟는데, 이를 ‘답전(踏田)’이라 한다. 이는 푸석한 흙성질을 이랑하기 위해 좋게 하는 것이다. 《연암집(燕巖集) 권17 별집(別集) 과농소초(課農小抄) 과곡(播穀)》

<sup>100)</sup> 황리(黃里) : (지명)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이다. 고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통영시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원래 고성현에 속했다.

러 공부하였다.

4월 7일(기사) 아침에 바다 안개가 산을 감싸더니 식후에 조금씩 흩어졌다가 저녁에 또 산 봉우리를 둘러쌌다.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대사(大寺)에 내려갔다가 저녁에 암자로 돌아왔다.

4월 8일(경오)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4월 9일(신미) 햇볕이 나고 바람이 없었다. 새벽에 산에서 기도했다.

4월 10일(임신) 아침에 흠비가 내리고 저녁에 서풍이 불었으며 한 밤중에 비가 내렸다.

4월 11일(계유) 서남풍이 불고 비가 또 쏟아졌다. 한낮에는 비가 그치고 햇볕이 보였다.

4월 12일(갑술) 안개가 비로 바뀌고 서풍이 또 불었으며, 저녁 즈음 구름이 흩어졌다.

4월 13일(을해) 구름이 없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4월 14일 날씨가 청명했다. 정형(丁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5일(정축) 날씨가 청명했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이 와병(臥病)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가서 안부를 묻고, 겸하여 생원 남이규(南以圭)와 생원 이기징(李琪徵)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도로 음법(陰法)에 사는 장의(掌議) 이석임 대수(李錫臨大壽)를 방문했는데, 생원 허겸익(許謙益)이 와서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하였다. 송도(松道)<sup>101</sup>에 이르러 침지 박헌장(朴憲章)을 길에서 만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군(沈君) 집에 도착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비 올 기색이 있었다.

4월 16일(무인) 흐렸다가 저물녘 비가 내렸다.

4월 17일(기묘) 빗줄기에 시냇물이 소리 내며 흐르고 더러 햇볕이 나왔다. 근자에 집에서 있으면서 매일같이 안생원(安生員) 초당(草堂)에 가서 바둑을 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도공(陶公 도간(陶侃))이 도박판을 강에 던져버린 일<sup>102</sup>은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

4월 18일(경진) 비가 갑자기 내렸다.

4월 19일(신사) 구름이 멀리 산머리에 끼었으며 종일토록 바람이 불고 또 차가웠다. 오후에

---

**101)** 송도(松道)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이다. 구상덕의 문생인 심도행(沈道行)의 집이 있어 종종 유숙하였다.

**102)** 도공(陶公)……일 : (고사) 진(晉)나라 형주자사(荊州刺史) 도간(陶侃)이 여러 참좌(參佐 보좌관) 중에 혹 술 마시고 유희나 하면서 일을 폐하는 자가 있자, 그 술그릇과 주사위 도구들을 빼앗아 모두 강에 던져 버리게 하고 이장(吏將)에게는 매를 때리면서 이르기를, “주사위 놀이는 돼지 먹이는 놈이나 하는 유희이다.[樗蒲者 牧猪奴戲耳]”라고 했다. 《小學 善行》

비가 갑자기 내리고 구름이 동쪽으로 갔다. 밤중에 자규새 울음소리를 듣다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촉나라 임금 <sup>103</sup> 어느 해에 자규새 되었는지	蜀帝何年化爲鳥
봄날마다 나무 위에 올라 높이 깃들었네	每依春樹作危棲
돌아갈 생각에 밤마다 가슴의 피 토하는데	思歸夜夜嘔心血
울음 그친 빈산에 달은 서쪽으로 기울구나	啼罷空山月欲西

4월 20일(임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 들판 시냇물이 졸졸 흐렸다. 피꼬리가 울면서 나뭇가지 이곳저곳에서 벼를 부르니, 사람에게 골짜기에서 나오게 하는 감홍<sup>104</sup>을 가지게 하였다. 또 안생원 댁에 가서 바둑을 두면서 남초(南草) 내기를 했는데 한중채(韓重采)에게 사오게 하였다.

4월 21일(계미) 얽게 구름이 끼었다. 생원 우홍주(禹洪疇)와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나는 김중련(金重鍊)의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서봉갑(徐鵬甲)·서명갑(徐命甲)·이동신(李東臣)·제군(諸君)과 충렬사(忠烈祠) 서재(書齋)에서 묵었다.

4월 22일(갑신) 날씨가 청명했다. 통영에 머물렀다.

4월 23일(을유) 이군 동신(李君東臣)의 집에서 저녁밥을 먹었다.

4월 24일(병술) 아침에 벼 김중련 댁에서 식사를 보내주어 우청(右廳)에 들어가 먹었다. 이날 밤에 김군 세보(金君世寶)와 함께 충렬사에서 묵었다.

4월 25일(정해) 또 김군과 함께 충렬사에서 묵었다.

4월 26일(무자) 염이도(廉以道)의 혼례식을 가서 보았다. 이날 저녁에 또 김군 세보(金君世寶)·이군 동신(李君東臣)과 함께 충렬사에서 묵었는데, 운자(韻字)를 부르자 내가 드디어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촛불 꺼진 앞마을 한 밤중에 어두운데	火滅前村夜不明
두견새 울음 그치니 개구리 소리 시끄럽네	子規啼罷亂蛙鳴
그대들은 시재가 있다고 말하지 마소	諸君莫道詩才足
운자 부르면 한참동안 시구 짓지 못하면서	呼韻移時句未成

**103** 촉나라 임금 : (고사) 중국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촉(蜀)나라의 망제(望帝) 두우(杜宇)가 만년에 자기 재상에게 제위를 선양하고 스스로 도망쳐 원통하게 죽었는데, 그의 넋이 두견(杜鵑)으로 변하여 늦은 봄이나 초여름 무렵이면 항상 밤낮으로 애절하게 울어 피를 토하고서야 그친다고 한다.

**104** 사람에게 골짜기에서 나오게 하는 감홍 : (고사) 원문 '출곡지감(出谷之感)'은 원래 《시경(詩經)》 〈소아(小雅) 벌목(伐木)〉에 “나무들 쩡쩡 찍는데, 새가 울더니,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가네.[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한 데서 온 말로, 흔히 세상에 대한 진출, 출사(出仕) 등을 비유한다.

이 한시로 기롱하자 좌중이 한바탕 웃고 파였다.

4월 27일(기축) 양무창(養武倉)에서 1분(分)의 편리(便利) 전(錢) 30관(貫)을 내와 어둔(於屯)에게 짐을 지게 하였다. 김중련(金重鍊)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어둔이 아침을 먹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내가 먹을 음식을 쥐서 먹게 하였다. 정석봉(鄭碩鳳) 집에 도착해서 소주(燒酒) 세 잔을 마시고 출발하였다. 죽림(竹林)에 이르러 무척 배고프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 요기를 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 팔천촌(八泉村)을 지날 적에 벌써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걸을 때마다 미끄러져 자빠졌다. 바야흐로 집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모두 잃어 인사(人事)를 살필 수 없었다.

4월 28일(경인) 구름이 산봉우리 모양을 만들고 세찬 바람이 누그러졌다. 올봄 보리농사가 근년 들어 처음으로 풍년이 들었기에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바람 부는 발두독에 보리가 일렁이자      風吹麓上麥油然  
촌로들 앞 다투어 대풍년이라고 전하네      野老爭傳大有年  
이제부터 가난뱅이도 살아갈 수 있으리니      從此貧民將得活  
우리 임금님의 성덕이 하늘만큼 크다오      吾王聖德至如天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왔다.

4월 29일(신묘) 남풍이 불고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 비가 갑자기 내리더니 밤에도 내렸다. 우생원(禹生員)이 통영에서 구류되었는데, 며칠 빗을 갠지 못했다가 오늘 집으로 돌아갔다.

5월 대월(大月). 7일 망종(芒種), 23일 하지(夏至).

5월 1일(임진) 비가 이른 아침부터 내리다가 식후에 비가 개고 해가 나왔다.

5월 2일(계사) 찌는 듯이 더웠다. 사또가 관아에서 나와 시장대(試場臺, 과거시험 장소로 사용하는 대(臺))에서 삭선미(朔膳米) 약간을 동면(東面)의 굶주린 백성에서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였는데, 사람마다 1되 5홉을 지급했다. 올벼[早稻]를 이앙했다. 대체로 올봄 춘궁기는 근년 이래 제일 심하였다. 조정에서 농사를 특별히 우려하시어 대동(大同) 삭선미를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그 성덕이 지극하다. 그런데 간사한 아전들이 그 사이에서 모두 몰래 훔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본현의 경우 쌀 46섬을 제획(除劃)<sup>105</sup>하였다고 한다.

5월 3일(갑오) 보리를 수확하였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송정(松亭)에 사는 생원 양석제(梁錫濟)와 생원 허하(許夏)를 가서 만났다. 비가 내렸다.

105) 제획(除劃) : (제도) 획급(劃給)을 가리키는 것으로, 뭇으로 떼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5월 4일(을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대지는 화로처럼 뜨거웠다. 이날 아침 갈산(葛山)에 사는 매형 덕 계집종이 왔기에 내가 매형 안부를 물으니, 계집종 말이 '부역신이 정치를 못 해 화덕이 드디어 쇠퇴해 졌습니다.[寵王不修政, 火德遂衰]'라고 말하였다. 내가 미모(米牟 쌀보리) 5되를 보내주었다. 익모초(益母草)와 쑥을 베었다.

5월 5일(병신) 단오(端午). 비가 오후부터 밤까지 그치지 않았다. 현재 수많은 이웃집은 모두 양주(釀酒)하는 데가 없다. 오직 우리 집과 큰 형님 덕만이 술과 음식을 대략이나마 갖추어 단오절 음식에 이바지하였다.

이날 작은 학을 보니, 교외에서 슬프게 울면서 날지 못하였다. 나는 가서 보니 학의 몸에 상처라고는 전혀 없었다. 괴이한 일이다. 이 무슨 병에 걸린 것인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택하지 못하고 연연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구름 창공을 가로질러 나르던 학이 도리어 메추라기나 참새에게 비웃음을 당한 것이다.

5월 6일(정유)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5월 7일(무술) 날씨가 청명하고 미풍이 불었다. 속설에 도미어(道味魚)가 많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지난해 도미어와 오징어[烏賊魚]가 많았고, 지지난해 징어(徵魚 멸치)가 많았는데 과연 흉년이 들었다. 금년 이러한 물고기가 없으니, 이 또한 길조인가. 또 올해 봄비가 순조롭고 적절하여 농사짓는 집에서는 가뭄 걱정이 없으니 다행스럽다. 저녁에 동풍이 한 무리 구름을 불어와 벽방산 꼭대기를 가렸다.

5월 8일(기해) 조각구름이 떠다녔다. 이때 일찍 파종한 콩이 막 두세 잎이 생겼는데 비둘기가 잎이 나오는 대로 따 먹어버려 다시 파종한 사람이 많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또 과실의 경우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배꽃[梨花]이 더욱 심하니, 봄날이 춥고 서리가 많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5월 9일(경자) 더러 흐렸다가 해가 나왔다. 우생원(禹生員)이 마구간 똥을 신고 운반하는 걸 보니, 하루 종일 그치지 않고 일을 하였다. 생각해 보니 내 나이 스물한 살 동안 호미를 잡고 밭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른바 종이책 보는 공부조차도 각고의 노력을 하지 못했으니, 성인의 가르침 속에 죄인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5월 10일(신축) 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저물녘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물이 나왔다. 조지산(曹芝山 조호익(曹好益)) 선생의 운자를 써서 소회를 부치거나 혹은 경물을 읊조려 의탁하거나 혹은 남관(南關)의 벗에게 보냈다.

비가 소나무 언덕을 씻은 뒤	雨洗松壇後
임천의 경물이 새로워졌는데	林泉景物新
책을 안고 종일토록 누워 있으니	抱書終日臥
세상일은 나와 상관없어라	塵事不關身

또

구름은 푸른 산봉우리 너머로 돌아가고      雲歸青岬外  
새는 푸른 계곡 가에서 지저귀는데      鳥喚碧溪邊  
석탑에는 진세의 일이라곤 없으니      石塔無塵事  
숨어사는 사람은 잠이나 자네      幽人只做眠

또

관중과 포숙아<sup>106</sup> 살다간 천년 후에      管鮑千秋後  
깊은 우정은 우리 두 사람뿐인데      深交我二人  
구름과 나무<sup>107</sup> 너머에서 그리워하니      相思雲樹隔  
몇 번이나 봄날을 허송하였던가      虛送幾番春

또 다음과 같이 대나무를 읊다.

금빛 햇살 체질이 사랑스레 바라보고      愛見篩金影  
대숲 스친 바람 소리 기쁘게 들노라      欣聽抽玉風  
말세에도 푸름 머금은 말쑤에      時未<sup>108</sup>含碧語  
맑은 흥취 또한 다함없어라      清興亦無窮

5월 11일(임인)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더웠다. 농가(農歌)가 사방 들판에서 들리고, 앵무새가 온 나무들에서 매끄럽게 울어댔다.

5월 12일(계묘)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5월 13일(갑진) 이슬비가 내리다 말다가 하였다.

5월 14일(을사) 안개가 자욱하니, 근래 어찌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한 징조가 아니겠는가. 집에 앵두가 한창 익어 따다가 쟁반 가운데 담아보니 알알이 구르기에 장난스럽게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삼천의 공<sup>109</sup>을 채웠는가      三千功滿否  
구전환단<sup>110</sup> 이루어졌네      九返紫丹成

**106**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 : (고사) 춘추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훗날 관중이 말하기를 “나를 낳아 준 분은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아였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62 管仲列傳》

**107** 구름과 나무 : (고사) 원문의 ‘운수(雲樹)’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두보(杜甫)가 지은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에 “위수 북쪽 봄날의 나무 한 그루, 장강 동쪽 해질녘 구름이로다.[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108** 未 : 末의 오기인 듯.

**109** 삼천(三千)의 공(功) : (고사) 당나라 때의 신선 여동빈(呂洞賓)은 삼천의 공을 이루고, 팔백 행실이 원만하였다고 한다.



어찌 꼭 경장 <sup>111</sup> )을 마셔야하나	何必瓊鬢飲
옥로 <sup>112</sup> )도 마실 필요 없다오	不須玉露傾
몇 번이나 짧은 인생 <sup>113</sup> ) 탄식하며	幾多嘆駭隙
이젠 요경 <sup>114</sup> )에 오르려고 했던가	今欲上瑤京
구름 위 나는 학을 타기 어려우니	雲嶋如難駕
봉황 부르는 생황을 나는 배우리라 <sup>115</sup> )	吾始學鳳笙

우습고 우습다. 최선여(崔善餘)<sup>116</sup>)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5월 15일(병오) 구름이 많고 햇별이 적었다. 아버님이 매형 이어섭과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남촌(南村) 술자리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5월 16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서늘했으며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5월 17일(무신) 흐렸다가 햇별이 나왔다가 저녁에는 비가 몇 차례 내렸다.

5월 18일(기유)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5월 19일(경술) 구름과 안개가 생겼다가 사그라지고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서남쪽 하늘이 천둥이 크게 쳐서 마치 대포를 쏘는 듯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니, 이는 천변(天變)이다. 지난 무술년(1718 속종44) 7, 8월 사이 청천대낮에 수차례 천둥이 쳤는데 사람들이 천고(天鼓)라고 하고 어떤 이는 천포(天砲)라고 하였다. 기해년(1719 속종45) 겨울에 양전(量田)을 시행하였고, 경자년(1720, 속종46)에 숙묘(肅廟 속종)께서 승하하셨다. 오늘 하늘에서 천둥이 친 것이 또한 무술년과 같으니, 이 또한 흉년의 징조인가.

5월 20일(신해) 식후에 또 비가 내리고 저녁 내내 남풍이 세차게 불었다.

**110)** 구전환단(九轉還丹) : 도가(道家)에서 제조하는 장생불사약(長生不死藥)을 가리키는데, 구전단(九轉丹) 또는 금단(金丹)이라고도 한다.

**111)** 경장(瓊漿) :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飲料)를 가리킨다.

**112)** 옥로(玉露) : (고사) 한(漢)나라 무제(武帝)는 신선이 되고자하여 구리로 신선의 손바닥을 만들어 옥처럼 맑은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전한다.

**113)** 짧은 인생 : (고사) 원문의 ‘결극(駭隙)’은 구극(駒隙)과 같은 말이다. 망아지가 틈을 지나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비유한다.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흰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人生天地之間 若白駒過隙]”라고 하였다. 《莊子 知北遊》

**114)** 요경(瑤京) : 천제(天帝)가 있는 곳, 또는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115)** 봉황 부르는 생황을 나는 배우리라 : (고사) 원문의 ‘봉생(鳳笙)’은 본래 봉황과 생황을 뜻하는데, 신선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太子) 진(晉)이 일찍이 생황을 잘 불어 봉황(鳳凰)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락(伊洛)의 사이에서 노닐다가 신선 부구공을 따라 숭고산(崇高山)에 올라가 30여 년 동안 선술(仙術)을 닦은 후에 구지산(緱氏山)에서 학을 타고 승천했다고 한다.

**116)** 최선여(崔善餘) : (인물) 구상덕의 벗으로, 갈산(葛山)에 거주하였으며 수시로 서로 방문하며 유숙하였다. 1726년 5월 28일 구상덕은 자신의 여종인 옥비(玉婢)를 보내 최선여 집안의 이양(移秧)을 돕게 하였으며, 그 후 최선여가 곤궁한 지경에 처하자 보리 3두(斗)를 주어 급한 상황을 구제하였다. 그리고 최선여가 종자벼[種租]5두(斗)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5월 21일(임자) 온화하였다. 점쟁이 김여필(金汝弼)<sup>117</sup>이 말하기를, “그저께 하늘 우레가 매우 이상하였기 때문에 점을 쳐서 뇌풍 항괘(雷風恒卦)<sup>118</sup>를 얻어 어제 비바람이 있을 줄 알았으니, 딱 들어맞았습니다.”라고 하였다.

5월 22일(계축)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밤이 되자 비가 그쳤다. 콩을 파종하였다.

5월 23일(갑인) 어제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다가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5월 24일(을묘)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5월 25일(병진) 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26일(정사) 이슬비가 내렸다. 올벼[早稻]를 김맸다.

5월 27일(무오) 햇볕이 약간 나왔다. 소맥(小麥 밀)을 수확했다. 아침 전에 최선여가 방문했는데, 식사 후 작별하고 돌아갔다.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하였다.

5월 28일(기미) 콩과 조를 파종하였다. 옥비(玉婢)를 보내 최선여(崔善餘)가 이양하는 일을 도왔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5월 29일(경신) 큰비가 이른 아침부터 내리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그치고 남풍이 불었다.

5월 30일(신유) 아침에 안개가 사방을 자욱하더니 식후에 뜨거운 햇볕<sup>119</sup>이 마치 타는 듯했다. 대아(大雅) 이국노 원경(李國老元卿)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6월 소월(小月). 초8일 소서(小暑), 24일 대서(大暑), 19일 초복(初伏), 29일 중복(中伏).

6월 1일(임술) 오후에 비가 퍼붓듯이 내려 발가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중지하고 돌아갔다. 이 때 향좌수(鄉座首)는 제하백(諸夏伯), 별감(別監)은 이경석(李慶錫)<sup>120</sup>. 최재전(崔再全)이다.

6월 2일(계해) 아침에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김응화(金應華)가 나이가 59세인데 오늘 온

**117** 김여필(金汝弼) : 앞서 ‘필(弼)’자가 ‘필(必)’자로 표기되어 있다.

**118** 뇌풍 항괘(雷風恒卦) : (고사) 항괘의 상(象)은 우레가 위에서 진동하고 바람이 아래에서 부는 것이다. 상(象)에 “우레와 바람이 항(恒)이니, 군자가 이를 보고서 방소(方所)를 바꾸지 않는다.[象曰 雷風 恒 君子以 立不易方]”라고 하였다.

**119** 뜨거운 햇볕 : (고사) 원문 ‘외일(畏日)’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여름날의 태양이라는 뜻이다.

**120** 이경석(李慶錫) : (인물) 1726년 12월 7일 이경석은 별감에서 좌수로 올랐고, 좌수로서 고성사또 직임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경석이 감옥에 갇히자 구상덕이 면회하고 또한 매형 이여섭과 함께 검률(檢律)을 만나기 위해 대구 감영을 갔기도 하였다. 1747년 9월 3일 구상덕은 이경석의 장례식에 조문하였다.

질(痲疾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아프다.

6월 3일(갑자) 질은 구름이 개지 않았다. 매형 이여섭의 백씨(伯氏 큰형) 이국립 여함(李國霖汝涵)이 열병이 피해 와서 큰형님 댁 초당에 머물렀다.

6월 4일(을축) 오후부터 큰비가 내렸는데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다. 근래 안생원과 우홍범(禹洪範) 초당에 가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여함 노형(老兄)과 함께 바둑을 두고 소일하였다.

6월 5일(병인) 큰비가 어제와 같았다.

6월 6일(정묘) 새벽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종일 먹구름이 검게 끼었으며, 비는 내리다가 말다가 하였다. 밤에 또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다.

6월 7일(무진) 비가 내리고 또 천둥이 쳤으며 밤에는 달이 처음 밝았다. 사또가 파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6월 8일(기사) 먹구름이 다시 천지에 가득 하였다. 아버님이 통영(統營)에 들어가려고 안정산(安靜山) 아래에 이르렀는데 빗줄기를 만나 길가 주막에 들어갔다.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돌아왔다. 사또를 붙잡아 오라는 왕명이 내려 와서 사또가 내일 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6월 9일(경오) 비가 또 내리다가 말다가 하였다. 이여함께서 부모님을 문안하기 위해 돌아왔다.

6월 10일(신미) 또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하고 남풍이 불고 찌는 듯이 더웠다. 아내가 산후(産候)가 있었다.

6월 11일(임신) 큰 비가 이른 아침부터 내렸다.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비가 그치고 남풍이 불고 더웠다.

6월 12일(계유) 동풍이 갑자기 불어오고 이슬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하더니 오후가 되자 비는 그쳤으나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나는 꿈을 꾸고 느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지금 내가 다행스럽게 아들 태몽<sup>121)</sup> 꾸고    今吾何幸夢羆熊  
어젯밤 뜰에 만 길 무지개가 일어났네    昨夜庭興萬丈虹  
오직 바라건대 천신이 와서 도와주시어    惟愿天神來助祐  
오복 그리고 효도와 충성을 내려주소서    降之五福孝兼忠

**121)** 아들 태몽 : (고사) 원문 ‘몽비웅(夢羆熊)’은 《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길몽이 무언가 하면, 큰 꿈과 작은 꿈에다, 큰 뱀과 작은 뱀이로다. 대인이 꿈을 접치니, 큰 꿈과 작은 꿈은 남아를 낳을 상서요, 큰 뱀과 작은 뱀은 여아를 낳을 상서로다.” 한 데서 온 말로, 즉 아들을 낳을 꿈을 말한다.

심군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6월 13일(갑술) 비가 또 이른 아침부터 내리고 서쪽에 무지개가 났다. 김석방(金石方)이 군기감관(軍器監官)이 되어 채전(債錢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현재 그 대신 감옥에 잡아 가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전토(田土)를 팔아달라고 간청하면서 아버님에게 통영에 들어가 윤선달(尹先達)에게 권해서 자신의 돌담 논을 사도록 부탁했지만, 아버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김석방 부자(父子)가 오늘 또 와서 계속 간청해 마지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일 날짜로 통영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저물녘에 구름이 흩어지고 날이 더웠다. 김로(金老)의 처에게 전남편 딸 해정(海丁)이 있었는데 나이가 24세로 일찍이 박계필(朴季必)에게 혼인을 허락했다. 그런데 김가(金家)에서 돈 빚 독촉한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기일을 물린다고 통보하자 박계필이 ‘퇴정(退定)’ 두 글자를 없애고 돌연 도착하였는데, 해정은 막 들에 나가있다가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황급히 혼사를 행하니, 포복절도할 만한 일이다. 밤이 되자 후행(後行)이었던 박중혁(朴重赫)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밤에는 달빛이 밝았다. 아내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6월 14일(을해) 쾌청하고 하늘에 구름이 없었다.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장의암(莊義庵) 임시 처소에 있던 대아(大雅) 이원경(李元卿)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버님이 김석방(金石方)·송즙(宋楫)과 함께 통영에 들어갔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살림을 보았다.

6월 15일(병자) 새벽에 안개가 끼었다가 저물녘 사라졌고, 찌는 듯이 더웠다. 서책을 포쇄(曝曬)<sup>122)</sup>하였다. 밤에 달빛이 밝았다.

6월 16일(정축)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고 남풍이 불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17일(무인) 소낙비가 땅을 적시다가 금방 그쳤다. 생원 허겸(許謙)이 방문해서 인하여 말하기를, “어제 서문(西門) 누각 위에서 서울에서 와서 서문 밖에 머물던 별장(別將) 이정선(李廷善)을 만났는데, 그가 향원(鄉員) 몇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반좌(半坐)하고서 답배(答拜)하자, 내가 정색하고 그 무례를 따졌다. 그런데 이별장(李別將, 李廷善)이 발끈 화를 내고서 사내종을 불러 나를 질질 끌고서 누각 아래로 보내더니 그 모욕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막 황리(黃里)에 사시는 조부(祖父)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하였다. 이때 좌수 허표(許標)가 황리에서 임시로 처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작별하고 떠나갔다. 큰 형님이 와서 허좌수(許座首)가 황리(黃里)에 처소로 삼고 있는 함벽정(涵碧亭)에 관한 시의 운자를 전하였다. 내가 드디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근심 잊고 세상 떠나 운림에 누우니	忘憂謝世臥雲林
아래는 큰 바다 위로는 산봉우리가 있구려	下有滄溟上有岑
물가에 가고 산에 오르며 뜻을 키우고	臨水登山能養志
바람 타고 달 맞으며 마음 맑게 하면서	御風迎月足清心

122) 포쇄(曝曬) : 서책에 햇벌이나 바람을 쏘여 부식과 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때때로 바다 나그네 맞이해 삼도 <sup>123</sup> 를 논하고	時延海客論三島
매번 술바람으로 수많은 거문고 소리 만드네	每引松聲作萬琴
고요한데 또 술 마시는 즐거움 겸했으니	靜裡且兼樽酒樂
인간세상 무슨 일이 또 닥쳐오리오	人間何事也侵尋

계동(契洞) 작은 매형 유완재(柳完載)가 종중(宗中) 여러 사람들이 군포(軍布)를 침책당한 일로 와서 탄원서 초고를 써달라고 청하고 떠나갔다. 오후에 비가 또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더니 밤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6월 18일(기묘)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성주(星州) 이복은 대부분 이양(移秧)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6월 19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유매형(柳妹兄)이 또 와서 돈을 빌리고 갔다.

6월 20일(신사) 얽게 구름이 끼고 가끔 해가 났으며 저녁에 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후에 아버님이 남관(南關)에서 곧장 윤선달(尹先達) 집으로 가서 전(錢) 24관(貫)으로 김씨(김석방(金石方))의 논을 사도록 하였는데, 아버님이 이 논을 흥정하는 일로 며칠을 통영에 머물다가 무더위에 건강을 잃어 이어 숙환(宿患)이 되었다.

6월 21일(임오) 천둥이 치고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매형 댁에서 술을 보내 왔다.

6월 22일(계미) 가끔 흐리기도 하였으나 날이 더웠다. 무신년 오늘이 바로 아버님 생신날이다. 술자리를 마련하고 모여 마셨는데, 갈산(葛山)에 사는 매형 역시 술과 반찬을 갖추어 왔다. 들으니, 어제 천벌(天伐 천둥과 번개)이 화리치(禾里峙) 한 나무를 내리쳤는데 나무 아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명석(命錫)의 아이의 소자(少字)를 몽대(夢大)라고 하였다.

6월 23일(갑신) 덥고 가끔 흐렸다. 올해 남초(南草)가 극히 귀하여 전(錢) 1푼(分)으로 3엽(葉) 혹은 4엽(葉)을 살 수 있었는데 그저께 시장에서 새 남초 1파(把) 값이 전(錢) 3푼(分)이라고 한다. 어머님이 복통이 있었다.

6월 24일(을유) 아침에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더니 식후에는 산간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오후에는 찌는 듯이 더웠다. 대산(大山) 사내종이 와서 편지를 전달해 주어 소식을 알 수 있었다.

6월 25일(병술) 아침에는 하늘이 맑았으나 저물녘에 가랑비가 약간 내렸다. 오늘날 소 값이 매우 싸다. 전(錢) 5관(貫)으로 중우(中牛)를 살 수 있고, 7, 8관이면 큰 소를 살 수 있다. 소금의 경우 극히 귀하여 보리 1말이 소금 2되에 불과하다.

<sup>123</sup> 삼도(三島) : 동해(東海)에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이다.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의 통칭이다.

6월 26일(정해)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셨으나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부터 해가 썩는 듯이 내리찍어 여름 이래로 가장 더웠다.

6월 27일(무자) 북쪽 하늘에 우레 소리가 일어났다. 들으니 어제 생원 허겸(許謙)이 그 서속(庶屬)을 거느리고 가서 별장 이정선(李廷善)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고 하였다. 호적감(戶籍監) 생원 양석제(梁錫濟)와 서기 율생(書記律生) 양수정(梁守正)이 본리(本里)에 도착하여 단자(單子)를 거두고 유숙하였다.

6월 28일(기축) 가끔 흐렸다. 진주(晉州) 옥곡(玉谷) 사람 송유장(宋有章)·서행원(徐行遠)이 통영(統營)을 경유하는 길에 방문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작별하고 떠났다.

6월 29일(경인) 가랑비가 갑자기 내리고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다. 우생원(禹生員)과 함께 송정(松亭)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철전(鐵箭)<sup>124</sup>을 잃어버렸다.

7월 11일 입추(立秋), 27일 처서(處暑).

7월 1일(신묘) 구름이 짙게 끼고 가랑비가 내리더니 오후에는 햇벌이 썩는 듯하였다. 오늘이 바로 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7월 2일(임진) 약간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다가 금방 그치고 밤에는 하늘이 매우 맑았다.

7월 3일(계사) 아침에 서쪽 하늘에 우레가 치고 빗방울이 때때로 내렸다. 식후에는 동남쪽에 크게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렸으나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들판에 물이 이리저리 마구 흘렀다.

7월 4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비가 갑자기 내렸다. 감옥에 갇혀있는 생원 허겸(許謙)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7월 5일(을미)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이 때 1냥(兩)의 전(錢) 값이 조(租) 5말[斗]이다.

7월 6일(병신) 비가 내리다가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햇벌이 나오고 저녁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아내가 복부에 병이 있었다.

7월 7일(정유) 가끔 이슬비가 내렸으나 햇벌이 뜨거웠다.

7월 8일(무술) 오후에 비가 몇 방울 내렸으나 곧바로 햇벌이 나왔다.

7월 9일(기해)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 사라졌다. 김석방(金石方)이 족징채(族徵債)를 나누었는데, 우리 집에 1냥을 모두 징수하니, 가소롭다. 무슨 이유로 친족이라고 말하는가.

---

124) 철전(鐵箭) : 쇠 화살로, 여기에서는 쇠 작살을 가리킨 듯하다.

7월 10일(경자) 구름이 많고 햇빛이 조금 났으며 저녁이 될 즈음 비가 내렸다.

7월 11일(신축) 다시 흐려졌다. 성황제(城隍祭)에 가서 참여하였다. 새 쌀 2되의 값이 전(錢) 10문(文)이다.

7월 12일(임인) 서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가 또 내렸다. 갈산에 사는 매형 댁에서 아침 밥을 먹었는데 밥이 순 보리밥이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비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다.

7월 13일(계묘) 서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7월 14일(갑진)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그치지 않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사내종과 말을 돌려보내고 나는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도유사(都有司)는 이교년(李喬年), 장의(掌議)는 이기석(李祺錫)·최석몽(崔錫夢)이다. 저녁 식사 후 성 안으로 들어가 군관청(軍官廳)에 이르러 관아의 학동을 가르치는 성주(星州)에 사는 이생원을 만나보고 달을 대하고 글을 토론하면서 함께 잠갔다. 다음과 같이 절구시 한 수를 읊어 주었다.

오랜 비 비로소 걷혀 밤경치 맑아지니      宿雨初收夜景晴  
삼경에 밝은 달빛이 뜰 안에 가득하네      三更皓月滿庭明  
가을바람에 나그네는 고향 돌아갈 꿈꾸더니      秋風遠客思歸夢  
침상 곁 귀뚜라미 소리에 깜짝 놀라 깨네      驚罷床邊蟋蟀聲

7월 15일(을사) 찌는 듯이 더웠다. 예전에는 사직신(社稷神) 위판과 성황신(城隍神)·여신(厲神)의 위판(位版)이 한 사우(祠宇)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1실(室)을 세워 성황신 및 여신(厲神)의 위판을 옮겼다. 나는 대축(大祝)으로 그 제사에 참석하였다. 향교에서 아침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과 큰형, 둘째 형이 술을 가지고 황리(黃里)에 머물고 있는 허좌수(許座首) 처소에 가서 모여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 이계박(李繼朴)의 일가친척에게 전(錢) 4냥(兩) 5전(錢)을 징족(徵族)<sup>125</sup>했다고 한다.

7월 16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버님이 구종(驅從) 없이 필마(匹馬)를 타고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7일(정미)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지고 더위가 찌는 듯 했다. 해가 저물자 북쪽 하늘에 우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7월 18일(무신) 아침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 서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으며 어두워지자 비가 내리고 우레가 쳤다. 내가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이 있으면 미천했다가도 귀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귀했다가도 미천하게 되는 세태에 느낀 점이 있다. 동한(東漢) 시대 조일(趙壹)

**125) 징족(徵族)** : (제도) 백성이 관아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도망가거나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일가친척에서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른바 ‘배 속에 책이 가득 차 있어도, 돈주머니 하나 있는 것만 못하네’<sup>126</sup>라고 하였으니, 안 그런가? 그러나 문장은 부귀와 곤장 오르내릴 수 있으니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면 또한 미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또 그 가운데에 있다. 어찌하여 문장을 배우지 않고 먼저 부귀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7월 19일(기유) 가랑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다가 저녁에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렸다.

7월 20일(경술) 동풍이 불고 약간 흐리고 춥다가 저녁에 빗방울이 갑자기 맺혔다.

7월 21일(신해) 옅은 구름이 걷히고 미풍이 불고 날씨는 더웠다. 장차 진성(晋城)에 가려고 가동(可洞) 길가에서 말여물을 주고, 옥곡(玉谷)에 사는 수재 김상수(金尙秀)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 무렵에 진성에 사는 생원 이방협(李邦協) 댁에 도착해 유숙하였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새 달이 높이 떠올랐다.

7월 22일(임자) 동풍이 불어 구름이 날렸다. 식사 후에 곧 출발하였다. 명전(明田)에 이르자 비가 내렸는데 우리 고장 근처에 들어오자마자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시례천(矢禮川)에 이르자 비가 갑자기 개었다. 계동(契洞) 매형 댁에서 저녁밥을 먹고 밤에 향교에서 묵었다.

7월 23일(계축)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4일(갑인) 비바람이 어제와 같았다.

7월 25일(을묘)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가 수시로 내렸으며,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태양이 갑자기 나타났다.

7월 26일(병진) 아침에 비가 내렸다. 저물자 구름이 걷혔다. 시가[市直]가 험쌀 3말이다.

7월 27일(정사) 하늘은 맑고 날씨는 더웠다. 남촌포(南村浦)에서 모여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회(膾)와 탕(湯)으로 먹었다.

7월 28일(무오) 구름이 길게 끼었다. 올벼[早稻]를 처음 수확하였다. 이양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86일이다.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낚시질을 하였다.

7월 29일(기미) 비가 또 갑자기 내리고, 바람도 그치지 않았다. 나는 도보로 향교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8월 13일 백로(白露), 28일 추분(秋分).

8월 1일(경신) 아침에 비가 갑자기 내리더니 저물녘에도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126** 동한(東漢)……못하네 : (고사) 동한(東漢) 조일(趙壹)은 〈자세질사부(刺世疾邪賦)〉에서 “배 속에 책이 가득 차 있어도, 돈주머니 하나 있는 것만 못하네.[文籍雖滿腹 不如一囊錢]”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80下 文苑列傳 趙壹》



돌아왔다.

8월 2일(신유)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가 가끔 떨어졌다. 유사 강성주(姜聖周)가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3일(임술)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 식후에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금방 그쳤는데, 한밤중에 가랑비가 내렸다. 시냇가에서 낚시질을 하였다.

8월 4일(계해) 남풍이 갑자기 불었다. 큰 형님과 함께 그물을 가지고 미용포(彌龍浦)에 가서 은어(銀魚) 160마리 정도를 잡았다. 또 잡은 은어 중 한 마리는 길이가 7,8치 정도이고 둘레가 3, 4치인데 그 정도 크기는 처음 보았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5일(갑자) 날씨가 덥고 동남풍이 갑자기 불었다. 금년 벼농사는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나는 향교에 입참했는데 재실(齋室)에 사람들이 모이자 사내종과 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8월 6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저물녘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수군 훈련이 있었다.

8월 7일(병인) 종일 비가 그치지 않더니 저녁이 되자 갑자기 개었다. 밤에 하늘을 보니 이따금 구름 사이로 별빛이 새어 나왔다.

8월 8일(정묘) 석채(釋菜)<sup>127</sup>를 잘 지냈다. 식사 후에 나는 사직제(社稷祭) 대축(大祝)으로서 읍에 들어가 제물(祭物)을 감봉(監封)하였다. 그런데 오후부터 저녁까지 큰비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제단(祭壇)에 오를 수가 없어 위판(位版)과 제물을 제단 관리 산지기 집에 임시로 봉안하였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더욱 심했는데, 자야(子夜 자시(子時)로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반에 이르러 햇불을 밝히고 비를 맞고 제단에 올랐다. 초헌관은 당시 장의(掌議) 이기석(李祺錫), 아헌관은 이맹종(李孟宗), 종헌관은 최규(崔珪) 및 제집사(諸執事)는 이만영(李萬英)·유완기(柳完祺)·최명한(崔命漢)여러분이다. 모두 고생고생 비바람에 머리를 다 젖었다.

8월 9일(무진) 제사를 지낼 때 날이 이미 새벽이 될 즈음이었으니, 헌관(獻官)과 제집사(諸執事)가 올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사를 지낼 때 비바람이 그쳤으나 들판을 빙 둘러보니 가을 물이 넘쳤다. 비가 또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내가 썼던 갓[笠子]은 비에 의해 망가져 실끈으로 동여매고 착용하였다.

8월 10일(기사)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갑자기 개었다. 사내종과 말이 이곳에 왔다. 드디어 향사당(鄉射堂)에 들어가 좌수 최섬(崔暹)을 보고서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1일(경오) 아침부터 구름이 끼었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올해 처음 중벼[中稻]를 수확

**127** 석채(釋菜) : (제도) 석전제(釋奠祭)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상정일(上丁日)은 12간지(干支)로 표시되는 날 가운데서 그달의 첫 번째 정(丁) 자가 든 날을 가리킨다.

했는데 이양에서 수확까지 기간이 모두 91일 걸렸다.

8월 12일(신미) 밤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 비가 내렸다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해가 나왔다. 대동(垆洞)에 있는 산소에 가서 성묘하였다. 올 가을 수군 훈련은 큰비가 연일 내렸기 때문에 전법(戰法)을 갖추어 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제사가 함선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어 장(杖) 35대를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한다.

8월 13일(임신) 또 비가 내렸다. 괴이한 일이다. 어찌 장맛비가 개이지 않고 계속 내린단 말인가. 들으니, 지지난해 임자년에 햇벌이 나오는 날이 늘 적었는데, 농사는 그래도 풍년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그때 임자년과 같단 말인가. 지금 콩의 경우 잘 익어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집에서 기른 수말 1필을 팔아 복가(卜價 결복가(結卜價))를 지급하고 암말만 남아있다.

8월 14일(계유) 아침에 해가 잠깐 나왔으나 다시 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 배연발(裴連發)·석장(石長) 형제의 부친 장지(葬地)가 광이(光二) 팔천산(八泉山)에 있었는데, 예전에 우산(牛山)에 사는 이생원의 압력에 눌러 장지 근처에 뒤편을 쓰는 것을 금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제 배연발이 이생원 부친의 뒤편 옆에 부인 시신을 매장하니, 우산 이생원이 이 소식을 듣고 건강한 사내중 10여명을 거느리고 오늘 새벽에 비를 맞고 와서 배연발을 내몰아 뒤편 근처에 앉아 그 시신을 파서 가도록 하였다. 밤에는 달빛이 가끔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데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졌다.

8월 15일(갑술) 잠깐씩 해가 났다가 비가 내렸다가 하더니 어두워지자 또 비가 쏟아졌다. 올가을 장맛비는 근래에 매우 드문 일인데 곡식은 이미 익었더라도 마른 곡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올 추석에 제사를 빼먹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오직 우리 집만 겨우 제의(祭儀)를 이루었다.

8월 16일(을해) 큰비가 내렸다. 입자장(笠子匠) 비부(婢夫) 김필억(金必億)이 도구를 가지고 찾아왔다.

8월 17일(병자) 가랑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갑자기 개었다. 그런데 천둥이 치더니 뜨거운 햇살이 비로소 나왔다. 늦벼[晚稻]가 일제히 패었다. 신시(申時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에 비가 또 내리고 밤에도 비가 쏟아졌다. 관아에서 하첩(下帖)으로 임금께서 계하(啓下)하신 명령을 다음과 같이 반포한 내용을 전했다. 이번 달 25일 경종대왕(景宗大王) 상제(祥祭) 때 방방곡곡 신민(臣民)들은 의관을 차려 있고 띠를 두르는데 모두 잿빛(灰色 회색)을 사용하고 와서 곡하도록 하였다.

8월 18일(정축)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갠 시각이 적었다. 갓 만드는 일이 끝났다.[造笠畢] 이 때 콩이 빨처럼 싹이 났다.

8월 19일(무인) 또 큰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8월 20일(기묘) 동풍이 불고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희미하게 해가 나왔다. 저물녘에 서풍이 쓸쓸히 불어오고 별과 달이 때때로 나타나고, 밤중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필억(必億)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근래 장맛비가 마구 내려 아침저녁 식량이 농토에 있는 것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를 맞고 베어 와서 이를 찌서 밥을 지었다. 개구리가 부뚜막에서 나오고 나무에서 물이 생기니 부엌에서 일하는 계집종이 무척이나 고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8월 21일(경진) 가랑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갑자기 햇볕이 나왔는데 북풍이 불었다. 저녁에 또 흐리고 밤이 깊어서는 또 비가 내렸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과 서삼종(庶三從) 상주(尙柱)가 와서 유숙했는데, 한밤중까지 노래를 불렀다.

8월 22일(신사) 새벽에 시달에 사는 칠촌 숙부와 조카가 돌아갔다. 이날 북풍이 불어 춥고 구름이 끼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올해 가을 과거를 응시하려고 가던 사람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8월 23일(임오) 아침에 하늘이 쾌청했는데 오후에 비가 또 풀을 적셨다.

8월 24일(계미) 날씨가 쾌청하였다. 이날 저녁 곡반(哭班)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또가 좌도(左道) 시관(試官)으로 갔기 때문에 동네 차원에서 은정(銀亭) 아래에 모여 망곡(望哭)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8월 25일(갑신)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전 5각(刻)에 하얀 옷과 두건을 착용하고 곡반에 서서 향불을 피우고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는 곡을 하여 슬픔을 다했다. 나와서 검은 옷과 두건을 착용하고 향불을 피우고 네 번 절하고는 곡을 하여 슬픔을 다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번 합천(陝川) 감시(監試)의 시제(詩題)가 ‘맹자는 몰랐으나 마음에 대해서는 알았다[不識孟子却識心]<sup>128</sup>’였다.

향교(鄕校)를 중수하자 향축(香祝)이 내려 와서 객사(客舍) 전패(殿牌)<sup>129</sup> 앞에 봉안하고, 바야흐로 이건(移建)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서늘하였다.

8월 26일(을유) 아침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저물녘에 비 바람이 크게 불었다. 이날 낮에 냉천(冷泉)을 떠서 마시는데, 어떤 촌 여자가 돌을 던져 장난을 치니, 우습다. 시가[市直]가 쌀 6말 2되라고 한다.

---

**128)** 맹자(孟子)는 몰랐으나 마음에 대해서는 알았다 : (고사)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마음이라는 것은 잡아 두면 있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는 것으로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어디로 향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공자의 말이 인용되어 나온다. 범순부(范純夫)의 딸이 이 글을 읽고서 말하기를 “맹자는 마음을 몰랐다. 마음이 어찌 출입이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정이천(程伊川)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여자가 맹자는 몰랐으나 마음은 제대로 알았다.”고 평하였다. 《심경부주(心經附註)》 권3 우산지목장(牛山之木章)에 나온다.

**129)** 전패(殿牌) : (제도) 각 고을 객사(客舍)에 ‘전(殿) 자를 새겨 세운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로, 공무로 지방에 간 관원이나 그 지방 벼슬아치가 초하루, 보름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배례(拜禮)하였다.

8월 27일(병술) 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를 잡았다.

8월 28일(정해) 아침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 비가 내렸다. 말여물에 쓸 풀을 베었다. 갈산에 사는 매형이 술을 가지고 왔다.

8월 29일(무자) 청명하고 날씨가 따뜻했다. 저물녘에 먹구름이 수레바퀴처럼 둥그렇게 끼어 서쪽에서 몰려왔다. 빗방울이 알같이 커서 혹 우박인 듯 했는데 겨우 몇 방울 떨어지고는 곧장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다. 들으니 시가[市直]가 훌쩍 올라 쌀 6말 2되로, 식승(食升)<sup>130</sup>으로 헤아리면 80여 되에 이르고 조(租) 25되라고 한다.

8월 30일(기축) 날씨가 온화하였다.

9월 소월(小月). 14일 한로(寒露), 29일 상강(霜降).

9월 1일(경인)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9월 2일(신묘) 비가 내리고 오후에 해가 나왔다.

9월 3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박군 범석(朴君範錫)이 방문하였다.

9월 4일(계사) 아침에 조각구름이 날리다가 점점 흩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큰 형님 덕에 집을 짓는데 오늘 기둥을 세웠다.

9월 5일(갑오) 매우 따뜻하고 또 온화하였다.

9월 6일(을미) 저녁이 되어 다시 비가 내렸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형님과 이매형(李妹兄)이 읍으로 들어갔다가 길가에서 비를 만나 갈산(葛山)에 사는 최선여(崔善餘) 덕에 유숙하였다.

9월 7일(병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통영에 사는 상인(喪人) 진취신(陳就新)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윤매형(尹妹兄) 덕에 계집종을 보내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9월 8일(정유) 동쪽 울타리를 세웠다.

9월 9일(무술) 서남풍이 불고 온화하였다. 안정사(安靜寺) 중 민순(敏淳)과 어떤 여자가 강고산(江古山) 솔숲 가운데에서 간통하다가 업산(業山)에게 발각되었다고 한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누님<sup>131</sup>이 왔다.

---

**130)** 식승(食升) : (제도) 민가(民家)에서 곡물을 되던 되. 열 작(勺)을 한 홉, 열 홉을 한 되, 열 되를 한 말, 열다섯 말을 소곡(小斛) 또는 평석(平石), 스무 말을 대곡(大斛) 또는 전석(全石)이라 하였다.

**131)** 작은 누님 : 원문은 매형으로 나오는데, 9월 12일 기사를 보면 매형이 아닌 누님으로 나와 정정 번역하였다.

9월 10일(기해) 아침에 얇게 구름이 끼었다. 빙숙(聘叔)이 방문하였다.

9월 11일(경자) 구름이 조각조각 떠 있었다.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방문하여 조출한 술상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파하였다. 강악봉(姜岳奉)은 본래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올봄 정월에 일도산(一道山) 옆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 집에서 기르고 이름을 원지(願之)라고 붙여주었는데, 여자아이의 나이는 두세 살 정도이다. 이번 달에 강악봉이 병에 걸렸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그 여자아이를 따라온 귀신이 한 짓이다.”라고 하였다. 강악봉이 마침내 여자아이를 동문 밖 강수망(姜守望) 집에 버렸고, 강수망은 자식 없는 이웃집에 그 여자아이를 주어서 기르게 하였다. 이웃집 부부가 또 싸우다가 여자아이를 시장에 내다 버렸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자, 원지가 시장에서 3일 밤낮을 소리내 울었다. 이서(吏胥)가 이 모습을 보고 이임(里任)을 관에 고발하려고 하였다. 이임이 강악봉을 끌어대어 고발하려고 하자, 강악봉이 마침내 두려워서 지금 또 그 여자아이를 도로 거두었다.

9월 12일(신축) 맑고도 추웠다. 식후에 갈산(葛山)에 갔다가 돌아왔다. 계동(契洞)에 사는 누님이 돌아갔다.

9월 13일(임인) 온화하였다. 아버님이 남산(南山)에 사는 상인(喪人) 박용서(朴龍瑞)에게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셨다. 옥천사(玉泉寺) 면상(綿商)인 중 맹준(孟俊)이 와서 유숙을 구걸하다가 떠나갔다.

9월 14일(계묘) 날씨가 청량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누님이 왔다. 아내와 누님 그리고 여러 여아(女兒)들이 원산(園山)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왔다. 누님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15일(갑진) 약간 흐렸다. 유품(儒品)이 울천(栗川)에 모였는데, 나는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9월 16일(을사)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좌수 허표(許標)와 생원 허렴(許廉)이 방문하여 조출한 술상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파하였다.

9월 17일(병오) 날씨가 맑고 따뜻하였다. 처갓집을 가려고 두포(頭浦)에 이르렀는데 늦산(麓山)이 병세가 말고뼈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홍(連弘)으로 대신 잡게 했다. 배둔(背屯)에 사는 성대장(成代將) 집에서 말여물을 주고, 저물녘에야 대산(大山)에 도착했다.

9월 18일(정미) 바람이 맑고 시원하였다. 술을 마시고 회(膾)를 먹었는데, 복통이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온돌방에 가서 잠을 잤다.

9월 19일(무신) 구름이 조각조각 떠 있고 바람이 쓸쓸히 불어 왔다. 이날 밤에 경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푸른 창공에 구름 흩어지자 달빛은 밝고 碧空雲散月光明  
 작은 언덕에 바람 불자 낙엽이 떨어지네 短岸風鳴木葉零  
 변방 기러기 남으로 가며 몇 차례 우니 塞鴈南來數聲急  
 등불을 벗 삼은 나그네 가장 먼저 놀라네 伴燈孤客最先驚

9월 20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연홍(連弘)이 돌아왔는데, 율치(栗峙)에 이르러 미친 도적놈에게 겁박을 당했다가 돌아왔다. 내가 직접 닭 한 마리를 잡으니, 주가(主家)에서 술과 떡을 내왔다.

9월 21일(경술)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9월 22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출발하여 배둔(背屯)에 도착하자, 비 올 기색이 매우 많더니 성산(星山)에 이르러 빗방울이 이미 내려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 지나갔다. 저물녘 짐으로 돌아왔다. 정노(正奴) 역시 며칠 전에 향아리를 지고 마(麻)로 바꾸기 위해 갔다가 오늘에야 돌아왔다. 비가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다.

9월 23일(임자) 비가 그치지 않았다.

9월 24일(계축) 비가 개었다. 향교 도유사(都有司) 이광운(李廣運)이 직접 편지를 써서 맞이 하기에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5일(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聖廟]를 옮기자는 의논이 온 고을에서 전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옥곡(玉谷)에 가서 지사(地師) 김이택(金以澤)을 만나보려고 갔는데 김이택이 출타 중이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광점(李光漸) 댁에서 묵었다.

9월 26일(을묘) 아침에 흠비가 내려 시야에서 산을 가로막았다. 식사 후에 출발하여 갈산서원(葛山書院)에 도착했는데 서원에 임원은 없고, 창고지기가 술을 가져왔다. 술을 마신 후 즉시 출발해 저물녘 향교에 들어갔다. 이안제(移安祭)<sup>132</sup>를 위해 재실에 들어갔다.

9월 27일(병진)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고을 사또가 제사에 참여하려고 왔다.

9월 28일(정사) 동틀 무렵 이안제(移安祭)를 행하고, 제집사(諸執事)에게 포(脯)를 나눠주고, 동재(東齋)에 이안하였다.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서리가 처음으로 내렸다.

9월 29일(무오) 식사 후에 또 향교에 들어갔다. 진주향교(晉州鄉校)에 갔는데 이건(移建)한 사례(事例)를 물으려고 향교의 하인과 서원(書員)들을 데리고 갔다. 옥곡(玉谷)에 도착해 송취장(宋就章) 집에 묵었다. 주인이 출타 중이기에 그 사위 평구(平丘) 사람 강만은(姜晩殷)이 주인을 대신하여 접대하였다. 벗 서행원(徐行遠) 역시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상산(相山)

**132)** 이안제(移安祭) : 사당의 신주(神主)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내는 제사.

에 사는 이생원 부자(父子) 형제들이 모두 임시 처소에서 나와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옥곡에서 묵었다.

10월 대월(大月). 15일 입동(立冬), 29일 소설(小雪).

10월 1일(기미) 아침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식사 후에 옥곡을 출발하여 제리치(諸里峙)에 도착해서 두 잔 술을 사서 마셨다. 진강(晉江) 물가에 이르렀을 때 병사(兵使)가 관아를 나와 축석루에 가면서 행인의 말[馬]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고 꺾꺾 웃었다. 저녁에 진양(晉陽) 향교에 들어갔다. 현임 장의(掌議)는 김수갑(金壽甲), 현임 유사(有司) 하도석(河圖錫), 현임 전임(典任) 최세주(崔世柱), 정필회(鄭必會)가 향교에 있었는데 접대가 무척 정성스러웠다. 본 향교를 이건(移建)할 때의 거행 절차를 물었더니 교임(校任 향교 임원)은 모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교노(校奴) 중 강삭감(姜朔甘)이란 자가 있었는데 가장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임신년 동짓달 11일에 터를 닦았고 물역(物役)은 모두 성조소(成造所)에서 지출하였으며, 원래 관가(官家)에서 회감(會減)<sup>133</sup>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관가에서 상황에 따라 지원해 주었는데, 원납교생(願納校生) 30여명을 제외하고 한 사람당 정조(正租) 15섬을 받아 성조소에 소속시켰다고 한다. 또 지금 하동(河東) 소속인 서쪽 4개 리(里)는 본주(本州)에 속해있지만 왕래하기에 조금 멀어서 부역(赴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에게만 1인당 조(租) 4두(斗)씩 고가(雇價)를 받고 성조소에 소속시켰다고 한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은 요청에 따라 응했기 때문에 군역(軍役)에 힘입었다고 하였다. 전사당(典司堂) 안에 오래된 깃발 여러 장과 파손된 화살 여러 묶음이 있어서 내가 유사(有司)에게 왜 학궁(學宮)에 군기(軍器)가 있는지 물었다. 교임이 답하기를 “옛날 왜란 때 의병장이 쓰던 물건이요.”라고 하였다.

10월 2일(경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건복(巾服)을 갖추어 입고 성묘(聖廟)에 들어가 배알하였다. 식사 후에 소촌(召村)에 사는 점쟁이 강위영(姜渭迎) 집으로 향해 출발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영현(永縣) 주막에 도착해서 술을 사서 마시고 그곳에서 말에게 여물을 먹였다. 구질포(九叱浦) 조헌장(曹憲章)의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과 겸하여 술을 마셨는데, 밤시각이 이미 초경(初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이 되었다. 오가(伍家 다섯 가구가 1통임)에서 불을 피워 감치(甘峙)를 넘었는데, 또 지금 대포막 군인(大捕幕軍人)에게 횃불을 피우게 해서 향교에 들어갔다. 이날 향교[聖廟]를 이건하는데 건물 터를 공사하였다.

10월 3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식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은 어제 통영에 들어갔다.

10월 4일(임술) 아침부터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았다.

10월 5일(계해) 비가 그치다가 오다가 하였다. 벗 최선여(崔善餘)가 방문했다가 곧 돌아갔다.

10월 6일(갑자) 하늘이 맑고 날씨가 추웠다. 정재장(丁再長)과 함께 진해(鎭海) 대산(大山)

<sup>133</sup> 회감(會減) : (제도) 주고받을 것을 맞비겨서 남는 것을 셈하는 것.

에 사는 빙숙(聘叔)인 박씨 처(妻)의 초기(初基)에 가보았다.

10월 7일(을축) 비가 내렸다. 정재장(丁再章)이 되돌아갔다. 나는 대산에서 계속 머물렀다. 좌수 한정세(韓禎世)와 종일토록 대화를 나누었다.

10월 8일(병인) 비가 내렸는데, 이날 밤에는 별과 달이 잠깐 보였다.

10월 9일(정묘) 비가 내렸다. 고강(考講)하려고 도사(都事)가 오늘 내일 파산(巴山)<sup>134</sup>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월 10일(무진) 쾌청하였다. 식사 후 출발하여 와항(瓦項)에 도착했는데, 두포(頭浦)에 사는 칠촌 척숙(戚叔) 이국하(李國廈)를 만나 말에서 내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을 사서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1일(기사) 청명하였다. 대산(大山)에 사는 사내종 순이(順伊)가 돌아갔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재종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성(城) 안으로 들어갔다. 박사도(朴師道)의 강무당(養武堂) 신례(新禮)<sup>135</sup>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해 향교에 돌아왔다. 처음으로 얼음이 얇게 얼었다.

10월 12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상(亞相)이 배둔 원관(背屯院館)에 묵었다가 아침 일찍 읍에 가서 청심헌(淸心軒)에 앉았다. 교임(校任)이 아상의 행차가 임박할 줄 몰라 강지(講紙)를 미처 써 놓고 기다리지 못해 예리(禮吏) 박봉거(朴鳳舉)가 형장(刑杖) 7대를 맞았다. 고강(考講)이 순조롭지 않아 진해현(鎭海縣)의 재임(齋任)이 강정(降定)되었기에 여러 유생들이 뒤쫓아 이 읍에 왔다. 나는 술을 사서 빙숙(聘叔)과 임영무(林英茂) 등 몇 사람을 접대했다. 유정혁(柳井赫)과 함께 달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유사 이동만(李東晩)이 재임(齋任)을 대신하여 강생(講生)을 데리고 들어 왔다.

10월 13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진해(鎭海)의 재임(齋任)과 향임(鄕任)이 모두 형벌을 받고 돌아갔다. 벗 박범석(朴範錫)이 방문하였다. 이웃 송필삼(宋必三)이 형제간에 다투다가 미친 듯 달아난 사건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찾아서 데려왔다. 어진 풍속의 마을을 골라 거처하지 못하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10월 14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정재명(丁再明)의 장사(葬事)를 지냈는데, 우리 집은 이웃에 살았던 정리상 제수를 올렸다. 아버님이 가동(可洞) 칠촌 장례식에 가보셨다.

---

**134)** 파산(巴山) : (지명)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이다. 파산에는 봉수대가 있는데 함안의 진산인 여항산(餘航山, 餘航山) 동쪽에 마주한 파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경상도 관찰사나 도사(都事)가 주관하는 시회(試會)가 파산에서 자주 열렸다. 구상덕은 생도들과 진해읍에서 유숙하였다가 파산의 시소(試所)에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파산에는 구상덕의 지인 윤상신(尹商臣)의 집이 있었다.

**135)** 신례(新禮) : (제도) 면신례(免新禮)로, 근무하는 관원이 구관(舊官)이나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로, 허참례(許參禮)라고도 한다.



10월 15일(계유) 새벽에 정재명을 호상(護喪)하여 사동(蛇洞)에 가서 봉분(封墳)을 보고 왔다.

10월 16일(갑술) 얼음이 얼기 시작하였다. 도유사(都有司) 이교년(李喬年)이 호적책 4장(丈)을 내 손을 빌려 글씨 쓰는 일을 하였다.

10월 17일(을해) 따뜻하였다. 장의(掌議) 최익하(崔益河)가 호적책 8장을 내 손을 빌렸다.

10월 18일(병자)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또 흐렸다.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빗방울이 또 자주 내렸다. 풍문으로 들으니 오랑캐 청나라 황제의 형제들이 서로 다투었는데 마치 원숭이가 숲을 찾아 달려가는 화란이 있는 듯하였기[似有猿奔之禍]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유배 보낸 문무대신 이삼(李森) 등 여러 사람을 소환하였고, 또 지략이 있고 용맹스런 자들로 하여금 요해처를 지키게 했다고 한다. 백준채(白俊采)가 수진유사(收鎮有司)로 와서 진물(鎭物)을 거두는데 각기 진중전(鎭重錢) 2냥을 거두었다. [白俊采以收鎮有司, 來收鎭物, 各收鎭重錢二兩稱]

10월 19일(정축) 따뜻하였다.

10월 20일(무인) 매우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가서 계주(契酒 모임을 할 때 마시는 술)를 마시고 돌아왔다. 김한구(金汗九) 집에 이르러 본부(本府) 둔감(屯監)인 한양사람 형수주(邢受周)를 만나보았다. 형수주가 조출한 술상을 마련해 대접하였다. 깊은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다.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聖廟]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하기 위해 설치한 도감(都監)의 첨지는 이팽년(李彭年)이다. 이첨지(李僉知)는 포적 당상(捕賊堂上)으로, 불하 첨사(虜下僉使)를 수행하는 데 강건하고 뜻을 지키는 인물이다.

10월 21일(기묘) 햇빛이 나와 매우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16되, 미(米) 6말 6되이다. 전(錢) 9냥으로 큰 솥소를 샀고 5관(貫)으로 암소를 샀다.

10월 22일(경진) 해가 나와 따뜻하다가 삼경(三更)에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23일(신사) 새벽에 비가 굵게 내리고 바람이 또 쓸쓸히 불었다.

10월 24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향교[聖廟]의 터를 폼다. 터를 파는 일이 거의 끝난 후에 뱀 한 마리가 손 하나인[片手] 중 덕화(德華)를 따라 일꾼 막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10월 25일(계미) 햇빛이 나왔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시달(時達)에 가려고 심도행(沈道行)<sup>136)</sup> 집에서 말여물을 주고 술을 마셨다. 지나는 길에 음법(陰法)에 사는 생원 이석임(李

**136)** 심도행(沈道行) : (인물) 1728년 3월 11일 구상덕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개명(改名)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구상덕이 ‘심(沈) 자(字)는 물 ‘수(水)’를 부수로 따르고 있고, 물에는 응당 용(龍)이 있어야 하니 ‘익용(翼龍)’이라는 이름이 좋겠다고

錫臨)과 생원 허겸(許謙)을 방문하고, 겸하여 유월치(柳月峙)를 방문하고 나서 동지(同知) 강영집(姜榮集) 상례(喪禮)를 조문하고 칠촌 집에서 묵었다.

10월 26일(갑신) 돌아가는 길에 신기(新基) 이군 장수(李君章壽)를 방문했다가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고 자리를 꺾었다. 남관(南關)에 사는 김기(金琦)와 허합(許迨)과 한바탕 이야기를 나누었다.

10월 27일(을유) 아침에 햇벌이 나왔다. 개수할 행량의 터를 오늘 파고, 이어 기둥을 세웠다. 통영 토감(土監) 문덕린(文德麟)이 지나갔다.

10월 28일(병술) 바람 없이 따뜻하고 햇벌이 나왔다. 목수 정찬영(鄭贊永)이 와서 그제야 가는 창살을 만들었다.

10월 29일(정해) 오후에 비가 내렸다.

10월 30일(무자) 비가 걷히자 날씨가 따뜻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공사를 도왔다.

11월 소월(小月). 14일 대설(大雪), 29일 동지(冬至).

11월 1일(기축) 매우 따뜻하였다. 증조할머니 정씨(鄭氏)의 기제사를 지냈다.

11월 2일(경인) 어제처럼 따뜻하였다.

11월 3일(신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생원 어만갑(魚萬甲) 부인의 상여(喪輿)가 마을 앞을 지나가자 나는 상여를 호송(護送)했다가 광이(光二) 판교(板橋)에 이르러 돌아왔다. 상인(喪人) 이구징(李龜徵)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꺾었다.

11월 4일(임진) 곤의(昆義)에 사는 이군 희삼(李君希森)이 와서 방문하였다. 이번 달 7일에 신행(新行)을 가기 때문에 내게 말을 빌리러 온 김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말을 빌려주기로 허락했다. 순상(巡相)이 순찰하다가 본현에 도착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가 약간 내렸다.

11월 5일(계사) 날씨가 추웠다. 상인(喪人) 이귀징(李龜徵)이 방문했다가 곧 돌아갔다. 상인 허곽(許廓)이 방문하여 빈궁한 형편을 말하였다. 나는 쌀 한 말[斗]을 허곽에게 주어서 돕고, 또 쌀 한 말로 유월(柳月)에 사는 강상인(姜喪人)에게 부의하였다.

11월 6일(갑오)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진양(晉陽)에서 거접(居接)했는데 처음으로 잣물로 빨아 입었다. 읍저(邑底)에 있는 집에서 머문 세 사람 송도(松道) 윤기선(尹起善), 성남(城南) 유한흥(劉漢興)·이차세(李次世)가 모두 부증(浮症)이 있

---

함에 따라 심익룡(沈翼龍)으로 개명하였다. 유람이나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길에서 구상덕과 서로 수창한 한시가 《승총명록》에 많이 남아있다.

어 온갖 약을 써도 별 효험이 없었다. 지난달 그믐 사이에 이차세가 죽었다. 그 뒤 삼일이 되지 않아 유한홍이 죽고, 또 삼일 후에 윤기선이 연이어 사망하였다. 세 사람이 죽음이 칠 일을 넘기지 않았다. 복(福)도 한 때이고, 화(禍)도 한 때이다. 생원 양석제(梁錫濟)가 방문하여 저녁밥을 먹고 돌아갔다.

11월 7일(을미) 진주(晉州)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만조(李滿肇) 댁에 갔는데, 주인 부자와 형제가 모두 출타 중이었다. 홀로 김학장 상수(金學章尙秀)와 긴 밤내내 대화를 나누었다.

11월 8일(병신) 일찍 동산(桐山)을 출발해 가서 두곡(杜谷)에 사는 생원 남국훈 화보(南國薰和甫) 댁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사내종과 말을 고향으로 도로 보냈다. 나는 신계(新溪)에 사는 생원 이방협 요부(李邦協堯夫) 댁에 머물러 접중(接中) 여러 사람들과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읽고 익힐 계획이었다.

11월 9일(정유) 따뜻하였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다. 정겸삼(鄭兼三)과 문장에 대해 토론하였다.

11월 10일(무술) 따뜻하였다. 최태구(崔泰壽)의 안집을 방문하였다. 최씨의 아내는 허씨(許氏)인데, 허씨는 바로 가동(可洞)에 사는 정씨(鄭氏)의 딸이다. 정씨는 바로 고모할머니의 딸이다. 최가(崔家)에서 조출한 술상을 마련했을 적에 어린아이 이재룡(李再龍)이 재룡을 피우며 와서 한바탕 즐겁게 웃었다. 이 이씨(李氏) 어린아이는 바로 이운산(李雲山)의 손자이다. 나이가 열 살 정도인데 재학(才學)이 남달리 뛰어났다. 예전에 달빛 비추는 밤에 기러기 소리를 듣고 ‘추(秋)’ 자를 부르자,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맑은 하늘에 달이 자취가 없는데                    青天月無迹  
기러기만 두어 소리로 가을 알리네                數聲獨鴈秋

또 달빛 비추는 밤에 연못가 복사꽃 아래에 앉아 있다가 이광점(李光漸)·정중걸(鄭仲杰)이 나와 함께 이재룡을 불러 지금 정경에 대해 시를 읊조리게 하였는데 부르자마자 즉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세 분이 달빛 아래에서 말하는데                三人語於月明  
복사꽃잎이 가을 연못에 떨어지구나            桃葉落於秋塘

또 ‘나뭇잎이 바람 따라 떨어지고[木葉流風落]’라는 구절과 또 ‘오릉<sup>137</sup>의 꽃과 버들에 채찍 끝이 향기롭구나[五陵花柳鞭頭香]’라는 구절을 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주는 세상에 보기 드문 경우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해 서로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나 역시 다시 뒤따라 왔다.

**137)** 오릉(五陵) : (고사) 한양 부호(富豪)의 경박하고 호협한 자제들을 가리킨다. 오릉은 원래 중국 함양(咸陽) 부근에 있는 서한(西漢) 다섯 황제의 능인데, 이곳에 능을 세울 때마다 사방의 부호들을 옮겨 와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생겼다. 《漢書 卷92 原涉傳》

11월 11일(기해) 날씨가 따뜻하였다. 정겸삼이 천곡(泉谷) 본택에 갔다. 총각 정최걸(鄭最杰)이 매우 호방하더니 내 담뱃대[烟竹]를 잃어버렸다.

11월 12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그치지 않았다.

11월 13일(신축) 비가 개었다. 재미년 이 날이 바로 아내 박씨(朴氏)의 생일이다.

11월 14일(임인) 날씨가 따뜻하였다. 주인집 생원 이방협(李邦協) 댁에서 무당을 불러 액막이[度厄] 곳을 하니 우습고 우스운 일이다.

11월 15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접우(接友)와 함께 천곡(泉谷)에 가서 함장 정임일 여신(鄭林一汝新)께 문후하고서 저물녘 두곡(杜谷)으로 돌아왔다. 창원(昌原)에 사는 생원 정상지 은경(鄭相摯殷卿)이 와서 밤에 대화를 나누었다.

11월 16일(갑진) 추웠다.

11월 17일(을사) 얼음이 녹지 않았다.

11월 18일(병오) 햇별이 나와 따뜻했는데, 오후 썸 눈이 갑자기 날렸다.

11월 19일(정미) 날씨가 매우 추웠다. 독서하였다.

11월 20일(무신) 날씨가 매우 추웠다. 최태구(崔泰壽)와 최후종(崔後宗)을 방문하였다. 이 때 시동(柿洞)에 사는 서방(書房) 허상필(許尙弼)이 최후종의 집에 와 있었다.

11월 21일(기유) 날씨가 추웠다.

11월 22일(경술) 날씨가 추웠다.

11월 23일(신해) 접우들이 술을 살 때에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하룻밤 유쾌한 놀이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총각 정지웅(鄭之雄)이 1말을 제공하여 중들이 웃으며 이에 좋은 모임을 갖고 두 편으로 나누어 저포(樗蒲)<sup>138)</sup>를 던져 거구어(巨口魚) 내기를 하였다. 이 때 창원(昌原)에 사는 생원 정은경(鄭殷卿)이 또 왔다.

11월 24일(임자) 추웠다.

11월 25일(계축) 추웠다. 가노(家奴)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11월 26일(갑인) 집으로 돌아가려고 동산(桐山) 유월치(柳月峙)를 지나 저녁 무렵 들어갔다.

---

**138)** 저포(樗蒲) : 유희의 한 가지로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 던져서 승부를 다투는 놀이기구.

강악봉(姜岳奉) 가양녀(假養女) 원지(願之)가 이미 죽었다.

11월 27일(을묘) 아침에 눈이 내리다가 곧바로 걷혔다. 내 오줌을 복용하였다.

11월 28일(병진) 따뜻하였다. 금년 흉년을 면치 못해 우리 마을에서도 도망간 집이 이미 5, 6호이다.

11월 29일(정사) 따뜻하였다. 진주(晉州)에 사는 생원 정희주(鄭熙周)가 정재중(丁再從) 집에 와서 머물렀기에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12월 대월(大月). 15일 소한(小寒), 29일 대한(大寒), 26일 납일(臘日).

12월 1일(무오) 동풍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밤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일(기미) 비가 그치지 않고 냇물이 넘쳐 흘렀다.

12월 3일(경신) 비가 또 내리다 그치다 하였다. 이 때 전(錢) 1관(貫)으로 거구어 17마리를 살수 있었다. 상인(喪人) 이귀징(李龜徵)이 방문하였다.

12월 4일(신유) 비가 그치지 않고 운무(雲霧)가 사방에 자욱하였다. 괴이하다. 겨울비가 이처럼 오래 내리고 바람 부는 일기가 봄날 같으며 운무가 여름 같단 말인가!  
상인(喪人) 이귀징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조정의 명령으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푸른 옷[青衣]을 입게 하였다.<sup>139)</sup> 저녁이 되자 북풍이 구름을 쓸어갔다.

12월 5일(임술) 이날 저녁 나는 독서를 이미 30회 채우고는 막 잠을 자려고 했는데 생원 정희주(鄭熙周)가 불려서 함께 술을 마셨다.

12월 6일(계해) 날씨가 추웠다. 전(錢) 1관(貫)으로 거구어(巨口魚) 19마리를 샀다.

12월 7일(갑자)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날 북쪽 하늘에 큰 천둥소리가 여러 번 들리다가 식경(食頃)<sup>140)</sup> 후에 그쳤다. 별감 이경석(李慶錫)이 좌수(座首)로 승진했다.

12월 8일(을축) 정희주(鄭熙周)가 가족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갑자기 추워졌다가 곧바로 따뜻해졌다. 병술년(1706 속종32) 이달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이다.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한바탕 기쁜 모임을 가졌다.

---

**139)** 조정의 명령으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푸른 옷[青衣]을 입게 하였다 : (역사) 영조는 조선은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색을 숭상해야 한다고 했고, 선조(先祖)에도 청색을 숭상한 전례가 있었기에 이런 하교를 내렸다.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0월 8일(병인)》

**140)** 식경(食頃) : 한 끼 밥을 먹을 만한 시간.

12월 9일(병인) 따뜻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왔다. 마흥(馬興)에 사는 별장(別將) 최익해(崔益海)이 산변(山變)<sup>141</sup>을 당했다고 한다. 나는 손님을 응대하느라 밤에 독서하지 못하였다.

12월 10일(정묘) 유매형이 돌아갔다.

12월 11일(무진) 매우 온화하였다. 조카 유완금(柳畎+ 卍金)이 와서 공부하였다.

12월 12일(기사) 따뜻하였다.

12월 13일(경오) 매우 따뜻하였다. 상인(喪人) 이귀징(李龜徵)이 환곡미를 피해 도망치자, 관아에서 그의 온 집안사람들에게 환복미(還卜米)로 조(租) 2섬을 징납 받았다.

12월 14일(신미) 비가 내렸다. 관문(官門)에 흰색 옷을 금한다는 방(榜)이 내걸렸다. 관에서 내린 첩(帖)을 보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백규(元百揆)가 명을 기다렸다가 인견(引見)하고 하직인사를 할 때, 도승지 정형익(鄭亨益)이 아뢰기를 “무관은 병사(兵使)·수사(水使)로부터 첩호(僉戶)·만호(萬戶)에 이르기까지 흑천익(黑天翼)을 입고 수화자(水靴子)를 신는 것이 옳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령(直領)을 입고 화자(靴子)를 신으니 심히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이니 마땅히 의복은 푸른색을 숭상해야 하는데 지금은 흰색을 숭상한다. 이는 금(金)이 목(木)을 이기는 것과 비슷하니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였다. 정형익이 아뢰기를 “전에 효묘조(孝廟朝 효종)에 일찍이 푸른색을 숭상하라는 명을 내려 비록 선비라고 하더라도 모두 청포(靑袍)를 입도록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으니 이는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음이 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모든 문무관과 상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 색깔은 푸른색을 숭상하도록 하라.”라고 마침내 온 나라에 하교하였다. 본도(本道 경상도)는 오는 25일을 기한으로 하되, 이 날짜가 지나면 영원히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길에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12월 15일(임신) 어제부터 내린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아 샘물이 용솟음쳤다. 전임 통제사 이공 재항(李公載恒)과 신임 통제사 이공 복연(李公復淵)이 고성현에서 교귀(交龜)<sup>142</sup>하였다.

12월 16일(계유) 가끔 흐렸다가 햇벌이 나왔다가 하는데 따뜻하였다. 장의(掌議) 최익하(崔益河)가 굴총(掘塚 뒤통을 파내는 일)에 대한 일로 면직하자 이재인(李載寅)이 대신하고, 최규복(崔珪服)이 면직하자 노수관(盧壽觀)이 대신하였다.

12월 17일(갑술) 구름이 짙게 끼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별장(別將), 호적도감(戶籍都監), 상정도감(詳定都監) 세 건의 임무를 띠고 ■……■ 이번 달 초에 ■……■ 파낸 사람이 있었다. 그 내관(內棺) 아래 구석을 열어 여러 장(丈) 밖으로 그 판자를 던졌다. 소, 말을 비롯한

141) 산변(山變) : 산소에 관한 변고로, 흔히 산송(山訟)으로 확대된다.

142) 교귀(交龜) : 지방관이 바뀔 때에 전임과 후임이 부신(符信)을 주고받는 일을 교귀라고 한다.

여러 가족의 뼈를 많이 모아서 관혈(棺穴)에 쌓고 겨와 쪽정이를 그 위에 포개놓고 불살랐다. 그 다음날 최씨(崔氏)가 듣고 와서 보았다. 최씨가 뼈를 골라내고 불을 켜는데, 관에서 불타지 않은 것은 한 장의 두꺼운 종이뿐이었다고 하니 참혹하다고 할 만하다. 최씨가 그대로 직무를 계속 행했다고 하니 놀랍다.

고을 사또의 근무평가는 중(中)이며, '청렴하고 공평함이 가상하지만 호활(豪猾)한 자를 단속하는 데는 자못 느슨하다.'라고 하였다.

12월 18일(을해) 온화하였다. 각 창(倉)의 별차(別差)가 와서 적잖게 독촉하였다.

12월 19일(병자)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0일(정축) 날씨가 추웠다. 정재종(丁再從) 아들 창백(昌百)이 두역에 걸려 마마자국이 생겼다고 한다. 오후에 우박이 내리다 곧바로 그쳤다. 유월(柳月)에 사는 강씨 집안이 족침(族侵)을 당한 일로, 온 집안사람들이 달아났다. 유사 강성주(姜聖周)가 처자식을 이 곳으로 보내고 자신은 진양(晉陽)을 돌아갔다고 한다. 호남(湖南) 이석제(李錫濟) 부자(父子)가 방문하였다.

12월 21일(무인) 이객(李客, 이석제) 부자(父子)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정노(正奴)가 조(租) 3섬 12두로 김상인(金尙仁)의 석장답(石墻畓) 1배미[夜味] 1마지기[斗地]를 샀다. 정재종(丁再從) 아들 몽호(夢虎)가 두역에 걸려 열이 났다고 한다. 몽대(夢大)는 오늘 처음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12월 22일(기묘) 따뜻하였다.

12월 23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4일(신사) 아침에 가랑비가 갑자기 내리고 식후에는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고, 저녁이 되자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어 먼지를 날렸다. 온돌 역시 차가워 살 속까지 냉기가 느껴졌다. 오두막집이 비록 가난하나 어찌 한(恨)하리오. 몇 사람이나 옷 없이 들판에서 곱하고 있을까.

12월 25일(임오) 따뜻하였다. 어두워지자 통영(統營) 사람 고처건(高處建)과 최처광(崔處光) 등 네 명이 와서 식사하고 유숙하였다.

12월 26일(계미) 고처건과 최처광 등이 새벽에 출발하여 읍에 들어갔다. 시가[市直]가 조(租) 11말이다.

12월 27일(갑신) 아침에 읍(邑)의 나이든 아전 박수인(朴壽寅)이 방문했다가 식사 후 작별하고 떠났다. 이날 눈이 어지럽게 날리고, 밤에 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읍인(邑人) 강후읍종(姜厚邑種) 집에 도포(道袍)를 보내 청색으로 물들이게 하고 왔다.

12월 28일(을유) 종일 바람이 차가웠다. 복자(卜者) 김여필(金汝必)이 와서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저녁에 돌아갈 즈음 그의 가죽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가탄스럽다.

12월 29일(병술) 날씨가 추웠다. 김여필의 가죽 신발을 찾아서 보내주었다.

12월 30일(정해) 성묘(聖廟)를 이건(移建)하고 오늘 환안(還安)하는데 나는 우리 마을이 아직 전염병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향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미년(영조3, 1727) 강어협흡(強圉協洽)<sup>143</sup>

1월[端月] 대월(大月). 14일 입춘(立春), 29일 우수(雨水).

1일[鷄]<sup>144</sup> 무자. 닭 울음이 8,9차례, 더러 12,3차례 들렸다. 동풍이 갑자기 불고 구름이 곤신(坤申) 방향에서 불어와 하늘을 덮어 하루 종일 걷히지 않았다. 김덕삼(金德三)이 방문하였다.

2일[狗] 기축. 어제부터 끼어 있던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았다. 이번 두역(痘疫)이 크게 발생하여 천지가 한 그물에 걸려버렸다.[天地一網] 갈산(葛山)에 가서 돌아왔다.

3일[豕] 경인. 구름이 흩어지고 동풍이 약하게 불었다. 다시 과독(課讀)하였다. 이날 밤에 강악봉(姜岳奉) 마구간에 도적놈이 불을 놓았다.

4일[羊] 신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매형 유생원(柳生員)이 왔다.

5일[牛] 임진. 날씨가 추웠다. 유매형(柳妹兄)이 돌아갔다.

6일[馬] 계사.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누님이 왔다.

7일[人] 갑오. 종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진해(鎭海)에 사는 서삼촌(庶三寸)이 왔다.

8일[穀] 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오후에 찬비가 갑자기 뿌리고 지나갔다. 서삼촌이 돌아갔다.

1월 9일(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고성 사또 이후 상순(李侯尙純)이 그저께 통영(統營)에 들어갔는데, 통제사의 희롱하는 뜻을 맞추지 못하여 무료하게 돌아왔다고 한다. 이전에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멀리 유람하기를 청하다가 돌아갔더니, 오늘 와서 방문하자 내가 절구 시 한 수를 지어서 주었다.

그대 집에서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나	自君之出日幾多
꿈속에 만났더니 이제 또 이별이구려	夢裡相逢別又此
뜻이 있어 오늘 아침 먼저 나를 방문하니	有意今朝先訪我
올해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을 알겠네	始知斯歲不虛過

심군이 저녁이 되자 작별하고 돌아갔다. 송감(松監)<sup>145</sup> 허렴(許廉)이 방문하고서 유숙하였는

**143)** 강어협흡(強圉協洽) : 강어(強圉)는 고갑자로, 정(丁)을 가리키고, 협흡(協洽)은 미(未)를 가리킨다.

**144)** 1일[鷄] :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6일까지 각각 차례로 닭·개·돼지·양·소·말을 점치고 나서 7일에 사람을 점치고 8일에 곡식을 점쳤다.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데, 오늘 아침에 무지개가 보이고 빗방울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1월 10일(정유) 매우 추웠다.

1월 11일(무술)

1월 12일(기해) 날씨가 추웠다. 조카아이 이희서(李喜瑞)가 두역에 걸려 마마자국이 생겼다.

1월 13일(경자) 나는 향교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 이 때 명륜당(明倫堂)에 상량(上樑)을 하지 않는 것은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 개수공사를 하려고 한 것인데, 까치가 날아와서 들보에 집을 짓고 동서쪽에서 새들이 와서 훼손하니 괴이하다. 이 무슨 징조인가?

1월 14일(신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그대로 향교에 유숙하였다.

1월 15일(임인) 나는 계동(契洞)에 갔다. 아침밥을 먹은 후 심군(沈君) 집으로 갔다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향교에 돌아와 유숙하였다. 이날 보름달이 석양보다 먼저 떠올랐는데, 산봉우리 사람들은[上峰人] 흉한 징조라고 말하였다.

1월 16일(계묘)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은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진성(晋城)에 사는 생원 정임기씨(鄭林起氏)<sup>146</sup>가 딸자식을 혼인시키는데, 요강(溺缸), 대야(大也) 같은 물품 및 그릇 및 혼구를 가난해서 마련할 수 없어 직접 나를 보고서 자신의 노비를 사라고 요청했고, 사내종을 보내 편지로 두세 차례 간곡히 요청하였다. 오늘 저녁에 달이 풍봉(豊峯)에서부터 떠올랐다고 한다. 오늘이 바로 보름이다.

1월 17일(갑진) 햇벌이 나왔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

1월 18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고 비 올 조짐이 있다가 오후에 비가 흩어졌다. 올 봄 조수(潮水 밀물)는 너무 들어왔다가 썰물[汐水]이 너무 물러났는데, 통영(統營) 전선이 정박하는 곳에 수심이 얇은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 또 도선포(道善浦)에 긴 대합[長衫蛤]이 매우 많아 대합을 주워 지거나 이고 가는 남녀들이 길을 계속 이었으니, 이는 근고에 없던 일이라고 한다.

1월 19일(병오) 새벽하늘에 우레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20일(정미)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하며 얽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이날 밤 경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145)** 송감(松監) : 소나무의 무단 벌채를 금지하는 감독관이다.

**146)** 정임기씨(鄭林起氏) : (인물) 본관은 동래(東萊), 자(字)는 여신(汝新), 호(號)는 이안재(易安齋)이다. 부는 정혜(鄭德), 조부는 진사(進士) 정홍석(鄭弘錫), 증조부 장사랑(將仕郎) 정지(鄭墀), 고조부는 원종공신인 정언충(鄭彦忠)이다. 외조는 순흥안씨 안수호(安受瑚)이다. 구와(懼窩) 이광점(李光漸)과 내와(耐窩) 남국승(南國升)이 그의 문하생이다.

조용하고 말쑥한 초가집이 도시와 멀어 蕭洒茅齋遠市都  
 매번 좋은 경치 보면서 술병 기울이네 每因清景但傾壺  
 여울소리 바람결 따라 높아졌다 낮아지고 灘聲高下風多少  
 창문 빛은 달빛 쫓아 어두웠다 밝아지는데 窓色暗明月有無  
 석간수 길게 흐르니 무엇 하러 술 담을까 澗水長流焉用酒  
 반가운 손님 절로 오니 부를 필요 없어라 佳賓自到不須呼  
 세상 사람들 내 삶 줄렬하다 비웃지 마소 世人莫笑吾生拙  
 임천에서 이 선비 꼭 늙지만은 않으리니 不必林泉老此儒

1월 21일(무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영창(營倉)의 환곡을 4면 8부(夫)에 나누어 주었는데, 환곡을 계속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장차 과행(科行)할 계획인데 역신(疫神)이 우리 집안을 범할까 걱정되어 계동(契洞)에 필마를 보내 미리 쇠 말굽을 부착하고 잘 먹여 기를 방도를 세웠다.

1월 22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점쟁이 김여필(金汝必)이 와서 저녁을 먹고 떠나갔다. 밤에 비올 기미가 있었다.

1월 23일(경술) 서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심군은 저녁에 돌아갔다. 이날 거제(巨濟) 출신 거지아이 김상이(金尙伊)이란 자가 고노(雇奴)가 되기를 원해 우선 머물러 있으면서 빨감을 하도록 하였다.

1월 24일(신해) 햇벌이 나오고 미풍이 불었다. 김여필(金汝必)이 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1월 25일(임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과행(科行)할 길일을 잡고, 심군(沈君) 집에 나가 묵었다.

1월 26일(계축) 식사 후에 계동(契洞)에 갔다가 그대로 읍으로 들어갔다. 전(錢) 3관(貫)을 바꿔 노잣돈으로 마련했다. 저녁밥을 먹은 후 다시 심군(沈君) 집에서 묵었다.

1월 27일(갑인) 식사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비로소 과행(科行) 계획을 세웠다. 형님 댁에서 식사하고, 정과총(丁把總) 5촌 댁에서 묵었다.

1월 28일(을묘) 햇벌이 나왔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저녁이 되자 또 계동(契洞)에 가서 유숙하였다.

1월 29일(병진) 노잣돈은 단지 3관(貫) 5전(錢)이다. 심군(沈君)과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출발하였다. 명전(明田) 주막에 도착해서 술을 사서 추위를 방지하였다. 진성(晋城)에 사는 생원 이방협(李邦協) 댁에서 묵었다.

1월 30일(정사) 주인이 조출한 술상을 마련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천곡(泉谷)에 도착하였

다. 식사 후에 산진(蒜津)을 건너서 열부(烈婦) 최씨 마을 앞에서 말에게 여물을 먹였다. 밤에 유곡(柳谷)의 김여해(金汝海)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었다. 소녀가 얼핏 보이다가 모습을 감추었기에 내가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유곡에 또 다른 봄 깊숙이 감추어졌으니 柳谷深藏別樣春  
바람에 날리는 화초가 사람 멈추게 하구나 飄風紅緣解留人  
이름난 꽃에 나비가 하늘의 인편이니 名花過蝶知天使  
부디 새봄 맞아 한번 웃음 아끼지 마시게 且莫迎新愛一顰

이날 말(馬) 위에서 심군(沈君)이 운(韻)을 부르면서 나에게 즉시 응대(應對)하게 하였다. 희롱삼아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저 용문<sup>147</sup>에는 일등으로 올랐으니 陟彼龍門第一頭  
내 삶 만족스러운 건 정녕 가을 맞았을 때 吾生得意正當秋  
옆 사람아 나그네가 게으르다고 비웃지 말게 傍人莫笑征驂懶  
아름다운 내 이름은 만고에 흐르리니 將使芳名萬古流

2월 대월(大月). 14일 경칩(驚蟄), 29일 춘분(春分).

2월 1일(무오) 식사 후에 출발하였다. 의령(宜寧) 원촌(院村) 앞에 도착하니,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근처 냇가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고 술을 사서 추위를 방지하였다. 모아령(毛兒嶺)에 도착하자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저물녘 삼가(三嘉) 안구(安丘) 신기촌(新基村) 주막에 머물렀는데, 나는 생원 남도원(南圖遠) 택에서 식사하였다. 밤에 이슬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2일(기미) 남생원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권하였다. 식사 후에 출발하였다. 종일 비를 맞았다. 합천(陝川) 함벽루(涵碧樓) 부근 연호사(烟湖寺)<sup>148</sup>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때 흥이 일어나 입으로 나오는 대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높다란 화각이 맑은 물가에 섰으니 (山+層)峻畫閣挹清流  
경치가 남녘에서 제일가는 누각이라 形勝南州第一樓  
애써 올라 물밑을 보려고 하는데 強欲登臨深見底  
자리 옮겨 난간머리에 앉기가 어렵도다 不堪移席坐欄頭

저녁에 합천읍 북문 밖 정진봉(鄭進奉) 집에 머물렀다.

2월 3일(경신) 종일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식사 후에 지래현(持來峴)을 넘었는데, 장사꾼이 도적을 만나 탈취를 당한 곳을 보니 나도 모르게 두려워 마음이 떨렸다. 귀수원

**147** 용문(龍門) : (고사) 과거급제를 가리킨다. 용문(龍門)은 황하(黃河)에 있는 물살이 매우 센 폭포 이름으로, 잉어가 이 폭포를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148** 연호사(烟湖寺) : (지명)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비봉산에 있는 절.

(貴藪院)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었다. 술을 사서 갈증을 해결했다. 저녁에 고령읍(高靈邑) 동쪽 감천촌(甘泉村)에 사는 김만귀(金萬龜) 집에서 머물렀다.

2월 4일(신유) 비올 기미가 금세 사라졌다. 출발할 즈음 심군이 운(韻)자를 부르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듣자하니 용지에 비 내리다 언뜻 개었다니 聞道龍池雨乍晴  
연밭 따는 아가씨 배를 탈 수 있으리라 采蓮之子可乘艇  
우리들의 이 걸음을 하늘이 아신다면 吾輩此行天若解  
무지개다리 응당 달님 향해 놓아주시리라 彩橋應向桂宮成

정(艇)자는 운자가 아닌데 심군(沈君)이 잘못 지었다. 대교(大橋) 시장에 이르러 동(銅) 7전(錢)으로 쌀 3되를 샀다. 통행하는 되용량으로 헤아리면 5되이다. 동(銅) 2전(錢)으로 말여물 콩 1말 2되를 샀다. 저물녘에 시소(試所)가 있는 성주읍(星州邑)에 들어갔는데 고아치이(高衙峙里) 관노(官奴) 이추립(李秋立) 집에서 하관(下館)을 정하였다. 집에 기생 몽애(夢愛)가 있었다. 이날 종일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2월 5일(임술) 본읍 형전(荊田)에 사는 정봉걸 구만(鄭鵬杰九萬)이 방문하였는데, 삼가(三嘉)에 사는 생원 남도원(南圖遠)이 뒤따라 도착하였다.

2월 6일(계해) 구름이 흩어져 햇빛이 밝았다. 몽애(夢愛)에게 술을 사오라고 해서 술 마시는데, 화로 옆 단장한 기생이 술잔에 비치자 술을 마시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뇌하였다.

2월 7일(갑자) 청명하였다. 형전(荊田)에 사는 정재관 재문(鄭再觀再文)이 방문하고 하관(下館)하였다.

2월 8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진주(晉州)에 사는 이광점(李光漸 자가 진여進汝)과 단성(丹城)에 사는 정제웅(鄭濟雄 자가 경숙經叔)이 뒤이어 도착해서 김남원(金南原)의 옛 집에서 하관하였다. 동향(同鄉) 사람 정석봉(鄭碩鵬)이 방문하였다. 밤에 또 구름이 끼었다.

2월 9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진주(晉州)의 접우(接友)들이 일제히 도착하였다.

2월 10일(정묘) 남생원(南生員)이 다른 곳으로 옮겨 하관하였다.

2월 11일(무진) 청명하였다. 과장에 들어갔다.

2월 12일(기사) 맑고 따뜻하여 자못 봄날 온화한 날씨 같았다. 시제(詩題)는 ‘무성편(武成篇) 끝부분에 요순(堯舜)의 기상(氣像)<sup>149</sup>을 탄식하였다.’이고, 부제(賦題)는 ‘의식적인 행동이 무위를 이룬다.[有爲致無爲]’였다. 나는 시권(試卷)<sup>150</sup>을 올린 후에 도로 과장에 들어가

**149** 무성편(武成篇)……탄식하였다 : 무성(武成)은 《서경(書經)》 편명으로, 은나라 수(受)가 무도(無道)하자 주 무왕(周武王)이 정벌한 기록이다. 요순(堯舜)의 기상(氣像)이란 선양(禪讓)하면서 천하에 무심하였다는 의미이다.

정겸삼(鄭兼三)과 정경숙(鄭經叔)의 두 시권을 필사하였다.

2월 13일(경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14일(신미) 새벽에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중용》은 의(疑), 《주역》은 의(義)를 출제했다.<sup>151)</sup> 나는 정함장(鄭函丈)의 시권(試卷)과 함안(咸安)에 사는 이세백(李世白)의 시권을 필사하였다. 막 어두워지자 비올 기미가 성대하였다. 이날 도사(都事)가 예(禮)에 벗어난 단서가 있자 선산(善山) 선비들이 과거시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행동을 취하려고 하자, 도사가 스스로 허물을 사과하고서야 일이 진정되었다. 이경(二更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후에 비가 그쳤다.

2월 15일(임신) 식사 후에 출발하였다. 심군(沈君)과 함께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고령읍(高靈邑)에서 점심을 먹고, 안림(安林)에 사는 박귀창(朴貴昌)의 집에서 묵었다.

2월 16일(계유) 일찍 출발해서 초계(草溪) 팔진(八鎭)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길에서 의령(宜寧) 중교(重橋)에 사는 생원 이세갑(李世甲)을 만나 같이 가다가 중교에서 묵었다.

2월 17일(갑술) 일찍 출발하였다. 불산진(浬山津) 앞머리에서 아침밥을 먹고, 함안(咸安)에 사는 재종(再從)인 공흥도(孔興道) 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대산(大山) 처갓집에 머물렀다.

2월 18일(을해) 우비치(牛飛峙)를 넘어서 심군(沈君)과 서로 헤어졌다. 배둔(背屯)에서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지나는 길에 두포(頭浦)에 사는 이여함(李汝涵)을 방문했다가 소소포(召所浦)를 막 건너는데 비가 이미 크게 내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갈 때 비가 크게 내렸다. 몽대(夢大)가 초하룻날부터 두역(痘疫)에 걸렸는데 경과가 좋아 오늘 벌써 역신(疫神)을 전송했다.

2월 19일(병자) 비가 개지 않고 밤에 바람이 불었다.

2월 20일(정축) 동풍이 불고 비가 갑자기 개었다. 새 사또 무변(武弁) 출신 김후 상한(金侯相漢)이 부임하였다.

2월 21일(무인) 아침에 정석봉(鄭碩鵬)이 방문했는데 식사한 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날 종일토록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으며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2월 22일(기묘) 바람이 차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마암(馬岩)에 거주하신 형님 덕의 여식이 두역에 걸린 지 10여일 인데 이날 저녁에 정신을 잃고 요절하고 말았다.

150) 대본 시권(詩卷)은 '시권(試卷)'의 오기이다.

151) 《중용》은……출제했다 : 의의(疑義)는 과거 시제(科擧試題)의 일종으로, 의(疑)는 경전의 의난처(疑難處)를 논술하여 풀이하는 것이고, 의(義)는 경전의 의의(意義)를 해설하는 문장이다.

2월 23일(경진) 한밤중이 되려는 즈음 어떤 도둑놈이 우리집 동쪽 울타리를 불태웠는데 즉시 진화(鎮火)하였다. 바람의 기세가 가볍지 않더니 삼경(三更) 후에 멈추고 바람결에 때때로 이슬비가 내렸다.

2월 24일(신사)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비록 햇볕이 나왔지만 바람은 여전히 먼지를 일으켰다.

2월 25일(임오) 햇볕이 나와 온화하였다. 진주(晋州)에 사는 사내중 금동(今同)과 계집중 금덕(今德)이 왔길래 우선 잡아두었다.

2월 26일(계미) 햇볕이 나왔다.

2월 27일(갑신) 몽아(夢阿)가 홍역을 치른 이후 오늘에서야 비로소 기어 다닐 수 있었다.

2월 28일(을유) 따듯하고 햇볕이 나왔다. 채소밭을 가꾸었다. 계동(契洞)에 사는 누님이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친정에 문안인사 왔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9일(병술) 찬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와 초가지붕이 많이 날렸다. 오후에 비가 또 바람을 타고 갑자기 몰려왔으나 금방 그치고, 밤이 되자 바람의 기세가 갑자기 약해졌다. 당시 이웃에 살던 김태방(金太方)이 여덟 사람의 손기술[도둑질]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주위 마을 사람들이 등을 자리에 편히 눕지 못하였다. 밤에 눈이 내렸다.

2월 30일(정해) 어제 불던 바람이 아직도 누그러질 기세라곤 없고 동이나 솔단지 물이 모두 얼었다.

3월 소월(小月). 14일 청명(淸明), 29일 곡우(穀雨), 15일 한식(寒食).

3월 1일(무자) 날씨가 청명하고 가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 갑자기 차가워졌다. 계동(契洞)에 사는 누님이 작별하고 돌아가는데, 소 한 마리를 끌고 갔다. 오후에 바람이 또 불었다.

3월 2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춥고 눈이 수시로 내렸다. 3월에 눈이 내린 일이 괴이하다. 그다지 오래지 않은 옛 사람들 말에 음력섣달에 천둥이 치고 3월에 눈이 내리는 것은 전란(戰亂)의 징조라고 하였는데, 금년 봄에는 윤달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절기가 오히려 빠르기 때문인가? 지난 신축년 여름 4월에 내가 삼가(三嘉)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sup>152)</sup> 박함장(朴函丈)의 온 집안사람들과 함께 북면(北面) 묵회동(默會洞) 강수망(姜守望)의 집에서 두역(痘疫)을 피했었다. 집은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초목과 수풀, 덩굴이 찬 서리를 맞아 누렇게 시들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조정(朝廷)이 불안하여

**152)** 위험에……때 : (고사) 원문의 ‘어유(魚遊)’는 위험에 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남조(南朝) 양(梁) 구지(丘遲)의 <여진백지서(與陳伯之書)> 에,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물고기가 끓는 솥 속에서 노니는 것과 같고, 제비가 바람에 날리는 장막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과 같다.[魚游於沸鼎之中 燕巢于飛幕之上]”라고 하였다. 《文選 卷43》

당과의 옥사(獄事)가 크게 일어났으니 징조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3월 3일(경인) 병자년 오늘이 바로 큰 형 생신날이다.

3월 4일(신묘) 매형 이여섭과 초관(哨官) 정재장(丁再長)과 함께 통영(統營)에 들어가 서문(西門) 안 조세필(曹世必) 집에 하관(下館)을 정하였다.

3월 5일(임진) 천동(泉洞)에서 나왔다. 저녁을 먹고 성(城)으로 들어갔다. 어두워지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3월 6일(계사) 비가 개었다. 정석봉(鄭碩鵬)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3월 7일(갑오) 이날 어두워지자 바람이 한 줄기 비를 몰고 왔다가 곧바로 그쳤다.

3월 8일(을미)

3월 9일(병신) 매형 이여섭이 계속 영중(營中)에 머물렀다. 나는 정재장(丁再長)·배석장(裴石長)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남관(南關) 사람 이동신(李東臣)·서명갑(徐命甲)·김세보(金世寶) 여러 벗들이 술을 가지고 북문 밖에 나와 전별하였다.

3월 10일(정유) 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가 성황단(城隍壇)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3월 11일(무술) 제사를 지낸 후에 동문(東門) 밖 동네집에서 잠시 쉬었다. 이 때 하늘이 맑았다. 이른 새벽에 돌아왔다. 막 오치(烏峙)를 넘을 때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3월 12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13일(경자) 향교에 들어갔다. 도감(都監) 첨사(僉使) 이팽년(李彭年), 장의(掌議) 이정인(李挺寅)·유사(有司) 이▮만(李▮晩)을 만나보고 돌아왔다. 매형 이여섭이 남관(南關)에서 돌아왔다.

3월 14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향교에 쓸 재목을 구하기 위해 통영(統營)에 들어가 병비(兵裨)<sup>153</sup>를 만나 보았다. 현사(縣司)<sup>154</sup>에서 묵었다.

3월 15일(임인) 저녁에 승무당(崇武堂)<sup>155</sup>에서 묵었다. 밤에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정재종(丁再從) 및 김홍중(金弘重)·양언장(梁彦璋)·정상일(鄭相一)·김문규(金文揆)·이동신(李東臣)·김덕직(金德直) 등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153) 병비 : 병사(兵事)를 맡은 비장(裨將)을 가리킨다.

154) 현사(縣司) : 현의 호장이 직무를 보는 곳으로, '현사(縣舍)'라고도 한다.

155) 승무당(崇武堂) : (고적) 충렬사 안의 부속건물이다.

3월 16일(계묘)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정석봉(鄭碩鵬)과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안정사(安靜寺)에 들어가 승당(僧堂)에서 묵었다.

3월 17일(갑진)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정군(鄭君)과 가섭암(迦葉菴)에 올라가서 독서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나는 우선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다. 생원 양석제(梁錫濟)와 김명택(金鳴澤)이 방문하였다.

3월 18일(을사)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흠비도 쓸쓸히 내렸다. 나는 양생원(梁生員)과 가섭암(迦葉菴)에 올라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 큰 천둥이 한 차례 치고 비가 크게 내렸기에 분주하게 암자로 들어갔다. 오후에 식사 후에 의상암(義湘菴)에 올랐는데, 도착하기 전에 먹구름이 바퀴처럼 치달리고, 비가 또 쏟아져 달려서 소암(蕭庵)에 들어갔다. 그 아들과 김백겸(金伯謙)과 함께 본 암자에 와 거처한 지 이미 한 달 남짓이다. 우박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그치고 밤에는 또 비가 내렸다.

3월 19일(병오) 새벽에 갑자기 봄잠에서 깨어 난간을 기대어 바라보니, 온 산의 수많은 나무들에 눈이 아득히 퍼져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삼월에 어찌 이리도 눈이 많이 내린단 말인가. 식사한 후에 양생원(梁生員)과 고개를 넘어 내려갔다. 며칠 전에 정노(正奴)를 천곡(泉谷)에 보내 금동(今同)과 금덕(今德) 등이 도망 와 있다는 기별을 알려주었는데, 오늘 천동(泉洞)에서 와서 금덕(今德)을 추쇄해서 데리고 가고, 금동의 경우는 계속 이곳에 남겨 두었다. 괴이하도다. 어제 우박의 크기가 거의 대추 정도였다. 눈이 어지럽게 내렸다.

3월 20일(정미) 따뜻하였다. 정석봉(鄭碩鵬)이 백족(白足)<sup>156)</sup>을 보내 돌아왔다고 알려왔다. 이날 밤에 줍도둑이 들어 곳간 안에 있던 콩과 좁쌀 5, 6말 정도를 훔쳐 나가는데, 막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갈 때 뿔나무 신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쫓았더니 도둑이 마침내 그 곡물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아침에 명령을 내려 수군과 육군의 훈련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3월 21일(무신) 바람이 불어 구름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흠비가 내려 흐렸다. 뜰 앞의 매화 한 가지가 이제 비로소 꽃을 피웠기에 희룡삼아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버들과 함께 봄 다뤄야 참으로 마땅하거늘 柳與爭春固所宜  
새봄 맞아 무슨 일로 이렇게도 더뎠는가 迎新何事此遲爲  
동군<sup>157)</sup>의 소식 혹 늦고 빠름 있으니 東君消息或先後  
어쩌면 동군에게 사사로운 생각 있었는가 無奈東君其有私

3월 22일(기유) 구름이 잔뜩 끼었다. 잠두(岑頭)에 사는 김명택(金鳴澤)이 방문했다가 오후에 남촌(南村)으로 향해 갔다. 올봄 벽어(碧魚 청어) 5마리의 값이 전(錢) 1문(文)이다. 몇

**156)** 백족(白足) : (고사)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후진(後秦) 구마라습(鳩摩羅什)의 제자인曇始(曇始)의 발이 얼굴보다도 희었는데, 진흙탕을 맨발로 걸어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았으므로, 당시에 백족 화상(白足和尚)이라고 불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高僧傳 神異下 曇始》

**157)** 동군(東君) : 봄을 주관하는 신을 가리킨다.



해 전에 좌도(左道)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로 괴이한 돌을 건졌는데 그 형체가 석불(石佛)과 같았기에 다다진(多多鎭)에 두고 신좌(神座)로 삼았다. 이후로 좌도(左道)에 물고기떼가 매우 많았다. 지금 통제사 이공 복연(李公復淵)이 비장 강만제(姜晚齊)를 보내 군기(軍器)를 적간(摘奸)한다는 명목으로 다다진의 군기고(軍器庫)를 다 검열하여 그 돌을 수색해 찾아서 배에 실고 돌아와 통영 선창(船倉)에 두니, 사람들이 ‘청어조(靑魚祖)’라고 불렀다. 올봄 수군과 육군 훈련이 모두 날짜를 정했는데, 순사(巡使)가 방계(防啓)<sup>158</sup>하여 그에게 관문(關文)이 내려왔다. 김해진(金海鎭)은 이미 훈련을 끝마쳤고, 다른 진영(鎭營)은 중지하고 행하지 않았다.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3월 23일(경술) 가랑비가 쓸쓸히 내렸다. 을사년 오늘은 바로 어머니 생신날이다. 저녁에 김명택(金鳴澤)이 또 와서 밥을 주고 머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한 고담(古談)은 다음과 같다.

신라(新羅) 때 박필달(朴必達)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거족(巨族)이었다. 그러나 5세대 이하로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즈음 모두 객사하였다. 그 아버지 역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도중에 객사하니 아내가 임신한 지 겨우 7개월이었다. 해산달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필달’이라 하였는데, 정신이 빼어나고 난초처럼 향기로웠다. 나이 일곱 살 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안에 늙은 하인이 있었으니 일찍이 박씨 집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두 세대를 따라 서울을 오갔던 자였다. 다가와 필달을 어루만지고 흑흑거리며 눈물이 줄줄 툇까지 흐르며 말하기를 “도련님, 도련님! 어찌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도련님을 뵈니 골수에 병이 들어 정신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필달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꾸짖기를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어찌하여 이다지도 당돌하게 와서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느냐?” 라고 하였다. 노복이 옆드려 오열하며 다가가 말하기를 “소인이 일찍부터 주인과 종의 차이를 알았는데 언감생심 주인님을 업신여겨 그러했겠습니까? 아야! 도련님, 도련님! 제가 돌아가신 왕정자(王正字) 진사님(할아버님)을 뵈셨고, 또 돌아가신 선정자(先正字) 진사님(아버님)을 모시다가 모두 객로(客路)에서 운구하였습니다. 이제 도련님의 용모와 위의를 뵈니 훌륭한 자태가 못사람을 뛰어넘어 위로 만만번 아버님의 도를 이을 만한데 어찌 옛일을 더듬으며 지금의 현실을 아파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또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나이 겨우 여섯 일곱에 거의 경서를 다 깨치시어 고을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제 도련님의 나이가 예전 아버님의 나이에 이르렀으면서도 아버님의 글을 읽지 못하니 집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서는 더욱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필달이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당(內堂)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재배하고 노복의 말을 갖춰 말하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소자로 하여금 학문을 업으로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놀며 멍하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쭙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야! 너는 앉아 보거라. 내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아비 없는 자식의 어미가 되어 어찌 그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지 않겠느냐? 다만 너로 하여금 스승을 따르게 하여 어미의 품을 떠날 때면 반드시 오랜 마음에 병이 될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필달이 일어나 대답하기를 “어머님 곁을 한번 떠나 비록 혼정신성(昏定晨省)<sup>159</sup>의 예를 갖추지

**158)** 방계(防啓) : (제도) 어떤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 것에 대하여 그 일을 시행하지 않도록 아뢰는 것.

**159)**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못하더라도 오래 스승의 문하에 머물면 장차 성공하여 현달하는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출가한 목목 상인(默默上人)이라는 분이 있어 지금 속리산 속에 있는데 그 문장과 글씨가 옛 작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분을 따라 절곳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고도[磨杵之苦]<sup>160)</sup> 사양치 않습니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느라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알았다. 네가 생각한 바대로 하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책 상자를 메고 산에 들어가 목목상인에게 절을 하니 목목상인은 그가 박씨 집안의 아들임을 알았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와 “산도 깊고 계곡도 많아 새조차 오지 않는 곳에 천금보다 귀한 도련님이 이제 무슨 연유로 이곳까지 왔소?” 라고 하였다. 심오한 이치를 말하는 여가에 글을 지으니 생각이 무식하여 사리를 모르지는 않았다. 목목상인이 이르길 “세상을 피해 종적을 멀리 감추고 불가의 음식을 먹으며 까까머리 천한 몸으로 이미 임금과 아버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었소. 추구하는 도가 허무에 있으니 어찌 가르치고 훈도하겠소? 공자께서는 가고 없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니 빈도가 어찌 족히 취하겠소?” 라고 하였다. 필달이 진실로 사양치 마시길 청한 후에야 그에게 허락을 받았다. 등잔을 밝혀 낮을 이어가면서 정성스레 힘을 쏟으니 5, 6년만에 문조가 날로 풍부해지고 현명함이 목목상인보다 뛰어나게 되었다. 외지에 거처한 지 7년 동안 모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그때 나이 이미 열 네살이었다.

봄날 성진사(成進士)라는 한 나그네가 있어 마침 산사에 이르렀다가 필달이 태연하게 글을 읽는데 눈이 밝고 정신이 깨끗하여 마치 빙호氷壺와 옥경玉鏡과 같이 결연히 공경함을 보았다. 자리를 옮겨 앞으로 다가가 “수재는 어느 분의 자제인가?” 라고 물었다. 필달이 책을 덮고 일어나 절을 두 번하며 대답하기길 “소자는 돌아가신 박정자朴正字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진사는 곧 박정자와 같은 해에 진사가 되어 책상을 나란히 하며 성균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의 부친과 나는 일찍이 범식(范式)과 장소(張劬)의 사귀<sup>161)</sup>과 같은 교우를 맺었더니 살고 죽음이 홀연하여 종자기(鍾子期)<sup>162)</sup>와 같던 벗은 떠났네. 오늘 아침 이처럼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을 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그대는 지은 것이 있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소매에서 꺼내 드렸다. 성진사가 받아 다 읽으니 그 시문 또한 맑고 빼어나며 뛰어나 그 사람됨과 비슷하였다. 문채는 뛰어나 이미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크게 중당(中唐)과 만당(晚唐)의 문풍에 도달한 듯하였다. 감탄하여 한동안 있다가 “그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구나. 아마도 지하에서 눈을 감았지만 혼백만은 또한 그 불행을 슬퍼하지 않으리라. 내 친구는 죽지 않았도다. 그대는 입신하여 고관이 되어 당세에 현달할 만하다.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따라 서울로 가서 일찍부터 아버님의 유업을 잇게나”라고 하였다. 필달이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160)** 절곳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고도 : (고사) 이백(李白)이 젊었을 때 일찍이 상이산(象耳山)에서 글을 읽다가 미처 학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도중에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가 한창 무쇠 절곳공이를 갈고 있으므로, 이백이 그 까닭을 묻자, 노파가 말하기를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欲作針耳]” 하므로, 이백이 그의 말에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 다시 되돌아가서 학업을 다 마쳤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蜀中廣記 卷12》

**161)** 범식(范式)과 장소(張劬)의 사귀 : (고사) 한(漢)나라 범식(范式)과 장소(張劬)가 친하게 지내다가 각자 향리로 돌아갈 때, 2년 뒤에 범식이 장소의 모친을 찾아가 뵙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마침 그날이 돌아오자 과연 범식이 찾아와서 마루에 올라 모친에게 절을 한[升堂拜母] 뒤에 즐겁게 술을 마시고 떠나갔던 고사를 말한다. 《太平御覽 卷407》

**162)** 종자기(鍾子期) : (고사) 춘추시대에 금(琴)을 잘 닦던 백아(伯牙)가 지음(知音)의 벗 종자기가 죽자 금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 하여 금의 현(絃)을 모두 끊고 다시는 타지 않았다는 고사를 원용하였다. 《列子 湯問》

“소자가 어머니와 이별한 지 여러 해인지라 오랫동안 곁에서 모시는 예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곧장 집으로 돌아가 깊은 병이 된 늙으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어르신께서 먼저 가신다면 소자가 응당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날짜를 정하여 약속하여 묵묵상인게 사례하였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께 절을 하고 나서 산사에 있을 때 기약한대로 서울로 가기로 한 약속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거라”라고 하였다.

그날로 집을 꾸러 길을 떠나 낙수(洛水 한강)에 이르러 성진사와 성균관에서 아버지의 벗이었던 여러 장로들을 뵈니 장로들이 감탄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무렵 서울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오묘한 도에 밝았고 길흉에 능하니, 공경(公卿)과 대인(大人)으로부터 선비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보석을 팔아 점을 치기 위해 보석 상점 아래 서로 줄지를 정도였다. 좌중의 한 어른이 이르길 “이 아이의 수요(壽夭)와 궁달(窮達)을 신령스런 거북에게 물어봄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한 좌객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각자 주머니를 털어 50금을 만들고 “이 금이 적으니 어찌하겠소?”라고 함에, 성진사가 “웃어른부터 세 명이 직접 점쟁이에게 가면 천금을 주는 것보다 귀중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점쟁이에게 가니 점쟁이가 크게 놀라며 황감해 하며 목욕재계하고 향을 사르고서 점대를 꺾고 귀갑(龜甲)을 던졌다. 한동안 깊이 음미하더니 혀를 차기를 그치지 않으며 “애석하도다. 이 사람이여! 명이 모래면 다하겠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몸이 청운위에 이를 것인데 기어이 요절함을 면하지 못하리니 어찌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수레를 돌려 그 집으로 돌아가게 재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필달이 듣고 통곡하며 “술수의 이치도 더러 믿을 만하겠지. 내 삶이 가련하구나! 내 삶이 가련하구나! 오랫동안 산방에 있으면서 헛되이 만권의 책을 읽으며 7년 동안이나 아침저녁으로 어머니께 달고 기름진 것을 받들지 못했으니 자식된 마음을 또한 어찌하랴? 고향집은 천리인데 죽을 기한은 이틀이라니 이제 비록 돌아가더라도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였다. 마침내 점집을 나와 여관으로 돌아가 그 곡절을 말하니, 주인은 곧 점쟁이의 친척이었다. 곧장 수 백은을 가지고 가서 물으니, 점쟁이가 “애석하도다. 이 사람이여! 그 수명이 모래까지 이니 점을 친들 무엇에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주인이 어찌할 수 없어 날이 새면 돌아가려 했다. 점쟁이가 손을 꼬덕이며 그를 불러 귀에 대고 말하길 “내가 너에게 어찌 감추는 말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지만 그 방도 역시 죽음을 면하기는 어려우니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주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점쟁이가 “모래 밤 목 승상의 큰 따님 아가씨의 방에서 자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죽음보다 어려울 것이니 어찌하랴?” 라고 하였다. 주인 또한 어찌할 수 없어 돌아와 그 말을 전했다.

필달이 끝내 그 일을 도모할 수 없으니 다음날 출발하면 장차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서 죽을 것이라고 여겼다. 말 위에서 홀연 눈물을 흘리고 팔뚝을 걷어 부치며 “사람에 이 세상에 태어나 이미 불효자가 되는 것을 면하지 면하였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찌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내가 응당 목 승상의 집에 들어 살고 죽는 일을 결판내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고삐를 돌려 말을 달려 승상댁 문 밖에 이르렀다. 손에는 가지런한 환단선(紈團扇)을 들고 입으로는 당시 몇 편을 읊조리니 “지나는 구름을 뗏혀 가지 못하고, 푸른 물도 멈추어 흐르지 못하는 구나”이었다.

마침 한 노파가 있어 목 승상댁 문에서 나오니 아가씨의 유모였다. 말고비를 어루만지며 웃

으며 말하길 “그 어떤 할미가 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가? 공자는 어디 살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입니까? 무슨 일로 우리 문 밖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필달이 대답하기를 “저는 나이 어린 나이로 처음 서울에 왔다가 전에 머물던 여관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노파가 “작은 집에 비록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어찌 꼭 다른 곳으로 가지겠습니까?”라고 하여 마침내 그 집으로 들어 대하기를 마치 자기 주인처럼 하였다. 말하길 “제가 공자를 대함이 이와같은 것은 공자의 용모와 풍도를 보건대 분명 속세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갖추어 내왔다. 필달이 자신은 내일 저녁이면 장치 죽을 사람임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르고 정신은 절로 날아 흩어져 술잔을 잡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가 없었다. 노파가 억지로 그 연유를 물음에, 필달이 대답하기를 “내일저녁이면 죽을 사람이 어찌 음식을 달가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노파가 깜짝 놀라며 “그 점쟁이는 곧 저의 인척이라 마음이 형제와 같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그에게 묻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돈 상자를 털어 급히 점쟁이에게 던져주고 그 운명을 물었다. 점쟁이는 노파가 이미 그 말을 들었을 것을 헤아리고 반드시 죽을 것임으로 스스로 확신하여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 점치지 마시게, 이 사람의 수명은 내일이면 끝날 것인데, 어찌 그를 위해 점을 치시오?”라고 하였다. 노파가 말하길 “내가 이 공자를 위해서는 천금도 아깝지 않소. 만약 대신할 수 있다면 바라건대 백번이라도 내 몸으로 대신하겠소”라고 하였다. 점쟁이가 비로소 노파가 박필달의 자질에 감복했음을 생각하고 곧 살 수 있는 방도는 노파에게 알려주었다. 노파가 ‘이 공자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박필달에게 위로하며 일러주길 “공자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자께서 죽음에서 살아날 방도를 가지고 있으니 내일 새벽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기를 하루가 저물려 하였다. 소저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네가 아버님께 죄를 지었느냐? 죄가 비록 죽을죄를 저질렀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슨 연유로 근심을 감추고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하느냐? 행여 꺼리지 말고 그 속마음을 모두 말하거라”라고 하였다. 노파가 마당에 엎드려 죽음을 청하며 “저는 아가씨가 태어나신 이후 양육을 제 자식와 똑같이 한 것이 이제 벌써 16년입니다. 이제 죽을 죄가 있어 감히 죽음을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소저가 “무슨 일이야?”라고 하니, 노파가 말하였다. “어제 날이 저물 즈음 한 총각 공자가 있었는데 눈이 맑고 정신이 깨끗한 것이 분명 세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연히 문 앞에 왔는데 저는 삼청선계(三淸仙界)<sup>163</sup>의 신선이 우연히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부들자리를 내어 맞이하고 술과 음식을 내었지만 공자는 슬픈 표정으로 입에 대지 않고 점친 이야기로는 죽을 날이 이미 닳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슬픔과 애석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천금을 주고 다시 물으니 점쟁이는 곧 죽은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제가 울며 살릴 방도를 물으니 점쟁이가 ‘비록 살아날 방도가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죽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 이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일을 성취한다면 하늘이 그 수명을 늘여주고 신명이 그 복록을 도우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그 방도를 물으니 점쟁이는 머뭇거리며 한참 있다가 ‘이리저리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망령되이 말하였다가 죽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와 공자를 위하여 죽고자 하여 감히 그 일을 알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가씨께서는 일곱 자 작은 공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천금같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소저가

163) 삼청선계(三淸仙界) : 도교(道敎)에서 신선이 산다는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을 말함.

묵묵히 한참을 있다가 눈가에 부끄러이 홍조를 띠고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다. 노파가 자신은 분명 죽었구나 생각하고 엎드려 명을 기다렸다.

밤도 삼경에 이를 즈음 소저가 잠시 일어나 노파를 불러 “할멈! 할멈! 여자로 세상에 태어나 한 남자를 살릴 수 있다면 죽할 것이다. 어찌 규방 속의 미친한 몸을 아끼어 인간세상의 훌륭한 남자를 살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노파가 이에 명을 받고 기쁜 마음에 떨 듯이 밖으로 나갔지만 노복이 이미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 공자는 이미 죽었다. 다만 골골거리는 소리만이 목구멍 사이에 있을 뿐이었다. 이에 필달을 데려다 소저의 방 비단 휘장 아래 놓고 물러나 밖에서 기다렸다. 소저가 그 장차 죽으려는 소리를 듣고 측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옷을 벗겨 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였다. 소저 또한 옷을 벗고 그를 품은 채 베개를 나란히 하여 누웠다. 첫답이 울자 박필달이 길게 숨을 내쉬고 깨어나 사방을 둘러보니 방의 기물은 사치하고 화려하며 휘장은 아름다웠다. 또 처자의 단정하고 정일한 자태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그 오른쪽에 앉았지만 모두가 기이할 뿐이었다. 곧장 옷을 단정히 하고 문밖으로 나오니 노파가 문밖에 엎드려 있다가 그 연유를 이야기하였다. 박필달이 그 은혜에 깊이 감복하여 다시 소저의 방으로 들어가 반듯하게 앉아 한참을 있다가 “제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가씨의 은혜입니다. 제가 후일 늙으신 어머니를 다시 뵈 수 있는 것도 아가씨의 은혜입니다. 먼 곳에 못난 자취를 남기다가 승상택 아가씨의 은혜를 입어 이미 죽은 목숨이 살아난 것은 하늘의 도움입니까? 신명의 도움입니까?”라고 말하고, 필달이 절을 하니 소저가 또한 절을 하였다. 소저가 “공자께서 오늘을 사실 수 있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후일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저 때문입니다. 제가 우러러 바라며 몸을 마칠 분은 공자님입니다. 공자께서는 저를 멀리하여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필달이 “과거 날짜가 가까우니 제가 행여 급제한다면 서덕언(徐德言)과 낙창공주(樂昌公主)가 나누어 가졌던 거울<sup>164</sup>이 풍성(豊城)의 고검(古劍)<sup>165</sup>처럼 다시 등글게 합쳐지듯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저가 마침내 노파를 불러 유리잔을 가져다 유하주(流霞酒)<sup>166</sup>를 따르니 필달이 술을 다 마시자 노파의 집으로 나와 절하며 다시 살아난 은혜에 감사하였다.

또한 여관에 들어가니 여관 안의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어떤 이가 묻기를 “진짜 필달인가? 귀신 필달인가?”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과거를 실기하니 사방에서 모인 이름난 선비 수만 수천 중에 박필달이 열네 살 어린 총각으로 장원 급제하였다. 조정에 가득한 공경과 재상들이 그 문장에 탄복하고 그 신선과 같은 풍모를 아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목 승상은 아들이 없이 단지 딸만 셋을 두었

164) 서덕언(徐德言)과 낙창공주(樂昌公主)가 나누어 가졌던 거울 : (고사) 진(陳)나라 때 태자사인(太子舍人) 서덕언(徐德言)이 진 후주(陳後主)의 누이인 낙창공주(樂昌公主)와 결혼하였는데, 시국이 불안하여 장차 헤어지게 될 것을 예감하고는, 동경(銅鏡)을 절반으로 쪼개어 한 조각을 공주에게 주면서 정월 보름날에 도시(都市)에 내다 팔도록 하였다. 그 뒤 과연 부부가 서로 헤어졌는데 서덕언이 도시에서 그 거울을 찾아서 맞춰 보고는 “거울과 사람이 함께 떠났는데,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안 돌아오는구나. 항아의 그림자는 다시 볼 수가 없고, 공영히 밝은 달만 휘영청 빛나네.[鏡與人俱去 鏡歸人不歸 無復姮娥影 空留明月輝]”라고 거울에 시를 써서 보냈다. 그때 공주는 월국공(越國公) 양소(楊素)의 집에서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 시를 본 뒤로는 음식도 들지 않고 울기만 하자, 양소가 그 내막을 알고는 마침내 서덕언에게 공주를 돌려주어 부부가 해로(偕老)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本事詩 情感》

165) 풍성(豊城)의 고검(古劍) : (고사) 풍성(豊城) 땅에 묻힌 용천(龍泉)과 태아(太阿)의 두 보검이 밤마다 두우(斗牛) 사이에 자기(紫氣)를 발산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晉書 卷36 張華列傳》

166) 유하주(流霞酒) : 신선이 마시는 술. 곧 좋은 술을 뜻한다.

는데, 박필달과 장녀의 나이가 서로 비슷하여 사람들이 서로 맞는다고 말하니 그와 배필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큰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궁실의 종실과 귀인이 다투어 매파를 보내니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고 어찌할 바가 없었다. 이에 집으로 돌아와 역정을 내고 식사를 거르며 “아들을 보기도 하고 딸을 보기도 하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니 죄인이로다. 어찌 두겠는가?” 라고 하였다. 승상의 부인이 장식을 없애고 죄를 청하며 “제가 이 덕에 들어와 불행하게도 아들을 얻지 못하여 조상의 대를 잇지 못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한 것이 이것이었는데 대감께서 또한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심이 이와 같으니 저의 미천한 목숨 무엇이 아깝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승상이 성내던 것을 바꾸고 웃음을 지으며 “이번 과거에서 장원한 박량이라는 사람이 열네살 어린 총각인데 훗날의 것이 이 시대 훌륭한 공자라고. 내게 아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만 못한 줄을 어찌 알겠소만 그러나 지금 아들이 없으니 차라리 맞이하여 사위를 삼아 행여 우리 딸이 몸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고. 이제 왕궁과 종실에서 다투어 매파를 보내니 내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오. 어찌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마침 소저가 몰래 그 말을 듣고 냇이 빠지고 마음이 괴로워 요선각(邀仙閣)으로 돌아와 누워버렸다.

각설(却說)하고 다음날 박필달이 몸에 풍채를 꾸미고 머리에 붉은 계수나무 가지를 꽂은 채 악기를 울리고 난새와 학을 희롱하듯 승상의 문에 들어왔다. 승상이 동동한 예[抗禮]로 맞이하여 말하길 “내가 불행히도 아들이 없이 단지 딸만 셋을 두었소. 큰 아이가 이제 17살이 라고. 그 딸이 안타까워 반드시 근후(謹厚)한 사람을 얻어 짝지어 주고자 하였는데, 이제 공자와 같이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었소. 비록 납폐를 들여 그대를 받들어 기추(箕箒)를 잡게 하고자<sup>167)</sup> 하나 천금보다 귀중하니 나와 같은 사람이 어찌 바라겠소?”라고 하였다. 박필달이 “제가 평소 경모하던 것이 상공의 가문입니다. 이제 진실로 바라는 것은 삼가 명을 받드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 어머니께 고하고 날을 잡아 예를 치르니 두 사람의 다시 만난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삼생(三生)<sup>168)</sup>의 아름다운 약속은 실로 하늘에서부터 일찍 맺어진 인연이었고, 봄날 만발한 꽃과 같은 인간 세상의 좋은 때였다. 행장 꾸러기를 재촉하여 돌아가 어머니를 뵈고 서울에 머물며 겪은 길흉의 일을 아뢰었다. 이야기가 점쟁이의 죽는 다는 말에 이르러 어머니가 숨이 멈춰 잇지 못하며 “위험했구나, 위험했어!”라고 하였다. 노파가 시신을 수습하여 요선각에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몇 마디 길게 탄식하며 “하늘이여, 하늘이시어! 그 노파가 하늘이고, 그 아기가 하늘이구나. 혹여 그때 죽은 너를 살리지 못했다면, 어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에 기대어 기다렸을 뿐이겠느냐? 두 눈이 뚫어지도록 자식이 오기를 바라보다가 산등성이에 필시 늙은 어미의 혼백이 문혔을 것이니 어찌 오늘의 광영이 있었겠느냐? 하늘이 그 노파이고, 하늘이 이 아기구나”라고 하였다.

각설하고 박정자가 목 승상(睦丞相)의 사위가 되고부터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쳐 은대(銀臺 승정원)와 곤열(關臬 병사나 수사 같은 지방 장군)에 출입하였다. 성대한 덕과 맑은 풍모가 한 시대에 두루 비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비록 황당무계한 얘기지만, 풍류가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우선 이를 기

**167)** 기추(箕箒)를 잡게 하고자 : (고사) 기추(箕箒)는 기추첩(箕箒妾)으로, 아내를 말한다. 《한서(漢書)》에, “여공(呂公)이 고조(高祖)에게 말하기를, ‘신에게 여식이 있는데 기추첩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하였는데, 아내가 되어 청소의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168)** 삼생(三生) : 불가의 문자로서 전세(前世) · 현세(現世) · 후세(後世)를 가리킨다.

록해 둔다.

3월 24일(신해) 바람이 불고 추웠다. 계동(契洞)에 사는 큰 누님이 술과 음식을 거창하게 장만해서 왔다. 김명택(金鳴澤)이 작별하고 떠나갔다.

3월 25일(임자) 따뜻하고 바람이 불었다.

3월 26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동에 사는 큰 누님이 돌아갔다.

3월 27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느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너와 나 높은 산에서 구의<sup>169</sup>) 마주했더니 人我高山對九疑  
거문고 있긴만 종자기<sup>170</sup>) 다시 만나기 어렵네 有琴難復遇鍾期  
아침 친구가 저녁에 원수됨 괴이할 것 없으니 朝親暮敵元非怪  
마음과 입이 전연 다름에서 비롯하네<sup>171</sup>) 口越心燕卽所資

이날 저녁 갈산(葛山)에 사는 누님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밤이 되자 구름이 끼었다. 김씨의 딸 귀절(貴節)의 새 신랑 회현(會賢) 사람 박원석(朴元石)의 아들이다.

3월 28일(을묘)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고 식후에 떠다니던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독서하려고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가니, 장의(掌議) 허하(許夏)와 그 맏아들 윤조(胤祖), 그리고 학생 김백겸(金伯謙)이 암자에 있었다.

3월 29일(병진) 층을 이룬 연무(烟霧)가 풀을 적시더니 식후에는 사라졌으나 구름은 여전히 짙었다. 오후부터 마음을 잡고 독서하면서 남초(南草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이날 저녁 연무가 동구(洞口)를 자욱하게 둘러쌌다.

윤3월. 16일 입하(立夏) 사월절(四月節).

윤3월 1일(정사) 새벽에 보니 바다 연무가 증기처럼 뭉게뭉게 떠다녔다. 다시 《사기》와 《한서》를 읽었는데, 〈범수채택열전(范睢蔡澤列傳)〉부터 시작하였다. 중 천준(天俊)이 마을에서 와서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는 소식과 남관(南關)의 여러 벗들의 편지를 전해 주니, 마치 한문(寒門)에 날아올라 시원한 바람에 씻은 듯하였다.<sup>172)</sup>

**169)** 구의(九疑) : (고사)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산 이름이다. 아홉 봉우리의 모양이 모두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느 봉우리가 어느 봉우리인지 잘 모른다고 한다. 뒷날 사람 마음을 알기 어려울 때 쓰기도 하였다.

**170)** 종자기 : (인물)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의 이름이다. 친구 백야(伯牙)가 거문고를 타면서 높은 산에 두고 연주했을 적에는 “외외(巍巍)하여 마치 높은 산고 같다.” 하였고, 흐르는 물에 두고 연주했을 적에는 “탕탕(蕩蕩)하여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였다. 백야는 그가 죽은 뒤에는 알아듣는 이가 없다 하여 거문고를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았다.

**171)** 마음과 입이 전연 다르기 때문이라오 : (고사) 원문의 ‘구월심연(口越心燕)’을 풀이하면, 입은 남방의 월나라에 있는데 마음은 멀리 북방의 연나라에 있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말이 전연 다르다는 뜻이다.

**172)** 마치 한문(寒門)에 날아올라 시원한 바람에 씻은 듯하였다 : (고사) 주자(朱子)가 공풍(鞏豐)에게 답한 편지에, “새로

윤3월 2일(무오) 새벽에 안개가 어제와 같이 끼었다가 아침 후에 사라지고 구름이 끼고 추웠으며, 오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윤3월 3일(기미) 아침에 햇볕이 나왔는데 흠비가 내렸으며 오후에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이 되어 가랑비가 내렸다.

윤3월 4일(경신) 새벽에 봄잠에서 깨어 머리를 흔들며 산기슭을 바라보니, 경치가 동군(東君 봄을 주관하는 신)의 신필(神筆)이었다. 때때로 비가 내려 산을 가리고 밤에 또 비가 내렸다.

윤3월 5일(신유) 바람이 불어 구름이 치달리고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다가 오후에 비가 걷히고 구름이 흩어졌다.

윤3월 6일(임술)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초에 또 비가 내리다가 동틀 무렵에 그치고, 구름이 걷혀 해가 나왔다. 노(奴) 귀재(貴才)가 전염병에 걸려 누워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윤3월 7일(계해) 큰 형님이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올라 왔다가 오후에 하산하였다. 나 역시 동행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날썬 족제비가 있었는데, 암자 앞 숲속 까치 새끼를 물어 부여잡고 나뭇가지 끝까지 올라가고 날아 뛰는 것이 새와 같으니, 날개 단 호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은정(銀亭)의 일사귀가 핀 것이 4번인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피었다.

윤3월 8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갈산(葛山)에 가서 능화판(菱花板)을 찍고 돌아왔다. 윤상갑(尹相甲)이 진사사에서 6등으로 입격했다고 한다.

윤3월 9일(을축) 날씨가 청명하였다. 사문(赦文)이 본현에 들어왔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는데, 사관(赦官)이 곧장 거제(巨濟)로 향해 갔다.

윤3월 10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통영으로 들어갔다. 순상(巡相)이 읍으로 들어왔다.

윤3월 11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순상이 거제(巨濟)에 들어갔다. 호남 출신으로 초서를 잘 쓰는 사람 이홍업(李洪業)이 통제사가 만류하여 세병관(洗兵館)에 머물렀다. 내가 가서 만나보았는데 몇 글자 초서를 얻어 살펴보니 그 필법이 마치 지령이 같아 족히 취할 정도가 못되었다. 남관(南關)에 머물렀다.

윤3월 12일(무진) 바람이 동쪽 서쪽에서 교차로 불고 비가 또 쏟아졌다. 남관에 머물렀다.

---

지는 시를 부쳐 주어 읽어 보니,……이 무더운 여름철을 당하여 한문에 날아올라 시원한 바람에 씻은 듯하다.[如狂寒門而觸清風]”라고 하였는데, 《초사(楚辭)》 왕일(王逸)의 주(注)에, “한문은 북극(北極)에 있는 차가운 곳이다.” 하였다. 《朱熹集卷64 答鞏仲至》



윤3월 13일(기사) 또 비가 내렸다. 계속 남관에 머물렀다.

윤3월 14일(경오) 비고 개고 구름이 여전히 짙었다. 오후에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올 봄 시가[市直]는 조(租) 6말, 미(米) 2말 반이다. 지난해 가을 시가는 조(租) 전석(全石 20말)이 넘었는데, 지금 이처럼 감소하니, 이상한 일이다.

윤3월 15일(신미) 바람이 추웠다.

윤3월 16일(임신) 청명하고 새벽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식사 후에 또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가서 《사기》 10여 편을 초록하였다.

윤3월 17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윤3월 18일(갑술) 남관(南關)에 사는 김중혁(金重赫)이 방문하자 나는 저녁밥을 제공하였다. 식사 후에 안정사로 내려갔다.

윤3월 19일(을해) 온화하였다. 화상(和尚 스님) 법징(法徵)이 짚신 한 쌍을 보내왔다.

윤3월 20일(병자) 고향 집안 소식을 들으니 마을에 전염병이 차츰 치성(熾盛)하다고 한다. 김중혁(金重赫)이 또 방문하자 나는 식사를 대접하였다. 밤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윤3월 21일(정축)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쾌청하였다. 매형 이여섭(李汝涉)이 올라 왔는데, 모례 산단(山壇)에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윤3월 22일(무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매형 이여섭과 함께 가섭암(迦葉菴)에서 내려왔다가 곧 돌아갔다.

윤3월 23일(기묘) 따뜻하고 해가 낮으며 식후에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윤3월 24일(경진) 갑자기 구름이 끼었다가 금방 햇볕이 나왔다. 매형 이여섭이 내려갔다. 이날 밤 삼경(三更)에 자규새 한 쌍이 와서 산굴(山窟)에서 울었다.

윤3월 25일(신사) 아침에 구름이 끼고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이 때 전염병이 치성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달아나서 피했다.

윤3월 26일(임오)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느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듣건대 산신께서 덕이 가장 크다 하여  
감히 목욕재계하고 깊은 정성 고하니

聞道尊神德最宏  
敢茲齊沐告深誠

남아로써 이 세상에 다른 소원 없지만      男兒在世無他願  
봉새 타고 구만리<sup>173)</sup> 날아오르고 싶네      願學雲鵬九萬程

윤3월 27일(계미) 청명하였다. 장의(掌議) 허옥(許玉)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베개 나란히 하며 며칠 동안 친해졌으니      聯枕多日意相親  
절간 밝은 창에 몇 번 새벽이나 물었던가      禪窓明窓幾問晨  
지금 같은 이별이 괴롭다고 말마시게      莫道如今離別苦  
떠나거나 머물거나 본래 마음 아프네      去留元是摠傷神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망년지우와 세상 잊고 가장 친해졌으니      忘年忘世最相親  
도 논하고 글 논하면서 밤낮조차 잊었다네      論道論文暮又晨  
호사다마라고 이별 도리어 재촉하니      好事多魔別還促  
문에 나가 손 놓으면 더욱 가슴 아프리라      出門分手倍傷神

우습다. 가노(家奴) 정산(正山)이 식량을 등에 지고 저물녘에 왔다. 이 때 또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윤3월 28일(갑신) 비가 쏟아지다가 오후에 그쳤다.

윤3월 29일(을유) 바다 운무(雲霧)가 몽게몽게 피어올라 봉우리를 다 사라지게 하였다. 노승(老僧) 정탁(淨卓)이 마을 촌에서 와서 전하기를, 들에 그늘이 드리워진 기색이 없었다고 하였다.

윤3월 30일(병술) 어제처럼 운무가 자욱하였다. 도유사(都有司) 이현석(李顯錫)이 세상을 떠났다.

4월 소월(小月). 초1일 소만(小滿), 17일 망종(芒種).

4월 1일(정해)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경치를 보고 우연히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자취를 연하에 비밀리 감추고      秘迹煙霞裡  
수석 사이에 이름을 숨겼는데      藏名水石間  
문 나서면 구름이 계곡에 가득하니      出門雲滿谷  
어느 곳이 인간세계던가      何處是人寰

**173)** 봉새 타고 구만리 : (고사)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오른 뒤에야 6월의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라고 하였다.

세전(歲前)에 조정의 명으로 청색 의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준행하지 않고 있으니, 잘못이 백성에게 있는가, 관아에 있는가?

4월 2일(무자) 비가 그치지 않다가 밤이 되자 쾌청해졌다.

4월 3일(기축) 날씨가 춥고 차가웠다.

4월 4일(경인) 또 비가 내렸다. 나는 하루 종일 책을 열중히 읽었는데, 중들은 뚱뚱한 배로 단지 오후 잠만 잤다.<sup>174)</sup> 다음과 같이 장난삼아 읊조렸다.

푸른 산봉우리 밖에 구름 돌아가고	雲歸青岫外
맑은 시냇가에서는 새가 지저귀네	鳥喚碧溪邊
긴 낮에 선방 문 닫혀 있는데	永日禪扉掩
중들은 낮잠만 자고 있구나	胡僧只做眠

밤에 비가 쏟아졌다. 이 때 세선 색리(稅船色吏) 김선종(金善宗)이 와서 산에 기원하였다.

4월 5일(신묘) 비가 어제처럼 내리다가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개고 가끔 해가 나왔다. 경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비가 소나무 언덕 뿌리고 지나니	雨洗松壇去
임천의 경치가 새로워라	林泉景物新
속된 나그네 울까 싫어해서	却嫌塵客到
새들에게 길이 시끄럽게 울게 하네	長使百禽嗔

저녁이 되자 또 비가 왔는데, 밤에는 비가 개이더니 구름이 흩어졌다. 현재 들관 시내가 시끄럽게 흘렀는데 사방 교외를 물이 둘러쌌다.

4월 6일(임진) 새벽에 하늘이 맑았다. 식사 후에 돌아가 부모님께 문안하였다. 현재 보리가 한창 익어가기에 내가 시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바람 맑아 두둑 위에 보리가 일렁이는데	風清隴上麥油然
촌로들이 다투어 대풍이라고 전하네	野老爭傳大有年
이제부터 가난뱅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從此窮民將得活
우리 임금님 성스런 덕이 하늘만큼 크다오	吾王聖德至如天

신함장(辛函丈)이 방문했다가 저녁 식사 후에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등에 업고 앞 시냇물

**174)** 뚱뚱한 배로 단지 오후 잠만 잤다 : (고사) 원문인 ‘腹便便, 只做午眠’은 후한(後漢) 때의 문인(文人) 변소(邊韶)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변소는 일찍이 수백 인의 문도(門徒)를 교수(教授)할 적에 한번은 낮잠을 자는데 한 제자가 선생을 조롱하기를 “변효선은 배가 뚱뚱하여 글 읽기는 싫어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邊孝先 便便腹 懶讀書 但欲眠]”라고 하였다. 변소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재치있게 대구(對句)하였다. 《後漢書 卷80上 文苑列傳 邊韶》

을 건넜다.

4월 7일(계사)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지금 통제사 이복연(李復淵)이 전곡(錢穀)을 사사로이 편의대로 이용해 자기를 살찌우는 자금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통영에 들어가 빚을 빌리려는 빈민(貧人)은 열흘이나 달포가량을 머물러 있다가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며칠 전부터 복통을 앓았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매형 유생원(柳生員)이 붉은 이슬(紫露 좋은 술의 별칭)을 가지고 왔다. 사또 김후 상한(金侯相漢)이 전염병에 걸린 후 도미어(道味魚)를 먹고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슬픈 일이다. 오후에 서남풍이 구름을 불어 갑자기 흐렸다.

4월 8일(갑오)

4월 9일(을미)

4월 10일(병신)

4월 11일(정유)

4월 12일(무술)

4월 13일(기해)

4월 14일(경자)

4월 15일(신축)

4월 16일(임인)

4월 17일(계묘)

4월 18일(갑진)

4월 19일(을사)

4월 20일(병오)

4월 21일(정미)

4월 22일(무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김군 덕직(金君德直)과 서군 한세(徐君漢世)가 안정사에서 와서 방문하였다. 드디어 함께 동악(東岳) 위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왔다. 두 사람은 가섭암(迦葉庵)으로 돌아갔다. 이날 어두워지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4월 23일(기유) 하늘이 맑고 덥다가 저녁에 또 구름이 끼었다.

4월 24일(경술) 새벽에 또 비가 내렸다. 나는 산에서 기도하여 액막이[度厄]를 하였다.

4월 25일(신해) 아침 안개가 금방 사라지고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4월 26일(임자) 중 정탁(淨卓)·진명(進明) 등과 함께 벽봉(碧峯)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고 왔다.

4월 27일(계축) 구름과 안개가 어지럽게 날렸다. 중 철인(哲印)이 들에서 산으로 와서 오늘 아침 가랑비가 내려 들판 농토를 갑자기 적셨다고 전하였다.

4월 28일(갑인) 새벽에 비가 흠뻑지를 적시고 아침 안개가 가랑비처럼 날렸다.

4월 29일(을묘) 구름과 안개가 어제보다 심하고 남풍이 빗방울을 날리고 길도랑에 물이 흘렀다.

5월 대월(大月). 4일 하지(夏至), 20일 소서(小暑), 25일 초복(初伏).

5월 1일(병진) 계속 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쌀 2말 반, 조(租) 7말이라고 한다.

5월 2일(정사)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동풍이 불다가 저물녘에 맑아졌다.

5월 3일(무오) 저물녘에 다시 흐렸다.

5월 4일(기미) 어제부터 끼었던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았다. 식사 후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다. 사또의 상구(喪柩)가 출발하였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걷혔다. 장의암(莊義庵)에서 임시로 거처하는 우함장(禹函丈)에게 가서 문후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5월 5일(경신) 새벽에 비가 가늘게 내렸다. 오늘은 단오절인데 농사 기근에 험난한 시기에 제의(祭儀)를 치르기 못하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 신태장(辛函丈)께서 전염병으로 현재 몸이 편찮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갈산(葛山)에 가서 문후하고, 매형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길로 용동(龍洞)<sup>175</sup>에 사는 허장의(許掌議)를 가서 방문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이때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5월 6일(신유) 계속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였다. 아몽(阿夢)이 오늘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였다.

5월 7일(임술) 가랑비가 내렸다.

5월 8일(계해)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좌수 허표(許標)가 읍에서 황리(黃里)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집 문을 지나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파하였다. 들으니, 장의(掌議) 이석임(李錫臨)·이용징(李龍徵) 두 향원(鄉員)이 향사당(鄉射堂)에 들어갔다 내쫓기는 때 별감 이수종(李秀宗), 면풍헌(面風憲) 정성용(鄭成龍)이 또 아전을 불러서 현임 좌수는 향청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당시 좌수는 바로 최섬(崔暹)이다. 이 때 향중(鄉中)의 효상(爻象)<sup>176</sup>이 괴이하도다.

5월 9일(갑자) 구름이 조금 끼었다.

---

**175** 용동(龍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이다. 옛날 이곳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용(龍)이 승천했다고 하여 '용(龍)'자를 따서 용마을이라 하였다. 용동에는 구상덕의 매형인 윤영래(尹迎來)의 집이 있었고, 또한 처가가 있었으므로 자주 내왕하던 곳이다.

**176** 효상(爻象) : 육효(六爻)를 점쳤을 때 각 효에 나타난 형상을 말한 것으로, 전하여 길흉 화복의 조짐을 의미한다.

5월 10일(을축) 어제부터 낀 구름이 질게 흐리고, 아침에는 날씨가 자못 차가웠다.

5월 11일(병인) 청명했는데 동풍이 조금 차가웠다. 올봄 나는 동(銅) 1관(貫) 1전(錢)으로 세 번 판 남초(南草) 100파(把)를 샀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 푼으로 파니, 매 1파마다 전(錢) 3문(文)을 받았다.

5월 12일(정묘) 구름이 질게 끼고 바람이 차갑더니 오후에 빗방울이 내렸다.

5월 13일(무진)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고 햇볕이 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니, 가뭄의 징조인 듯하다.

5월 14일(기사) 동풍이 불고 조금 차가웠으며 가랑비가 채를 치듯이 내렸다.

5월 15일(경오) 바람이 불어 춥고 비가 떨어졌다. 어찌하여 날씨가 오랫동안 어둡단 말인가. 서명갑(徐命甲)이 절선(節筭 부채) 1자루를 보내주었다.

5월 16일(신미) 구름이 걷혔다.

5월 17일(임신) 새벽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사라지고 남풍이 불고 날씨가 더웠다. 내 오른쪽 다리에 습창(濕瘡 부스럼)이 있어서 빙 둘러 뜸을 떴다. 8곳에 각각 뜸 7장씩을 떴다. 율타리에 썩은 긴 나무를 태워 연기 위에 구멍 난 바가지로 덮고 바가지 구멍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환부를 썩었다. 오로지 그 연기를 썩는 것만으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샘물이 솟는 것 같았다. 밤에 또 구름이 질게 끼었다.

5월 18일(계유) 구름이 서쪽에서 와서 가끔 하늘을 덮었다. 진마치(晋馬峙)에 사는 수재(秀才) 우득손(禹得孫)을 다용동(多龍洞) 정자 아래에서 만나 보았다. 내가 절구시 한 수를 다 음과 같이 읊조려서 주었다.

별안간 십년 전 일이 눈앞에 스쳐가니	瞥眼看過十載前
훤칠한 모습 어찌하여 산천에 막혔던가	豐儀其奈隔山川
이제부터 눈 비비고 다시 대하니	今來刮目重相對
반나절 겨우 낸 잠이 천금에 값하는 구려	半日偷閑直萬錢

밤에 빗방울이 맺혔다.

5월 19일(갑술) 가랑비가 젖을 정도로 내리고 가끔 햇볕이 구름 사이로 나왔다. 좌수가 체 직되어 가서 좌수 허표(許標)가 대신 공무를 수행했다고 하였다.

5월 20일(을해) 비가 그치지 않아 시냇물이 가득하였다.

5월 21일(병자) 비가 오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올 여름에 파리와 벼룩이 매우 들끓었다. 시

가[市直]가 보리[大麥] 15말이다.

5월 22일(정축) 가끔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거나 햇볕이 나와서 더웠다.

5월 23일(무인) 더러 비가 내렸으나 날씨는 찌는 듯 더웠다.

5월 24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5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6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내종 금동(今同)이 소뿔에 정수리가 다쳐 오래된 된장[豆醬]을 발랐다.

5월 27일(임오) 낮에 비가 이슬처럼 내리다가 밤이 되자 퍼붓듯이 내렸다.

5월 28일(계미) 아침에 비가 그치지 않지만 식후에는 찌는 듯이 더웠으며, 저녁이 되자 또 비가 내렸다. 금년 봄에서 여름까지 비가 내리는 때 이양(移秧) 시기를 맞췄는데, 상도(上道)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아 태반이 아직 이양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에는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5월 29일(갑신) 비가 그치지 않았다. 당시 좌수는 허표(座首許標), 별감(別監)은 남두휘(南斗輝)와 이기석(李祺錫)이다.

5월 30일(을유) 가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가끔 해가 나오기도 했으나 햇볕은 매우 흐렸다.

6월 소월(小月). 초5일 중복(中伏)·대서(大暑), 21일 입추(一立秋).

6월 1일(병술) 아침에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식후에는 비가 이슬처럼 내렸으며 구름은 말렸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고 찌는 듯이 더웠다. 이 때 향당(鄉黨)에 왕왕 서로 모이는 조짐이 이상하도다.

6월 2일(정해) 갈산(葛山)에 가서 신태장(辛函丈)에게 문후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이날 가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였다.

6월 3일(무자)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오후에는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4일(기축) 아침에 구름이 끼어 비가 올 듯 했으나 온종일 찌는 듯이 더웠는데 남풍이 서서히 불어 왔다.

6월 5일(경인)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6일(신묘) 찌는 듯이 더웠다. 시가[市直]가 보리[大麥] 12,3말, 밀[小麥] 6말 혹은 7말이다.

6월 7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8일(계사) 찌는 듯이 더웠으나 가끔 얇게 구름이 끼었다.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형님이 사내아이를 낳은 경사가 있었다. 오후에는 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6월 9일(갑오) 가끔 구름이 끼었는데, 더위가 올해 들어 가장 심하였다. 오후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큰 형님과 재종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남촌포(南村浦)에서 물고기를 잡고, 목욕하고 돌아왔다. 새 사또 양후 취달(楊侯就達)이 원래 감영(監營) 비장(裨將)으로서 본관에 제수되어 오늘 도임(到任)하였다.

6월 10일(을미) 아침에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으나 식후에는 찌는 듯이 더웠다. 나는 요사이 독서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무더위로 인하여 힘써 독서할 수 없었다. 오늘 비로소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중 10여 편을 100번 다 읽었는데, 〈범수채택열전〉만은 9백번을 읽었다. 북쪽 하늘에 또 천둥이 쳤다.

6월 11일(병신) 아몽(阿夢)의 첫 돌에 술과 음식을 갖추어 현호(懸弧)<sup>177</sup>의 잔치를 열었는데, 아몽이 먼저 손으로 음식물을 집었다. 이날 큰 형님과 재종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소소포(召所浦)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돌아와서 회(膾)로 먹었다. 이날 물고기를 잡을 때 가끔 햇벌이 나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했는데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으며 북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쳤다.

6월 12일(정유)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북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면서 비가 돌 위에 흔적을 남겼다. 나는 교외에 나가 논밭에 물을 대었다. 밤에 달이 밝았다.

6월 13일(무술) 아침에 날씨가 맑고 서늘하다가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남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고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빗방울이 갑자기 내려 수면에 소리가 들렸다. 이날 큰 형님과 창세(昌世)와 함께 미룡포(彌龍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마침 통영(統營)의 관노(官奴)들로 물고기를 잡는 일행을 만나 물고기를 독차지 못하고 돌아왔다. 올벼[早稻] 이삭이 꽤었다.

6월 14일(기해) 하늘에 구름이 없었는데 오후에 북쪽 하늘에 크게 천둥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이날 우함장(禹函丈) 부인 안씨(安氏)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콩과 쌀 한 동이[盈] 정도를 마련해 가서 조문하였다.

**177)** 현호(懸弧) : (고사)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뽕나무 활을 문 왼쪽에 걸어서 활을 잘 쏘기를 기대했던 데서 온 말로,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을 낳음에 남자일 경우는 문 왼쪽에 뽕나무 활을 걸고, 여자일 경우는 문 오른쪽에 수건을 건다.”라고 하였다.



6월 15일(경자) 우레가 치고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16일(신축) 서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들으니, 어제 내린 비로 진주(晋州) 영현(永縣) 이상은 논밭의 고랑이 무너져 터지고 사람과 가축에게 상해를 입혔다. 가동(可洞)과 시달(時達) 등지의 경우 교량(橋梁)이 훼손되었고, 우산(牛山)의 경우는 건답(乾畝)에는 충분히 내렸고, 가리동(佳里洞)의 습전(濕田)<sup>178</sup>에는 김을 맬 수 없다고 하였다.

6월 17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아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에서 또 천둥이 쳤다.

6월 18일(계묘) 우리 형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동네 노인 분들과 함께 당동(堂洞) 모임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膾)와 탕(湯)으로 먹었다. 오후에 비가 먼지를 적시다가 저물녘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드디어 말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빛이 벌써 어두워졌다. 오늘 내린 비는 단비라고 말할 수 있다.

6월 19일(갑진) 비가 쏟아져 도랑을 넘쳤으나 저녁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해가 나왔다. 이번 비는 지나친 듯하지만, 시냇가의 전토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6월 20일(을사) 맑디맑았다. 매형 이여섭(李汝涉)·재종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벽방산(碧芳山) 아래 거사(居士) 박섬(朴暹)의 오이 밭 근처에 가니, 밭주인 생원 정성룡(鄭成龍)도 와서 오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큰 형님과 창세(昌世)와 함께 춘원(春元)에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회(膾)와 탕(湯)으로 먹었다. 순상(巡相) 유공 척기(兪公拓基)<sup>179</sup>가 파직되고, 황공 선(黃公璿)<sup>180</sup>이 대신 순상이 되었다고 한다.

6월 21일(병오) 새벽에 남으로 가는 기러기가 있었으니, 이 어찌 서리가 내리는 소식[霜信]<sup>181</sup>이 이처럼 빠른 단 말인가. 두려운 일이다.

6월 22일(정미) 새벽에 안개가 사방을 둘러쌌으나 햇별이 나오면서 사라졌다. 오늘 무더위가 여름 이후 가장 심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매형 유생원(柳生員)이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올렸다. 무신년 오늘이 바로 아버님의 생신이다.

---

**178** 습전(濕田) : 배수(排水)가 잘되지 않아서 항상 물기가 많은 밭이다.

**179** 유공 척기(兪公拓基) : (인물) 유척기(1691~1767)의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이다. 김창집(金昌集)의 문인으로, 저서로는 《지수재집》 15권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80** 황공 선(黃公璿) : (인물) 황선(1682~1728)의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성재(聖在), 호는 노정(鸞汀)이다. 1721년(경종 1) 승지가 되었다가 노론 4대신과 함께 박필몽(朴弼夢)에게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으로 유배되었다가 1723년 양덕(陽德)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1)에 복직되었고, 이듬해에 승지·형조참판 등을 거쳐, 1727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어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백지징세(白地徵稅)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181** 서리가 내리는 소식[霜信] : 북쪽의 흰 기러기는 가을이 깊어지면 내려오는데, 그때쯤에는 꼭 서리가 내린다고 하여 ‘서리 소식[霜信]’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6월 23일(무신) 새벽안개가 어제와 같았다. 유매형(柳妹兄)이 돌아갔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4일(기유) 오늘 무더위가 그저께보다 심하였다. 각 면에 새로 독납관(督納官)을 설치하여 방포(防布)<sup>182</sup>를 봉류(捧留)하였다.

6월 25일(경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6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7일(임자) 덥고 바람이 맑았다. 어두워지자 구름이 끼었으며 밤에는 비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내렸다.

6월 28일(계축) 천둥이 치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9일(갑인)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려 물이 땅 위에 흘렀다. 형님이 정노(正奴)를 데리고 춘원포(春元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어머니가 가슴 통증이 앓고 계시니 애간장이 탄다.

7월 소월(小月). 8일 처서(處暑), 23일 백로(白露).

7월 1일(을묘) 조부님 기제사를 지낼 때 하늘이 맑아 별이 반짝였다. 이날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2일(병진)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어머니가 삼초탕(三椒湯)을 복용했는데, 통증이 조금 누그러졌다.

7월 3일(정사) 서쪽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7월 4일(무오) 어제처럼 무더웠다. 나는 송정(松亭)에 가서 김운발(金云發)에게 길흉을 물었고, 또 신리(新里)<sup>183</sup>에 가서 김여필(金汝必)에게 길흉을 묻고 왔다. 밤에 무녀(巫女)를 불러 복을 빌고 귀신을 물리치게 하였다. 밤에 서쪽 하늘에 또 천둥이 쳤다.

7월 5일(기미) 가끔 구름이 끼고 서쪽 하늘에 또 천둥이 쳤다.

7월 6일(경신) 동풍이 불고 날이 가물었다. 나는 들에 나가 논밭에 물을 대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풍으로 머리를 앓았는데, 지금 또 복창통[隱痕 헛배가 부르고 팽팽하며 아픈 병]을 앓아 약을 복용하였다.

**182)** 방포(防布) : (제도)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포목(布木).

**183)** 신리(新里)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이다.

7월 7일(신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조각조각 날아다녔다. 병충해가 발생했다. 어제 시가[市直]는 햅쌀[新米] 4말이다.

7월 8일(임술) 또 김여필(金汝必)에게 길흉을 묻고 왔다. 아내의 복창통[隱瘕]이 지금 또 더욱 일어났다. 동풍이 나뭇잎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가끔 북풍이 불었다.

7월 9일(신해) 바람은 어제와 같이 불고 구름이 또 조각조각 날며 그늘을 드리웠다. 밤이 되자 동풍이 불어 초가지붕 위의 박 덩굴을 말아 날려 보냈다.

7월 10일(갑자) 바람은 어제와 같았는데 빗방울이 또 가늘게 떨어졌다.

7월 11일(을축) 동풍이 그치지 않고 빗방울이 때때로 내렸다. 아내가 오늘 비로소 머리 빗고 낮을 씻었다. 나는 향교에 들어가 성황단(城隍壇)의 집사로 직무를 수행했다. 어두워져 제단에 오르자 세찬 바람이 불고 비를 뿌렸다. 연민(烟民)을 시켜 임시 집[假家]을 짓게 하였는데, 동풍이 세차게 불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해 부지목(扶持木)을 많이 사용하여 근근이 바람을 막았다.

7월 12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어 비가 올 듯 했지만 저녁이 되자 매우 맑아졌다. 계동(契洞)에서 아침밥을 먹고, 이어서 음법(陰法)에 사는 장의(掌議) 이석림(李錫臨)에 방문하였는데, 전염병을 겪고는 처음 만나보았다. 또 우산(牛山)에 가서 이생원 등 여러분을 방문하고, 또 창명(昌明)에 사는 이도유사(李都有司)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였는데 상주(喪主) 이국성(李國城)이 조문을 받았다. 돌아오던 중 용정(龍亭)에 사는 장의 허호(許虎) 덕에 이르러 매형 이여섭(李汝涉)을 만났다. 나는 드디어 도포를 벗고, 사내종 금동(今同)에게 말을 끌고 먼저 돌아가도록 하였다. 저물녘 매형 이여섭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7월 13일(정묘) 동풍이 불고 날이 가물었다. 올벼[早稻]를 수확하였다.

7월 14일(무진) 비가 갑자기 내리고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7월 15일(기사) 동풍이 불고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16일(경오)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동풍이 쓸쓸히 불었다. 식후에는 구름이 걷혔다. 저녁이 되자 벗 이희삼(李希森)이 남관(南關)에서부터 와서 유숙하였다. 밤에는 달빛이 밝았다.

7월 17일(신미) 식후에 벗 이희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동풍이 세차게 불어 가득 떠 있던 뜬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7월 18일(임신) 바람이 불고 비 올 기미가 없었다. 이날 머슴들이 말여물에 쓸 풀을 베었는데, 각자 열한 짐씩 가져왔다. 이날부터 내외(內外)의 고삭(高朔) 들녘 수판(水板)을 정하였

다.

7월 19일(계유) 바람이 어제와 같고 가을별이 내리쬐었다. 통영(統營)에 사는 삿갓 만드는 장인[笠匠] 진왕노(陳旺老)가 왔는데, 바로 앉아서 일이 시작하였다.

7월 20일(갑술) 내일 벽방산(碧芳山)에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저녁에 면임(面任) 이어 섭 매형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갔다. 제단에 오르니 현임 허좌수(許座首)가 현관(獻官)이 되었고, 집례(執禮)는 생원 양석제(梁錫濟), 대축(大祝)은 장의(掌議) 허호(許虎)였다.

7월 21일(을해) 제사를 지낸 후 나는 먼저 절로 내려가 일찍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귀녕(歸寧)<sup>184</sup>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산(大山)의 두 사내종과 한 계집종이 어제 벌써 도착했다. 출발해서 와항(瓦項) 아래 다리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다시 길을 나섰다. 이날 날씨가 매우 덥고 동풍이 그치지 않았다. 지나는 도중에 보니 벼가 불길기 지나간 듯 마르고 시들었으니, 가탄스럽다.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결판이 났다.

7월 22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정노(正奴)를 보내 교마(轎馬)를 끌고 돌아가게 하였다. 나는 대산(大山)에 머물렀다. 오후에 비를 머금은 구름이 갑자기 바람과 함께 지나갔다.

7월 23일(정축) 바람도 어제와 같고 구름도 어제와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가슴과 배에 통증이 있어 아팠는데 밤이 깊어진 후에야 조금 나았다. 이날 밤에 유성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길이와 넓이가 무지개와 같아서 하늘을 동서로 걸쳐 있었는데 홀연 밝게 비추는 듯하다가 사그라졌다. 서북쪽 하늘에서는 둥둥 마치 큰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총을 쏘았나 의심했는데 결국 천둥소리마냥 바뀌더니 잠시 후에 그쳤다. 괴이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함흥(咸興) 지역 들판에 죽은 용이 떨어졌는데 길이가 18장(丈)이고 둘레가 4척(尺)이라고 하였다.

7월 24일(무인)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고, 구름이 가끔 몰려왔다가 흩어졌다. 진해(鎭海)에 유배되었던 병사(兵使) 박찬신(朴纘新)<sup>185</sup>이 사면되어 풀려났다.

7월 25일(기묘)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7월 26일(경진) 아침에 무지개가 뜨고, 식후에 비가 갑자기 내렸으며 밤에도 비가 먼지를 적셨다. 석전치(石田峙)에 이르자 빗방울이 맺혔다. 두포(頭浦)에 사는 사형(査兄) 이단림(李團霖)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주인은 출타 중이라 허생 세징(許生世徵)이 주인을 대신하여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저물녘에 집으로 들어왔다. 밤중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84)** 귀녕(歸寧)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는 것을 말한다.

**185)** 박찬신(朴纘新) : (인물) 박찬신(1679~1755)의 본관은 함양(咸陽)이고, 자는 군술(君述)이다. 1725년(영조1)에 장령(掌令) 이휘진(李彙晉) 등으로부터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일파로 몰려 탄핵을 당하였다. 그 결과 유배처분을 받았지만, 1727년(영조 3)에 사은을 입어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1728년(영조 4)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발생했을 때, 관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웠다. 함은군(咸恩君)에 봉해졌으며,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급되었다. 이후 어영대장·총융사·평안병사(平安兵使)·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1755년(영조31)에는 재차 역적으로 몰려 상훈이 삭제되었고, 효시를 당하였다.

7월 27일(신사) 구름이 흩어지고 북풍이 불었다. 대산(大山)에 사는 사내중 순이(順伊)가 돌아갔다.

7월 28일(임오) 하루 종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삿갓 만드는 장인 진왕노(陳旺老)는 수군 훈련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근자에 우물이 말랐기 때문에 공천(拱川)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온 마을사람들이 물 길렀다.

7월 29일(계미) 가랑비가 갑자기 내렸다. 거제(巨濟)에 유배되어있던 참의(參議) 권익순(權益淳)이 사면되어 풀려났다. 집 앞을 지나갔다. 본동(本洞)의 과녁 베[布幘]를 정칠봉(鄭七奉)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날 밤에 도둑놈의 손에 잃고 말았다. 들으니 유월촌(柳月村)에 집을 버린 젊은 아낙이 있었는데 밤을 틈타 다른 사내를 따라가 도망치자 집안사람들이 뒤쫓아 돌려보냈다고 한다. 뒤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놀랍고 놀랍다.

8월 대월(大月). 10일 추분(秋分), 25일 한로(寒露).

8월 1일(갑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정재중(丁再從)과 함께 향교에 들어가 참재(參齋)하였다.

8월 2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머물렀다.

8월 3일(병술) 향교에 머물렀다.

8월 4일(정해) 석전제를 잘 지냈다. 나는 사직제(社稷祭) 대축(大祝)으로서 제수(祭需)를 살펴 봉(封)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8월 5일(무자) 제사를 잘 지냈다. 전부터 고성 향교에서 제사 고기[膳脯]를 전임 유품(儒品)과 각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근래 이미 나누어 줄 사람이 더욱 많아져 제사 고기 포를 몇 조각으로 삼분오열하여 일의 체면이 놀랍다. 그러므로 지금 제향 모임에서 통문을 돌려 폐지하였다.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금년은 비록 가물었지만 눈에 경작하는 곡물은 손상이 없었으니 다행이다. 이날 지진이 발생했다.

8월 6일(기축) 맑고 서늘하였다. 시가[市直]가 쌀[米] 5말, 조(租) 12,3말인데 다른 읍(邑)의 경우는 조(租) 20말에 이른다고 한다.

8월 7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매형 이여섭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통영에 들어가 수군 훈련을 구경하려고 했다. 정재중(丁再從)이 동행했다.

8월 8일(신묘) 남망(南望)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였다. 밤에 굴량(掘梁)<sup>186</sup>에서 노닐었고, 달

**186)** 굴량(掘梁) : (지명)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이다. 통영 서쪽 5리에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가 길을 파서 배가 지나다니게 하고 다리를 만들면서 이름을 굴량교(掘梁橋)라고 하였다. 《승총명록》 1758년 5월 25일 기사내용에 굴량(掘梁)이

이 기운 후에 하관(下館)으로 돌아왔다.

8월 9일(임진) 또 여러 사람들과 남망에 올라 사조(私操 정기 훈련이 아닌 훈련)를 구경하였다.

8월 10일(계사) 날씨가 청명하였다. 매형 이여섭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며칠 전부터 환후(患候)가 있었기 때문에 접쟁이를 불러 독경하고 복을 빌었다.

8월 11일(갑오) 서북풍이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다.

8월 12일(을미)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8월 13일(병신) 큰 형님이 죽은 아이 초애(初愛)를 대동(垈洞) 선산 청룡(靑龍)<sup>187</sup> 내 사격(砂格)<sup>188</sup>에 묻었다. 나도 동행했는데, 겸하여 선산에 제사를 올렸다.

8월 14일(정유) 햇벌이 나오고 저녁에 구름이 하늘에 떠돌았다. 나는 동(銅) 1전(錢)으로 김승화(金承化) 집 암탉 2마리를 사서 길렀다. 금년 갈산(葛山) 사람들이 가장 농사를 잘 지었다.

8월 15일(무술)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 때 앞 시내를 파서 한 줄기 샘물을 얻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물을 길었다.

8월 16일(기해) 매우 맑았다.

8월 17일(경자) 청명하였다. 사벽(沙壁)<sup>189</sup>하였다.

8월 18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장인어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기를, “지난 10일 밤중에 도적 10여 명이 고함을 치고 사립문을 부수고 의복(衣服)과 기물을 다 노략질했는데 사람이 다치는 것만은 겨우 면하였다”고 하였다. 참으로 다행이다. 내 백저포(白苧布)<sup>190</sup>, 대창의(大擘衣)<sup>191</sup> 및 새로 만든 저고리는 방 안에 두었고, 아내의 다리[鬢髮]는 시렁 위에 걸어놓았기에 도적들이 미처 몰랐으니, 또한 다행이다.

8월 19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장인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식사한 후에 김상연(金尙演)의 모친 장사(葬事)의 개토(開土)<sup>192</sup>를 가서 보고 돌아왔다. 두포(頭浦)에 사는 장의 이수석 대여(李綏錫大汝), 별감 이여기(李汝杞), 생원 어만갑(魚萬甲), 생원 정창대(鄭昌大)가

---

매워져 평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87** 청룡(靑龍) : 혈지(穴地)를 중심으로 좌측에서 혈(穴)을 호위하고 있는 산을 말한다.

**188** 사격(砂格) : 혈의 전후좌우에 있는 산과 바위를 말한다.

**189** 사벽(沙壁) : 황토에 세사와 마분, 여물 등을 섞어서 반죽한 것을 말한다.

**190** 백저포(白苧布) : 백색 저포. 저포는 췌기풀과에 속하는 모시풀의 인피섬유로 제작한 직물. 여름 옷감으로 쓰임.

**191** 창의(擘衣) : 빛이 희고 소매가 넓으며 가는 흑색으로 꾸민 옷이다.

**192** 개토(開土) : 피를 쓰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한 일.

방문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작별하고 돌아갔다. 밤에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8월 20일(계묘) 동풍이 불고 구름이 없었다. 가뭄이 매우 심해 산천이 씻긴 듯이 말랐다.<sup>193)</sup> 바위 옆 초목이 모두 말라 죽고 잎이 다 떨어졌다.

8월 21일(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22일(을사) 구름이 걷혔다. 김상연의 모친 장례식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8월 23일(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24일(정미)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끼어 그늘을 드리우다가 바로 걷혔다. 가을별이 내리 쬐었다. 사포가 들판의 농토를 살펴 보려고 와서 후가(幘街)에 이르러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 황리(黃里)로 향하였다. 감동(甘洞)<sup>194)</sup>에 사는 족장(族丈) 이국기(李國杞)께서 방문하여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시고는 그 자리를 파하였다. 어두워지자 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묘당(廟堂)에서 당파적인 논의를 언급했다가 임금님의 뜻을 거슬러 결국 삼정승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 25일(무신) 햇별이 나왔다. 생원 최석경(崔錫慶)을 방문하고, 이어 그와 함께 갈산(葛山)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8월 26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송정(松亭) 사원(射員)이 우리 집안 선산 근처에 활과녁을 세우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금지시켰다. 겸하여 상인(喪人) 이재첨(李載瞻)을 방문하고, 또 지사(地師) 김운경(金雲卿)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풍헌 허수(許洙) 부자(父子)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8월 27일(경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유사 강성주(姜聖周)가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고 작별하였다. 허풍헌(許風憲)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갈산에 가서 유숙하였다.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8월 28일(신해)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따뜻하였는데, 땅이 갑자기 축축했다. 식사한 후에 돌아왔다. 이 때 밭 가운데 청태(靑太 푸른 생콩)가 저절로 터져 땅이 흩어졌으니, 아마도 오랜 가뭄의 피해인가.

---

**193)** 가뭄이 매우 심해 산천이 씻긴 듯이 말랐다 : (고사) 이 구절은 가뭄이 심해져 산에는 나무가 없고 시내에는 물이 없어 마치 물로 씻어 없앤 듯 하다는 뜻이다. 《시경》 〈대야(大雅) 운한(雲漢)〉에 “가뭄이 매우 심한지라 산천을 씻어낸 듯하다.[旱既大甚 滌滌山川]”라고 하였다.

**194)** 감동(甘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이다. 마을에 감나무가 많아 시동(柿洞)이라고도 하였다. 감동에는 족장(族丈)인 이국기(李國杞)가 거주하였다. 구상덕은 황치흥(黃致興)과 첩지 황계창(黃繼昌)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감동에 내방하기도 하였다.

8월 29일(임자) 날씨가 조금 서늘해져 사람들이 모두 솜옷을 입었다.

8월 30일(계축) 하늘이 맑았는데 서리가 내려 눈이 온 듯하였다. 혹 두세 개 결실을 맺은 메밀[木麥]조차도 이미 말라 상하였다.

9월 소월(小月). 10일 상로(霜降), 25일 입동(立冬).

9월 1일(갑인) 어제처럼 서리가 내리고, 밤에 담아둔 물이 얇게 얼었다. 박군 범석(朴君範錫)이 방문하였다.

9월 2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둘째 형과 우함장(禹函丈) 부인(夫人) 장사(葬事)의 개토(開土)를 가서 보고, 이어서 상인(喪人) 정진형(鄭晋亨) 모부인(母夫人 모친)의 개토도 가서 보았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누님이 사내아이를 낳았다.

9월 3일(병진)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9월 4일(정사) 햇벌이 나왔다.

9월 5일(무오) 햇벌이 나왔다.

9월 6일(기미) 가끔 구름이 끼었다. 시가[市直]가 조(租) 12·3말, 쌀[米] 4말 반, 모(牟) 8·9말이다.

9월 7일(경신) 아침에 떠 하나를 두룬 푸른 안개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재종 정진형(鄭晋亨)이 강고산(江古山)에 모친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술과 밥 그리고 여러 음식을 마련해서 치전(致奠)하였다.

9월 8일(신유)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9월 9일(임술) 순상(巡相) 황선(黃璿) 공이 지역을 순찰하다가 고성현으로 들어왔다. 나는 읍에 들어가 연역소(烟役所)에서 묵었다.

9월 10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순상은 통영에 들어갔고, 나는 향교에 머물렀다.

9월 11일(갑자) 아침 전에 계동(契洞)에 갔다가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우상주(禹喪主)가 내일 어머니를 장사지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치전(致奠)하였다. 이날 해가 막 떠오르는데 햇살이 타는 불과 같았다. 종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또 흠비가 겹겹이 낀 안개와 같이 내려 산의 형세를 가렸다. 작은 사잇길을 구분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12일(을축)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더니 미시(未時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와 신시



(申時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구름이 흩어지고 날이 맑았다.

9월 13일(병인)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방문해서 계속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우레와 천둥이 치고 비가 갑자기 내리더니 밤이 되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밝았다.

9월 14일(정묘) 가끔 구름이 끼었다. 심군(沈君)이 언해(諺解)가 구비되어있는 《맹자(孟子)》 전질을 빌려갔다.

9월 15일(무진) 따뜻하였다.

9월 16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둘째 형님과 정과총(丁把總) 계모씨(繼母氏)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하리(下里) 외가에 갔다. 이는 내일이 바로 외숙모 장기(葬期)이다.

9월 17일(경오) 가끔 구름이 끼었다. 호상(護喪)<sup>195</sup>이 산소에 이르러 평토(平土)<sup>196</sup>한 후 반혼(返魂)<sup>197</sup>을 따라 주가(主家)로 돌아와서 초우(初虞)<sup>198</sup>를 지냈다.

9월 18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9월 19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어 낙엽이 쓸쓸히 떨어졌다. 상가(喪家)에서 무당을 불러 귀신을 즐겁게 하였다.

9월 20일(계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 계동(契洞)에 이르러 그대로 머물렀다. 노비와 말을 모두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

9월 21일(갑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간평 감색(看坪監色)이 작별 인사를 하였다.

9월 22일(을해)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상인(喪人) 배순문(裴舜文)이 방문했다가 곧바로 돌아갔다.

9월 23일(병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이날 저녁 장대(長大)에 사는 상인(喪人) 허렴(許廉) 부모를 입장(入葬)하는 예식을 가서 보았다.

9월 24일(정축) 집으로 돌아왔다가 향교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5일 향교 앞에 미륵사(彌勒寺) 스님 소유의 논이 있는데 가을걷이에 이르러서는 일찍 옮긴 것과 같으니, 괴이한 일이다.

**195) 호상(護喪) :** 장례에 참석하여 상여 뒤를 따라감. 또는 그런 사람.

**196) 평토(平土) :** 관을 묻은 뒤에 흙을 쳐서 평지같이 평평하게 메움.

**197) 반혼(返魂) :** 장례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집으로 모셔 오는 일.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198) 초우(初虞) :** 장사를 지낸 후 첫 번째 지내는 제사이다. 혼령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9월 25일(무인) 통제사가 고성현에 들어왔다가 안정사(安靜寺)로 향했다.

9월 26일(기묘)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7일(경진) 날씨가 청명하였다. 샷갯을 만드는 장인 진왕노(陳旺老)가 또 왔다.

9월 28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동화(李東華) 군이 방문했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9월 29일(임오) 구름이 걷혔다. 사문(赦文)이 도착한다고 하기에 나는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대월(大月). 11일 소설(小雪), 25일 대설(大雪).

10월 1일(계미) 날씨가 따뜻하였다. 사면령이 내려왔는데, 이는 세자(世子)<sup>199</sup>께서 관례(冠禮)를 치른 경사 때문이다.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일(갑신) 구름이 조각조각 떠 있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금년에는 6월 19일에 비가 내린 이후로 지금까지 간혹 먼지를 적실 정도의 보슬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땅을 적신 적이 없었다. 바야흐로 추수할 계절인데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바람도 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바지와 수족건(手足巾)을 착용하지 않아도 피부가 틀 근심이 없다. 또 논의 곡식 소출이 풍년일 때보다 줄지 않았으니, 이상한 일이다. 읍저(邑底) 사람 중에 천상도(天上稻) 가뭇의 강한 범씨(種子)를 파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1두락에 3, 4섬을 거두었고 혹 많게는 5섬을 거두기도 했다고 하니, 더욱 이상한 일이다. 또 금년 가을에 보리[大麥]과 밀보리 종류를 경작하는데 자주 갈던 숙치(熟治)한 밭의 경우는 예년처럼 우복하게 싹이 나왔다. 그런데 일찍이 여러 번 갈아 뒤집거나 콩을 그루갈이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가량을 넘겨 파종하였는데, 혹 싹이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였다. 비록 싹이 났어도 시들시들하여 비의 은택이 없을 뿐이다.

10월 3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고 오후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청어(靑魚) 도감관(都監官) 박치도(朴致道)가 가덕(加德)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맞고 방문하여 조출한 술상을 마련해 마시고 파하였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비가 상당히 내렸다.

10월 4일(병술) 새벽[曉]

낙숫물 소리가 베개 가에 어지러운데	積露聲聲亂枕邊
때때로 바람이 불어 창문 앞이 쇠락해라	時因風便灑窓前
해갈로 민가에 다행뿐만이 아니오	非徒解渴人家幸
보리밭에 큰 풍년 들 줄 알겠어라	認是多饒大麥田

**199)** 세자 : (인물)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로, 영조와 정빈 이씨(靖嬪李氏) 사이에 태어났다.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형이며, 비(妃)는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의 딸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통영 군뢰(軍牢) 조필선(趙必先)이 죄를 지어 도피했는데, 영교(營校)가 사방으로 나가 추적하자 ■……■

10월 5일(정해) 통영 장교(將校) 십여 명이 또다시 방문하였다. 장의(掌議) 이수석(李綏錫)도 역시 왔기에 나는 닭을 잡고 술상을 마련해 단란한 모임의 즐거움을 가졌다.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뜻밖에 벗들이 홀연 집안에 가득한데	謂外親朋忽滿堂
농가에 술 익고 절기 또한 좋아라	田家釀熟又辰良
아이 불러 닭고기 구이 내놓으니	呼童且進年鷄炙
문득 술상 앞에서 주흥이 도도하네	頓覺樽前酒興強

하하 우습다.

10월 6일(무자) 비가 내린 뒤 지면에 얇은 얼음이 처음으로 얼고, 밤에도 차츰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10월 7일(기축) 맑고 온화하다가 저녁에 흐렸다. 창명(昌明)에 사는 도유사 이현석(李顯錫)이 내일이면 영영 저 세상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가시어 영전에 글을 올렸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천고의 세월이 한번 이별에 막혀 오늘 술을 따르고 애도의 글을 올리니 애간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구나.”라고 하였다.

10월 8일(경인) 아침에는 흐렸다가 식후에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오후에 아버님이 창명(昌明)에서 돌아오셨다.

10월 9일(신묘) 햇별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상인(喪人) 김하석(金夏碩)의 부친 장례 개토를 가서 보았다.

10월 10일(임진) 따뜻하고 햇별이 나왔다. 통영에 사는 소목장(小木匠) 김복기(金卜己)에게 소반 값 조(租) 12두(斗)를 지급하였다. 김하석(金夏碩) 집에서 산역(山役) 밭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백주(白酒) 한 동이를 가지고 부조하고 겸하여 가서 산역을 살펴 보았다.

10월 11일(계사) 오후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물녘에 천둥이 한 차례 쳤다.

10월 12일(갑오) 구름이 걷혔다. 오늘 향교에서 모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는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갈산(葛山)을 지나갔다. 백준채(白俊采)도 서문(西門) 밖에 이르러 일제히 모여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하여 돌아갔다. 김하석(金夏碩) 집 장사(葬事)를 보았다. 이날 오후쯤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걷혔다.

10월 13일(을미)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통영에 사는 김처광(金處

光)가 다용동(多龍洞) 논 8두락지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전(錢) 36관(貫)으로 값을 치렀다.

10월 14일(병신)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더니 저물녘에는 바람이 불고 드문드문 비가 내렸다. 들으니, 통영에 청어(靑魚)가 산더미처럼 쌓여 통제사가 영하(營下) 연민(烟民)에게 물고기를 엮게 했다고 한다.

10월 15일(정유) 비가 내리더니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그치고 구름도 걷혔다. 김하석(金夏碩) 집의 삼우제(三虞祭)<sup>200</sup>를 가보았다.

10월 16일(무술) 밤이 깊어지자 비가 또 먼지를 적셨다.

10월 17일(기해) 아침에 비가 걷히고 구름이 흩어졌다. 통영에 사는 상인(喪人) 김유문(金有文)과 지사(地師) 박일학(朴一鶴)이 뭇자리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거류산(巨流山)<sup>201</sup>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려하고 또 비올 기색이 있었기 때문에 초당(草堂)에서 유숙하리라고 여겨 먼저 사람을 보내고 나는 저녁밥을 장만하여 기다렸는데, 저물자 그들이 도착했다. 이 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

10월 18일(경자) 구름이 질게 끼었다. 식사 후에 김상인(金喪人)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밤이 되자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밝았는데, 세찬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

10월 19일(신축) 청명하고 바람이 추웠다.

10월 20일(임인) 낮에는 맑고 밤에는 흐렸다. 장의(掌議) 이국량(李國樑)이 환자[還上]를 남부하지 않는 일로 보경창(補傾倉) 감관(監官)에게 붙잡혀 곤장을 맞았으니, 참으로 놀랍고 참혹하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10월 21일(계묘)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식사 후에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김처광(金處光)의 논 값 전(錢) 36냥(兩)으로, 대조(代租) 매섬 13말, 합 23섬 8말을 뱃머리에서 운반하였다. 감동(甘洞)에 살았던 박시화(朴始華)가 함경도 종성(咸鍾) 유배지에서 석방되어 왔다. 소문을 전하기를, 올해 6월 함경도에서 들판에서 용(龍)이 죽었는데 길이가 18과(把), 둘레가 4척(尺), 뿔 길이는 3척이라고 하였다.

---

**200** 삼우제(三虞祭) : 삼우는 장사 지낸 뒤에 바로 지내는 초우(初虞)와 재우(再虞) 다음에 지내는 제사임. 우(虞)는 안(安)이니, 우제는 안신제(安神祭)이다. 장례를 마치고 신주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날 안에 초우(初虞)를 지내서 혼령을 안정시키고, 다시 유일(柔日)인 을일(乙日)·정일(丁日)·기일(己日)·신일(辛日)·계일(癸日)에 재우(再虞)를 지내고, 다시 강일(強日)인 갑일(甲日)·병일(丙日)·무일(戊日)·경일(庚日)·임일(壬日)에 삼우(三虞)를 지낸다.

**201** 거류산(巨流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 있다. 거류산은 고성의 진산(鎭山)이며, 높이는 약 570m이다. 동쪽은 당동만, 서쪽은 고성읍, 동북쪽은 동해면, 남쪽은 통영시 광도면에 접해있다. 거류산 아래 구상덕과 그 일가가 살던 마을이 있다. 기우제를 올리기 위해 축문을 지어 거류산에 자주 올랐다.

10월 22일(갑진) 식후에 비가 내렸다.

10월 23일(을사) 날씨가 청명하였다.

10월 24일(병오) 사문(赦文)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향교로 들어갔다.

10월 25일(정미) 추웠다. 사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10월 26일(무신) 추웠다. 사문(赦文)이 고성현에 도착하였다. 이는 왕세자께서 빈궁(嬪宮) 조씨(趙氏 효순왕후(孝純王后))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인데 바로 조공 문명(趙公文命)의 따님이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7일(기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통영에 들어가서 천동(泉洞)에서 식사하고 충렬사(忠烈祠)에서 묵었다. 훈장(訓長)은 여도규(余道揆)이다.

10월 28일(경술) 영하(營下)에 머물렀다.

10월 29일(신해) 추웠다. ■……■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진왕노(陳旺老)가 술을 가져왔다.

10월 30일(임자)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소월(小月). 10일 동지(冬至), 25일 소한(小寒).

11월 1일(계축) 따뜻하였다. 증조모님 기제사를 지냈다. 용동(龍洞)에 사는 누님이 왔다.

11월 2일(갑인)

11월 3일(을묘) 따뜻하였다. 이 날 마별장(馬別將) 최익해(崔益海)가 형님과 서로 따지는 일이 있었다.

11월 4일(병진) 따뜻하다가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1월 5일(정사)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다. 손님이 돌아갔다. 조(租) 1두(斗) 1승(升)으로 거구어(巨口魚) 한 마리를 샀다.

11월 6일(무오) 따뜻하였다. 느낀 회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대장부 태어난 때가 시대와 맞지 않아	丈夫生世不於時
임금님 알아줌 더디어 임천에 누워 있네	顏臥林泉見遇遲

기린과 봉황 도리어 말과 개에게 수모 당하니 麟鳳反爲媽狗侮  
봉황 터럭<sup>202)</sup> 아는 이 적음을 어찌하리오 瑞毛其奈少人知

11월 7일(기미) 따뜻하였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전(錢) 1관(貫)을 보내 대구어(大口魚) 25마리를 사서 오게 했다. 송정(松亭)에 사는 이만영(李萬榮)이 오늘 조부의 장사(葬事)를 치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후하게 받았던 의리를 이제 갚기 위해 제수를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오늘 대구어 32, 3마리의 값이 전(錢) 1냥에 해당한다고 들었다.

11월 8일(경신) 바람이 불어 추웠다. 나는 큰 형님과 매형 이여섭과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아현(阿見)에 가서 대구어를 잡는 어선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11월 9일(신유) 바람이 불며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10일(임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11월 11일(계해) 날씨가 추웠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2일(갑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하양(河陽) 방군(防軍) 18명을 본 읍에 이송하였기 때문에 매호(戶)마다 전(錢) 1전(錢)을 거두어 한양 관아에 가서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관아에서 저지하여 다시 거두었던 돈을 호마다 돌려주었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柳妹兄)과 갈산(葛山)에 사는 유매형이 왔다. 계동에 사는 유매형은 돌아갔고, 갈산에 사는 유매형은 유숙하였다.

11월 13일(을축)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갈산에 사는 유매형이 돌아갔다. 곡산(曲山)에 사는 생원 이여기(李汝杞) 부자(父子)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시달(時達)에 사는 칠촌 역시 와서 유숙하였다.

11월 14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왼쪽 눈이 아팠다.

11월 15일(정묘) 따뜻하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

11월 16일(무진) 따뜻했다. 읍에 들어가 해돋이를 구경하였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0말 반, 황조(荒租) 11,2말이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11월 17일(기사)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머무셨다. 생원 허곽(許廓)이 곡식을 빌려가기 위해 왔다가 유숙하였다.

11월 18일(경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버님이 계속 읍내에 머무셨다. 허생원(許生員)은 비

**202)** 봉황 터럭 : (고사) 뛰어난 문재(文才)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도(王導)의 아들 왕소(王劭)에 대해서, 환온(桓溫)이 “봉황의 터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固自有鳳毛]”라고 찬탄했던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容止》

가 와서 떠나지 못하였다. 오늘 내리는 비는 메마른 우물에 물이 용솟음쳤는데 6월 19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1월 19일(신해) 비가 계속 그치지 않았다.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지금 세자께서 어느 날 입계(入啓)하기를 “신은 지금 이미 관례와 혼례 두 예식을 행하였으니 나라의 경사입니다만, 백성이 은혜를 입는 방도가 없으니 은전에 흠이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백성들의 올해 환모(還耗)를 면제하여 한편으로 경사를 내보이고 한편으로 구황(救荒)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리하라.”고 하고 비변사에 하유(下諭)하였더니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환모를 전적으로 줄이면 국용(國用)이 부족하오니 3분의 1만 면제하소서.”라고 하자,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고, 즉시 나라에 명을 내려 환조(還租)에 대해 매 1섬당 모조(耗租) 5되를 줄였다. 그러므로 그저께 읍에 들어갔다가 도로 받아 돌아온 백성들이 칭송하며 노래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아, 성대하도다. 지금 세자께서는 아홉 살의 어린 나이인데 덕업(德業)이 이와 같으니 향후 등극(登極)하시는 날이면 우리 동방에 화려한 요순(堯舜)의 정치가 펼쳐지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이리라. 아, 성대하도다.

11월 20일(임신)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날씨가 조금 추워졌으며 눈이 더러 내렸다. 또 전(錢) 1냥으로 대구어 16마리를 샀다.

11월 21일(계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시가[市直]가 10말뿐이다.

11월 22일(갑술) 햇볕이 나고 따뜻하다가 저녁에 다시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23일(을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조(租) 5말로 소금 9두말 소금을 맞바꾸었다.

11월 24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밤에 큰 형님이 읍에서 집으로 돌아올 적에 증산(甑山)에 이르렀을 때 길 왼편에 축고 굶주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있는 듯 없는 듯해서 등불로 비춰보니 걸식하는 노파가 구덩이 속에 엎드려 있는데 숨소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귀(貴)와 금(金) 두 사내종을 시켜 짊어지고 오게 하여 온돌에 두고 미음을 먹여 굶주려 죽어 텅구는 근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11월 25일(정축) 벗 박범석(朴範錫)과 함께 원산(園山)에 노닐면서 시를 읊조렸다.

11월 26일(무인) 날씨가 추웠다. 용전(龍田)에 사는 장의(掌議) 허심(許滄)·허완(許浣) 형제가 모부인(母夫人)의 연세가 80세 인데 두환(痘患)을 잘 치렀기 때문에 오늘 크게 경사스러운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나는 어제 감동(甘洞) 오촌 숙모 허당(許唐)의 모친 정씨(鄭氏)의 재기(再墓)에, 육족(六足)<sup>203</sup>이 부족해 가서 참석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경사스러운 잔치에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듯하기 때문에 가서 참석하지 않았다.

11월 27일(기묘)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충의위(忠義衛) 유천기(柳天機)가 사위를

<sup>203</sup> 육족(六足) : 발이 여섯으로, 마부(사내종)와 말을 가리킨다.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가서 보고 백생 준채(白生俊采)의 집에서 묵었다.

11월 28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녁이 되자 강극노(姜克老)와 함께 갈산(葛山)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광일(光一)과 광이(光二) 두 운(運)<sup>204</sup>의 무부(武夫)들이 은정(銀亭)에서 무예를 겨루었다.

11월 29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세동(細洞)<sup>205</sup>에 사는 유사 전윤직(田允稷)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2월 대월(大月). 11일 대한(大寒), 14일 납일(臘日), 25일 입춘(立春).

12월 1일(임오)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식사 후에 전유사(田有司)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12월 3일(갑신) 아침 전에 호서(湖西) 홍주(洪州) 사람 이단(李檀)이 장차 거제(巨濟) 관아로 향하는데 중간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밥을 주고 또 쌀 5승과 말여물 콩[馬太] 5되를 주었다. 아몽(阿夢)이 하늘 천(天), 땅 지(地)를 알고 읽었다.

12월 4일(을유)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큰 형님이 통영에 들어갔다.

12월 5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현재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이 낭자하여 전라도 변산(邊山) 땅의 큰 도적들이 규모가 큰 사찰을 점거했다는 소문이 있다.

12월 6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붕을 이었다.

12월 7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매형 이어섭이 아무 잘못 없이 석호(石壕)<sup>206</sup>의 침학을 당하였다.

12월 8일(기축)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다. 병술년 오늘이 바로 내생일이다.

12월 9일(경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버님과 큰 형님이 읍에 들어가 이어섭 매형이 횡침(橫侵)을 당한 근심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지금 관아에서 간평 색리(看坪色吏)를 시켜 마을에 나가 팔부안(八夫案)을 등급(騰給)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시 대리 서원(書員) 임송백(林

---

**204)** 운(運)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운송할 때에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수효나 분량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부대의 단위로 때[隊] 또는 패[群]를 뜻한다.

**205)** 세동(細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이다.

**206)** 석호(石壕) : 두보가 지은 시(詩)인 〈석호리(石壕吏)〉의 준말로, 이 시는 두보가 석호 마을을 지나다가 이 마을의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관리와 아전을 보고 그 실상을 읊은 것이다.



松栢)이 우리 마을에 왔다.

12월 10일(신묘) 날씨가 매우 차가웠다. 유사 강성주(姜聖周)가 오늘 사위를 맞이하기 때문에 나는 재종 정창세(丁昌世)에 함께 가동(可洞)에 갔다.

12월 11일(임진)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듯하였다. 이날 저녁은 계동(契洞)에서 묵었다.

12월 12일(계사) 날씨가 추웠다. 계속 계동에서 머물렀다.

12월 13일(갑오) 조카 유악금[柳(馭+口)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4일(을미) 해가 나왔지만 매우 추웠다. 유질(柳侄)은 《사략》 1권을 배우고, 정창세(丁昌世)는 《통감(通鑑)》 2권을 배웠다.

12월 15일(병신) 따뜻하였다. 아몽(阿蒙)이 이질(痢疾)을 앓아서 설사를 짹짹 하였다. 생 찹쌀[粘米]과 볶은 찹쌀 반반씩으로 죽을 쑤어 먹었다.

12월 16일(정유) 북쪽에서 구름이 마구 날아오더니 눈이 갑자기 날렸다. 허함(許滄)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2월 17일(무술) 따뜻하였다. 허함이 떠났다.

12월 18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고성 사또 양후 취달(楊侯就達)의 근무평가[考]에, “강하면서도 은혜가 있어 떠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네.[強而有惠, 流散還集]”라고 하였다.

12월 19일(경자) 햇볕이 나오고 바람이 갑자기 추워졌다. 용정(龍亭)에 사는 장의(掌議) 허호(許虎)가 사위를 맞이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큰 형님이 가보았다. 아몽(阿夢)의 복통에 차도가 있었다.

12월 20일(신축) 따뜻하였다.

12월 21일(임인) 따뜻하였다.

12월 22일(계묘) 온화하여 봄날 같았다.

12월 23일(갑진) 구름이 가끔 그늘을 드리우고 추웠다.

12월 24일(을사) 따뜻하였다. 관아에서 특별히 비장(裨將)을 보내 환자[還上]를 납부하지 않은 인가(人家)를 수색하기 위해 군관(軍官) 송상중(宋尙中)이 도착했다.

12월 25일(병오) 따뜻하였다. 송상중이 동인(洞任)을 꾸짖고 우생원(禹生員) 집에 들어가 농

기구, 소, 송아지를 다 거두어 가져갔다. 나는 조(租) 8두(斗)로 우생원을 도와주었다.

12월 26일(정미) 매우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백생 준건(白生俊建)이 사위를 맞이하였는데, 그 사위가 바로 매형 이어섭의 막내 동생이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갈산에 내려갔다가 밤중에 돌아왔다. 호남(湖南) 영광(靈光) 사람 신경정(辛慶正)이란 자가 걸식(乞食)하러 와서 목었다.

12월 27일(무신)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28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9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소년들이 겹저고리를 벗었다. 저녁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구름이 날리고, 서쪽 하늘에 구름색이 불처럼 붉었으며, 밤이 깊어서는 북쪽 하늘도 마찬가지로이니, 이는 상서롭지 못한 기운인 듯하다.

12월 30일(신해) 바람과 구름이 어제와 같이 지속되었는데, 식후에 비가 내리고 저녁을 지나 밤이 깊어서야 개었다.

무신년(1728, 영조4)

1월 甲寅. 대월(大月). 10일 우수(雨水), 25일 경칩(驚蟄).

1월 1일(임자) 새벽에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맑다가 인시(寅時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와 묘시(卯時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구름이 다시 하늘을 가렸다. 비가 서산(西山)에서부터 내리다가 그쳤으나 구름은 걷히지 않았으며, 바람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고, 날씨는 온화하였다. 닭 울음이 11차례, 혹은 8,9차례 정도 울었다. 한 밤중에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1월 2일(계축) 눈이 어지럽게 날리고 날씨가 매우 춥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1월 3일(갑인) 어제처럼 날이 춥고 구름이 또 그늘을 드리웠다.

1월 4일(을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柳妹兄)이 왔다.

1월 5일(병진) 아침에 구름이 비늘처럼 끼었다가 갑자기 해를 가리고는 곧바로 사라졌다. 유매형이 저녁에 돌아갔다.

1월 6일(정사) 아침에 구름이 해를 가리고 낮부터는 바람이 불다가 밤이 되어서 그쳤다. 갈산(葛山)에 사는 신흘장(辛函丈)에게 가서 문후하고 돌아왔다. 들으니 변산(邊山) 적중(賊中)에서 시를 지었는데, 세상에 전파되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누가 신마를 풀어 저녁에도 거두질 않아                      誰放神駒暮不收

그림자 감추려고 머털 움츠리지 않네	欲藏其影未藏頭
푸른 뿔족한 두 귀를 사람이 매여 두질 못해	碧尖雙耳人無繫
진나라 사슴 <sup>207)</sup> 이 조고의 눈에 미혹되었네 <sup>208)</sup>	秦鹿還迷趙相眸

혹자는 이 시를 마이산(馬耳山)에 은근히 뜻을 붙여서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1월 7일(무오) 구름이 끼고 추웠다. 계동(契洞)에 사는 누님이 왔다.

1월 8일(기미) 따뜻하였다. 조모님의 기제사를 잘 지냈다. 계동에 사는 매형이 돌아갔다.

1월 9일(경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날씨는 따뜻하였다.

1월 10일(신유) 구름이 걷혔다. 박생 창도(朴生昌道)가 방문하여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다음과 같다. 칠곡(漆谷)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텃줄을 두르고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4일 만에 어미가 죽었다. 홀연 신승(神僧)이 와서 그 이웃집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두 유방에서 젖이 나오도록 할 것이니 이 아이를 기르거라.”라고 하였는데, 그 말대로 별안간 젖이 나왔다. 또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래 지나 그 여자가 육식을 하자 젖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산승(山僧)이 산방(山房)에서 거두어 길렀다. 오래 지난 뒤에 신승(神僧)이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너는 작은 암자 하나를 지어서 이 아이를 기르거라.”라고 하였다. 그 산승이 관에 고하고 권선문(勸善文)을 만들어 각 읍을 돌아다니는데 박창도가 그 권선문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그 아이가 이때 4살이라고 하는데 괴이하구나. 이와 같은 이야기는 허무맹랑해서 진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록해서 훗날 진위를 증험해 볼 뿐이다. 박창도는 저녁에 돌아갔다.

1월 11일(임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 추웠다. 저물녘 구름이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시가[市直]가 조(租) 8말, 미(米) 3말 반이다.

1월 12일(계해) 얇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고 미풍(微風)이 살짝 소리를 내며 불더니, 저녁이 되자 구름이 사라지고 달이 밝았다. 동문 밖 민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몇 채가 연달아 불태웠는데 사람만이 겨우 상해가 없으니 다행이다. 이 밤에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기원하였다.

1월 13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 한 수를 지었다.

1월 14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07)** 진(秦)나라 사슴 : (고사) 원문의 ‘진록(秦鹿)’은 제위(帝位)를 뜻한다. 《사기》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진나라가 사슴을 잃자 천하 사람들이 다 함께 좇았는데 발빠른 사람이 먼저 얻었다.”라고 하였다.

**208)** 조고의 눈에 미혹되었네 : (고사) 진(秦)나라 2세(二世) 호해(胡亥) 때 승상(丞相) 조고(趙高)가 사슴을 몰고 와서 호해에게 좋은 말이라 하였다. 호해는 웃으면서 사슴이라 했으나, 좌우 신하는 조고의 권세에 놀려 모두 말이라 하였다. 즉 지록위마(指鹿爲馬), 뒷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1월 15일(병인) 해가 막 떠오를 적에 솜털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날아와 흩어지더니 금세 사라졌다. 시 한 수를 지었다. 도유사 이교년(李喬年)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보름달이 석양보다 먼저 나왔다.

1월 16일(정묘) 맑고 따뜻하였다. 전(錢) 1전(錢) 1푼(分)으로 남초(南草) 1과(把)를 사서 왔다. 증조부님의 기제사를 잘 지냈다. 나는 우함장(禹函丈)께서 명조(明照) 스님에게 준 시(詩)를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세상 밖 먼 회포는 저자거리 싫어해            相外遐襟厭朝市  
남쪽으로 온 신비로운 자취는 몇 년이던가    南來秘跡幾春秋  
뜬 구름 한 조각 무심한 곳                    浮雲一片無心處  
속세 만겁의 근심을 잘라 버리네            截去人間萬劫愁

명조 스님은 한양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눈을 읊조린 시를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해문에 눈 날려 저물녘 언덕에 쌓이는데      海門飛雪晚堆岸  
낚시 끝난 어부는 흰 갈매기 잃어 버렸구나   罷釣漁翁失白鷗  
나뭇가지 끝에 매화가 일찍 피어나니        旋着枝頭梅早發  
황홀히 술 취한 나부산<sup>209</sup>의 은둔객인가    惺疑幽客醉羅浮

눈을 읊조린 시이다. 대개 우함장(禹函丈)께서 장의암(藏義菴)에 계실 때 지은 시인데, 암자가 해문(海門)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나는 이도유사(李都有司)와 말을 바꿔 타는데 저녁이 되자 이도유사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지난해 겨울 하리(下里)에서 어떤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등 위에 다리 하나가 거꾸로 솟아나왔다. 그런데 살만 있고 뼈가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가 걸을 때 등 위의 다리가 걸음에 따라 좌우로 흔들렸다고 한다. 이 사실을 면임(面任)이 관아에 보고하였다.

1월 17일(무진) 동운(同雲)<sup>210</sup>이 끼었는데 날씨는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가서 노닐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충의위 남진명(南晉命)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월 18일(기사)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가 되자 갑자기 그쳤으나 구름은 여전히 습하게 끼었다. 남생(南生)은 내리는 비에 길이 막혀 계속 머물렀다. 재종(再從) 정창세(丁昌世)이 비로소 《통감(通鑑)》 제3권을 읽었다.

1월 19일(경오)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고 가끔 비가 내렸다. 어두워지자 비가 쏟아지

**209** 나부산 : (고사) 수(隋)나라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는데 해가 저물 때에 숲 사이 어느 집에 한 미인이 나와 영접하는데 향기가 정신을 황홀케 하였다. 조사웅이 미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즐겨 놀았는데 옆에 푸른 옷 입은 동자(童子)가 노래를 불렀다. 사웅이 취하여 자다가 새벽에 깨어 보니 매화나무에 푸른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미인은 화신(花神)이었던 것이다.

**210** 동운(同雲) : 눈이 내리기 전 온 하늘에 가득히 낀 먹구름을 뜻한다. 《시경》 〈소아(小雅) 신남산(信南山)〉에 “상천(上天)이 일색(一色)으로 먹구름이 낀지라 함박눈이 펄펄 내리네.[上天同雲 雨雪雰雰]”라고 하였다.

더니 바람이 불고 붉은 번개가 번쩍였다. 조카 류완금(柳(馮+口)金)이 술을 가지고 왔다. 지리산(智異山) 상봉에 무당이 사는데 흑세무민하는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신기(神氣)가 발작할 즈음에 공양드리러 온 사람이 정결하지 않다고 하면서 칼을 휘둘러 여기저기 마구 베어 죽였다. 그래서 구름 끼고 비올 때나 달 지고 저녁별 기우는 밤에는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제단 밖에서 소리치며 운다고 한다. 지난해 겨울에 어떤 사람이 복을 빌기 위해 제단에 올랐더니 전날의 신당(神堂)과 신물(神物) 및 담장과 무당이 짝 쓸리듯 흔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하늘이 노하여 없애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1월 20일(신미) 아침에는 햇볕이 나왔으나 오후에는 흐렸다. 또 전과되어 시끄럽게 떠도는 다음과 같은 소문이 있었다. 계룡산에 어떤 돌이 있는데, 돌 표면에 글자가 있었다. ‘이씨를 자르고 김씨는 아니니 기둥 같은 신하로다. 화양부인 자식이 없는데 초나라 옷 입은 이인이다. [剪李勿金, 柱下之臣, 華陽無子, 楚服異人]<sup>211)</sup> 또 ‘누런 황에서 정씨가 시작하니 파도 위의 거북이로다. 주공을 크게 꿈꾸니 임금되어 고려에 보답하리라. [肇鄭于黃, 波上之龜, 大夢周公, 爲主報麗]’라고 하였다. 이 무슨 괴이한 소문이 날로 들린단 말인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1월 21일(임신) 아침에 햇볕이 나왔는데 저물녘에 구름이 끼었다.

1월 22일(계유) 아침에 해가 나왔는데 오후에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었다.

1월 23일(갑술) 구름이 짙게 끼고 서풍이 불었다.

1월 24일(을해) 날씨가 청명했는데 갑자기 차가웠다.

1월 25일(병자) 구름이 끼고 추웠다. 이달 2일에 한양 남문(南門) 밖에 신병(神兵)이 나타나 경보(警報)를 알리는 변고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는 무척이나 괴이한 말이지만, 전하는 자가 세 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선 기록해 둔다.

1월 26일(정축)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그저께 전라도(全羅道) 구례 현감(求禮縣監)이 고성 읍을 지나면서 담양부(潭陽府) 화약(火藥)을 죄다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1월 27일(무인) 가랑비가 내렸다가 미시(未時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와 신시(申時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이르러 그치고, 구름이 흩어지고 햇볕이 나왔다.

1월 28일(기묘) 온화하였다. 《어우야담(於于野談)》<sup>212)</sup>을 한 번 읽어보았다. 금해도(金海

**211)** 화양부인……이인이다 : (고사) 진(秦)나라 소왕(昭王) 때 안국군(安國君)이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에게 20여 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인(異人), 즉 자초(子楚)라는 아들이 조(趙)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다. 조나라에서는 자초를 소홀하게 대하였으나 양적(陽翟)의 거상(巨商)인 여불위(呂不韋)가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에 장사하려 갔다가 자초를 보고 기화(奇貨)로 여겨, 자초를 당시 안국군의 총희(寵姬)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던 화양부인(華陽夫人)의 적사(嫡嗣)가 되도록 도모하였다. 훗날 자초의 후계자가 바로 진시황이 되었다. 《史記 卷85 呂不韋列傳》

**212)** 《어우야담(於于野談)》 : (책명) 조선시대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야담집. 풍자적인 설화와 기지에

島)의 화살대[箭竹]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1월 29일(경진) 무척 따뜻하였다.

1월 30일(신사) 구름이 끼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2월 소월(小月). 10일 춘분(春分), 25일 청명(清明).

2월 1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버님이 또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일(계미) 온화하였다. 언문으로 된 하첩(下帖)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11일에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여 입시하였을 때, 임금님께서 영의정에게 이르기를 “동전 사용의 폐단 가운데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끝이 없소. 그러나 형세가 돈을 던져 버릴 수 없으니 이미 돈을 던져 버릴 수 없다면 이 중에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폐단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영의정이 대답하기를, “공채(公債)의 전곡(錢穀)은 모두 10분의 1을 이자로 하되, 사채(私債)는 동전의 경우 10분의 2, 곡식의 경우 장리(長利)<sup>213</sup>로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공채는 10분의 1, 사채는 10분의 2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영의정이 또 말하기를 “사채의 경우 곡식은 의당 장리로 하고 전(錢)은 10분의 2로 한다면 거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10년 동안이라도 그 이자를 더 늘지 않게 하고 또한 더 받을 수 없게 하소서. 부유한 백성이 사채를 준 후에 가난한 백성이 혹 기한을 넘겨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면 채주(債主)가 이자와 본전을 아울러서 본전인양 문서를 작성하고 그 이자를 늘려서 받아내고 다음 해에는 더 받아냅니다. 이후로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별도로 엄한 벌을 내리소서. 그리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 가운데 명을 어기고 식리(息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심한 자는 장률(贓律 뇌물죄)로 논하고 가벼운 자는 무거운 형률로 다스려서 영구히 규모(規模)를 정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허락하노라.”라고 하였다.

2월 3일(갑신) 날씨가 청명하였다. 진주(晉州)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광점(李光漸) 댁에 가서 유숙하였다. 이광점은 연전(年前)에 한양에 올라갔다.

2월 4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밤에 걷혔다. 동산(桐山)에서 천곡(泉谷)에 가서 유숙하였다.

2월 5일(병술) 다시 구름이 끼었다. 진주를 지나 가동(可洞)에서 말여물을 주었고, 저물녘 집으로 돌아왔다.

2월 6일(정해) 햇벌이 나왔는데 바람이 서늘했다. 밤에는 옅은 구름이 왕왕 하늘을 가렸다. 밤에는 옅은 구름이 자주 하늘을 가렸기 때문에 군데군데 별과 달이 보이긴 해도 분명치 않

찬 야담 등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설화문학의 좋은 자료이다.

**213)** 장리(長利)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邊利).

았다. 태성(台星)이 달 뒤에 가깝지 않으니 삼성(參星)이 달 앞에 멀지 않음을 상상할 수 있다. 듣자니 창원(昌原) 지역은 땅에서 저절로 불길이 일어나 산악(山岳)을 태우는데 낮에는 불꽃이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그 빛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와 돌이 썩는 것 같다고 하니 괴이하고 괴이하다.

2월 7일(무자) 약간 흐렸다. 올해 봄에 육백관시(六百館試)<sup>214</sup>를 의령(宜寧)에서 설행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날짜를 정해 출발해서 정재종(丁再從) 집으로 가서 묵었다.

2월 8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정재종(丁再從)과 동행하다가 진주(晋州) 명전(明田)에 사는 윤의빙(尹義聘) 집에서 말여물을 주고, 밤에 백야촌(白也村)에서 묵었다.

2월 9일(경인) 새벽에 출발하여 염창진(鹽倉津)을 건넜다. 나는 진성(晋城) 접우(接友)들과 예전에 나란히 동행하자는 약속을 맺었는데 정재종과 동행했기 때문에 천곡(泉谷)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 강을 지나면서 시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이응과 곽태처럼 배 타자고 약속했는데 <sup>215</sup>	李郭同舟昔有期
혹 앞서고 뒤쳐져 맞지 않아 어긋났구나	或相先後與之違
뒷사람이 우리 행장 물어보면	後人若問吾行李
오늘 아침 전에 이 물가 지나갔다고	今日朝前過此磯

의령읍(宜寧邑)에 들어가 동문 밖 정끝만(鄭杰萬) 집에 하관을 정하였다.

2월 10일(신묘) 상시관(上試官)은李大元이었는데, 부시관(副試官)은 늦게 과장에 들어왔다. 이날 날씨가 삼월처럼 따뜻하여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논제(論題)는 ‘동한(東漢)의 절의를 숭상한 것이 서한(西漢)만 못하다’<sup>216</sup>, 부제(賦題)는 ‘〈요전(堯典)〉이 《대학(大學)》의 종조(宗祖)이다’였다.

2월 11일(임진) 서문(西門) 밖에 하관한 대아(大雅) 정중걸(鄭仲杰)과 동문 밖에 하관한 대아 허즙(許楫)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저물녘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고 빗방울이 때때로 내렸으며 가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214** 육백관시(六百館試) :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거행하던 특별 과거 시험이다. 6백 명을 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육백별시(六百別試)라고도 하였으며, 3백 명을 뽑을 경우에는 삼백관시(三百館試) 또는 삼백별시(三百別試)라고 일컬었다.

《增補文獻備考 卷187 選舉考 科制》

**215** 이응과 곽태처럼 배 타자고 약속했는데 : (고사) 후한(後漢) 이응(李膺)은 그의 영접을 받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라고 자랑할 정도로 명망이 높았는데, 그가 곽태(郭泰)를 만나보고는 사우(師友)의 예로 대접하자 곽태의 명성이 경사(京師)를 진동했다고 한다. 그 뒤에 곽태가 고향에 돌아가려 하자 강가에 나와 전승한 제유(諸儒)의 수레가 수천 대나 되었으며, 이응과 곽태 두 사람이 타고서 건너가는 배를 바라보며 모든 빈객들이 신선과 같다고 찬탄하면서 부러워했다는 이곽선주(李郭仙舟)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68 郭泰列傳》

**216** 동한의 절의를 숭상한 것이 서한만 못하다 : (고사) 동한(東漢)은 절의(節義)를 숭상하였으나 봉당(朋黨)이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2월 12일(계사) 진성(晋城)의 온 접우(接友)들이 모두 돌아갔다. 나 혼자 남아서 과장에 들어갔다. 이날 아침을 먹은 뒤에 서풍이 크게 불어 뜬구름이 날아오르고 모래먼지가 연기와 같아 과장이 소란스러웠다. 동문 밖에 화재가 발생하여 몇 집이 연이어 소실되었는데, 겨우 불을 진압하였다. 저물면서 구름은 사라졌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날씨는 매우 추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떨떨 떨었다.

2월 13일(갑오) 해가 났으나 갑자기 추워졌다. 정재종(丁再從)과 생원 이후식 천배(李厚植天培)와 초계(草溪)에 사는 김돈 백후(金敦伯厚)와 동행하여 염강(鹽江)을 잘 건넜다. 나는 계속 천곡(泉谷)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사내종과 딸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2월 14일(을미) 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연기와 먼지가 하늘에 가득했으니, 범상치 않은 조짐이다. 떠오르는 태양이나 달이 불꽃처럼 붉었다.

2월 15일(병신) 이날 바람이 어제보다 심하니, 괴이한 일이다.

2월 16일(정유) 햇별이 나와 따뜻하였다. 그저께 바람으로 산진촌(蒜津村) 60여 채 집이 연달아 소실되고, 사망자가 2명, 죽은 소와 말은 6, 7마리, 죽은 닭과 개가 무수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밤에 또 구름이 끼었다.

2월 17일(무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곳곳마다 촌마을에 화재와 관련된 재앙이 수많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

2월 18일(기해)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궁문(宮門)에 비방하는 글을 걸었던 나라의 역적이 지금 붙잡혔는데, 바로 삼수(三手)<sup>217</sup>의 여열(餘孽) 정원협(鄭元浹)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2월 19일(경자) 바람이 또 먼지를 일으켰다. 근래 6, 7일부터 광풍이 그치지 않고 불어 흠먼지가 씻긴 듯 땅 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더러 보리 뿌리가 드러나 말라 죽었으니, 이는 무슨 징조인가.

2월 20일(신축)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잔잔했다. 가노(家奴)가 집안 소식을 전해 주었다.

2월 21일(임인)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나는 정함장(鄭函丈) 덕 사내종 금동(今同)을 샀는데 오늘 매매문서를 작성했다.

2월 22일(계묘)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

**217** 삼수(三手) : (역사) 삼수는 목호룡(睦虎龍)이 노론 측에서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소위 삼급수설(三急手說), 즉 칼로 살해하는 대급수(大急手), 약으로 살해하는 소급수(小急手), 모해하여 폐출하는 평지수(平地手)를 들어 고변하였다. 결국 1722년(경종2)에 영조를 세제(世弟)로 내세워 대리청정을 요구하던 노론을 역모로 몰아, 소론이 실권을 잡은 사건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노론 사대신인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견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가 사사되고 그에 연루된 이들도 처벌받았다.



2월 23일(갑진)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2월 24일(을사)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았다.

2월 25일(병오) 약간 흐렸으나 따뜻하였다. 나는 정함장의 사내종과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6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그대로 천곡(泉谷) 사내종과 말을 데리고 통영에 들어가, 원문(轅門 군문(軍門))에 이르렀는데, 비를 만나 막 ■……■ 옷이 다 축축하게 젖었다. 밤에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나왔다.

2월 27일(무신) 충렬사(忠烈祠)에서 묵었는데, 벗 김세보(金世寶)와 나란히 잠갔다.

2월 28일(기유) 날씨가 매우 따뜻하다가 저녁에 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9일(경술) 여전히 구름이 끼고 오후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는 전(錢) 10관(貫)을 천곡(泉谷)에 보냈다.

3월 대월(大月). 13일 곡우(穀雨), 27일 입하(立夏).

3월 1일(신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금동(今同)이 천곡에서 왔다.

3월 2일(임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3월 3일(계축) 청명하다가 밤에 구름이 끼었다.

3월 4일(갑인)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와 오시(午時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않았다.

3월 5일(을묘) 비가 내리다가 오후가 되어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맑아졌으며 개울과 도랑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3월 6일(병진) 내가 머리카락을 빗게 했는데 흰 머리카락이 있었다. 아내가 웃으면서 “벌써 노인네가 되셨습니까?”하고서 흰 머리털을 뽑아냈다. 오후에 나는 재종(再從)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올라 한산전(寒山殿)에 거처를 정하고서 《당시산(唐詩刪)》<sup>218)</sup>을 읽었다.

3월 7일(정사)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정창구(丁昌九)가 또 와서 배웠다. 중 법징(法徵)이 남초(南草) 10여 속(束)을 받쳤고, 중 학성(學性)이 술 1병을 주었다.

218) 《당시산(唐詩刪)》 : (책명) 명나라 이반룡(李攀龍)의 당시(唐詩)를 편집한 책자이다.

3월 8일(무오) 날씨가 청명하였다. 중 계일(桂日)이 아침밥을 공양하고 술을 주었다. 중 신률(信律)이 술 1병을 주었고, 중 국찬(國贊)은 남초(南草) 1파(把)를 받쳤다. 오후에 구름이 짙었다.

3월 9일(기미)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저녁이 되면서 비가 걷였으나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중 영식(榮息)은 술을 주고, 신률(信律)은 점심을 공양하였다.

3월 10일(경신) 비가 개이자 산의 비취색이 시단(詩壇) 곁으로 다가왔다. 중 찬준(贊俊)이 아침밥을 공양하고, 아울러 남초 10여 속(束)을 받쳤다.

3월 11일(신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뜬구름을 몰고 왔는데 조각구름들이 둥근 수레와 같았다. 중 지영(智英)이 점심을 공양하였다. 심군 도행(沈君道行)이 그 종제(從弟) 일재(逸才)와 함께 와서 독서하고자 하면서 개명(改名)을 청하였다. 내가 “심(沈)자는 물 ‘수(水)’자가 부수이다. 물에는 용이 있어야 하니, 의당 ‘익룡(翼龍)’으로 이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라고 하니, 심군이 “예”라고 답하였다. 이날 가리동(加里洞) 훈장 윤덕휘(尹德輝)<sup>219</sup>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윤생(尹生)은 바로 호남(湖南)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출신이다.

3월 12일(임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소리 내며 불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통영 민가에 두세 살 된 어린아이가 기어 다니다가 길옆에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 그 어머니가 매번 통곡하기를 ‘이 뱀을 어떻게 죽이나.’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마침 사람이 없을 때였다. 뱀이 어떤 풀잎을 입에 물고 물린 곳에 문지르자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그 잎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괴이하다. 뱀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약물(藥物)을 가져다주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이날 《당시산(唐詩刪)》 65수(首)를 외웠다. 중 철훈(哲勳)이 아침밥을 공양하였다.

3월 13일(계해) 따뜻하였다. 중 원익(元益)이 아침밥을 공양하였다. 저녁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동(銅) 1민(一緡)으로, 책지(冊紙) 9(束)을 샀다.

3월 14일(갑자)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비가 쏟아져 밤중에 계곡물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흘렀다.

3월 15일(을축) 바람과 구름이 이리저리 치달리고 오후에 가랑비가 햇볕을 업신여겼다. 한시를 지었다.

---

**219)** 윤덕휘(尹德輝) : (인물) 가리동(加里洞)의 서당훈장으로, 여러 곳을 방랑하다가 고성으로 들어온 호남 출신의 인물이다. 구상덕이 가리동 부근을 갈 경우 그의 서당을 자주 방문하고 그 곳에서 유숙하였다.

3월 16일(병인) 맑고 따뜻하였다. 한시를 지었다.

3월 17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연 며칠 공부를 하였다. 중 철성(哲性)이 아침밥을 공양하였다. 큰 형님이 재종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올라 왔다.

3월 18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형님이 내려갔다. 나는 재종 정창래(鄭昌來), 심군, 정창세(鄭昌世), 심일재(沈逸才), 정창구(鄭昌九)와 중 지영(智英)·응호(應虎)·학성(學性)·신률(信律) 등과 함께 술을 가지고 벽방산(碧芳山) 상봉(上峯)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했다가 내려왔다. 중 정상(淨祥)이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이날 오전에 통영 중군(中軍)이 순시하다가 본사(本寺)를 지나갔다. 어두워지자 법징(法徵)이 술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밤하늘에 동운(同雲)<sup>220</sup>이 끼었다.

3월 19일(기사) 비가 내렸다. 중 원익(元益)이 술 한 병을 가지고 아울러 입에 맛있는 산나물을 마련해서 정겹게 방문하여 한바탕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하였다.

3월 20일(경오)어제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때때로 가랑비가 이슬처럼 내렸다. 이날 절간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대접했는데, 우리 다섯 명의 점심을 공양했고, 지영(智英)이 또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3월 21일(신미)청명하였다. 중 진명(進明)이 아침밥을 공양하고, 치상(致祥)이 점심밥을 공양하였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창구(昌九)가 집으로 내려갔다.

3월 22일(임신)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들으니 충청병사(忠淸兵使) 이공 봉상(李公鳳祥)이 역적 이인좌(李麟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은 역적을 욕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중군(中軍)은 투항하고, 비장(裨將) 홍림(洪霖) 역시 역적을 욕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충청도 지방관은 혹 관아를 버리고 달아나 인민(人民)들이 크게 혼란하였다고 한다. 통제사 김공 흡(金公滄)<sup>221</sup>이 밤에 비장(編裨) 두 명을 충청감영(忠淸監營)에 보내 역적의 동태를 탐지하게 하였다.

3월 23일(계유) 오후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각 곳의 복병(伏兵)이 지나가는 사람을 기찰(讖察 동태 감시)하였다. 철훈(哲勳)이 도책지(擣冊紙)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쳤다.

3월 24일(갑술) 날씨가 청명하였다. 중 최초(最楚)가 아침밥을 공양하고, 중 국찬(國贊)이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3월 25일(을해) 날씨가 청명하였다. 가섭암(迦葉庵)에 올라가 인승(印僧) 계일(桂日)에게 백

**220)** 동운(同雲) : 기출

**221)** 김공 흡(金公滄) : (인물) 김흡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광해군 때 후금정벌에 나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장수 김응하(金應河)의 후손이다. 1723년(경종3) 남병사(南兵使)를 거쳐 1727년(영조3) 통제사(統制使)가 되었다. 1733년에는 우포도대장이 되고, 2년 뒤에는 총융사(摠戎使)를 거쳐 1737년 어영대장에 올랐으나 4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승충명록》에는 ‘翁’자로 되어 있으나, ‘滄’자로 정정해 번역하였다.

책(白冊)을 만들게 하고, 한산전(寒山殿)에 돌아왔다. 중 국찬을 권하여 읍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상세히 탐지하여 베껴 오도록 하였다. 우병사(右兵使) 계초(啓草)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병영 진무(鎭撫) 김중천(金重千)이 상경하여 청주(淸州) 옥천(沃川) 땅 증약역(增若驛)에 당도했더니 적의 발문(發文)이 있기에 역(驛)의 인마(人馬)를 붙잡아들여 말하기를 ‘대원수(大元帥)가 성화같이 상사(上使)할 일을 위하여 본역(本驛)에 소속된 각 역의 대마(大馬)와 기복마(騎卜馬) 짐 싣는 말)를 현재 있는 숫자 그대로 이방과 병방이 영솔해서 올려 보내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죄책(罪責)을 당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문서를 봉하고 찰방편으로, 빨리 확실히 할 것. 경종대왕 8년 무신 3월 16일. 청주(淸州)에서 보냄”이라고 하였다. 금산(金山) 군수가 급히 치보(馳報)하는 일이다. 이번 달 18일 아침 이후에 홀연 길에서 놀라운 보고를 전해 들었는데 청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였다. 때문에 읍리(邑吏)를 황간(黃澗) 읍저(邑底)로 보내 진짜 소식을 탐문하도록 하였더니 이미 적이 점거하고 있었다. 또 관의 비장(裨將)과 이졸(吏卒)을 보내 탐문했더니 청주 지역이 이미 적에게 점거당한 상태였다. 황간·영동(永同)의 관수(官守)는 대부분 텅 비었다고 하였다.

3월 26일(병자) 청명하였다. 파접(罷接)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읍에 들어가 보니, 병사(兵使)가 관문(關文)을 보내 열읍(列邑)에서 군사를 소집하여 감영으로 왔다고 했는데, 읍 마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저녁에 돌아왔다.

3월 27일(정축) 청명하였다. 또 읍에 들어가 심군(沈君) 집에 도착해 보니, 심군이 꿩 구이와 생선회를 내와서 술안주로 먹었다. 들으니, 각 고을 관장(官長)들이 역적에게 쫓김을 당하여 우병영(右兵營)에 많이들 모여 있다고 한다. 저녁에 돌아왔다.

3월 28일(무인) 함천군(陝川郡)이 본군(本郡)의 역적인 조정좌(曹鼎佐)에게 점거 당했다고 한다. 둘째 형님이 읍에서 군졸을 모으는데 오늘이 이미 4일째이다. 큰형님은 수령의 행차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중(城中)을 왕래하였다. 매형 이여섭(李汝涉)도 불러들여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본현(本縣)의 병장(兵將)은 내일 병영(兵營)을 향해 출발하기로 했는데 전립(氈笠)이 없는 자는 패랭이[平涼笠]를 마름질해서 종이를 발라 기름칠을 하도록 했고, 군복이 없는 자는 청상(靑裳)을 가져다 재단하여 만들었다. 이때 행인들이 산림에 불을 멋대로 놓아 사방의 불빛이 햇불을 벌려놓은 것 같고 연무(煙霧)로 인해 낮에도 어두웠으나 관아에서는 금지할 겨를이 없고 마을에서도 구제할 생각이 없으니, 이 또한 하나의 변괴이다. 저녁이 되자 송필삼(宋弼三)이 관아의 기별을 전하러 와서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관병(官兵)이 출발할 터이니 각자 부근의 장수를 정해 행장을 재촉하라고 하였다.

3월 29일(기묘) 연기와 먼지가 가득하여 하늘이 캄캄하였다. 이른 새벽에 읍으로 들어갔다.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가 되어 관병이 출발하여 서문(西門)으로 나갔다. 관장(官長)과 여러 장사(將士)들이 흘린 눈물을 훔치며 가련한 기색을 띠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모두 세속의 모양새로 논할 것도 없다. 두 형님과 말 위에서 작별할 때에 나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하였다. 한결같이 집안을 잇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였고 이별을 아쉬워하며 헤어지기 어려워하는 말은 조금도 없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출정하는 남자 가운데 모자지간이나 부부간에 전투를 앞 둔 이별에 실성(失聲)하여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듣는 사람도 울컥하여 울기 충분하다. 군대 행군은 사천(泗川) 길을 향해 가다

가 반으로 나누었고 비장이 본성(本城)에 남아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 때 사또는 양취달(楊就達), 좌수는 허표(許標), 별장은 최익해(崔益海), 과총은 정한명(丁漢明)이다. 운량감관(運糧監官)은 유품(儒品)이 있는 집안사람으로 차정(差定)하였고, 유성장(留城將)은 전임 좌수 이석함(李錫咸)이 향망(鄉望)이 있기 때문에 맡겼다. 군대가 출발한 후에 통영(統營) 친병장(親兵將)이 삼가(三嘉)로부터 와서 전하기를 ‘지난 26일에 삼가에 당도했더니 합천 군수가 본군의 역적 조정좌(曹鼎佐)에게 쫓겨 가솔을 데리고 삼가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조정좌는 본래 합천(陝川) 도옥리(搗玉里) 사람인데, 마을에서 돌연 일어나 마침내 군부(郡府)를 점거하고 스스로 서서 지키다가 삼가(三嘉) 사람 허택(許澤)을 중군(中軍)으로 삼았다. 허택은 허견(許堅)의 종손(從孫)이다.

27일에는 삼가 군수 또한 군사를 모아 적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적의 기세가 막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군사를 버리고 진양(晉陽)으로 달려갔더니, 좌수 권만항(權萬恒)이 그 병사들을 합천(陝川)의 역적에게 귀속했다고 하였다. 통영 군관(軍官) 김만갑(金萬甲)이 구두로 한 보고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후에 송도(松道) 좌각산(坐角山) 위로 올라갔다. 심군(沈君)과 이야기할 때에 연기와 먼지가 짙게 끼어 지척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서북쪽 하늘에서 또 큰 천둥소리가 여러 번 나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성에 들어가 객사 동헌에 이르렀다. 유성장(留城將)을 만나 대화하던 중에 순영에서 통영에 보내는 이문(移文)이 당도했기 때문에 등서해서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지난 24일 아침에 조정에서 보낸 군대가 역적의 선봉과 죽산(竹山)에서 싸워 적병을 크게 격파하였고, 또 청안(淸安)까지 뒤쫓아 크게 격파하였으며, 적의 괴수 이인좌(李麟佐)의 목을 베어서 긴장대에 매달았다. 나머지 무리들이 영남(嶺南)에 있으니 좌·우병사(左右兵使)로 하여금 토벌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비가 제법 거세졌는데 매형 이여섭과 함께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3월 30일(경진) 청명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큰 누님과 갈산에 사는 누님이 부모님을 뵈기 위해 왔다가 저녁에 각자 돌아갔다. 이날 어제 내린 비에 초목이 여전히 축축하였고 무량산(無量山)<sup>222)</sup> 곳곳에 어제처럼 안개 빛이 크게 일어나니 괴이하다.

통제사가 관문(關文)을 보내 각 사찰의 승려들을 불러 성을 지킬 계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군(僧軍)이 오늘 감영에 들어갔다. 고성(固城)에서는 사창미(司倉米) 1백 섬을 내어 두 장정 당 1섬씩 나르게 해서 진주(晉州)의 군중(軍中)으로 향하게 하였으므로 면임이 부근 면(面)을 회유(回諭)하였다. 정노(正奴)가 양식과 반찬을 끓여지고 진주에 갔다가 돌아와 진주 군중(軍中)의 소식을 보고하였다. 사천(泗川) 사람 박후중(朴後重)이 흰옷을 입고 영장(營將)을 들어가 만났는데 영장이 역적의 사신으로 여겨 목을 뱉었다고 하였다. 이날 저물 즈음에 구름이 해를 가렸다 말았다 하였다.

4월 대월(大月). 13일 소만(小滿), 28일 망종(芒種).

4월 1일(신사) 1부(夫)에서 각기 2명씩 나와 군량을 운반하였다.

4월 2일(임오) 태양이 불같이 붉고 구름의 빛깔이 흔들림이 또 그저께와 같았다. 내가 읍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 그믐날에 합천의 역적 천총(千摠) 김기(金琦)가

<sup>222)</sup> 무량산(無量山) : (지명) 고성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으며, 고성의 진산(鎭山)이다.

기회를 엿보아 괴수 조정좌(曹鼎佐)를 유인하여 들판으로 출진(出陣)했는데 몰래 차고 있던 칼로 군막(軍幕)의 네 귀퉁이 새끼줄을 잘라 군막이 쓰러지자, 칼로 마구 찢러 산채로 사로 잡았다고 한다. 허택(許澤)은 군막을 찢고 달아났는데 피를 줄줄 흘리며 달아나다 물에 막혀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 때 성주(星州)의 군대가 진을 마주하고 협공하여 격파하였다고 한다.

저녁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4월 3일(계미) 햇벌이 또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가 복병(伏兵) 막사에서 군중 소식을 탐문하였다. 본현의 군관(軍官)은 80명인데 종관(從官)이 삼가(三嘉)에 이르면 군대를 파하여 돌려보낼 것이므로 5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놓아 돌려보냈다. 큰형님이 삼가로부터 돌아와서 병사(兵使)가 막 삼가읍에 있다고 하였다. 들어보니, 안음(安陰) 역적 정희량(鄭希亮) 군대는 40여 초(哨)인데 함양(咸陽)에서부터 지난 28일에 거창(居昌)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남태징(南泰徵)은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들었다. 지난 24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가 청주(淸州)에 도착하여 이인좌 등을 사로잡았다. 중군(中軍)을 항복시키고는 그들의 치중(輜重 화물용 수레)을 수색해보니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봉상(李鳳祥)의 만호영자(曼胡纓子)<sup>223</sup>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곧바로 이공(李公)의 집에 전하였다고 한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 흠비가 내려 흐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4월 4일(갑신) 보슬비가 내렸다.

4월 5일(을유) 청명하였다. 정재장(丁再長)이 삼가(三嘉) 군중(軍中)에서부터 와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끄저께 병사(兵使)가 삼가 좌수 권만항(權萬恒)을 참수하라고 했고, 인하여 그끄저께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기 때문에 어제서야 합천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역적이 거의 사라져서 우선 출발하지 않았으니 방군(放軍 군대 해산)하려는 기미가 있었다고 한다.

4월 6일(병술) 날씨가 청명하였다. 군대가 모두 파하여 돌아갔다. 둘째 형님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초3일 밤에 표신(標信)을 가진 선전관(宣傳官)이 진중(陣中)에 도착하여 군대를 파하라고 하였다. 군대가 장차 편안히 잠들려고 하였는데 칠원(柒原) 군중에서는 꿈에서 놀라 깨어 소리치다가 온 군중을 소란스럽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군의 초관(哨官)과 기대장(旗隊長) 등을 조사하여 각각 곤장 7대를 쳤다고 한다.

4월 7일(정해) 청명하였다. 올해 난리 역적의 괴수는 청주(淸州) 이인좌(李麟佐), 나주(羅州) 나송대(羅崇大)·송곤(崇坤), 합천(陝川) 조정좌(曹鼎佐), 안음(安陰) 정희량(鄭希亮)이다. 전임 관리 출신 중에는 박필몽(朴必夢)·박필현(朴必顯) 등이다.

4월 8일(무자) 읍에 들어가 종군(從軍)했던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길로 계동(契洞)에 갔다가 돌아왔다. 아버님이 역시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다. 우병사(右兵使)가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붙잡혀 갔다고 들었다. 병사(兵使)는 이시번(李時蕃)이다.

<sup>223</sup> 만호영자(曼胡纓子) : 만호영자는 무늬가 없는 갓끈을 말한 것으로, 무관들이 착용하는 것이다.

4월 9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버님이 또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다. 송전(松田)이 불에 탄 일로 각 마을 임장(任掌)이 모두 불잡힘을 당하였는데 우리 마을에 불지른 황태홍(黃太弘)은 이미 감옥에 갇혔다.

4월 10일(경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김운전(金允全)이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견내량(見乃梁)<sup>224</sup>을 향했다.

4월 11일(신묘) 비가 개었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 나는 나가서 다용동(多用洞)의 못자리[秧基]에 물을 대었다. 오후에 다시 흐려졌다.

4월 12일(임진) 비가 내려 시내와 도랑이 어지럽게 흘렀다.

4월 13일(계사) 동풍이 불고 습한 구름이 끼었다. 영비(營裨)가 송전(松田)에 화전(火田)하는 행위를 적간(摘奸)하였다.

4월 14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에 들어가고 계동(契洞)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순상(巡相) 황공(黃公)이 갑자기 11일 관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4월 15일(을미) 청명하였다. 심군 익룡(沈君翼龍)과 재종(再從)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가섭암(迦葉庵)에 올라 독서하였다.

4월 16일(병신) 날씨가 청명하면서도 더웠다.

4월 17일(정유) 우리나라 시를 읽었다. 사내종에게 양식과 책을 지고 오게 하였다.

4월 18일(무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공부를 하였다.

4월 19일(기해)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다.

4월 20일(경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4월 21일(신축) 짙은 구름이 걷혔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4월 22일(임인)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4월 23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4일(갑진) 동풍이 서늘하게 불고 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

**224)** 견내량(見乃梁)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사이이다. 임진왜란 때는 옥포해전과 한산해전의 주요 전투지이다.

4월 25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4월 26일(병오) 청명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4월 27일(정미) 날씨가 청명하였다. 봄 사이에 왔던 암행어사 박공 문수(朴公文秀)가 본도(本道) 순사(巡使)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심군(沈君)이 어선(漁善)에 갔다.

4월 28일(무신) 날씨가 청명하였다.

4월 29일(기유) 아침노을이 지었다가 사라졌다.

4월 30일(경술) 날씨가 청명하였다. 심군이 왔다.

5월 소월(小月). 14일 하지(夏至).

5월 1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비가 내렸다. 중 부찰(富察)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5월 2일(임자)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두 단비라고 하였다.

5월 3일(계축) 비가 갠듯하였다. 그래서 심익룡과 정창세 제군(諸君)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구(洞口)를 나오자마자 비가 부슬부슬 내려 할 수 없이 비를 맞고 내려왔다.

5월 4일(갑인) 비가 내렸는데 미시(未時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와 신시(申時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삼시간에 갠으나 구름은 여전히 짙게 끼었다.

5월 5일(을묘) 날씨가 청명했는데 동풍이 불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구름이 끼고 날씨가 차가웠다.

5월 6일(병진)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심군(沈君)이 또 찾아왔다. 드디어 그와 함께 산암(山庵)에 들어갔는데 중도에 비를 맞았다.

5월 7일(정사) 비가 그치지 않다가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구름이 걷혔다. 공부를 하였다.

5월 8일(무오) 아침에는 안개가 사방을 자욱했으나 오후에는 맑디맑았다.

5월 9일(기미) 가끔 흐렸다.

5월 10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1일(신유) 비가 쏟아지다가 저물녘에 개고, 겹겹이 안개가 끼어 사방이 자욱하였다.



5월 12일(임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13일(계해) 가랑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다.

5월 14일(갑자)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고 밤에 달빛이 깜박거렸다.

5월 15일(을축) 어젯밤에 낀 안개가 더욱 형세를 확장하여 가랑비를 내렸다. 저녁에는 해가 보였지만 밤에 또 구름이 끼었다.

5월 16일(병인) 가랑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17일(정묘) 가랑비가 저물녘에 걷혔다.

5월 18일(무진) 비가 가끔 주룩주룩 내렸다.

5월 19일(기사) 이따금 비가 퍼붓더니 가끔 햇볕이 온전히 나오기도 하였다.

5월 20일(경오) 가끔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오다가 하였다. 접소(接所)을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5월 21일(신미) 남풍이 불고 뜬구름이 가끔 떠다녔다. 향교로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2일(임신) 가랑비가 내렸는데 태양이 가끔씩 보였다. 호남에 역적 무리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사가 비장(裨將)을 보내 탐지하였다고 한다.

5월 23일(계유) 가랑비가 또 그치지 않고 남풍이 잠깐 불었다.

5월 24일(갑술) 가끔 찌는 듯이 덥다가 저녁에 비가 때때로 쏟아졌다.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방문했다가 그길로 장의암(壯義庵)에 올라갔다.

5월 25일(을해)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5월 26일(병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쏟아져 냇물이 시끄럽게 흐르다가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5월 27일(정축) 가끔 햇볕이 나오고 밤에 간간히 구름이 끼었는데 동풍[乙風]이 세차게 불었다.

5월 28일(무인) 바람과 구름이 그치지 않고, 그 때 산머리를 보니 비올 기색으로 연무(烟霧)처럼 흐릿하였다.

5월 29일(기묘) 남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잠깐 햇볕이 나왔다.

6월 대월(大月). 1일 소서(小暑), 11일 초복(初伏), 17일 대서(大暑).

6월 1일(경진) 남풍이 불고 햇볕이 구름을 뚫고 나왔다. 어사(御史) 이공 종성(李公宗城)이 본현에 들어왔다고 한다.

6월 2일(신사) 찌는 듯이 더웠다. 어사가 통영에 들어갔다. 오랜 비 내린 끝에 비로소 햇볕이 보이니, 드디어 서책을 포쇄(曝曬)하였다.

6월 3일(임오) 찌는 듯이 더웠다. 감관(監官) 백한주(白翰周)가 어사(御史)의 순찰에 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위문하고 돌아왔다.

6월 4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장의(掌議) 이석임(李錫臨)이 또 백성의 소송으로 어사에게 한 차례 형신(刑訊)을 받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내가 장차 가서 만나보려고 갈산(葛山)에 도착했는데 남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자 드디어 집으로 되돌아갔다. 서남풍이 세차게 불고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5일(갑신) 읍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이장(李掌議)을 만나보고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허함(許滄)이 와서 유숙하였다. 이날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6일(을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허함이 계속 머물렀다. 시가[市直]가 보리 25말이라고 한다.

6월 7일(병술)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자 걷혔다. 허함이 작별하고 떠났다. 역적이 곤양 군수(昆陽郡守) 우하형(禹夏亨)에게 격문을 전하기를, ‘너는 속히 호서의 청주성으로 와서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처자식을 도륙하고 먼저 진주 병영을 치고 그 다음에 수원(水原) 감영을 쳐서 북쪽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곤양 군수는 그 격문을 어사(御史) 및 통제사에게 보고하였다. 어사가 거제(巨濟)로부터 저녁에 현(縣)으로 들어왔고, 현의 군관(軍官) 박윤흥(朴允興)을 출발시켜 곤양으로 가게 해서, 곤양에서 만류하여 상경하지 못하게 하고 함안(咸安)으로 돌아와 보고하였다고 한다. 곤양 군수 우하형은 지난번 포획한 공로로 조정에서 불러 어영별장(御營別將)으로 삼았기에 지금 상경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어사(御史)가 우선 행차를 만류하였고, 그로 하여금 역적들을 정탐하여 토벌하였다고 한다.

근래 재이(災異)로는 작년에 함흥(咸興)에서 용이 죽은 일이 있었다. 또 을사년에 구만동(九萬洞) 마을에서 흰 소가 태어났는데 눈빛이 옥과 같고 사람을 쏘아보는 눈동자를 갖고 있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고 한다. 금년 봄에는 김해(金海) 함교(檻橋)의 물빛이 붉은 빛이었고, 아래 마을에는 송아지 등에 발이 솟아 나왔다고 하니 이것들이 과연 상서롭지 못한 징조인가.

6월 8일(정해) 가랑비가 이슬처럼 맺혔다. 어사(御史)가 늦게 출발하여 함안(咸安)을 향해 갔다. 장대(長大)에 사는 상주(喪主) 허렴(許廉)이 와서 말하기를, “예전에 장맛비가 이와 같으면 노래기[香娘虫]가 매우 많았는데 금년에는 이 벌레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장의 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6월 9일(무자)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 정도 있었다. 허좌수(許座首)가 길을 지나다가 소나무 아래에 앉아 나를 초청하여 내가 술을 가지고 나가 만나보고 돌아왔다.

6월 10일(기축) 가랑비가 갑자기 지나가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가 밤에도 비가 내렸다. 송정(松亭)에 사는 허생원(許生員) 등 여러분을 가서 방문하여 하루 종일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사신(使臣)이 연경(燕京 북경)에 들었는데 예폐(禮幣)를 바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삭탈관직 되고 영상(領相)으로 바꾸어 다시 사신을 갔다는 풍문을 들었다.

6월 11일(경인)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다가 저녁이 되자 갑자기 개었다.

6월 12일(신묘) 어제 내린 비로 여전히 습하고, 오후가 되어서야 구름이 걷히고 밤에는 구름 사이로 달이 비쳤다.

6월 13일(임진) 하늘에 가끔 구름이 끼었으나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오늘은 바로 상주(喪主) 우홍주(禹洪疇)가 모친의 초기(初碁)에 재계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만나보고 종일토록 있었다. 사랑(蛇梁)의 주산(主山)에 큰 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마장(馬場) 떨어진 곳에 옮겨두었다고 하니 괴이하다. 이러한 일들은 불량한 젊은 애들이 취기로 장난하다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 아니겠는가. 가소롭고 가소롭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6월 14일(계사) 새벽에 또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5일(갑오) 가랑비가 내렸다. 《진유록(辰酉錄)》<sup>225)</sup> 〈최부전(崔溥傳)〉<sup>226)</sup>을 구해 보았다.

6월 16일(을미)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서리인 듯하였다. 아몽(阿夢) 귀 뒤편에 종기가 생겨 해식[醢食]을 붙였다.

---

#### 225) 미상

226) 〈최부전(崔溥傳)〉 : (책명)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을 가리킨다. 최부(1454~1504)는 자가 연연(淵淵), 호가 금남(錦南), 본관이 나주(羅州)로, 진사 택(澤)의 아들이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2년 진사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87년 제주 추쇄경차관(濟州推刷敬差官)으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도중 풍랑으로 중국 절강성(浙江省) 영파부(寧波府)에 표류하여 온갖 고난을 겪고 만년 만에 귀국하였다. 왕명으로 《표해록》을 저술하였는데, 중국 연안(沿岸)의 기후·산천·도로·풍속·민요 등을 소개하였다. 1497년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明) 나라에 다녀왔으며,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봉당을 만들어 국정을 비방했다는 죄로 단천(端川)에 유배되었으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참형당하였다.

6월 17일(병신) 비가 퍼붓듯이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6월 18일(정유)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서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오후에는 햇볕이 나오고 찌는 듯이 더웠으며 얼마 뒤에 다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렸다. 저물 즈음 한편에는 햇볕이 나고 한편에는 비가 내렸다.

6월 19일(무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햇볕이 나왔다.

6월 20일(기해)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지난밤에 호랑이가 마을의 개를 물어간 일이 있었다. 또 건너편 마을 여인의 다리를 물고 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 다행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올 여름에는 하루도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날씨가 자못 싸늘하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차가워 스스로 제 몸을 아끼는 사람이 대부분 온포(緇袍 솜옷)를 생각하니, 이상한 날씨이다.

6월 21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몹시 찬 기운이 있었다. 벗 최석경(崔錫慶)을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6월 22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고 날씨가 차가웠다. 가리(加里) 훈장(訓長) 윤덕휘(尹德輝)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파하였다. 대아(大雅) 허유(許庠)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파하였다. 무신년 오늘이 바로 아버님의 생신날이다. 술과 반찬을 장만했고, 여러 매형들 역시 술을 보내 왔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6월 23일(임인)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4일(계묘)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나는 진성(晋城)에 가려고 두곡(杜谷)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생원 정림일(鄭林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중에 천곡(泉谷)에 들어가 궤연(几筵)에 통곡하였다.

6월 25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신계(新溪)에 사는 생원 이방협 요부(李邦協堯夫) 댁에서 묵었다.

6월 26일(을사) 식사 후에 출발하여 지나는 길에 서방(書房) 최태구(崔泰壽)와 최익후(崔益后)를 방문하고, 계동(契洞)에서 말여물을 주고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7일(병오) 닭이 울기 전에 소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그치고, 하루 종일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오후에는 가랑비가 뚝뚝 떨어졌다.

6월 28일(정미) 동풍이 세차게 불고 구름과 안개가 치달렸다. 오후에는 가랑비가 뚝뚝 떨어졌다.

6월 29일(무신) 동풍이 그저께부터 기세를 부리더니 아직까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아 벼 곡식에 피해가 있을 듯하고 병충해가 덩달아 발생한다고 하니, 크게 두려운 일이다. 비가 또 쏟아졌다.

6월 30일(기유) 종일토록 비가 내렸으나 바람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졌다.

7월 소월(小月). 2일 입추(立秋), 11일 말복(末伏), 18일 처서(處暑).

7월 1일(경술) 비가 내렸다. 오늘 관아에서 백일장을 개최했기 때문에 비를 맞고 갔다. 갈산에 이르러 최선여(崔善餘)와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갔다. 오후에는 햇벌이 나오고 도로가 통하였다. 백일장을 15일로 날짜를 미루었다.

7월 2일(신해)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벌이 나오기도 하였다.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다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향교에 계속 머물렀다. 현임 장의(掌議)인 이가운(李嘉運)이 들어왔다. 이날 관가(官家)에서 포(浦)를 막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지 43통(桶)밖에 잡지 못했다고 하니, 적다고 말할 만하다.

7월 3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계동(契洞)에서 묵었다.

7월 4일(계축)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앓았던 학질이 하루가 지난 어제 확연히 나왔다.

7월 5일(갑인) 더러 구름이 흩날리고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큰 형님과 매형 이여섭 그리고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소소포(召所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6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파총(把摠) 정숙씨(丁叔氏)와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남촌진(南村鎭)에 가서 전임 별장(別將) 이동방(李東芳)과 신임 별장 이진일(李震一)을 만났다. 이진일은 계미생(癸未生)인데 풍골(風骨)이 자못 건장하여 아꼈 만한 인물이었다. 22세 무과 출신으로 지금 신임 당상(堂上) 겸 동지중추부사가 되었으니, 관직을 빨리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녁에 돌아왔다.

7월 7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서북쪽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쳤다.

7월 8일(정사) 큰 형님과 술을 가지고 천변(川邊)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어서 송정(松亭)에 사는 허생원(許生員) 등 여러 사람을 방문했는데, 종일토록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자 돌아왔다. 이 때 다시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으며,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7월 9일(무오)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가끔 내렸다.

7월 10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1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2일(신유)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13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4일(계해)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내일 문무(文武) 백일장이 설행되기 때문에 나는 향교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후에 성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7월 15일(갑자) 약간 흐렸다. 이날 백일장이 있었다. 시제(詩題)는 ‘백락천의 영천송에 제하다[題白樂天靈泉頌]’였다. 나는 삼중등(三中等)의 성적으로 7등을 하였으니 가소롭고 가소롭다. 18인을 합격시키고 또 공정성이 없으니 우습고 우습다. 무부(武夫) 정칠봉(鄭七奉)이 풀씨를 해서 나무로 된 가면을 쓰고 소를 타고 과장을 나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가면을 쓴 자가 세 명이었는데 오직 칠봉이만 소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더욱 기이하였다. 이날 밤에 벗 박범석(朴範錫)의 집에서 잤다. 이날 과장에서 동시(東詩 우리나라 한시)·진유록(辰酉錄)·어록(語錄)이 모두 딸린 책 1권을 잃어버렸다.

7월 16일(을축) 구름이 걷혔다. 갈산에 갔다가 돌아왔다.

7월 17일(병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18일(정묘) 짙은 구름이 끼었다. 나는 갈산에 갔는데, 비에 길이 막혀 최선여(崔善餘)의 집에서 묵었다. 이날 밤에 구름 흩어지고 달빛이 밝았다. 신흘장(辛函丈)의 시를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비 갠 가을 하늘에 야경이 맑고	雨洗秋天夜色清
뜬 구름 다 사라져 달빛이 밝아라	浮雲歸盡月輪明
가을바람이 오동잎 불어 떨어뜨리니	金風吹落梧桐葉
귀뚜라미가 게으른 부인 맘을 재촉하네	蟋蟀催驚懶婦情

연변(沿邊) 세선(稅船) 40여 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7월 19일(무진)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통영 중군(中軍)이 사수(射手) 10인과 기생 아이 4인을 거느리고 본읍에 도착했는데, 무예를 겨루고자 하였다.

7월 20일(기사) 가끔 구름이 끼었다. 읍에 들어가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거제(巨濟)와 사천(泗川) 사또 역시 모였다. 본현은 통영 중군에게 활 시합을 졌다. 저녁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1일(경오)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2일(신미) 매우 덥다가 밤에 다시 구름이 끼었다. 삼경(三更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23일(임신) 아침에 비가 쏟아지고 물이 땅에서 솟아났다. 식후에는 가끔 해가 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7월 24일(계유) 비가 올 듯 햇볕이 나올 듯하였다.

7월 25일(갑술) 남풍이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식후에는 더러 햇볕이 비추기도 하였다.

7월 26일(을해) 비가 내렸다. 처음으로 올벼[早稻]를 수확했다. 세선(稅船) 63척이 지난달 28일 저녁 일시에 바람이 불어 침몰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웠다. 본읍의 세선 3척 중에 박동번(朴東蕃)이 탔던 1척은 침몰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7월 27일(병자)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식후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7월 28일(정축)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7월 29일(무인) 가끔 비가 내렸다. 무사(武士)들이 은정(銀亭)에 모여 활쏘기를 하였다. 좌수 허표(許標) 삼부자와 그 조카 장의(掌議) 허묵(許默)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저녁이 되자 자리를 파하고 돌아갔다.

8월 소월(小月). 4일 백로(白露), 20일 추분(秋分).

8월 1일(기묘)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8월 2일(경진) 햇볕이 나왔다. 매형 이여섭이 병들어 누운 지 10여 일이 되었기에 나는 길흉을 묻고 왔다. 매형의 사형(舍兄) 과총(把總)인 이국립(李國霖)이 왔다.

8월 3일(신사)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으며 날씨는 매우 더웠다.

8월 4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매형 이여섭은 그 큰 형님 분을 따라 병든 몸으로 말을 타고 두포(頭浦)에 갔다. 나는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가서 유숙하였다. 날이 저물자 비가 내렸다.

8월 5일(계미) 식사한 후에 안정사에서 내려왔다. 이 때 하루도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음기가 양기를 이길 수가 없어 날씨는 무척 따뜻하였다. 그러므로 벼이삭이 패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어서 바람과 서리의 재해만 없다면 풍년이 들 수 있을 것이다.

8월 6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로 들어갔는데, 우산(牛山)에 사는 당장(堂長) 이석겸(李錫謙)이 어제 운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 7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는데 한 밤중에는 먼지를 적실 정도 비가 내렸다.

8월 8일(병술) 가랑비가 오다가 그치다가 하더니 밤에는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관장(官長)이 초헌(初獻)을 행하였다.

8월 9일(정해) 제사를 지낼 때 비가 그쳤다. 오후에는 나는 사직제(社稷祭) 대축(大祝)으로 관아에 들어가 제물(祭物)을 봉하였다. 당시 좌수 남두휘(南斗輝)가 감봉(監封)하였다. 제단에 오를 때 비가 또 오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초헌관은 최경회(崔慶會)<sup>227</sup>, 아헌관은 이맹종(李孟宗), 중헌관은 정재후(鄭再奘)이다.

8월 10일(무자) 제사를 지낼 때 바람도 비도 없다가 식후에 햇벌이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심익룡을 방문하였다.

8월 11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우산(牛山)에 사는 이당장(李堂長) 초상에 가서 조하였다. 이어서 두포(頭浦)에 가서 이여섭 매형의 병을 문후했는데, 그대로 그곳에서 묵었다. 이날 비가 또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2일(경인) 좌수 최섭(崔暹)이 형벌을 받았다는 기별을 듣고서 가서 상태를 묻고, 저녁에 돌아왔다.

8월 13일(신묘)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두포에 사는 매형이 두포에 갔다.<sup>228</sup> 김윤전(金允全)이 호랑이 사냥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포도산(葡萄山)에 5,6일 동안 들어갔다가 오늘 비로소 끝내고 돌아왔다.

8월 14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대동(垜洞) 산소에서 시제(時祭)를 지냈다.

8월 15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6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7일(을미)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덥다가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두포(頭浦)에 사는 누님이 왔는데, 벗 이국삼(李國森)이 모시고 따라왔다.

8월 18일(병신) 가끔 햇벌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벗 이국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227)** 최경회(崔慶會) : (인물) 호는 송와(松窩)이고,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228)** ‘두포’ 오류인 듯하다.



8월 19일(정유) 아침에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8월 20일(무술) 비가 내렸다.

8월 21일(기해) 구름이 걷히고 따뜻하였다. 이날 수군 훈련은 대규모 훈련이었다. ■……■  
충렬사(忠烈祠)에 들어가 묵었다.

8월 22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김군 세보(金君世寶)와 함께 충렬사에 묵었다.

8월 23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여러 친구들과 또 충렬사에서 묵었다.

8월 24일(임인) 구름이 짙게 드리웠지만 매우 따뜻하였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또 충렬사  
에서 묵었다.

8월 25일(계묘) 아침에 비가 또 먼지를 적시다가 식후에 갑자기 맑아졌다. 모시고[陪行] 집  
으로 돌아가는데 안정사가 있는 산에 이르러 비가 약간 내렸다. 집에 도착해서는 동풍이 세  
차게 불고 비가 마구 쏟아질 기미가 있었다.

8월 26일(갑진) 날씨가 매우 서늘하고 구름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았다.

8월 27일(을사) 동풍이 그치지 않고 짙은 구름도 걷히지 않았으며 날씨는 무척이나 차가웠  
다.

8월 28일(병오) 구름이 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9일(정미) 날씨가 춥고 아침에는 산비가 내렸다. 방장산(方丈山 지리산) 꼭대기에 눈꽃  
이 하얗다는 말을 들었다.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고 따뜻하였다.

9월 대월(大月). 6일 한로(寒露), 21일 상강(霜降).

9월 1일(무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안정사에 올라 용화당(龍華堂)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읽었다.

9월 2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 익룡(沈君翼龍)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9월 3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이 떠나갔다.

9월 4일(신해) 햇볕이 나와 따뜻하다가 저녁에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이동해 오고 갑자기 저  
문 숲에 찬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9월 5일(임자) 날씨는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중 계일(桂日)이 서면(西面)에서 와서 전하기를, ‘서리가 감치(甘峙)에 떨어져 벼 곡식이 많이 상했다’고 하였다.

9월 6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상주(喪主) 강성주(姜聖周)이 도선(道善)에서 부친 장사(葬事)를 지내는데 가서 보았다. 산소에서 유숙하였다.

9월 7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하관(下棺)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9월 8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음. 재종 정창세(丁昌世)와 정창구(丁昌九) 등이 또 산방(山房)에 들어왔다.

9월 9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스님 선옥(禪玉)이 탈원 대사(脫遠大師)를 따라 해인사(海印寺)에 들어가 몇 개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제서야 비로소 본사(本寺)에 잠깐 왔다. 오늘 아침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나를 방문하였다. 스님 선옥을 보고 그 말을 들어보니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고 공경심이 일어났다. 통제사가 본사에 왔기 때문에 해당지역 사또와 남촌진장(南村鎭將)이 모두 모였다.

9월 10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제사가 통영으로 돌아왔다. 어제 오리정에 새 과녁을 걸고 가동(可洞)의 무사(武士)를 맞이했는데 첨사 허영원(許榮遠)이 무사 13인을 거느리고 와서 무예를 겨루어 패배를 당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9월 11일(무오) 아침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맹자(孟子)》를 읽었는데, 하루에 60줄을 30번씩 외우는 것으로 한정을 삼았다.

9월 12일(기미)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는 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고 붉은 번개가 번뜩번뜩 치다가 어두워지자 그쳤다. 간평 감색(看坪監色)이 절 안에 도착했는데, 감색은 두포(頭浦)에 사는 척숙(戚叔) 이국기(李國杞)이다.

9월 13일(경신)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9월 14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정상(淨祥)과 노선(老禪)이 저녁식사를 공양하였다. 갈산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방문하였다.

9월 15일(임술) 햇볕이 나왔는데 가끔 구름이 끼었다. 통영에 사는 아이 김대흥(金大興)<sup>229)</sup>이 절의 중에게 배웠는데, 내가 때때로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9월 16일(계해)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려 먼지를 적시고 밤에 비가 점점 많이 내려 잎사귀에 소리가 났다.

---

**229)** 김대흥(金大興) : (인물) 거주지는 통영으로, 원래 산사(山寺)의 승려에게 공부를 배우다가 구상덕에게 배운 생도이다. 1728년 11월 18일 정창세(丁昌世)와 김대흥 등에게 학문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는 글을 써서 준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2월 1일 파접(罷接)할 때 김대흥에게 시를 써서 이별의 아쉬운 정리(情理)를 토로하였다.

9월 17일(갑자) 어제부터 내린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중 치상(致祥)이 아침밥을 공양했는데 중 채선(采善)이 다시 밥을 공양하였다. 정노(正奴)가 식량과 반찬을 짚고 왔다. 오후가 되어서 비가 그쳤으나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9월 18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는데 밤이 되자 서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려 앞 숲이 어수선하였다.

9월 19일(병인) 어제부터 내린 비로 여전히 습했다. 노승 세점(世占)이 점심식사를 공양하였다. 이날 밤에도 습한 구름이 걷히지 않아 둥근 달이 휘영청 밝지 못했다.

9월 20일(정묘)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어두워지자 비바람이 크게 불고 시냇물이 시끄럽게 울면서 흘렀다.

9월 21일(무진) 비가 여전히 오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9월 22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정창세·정창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정쟁이 김여필(金汝必)의 부친상에 가보았다.

9월 23일(경오) 三(三). 날씨가 따뜻하였다. 또 정창세·정창구와 함께 산방(山房)으로 들어왔다.

9월 24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5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6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윤전(金允全)이 관장(官長) 앞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가 문후하였다

9월 27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다시 산방(山房)에 들어갔다.

9월 28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현재 조령의 명령으로 금주령이 극히 엄중하여 혼례식만 예법으로 사용할 뿐이고, 시장 가게의 경우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지난번 푸른 옷을 입으라고 한 명령과 같이 별 소용없지 않겠는가.

9월 29일(병자) 따뜻하였다.

9월 30일(정축) 구름이 짙게 끼고 어두워져서는 비가 쏟아졌다. 정창세와 정창구가 내려갔다.

10월 양월(良月) 소월(小月). 6일 입동(立冬), 21일 소설(小雪).

10월 1일(무인) 어제부터 내린 비가 저물녘에 걷혔다.

10월 2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정창세와 정창구가 올라왔다.

10월 3일(경진)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4일(신사)

10월 5일(임오) 짙은 구름이 밤이 되자 흩어지고 은하수가 앞 다투어 빛을 발하였다.

10월 6일(계미)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7일(갑신) 가끔 구름이 끼었으나 햇볕이 많이 나왔다.

10월 8일(을유) 하늘이 맑았다. 천곡(泉谷)에 사셨던 정함장(鄭函丈)의 장기(葬期)가 임박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내려 갔다.

10월 9일(병술) 날씨가 추웠다. 우함장(禹函丈)께 가서 문후했는데, 함장께서 “사위 이석겸(李錫謙)을 오는 11일에 멀리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날짜로 잡았네. 한 잔 술을 올리고 싶으니, 자네가 나를 위해 제문을 지어주게나.”라고 하니, 내가 감히 문장을 잘 짓지 못한다고 사양할 수 없어 드디어 붓을 잡고 초고를 지었다.

10월 10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제수(祭需)에 쓰일 건어물을 대략 챙기고 천곡(泉谷)에 갔다.

10월 11일(무자) 온화하였다. 나는 정함장(鄭函丈)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가르침을 받을 때 기억하면	憶曾承教日
노둔한 제가 훌륭한 분 가까이 했지	愚魯近光輝
불우한 중에 고민 없었고	落拓中無悶
가득 차 있건만 외면은 비어있는 듯	充盈外若虛
문예에 명성이 높았고	聲名高翰墨
그윽한 취향은 독서에 두었지	幽趣寄圖書
지금 옛 자취가 되어버려	今日成陳迹
만사 짓고 소매에 눈물 가득 흘리네	題詞淚滿裾

10월 12일(기축) 날씨가 따뜻하였다.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정함장(鄭函丈)께서 이 세상과 영결하셨다.

10월 13일(경인) 구름이 끼고 추웠다. 생도(生徒)들이 서로 마주 대하고 통곡하고서 흩어졌다. 나는 진해(鎭海) 대산(大山)을 향해 저물녘에 빙가(聘家 처갓집)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10월 14일(신묘)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대산(大山)에 머물렀다.

10월 15일(임진) 바람이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6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벗 허예(許豫)가 방문하였다. 그 이유는 도사(都事)가 가까운 곳에서 순강(巡講)하기 때문에 내게 문의(文義)를 질문하려고 방문한 것이다. 강생(講生)이 많이들 갈산(葛山)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그와 함께 백준채(白俊采) 집으로 가니, 배세장(裴世章)·이만영(李萬榮)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월 17일(갑오) 벗 유충한(柳叢漢) 집에서 식사했는데, 식사한 후에 돌아갔다.

10월 18일(을미) 햇벌이 나왔다. 큰 형님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갔다가 곧 돌아왔다. 저녁에 향교로 들어갔다.

10월 19일(병신) 해가 나왔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20일(정유) 해가 나왔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21일(무술) 해가 나왔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22일(기해) 향교에 머물렀다.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0월 23일(경자) 구름이 흩어졌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24일(신축) 따뜻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25일(임인) 따뜻하였다. 저녁이 되어 도사(都事) 이석항(李錫恒)이 진해(鎭海)에서부터 본읍으로 들어왔는데, 순강에서 강생(講生)이 모두 순조롭게 통과하였다.

10월 26일(계묘)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7일(갑진) 김윤전(金允全)이 군무(軍務)에 관한 사안으로 사또 앞에서 태(笞) 5대를 맞았는데, 태장(笞杖)을 맞은 자리가 상처에는 이르지 않았다.

10월 28일(을사) 갈산(葛山)에 사는 누님이 그저께 와서 머물렀다. 누님의 짓먹이 사내아가기가 있었는데 새벽 잠자리가 편치 않아 촛불로 비추어보니 이미 죽는 뒤였다. 괴이하도다. 이 무슨 병세인가. 필시 경풍(驚風)<sup>230</sup>으로,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해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탄스럽다.

10월 29일(병오) 따뜻하였다.

---

**230)** 경풍(驚風) : (병명) 오늘날 열성 경련이 경풍의 한 종류이다.

11월 지월(至月). 7일 대설(大雪), 21일 동지(冬至).

11월 1일(정미) 따뜻하였다. 순상(巡相) 박공 문수(朴公文秀)가 순력(巡歷)하여 본읍(本邑)에 도착할 예정이었기에 때문에 유품(儒品)이 모두 모였다. 나 역시 향교로 들어갔다.

11월 2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녁이 되자 순상이 읍에 들어오니, 유생 15인이 들어가 현신(現身)했다. 순상이 정월만큼 되지 않아 화를 냈지만 다행히 추고(推考)하여 탈락시키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았다. 어두워지자 7읍에 연례 향축(年例香祝)이 내려 왔는데, 고성 향교 생도를 나누어 보냈다. 양산(梁山)에 제만재(諸萬載), 안동(安東)에 구시관(仇時觀), 경주(慶州)에 임종걸(林叢杰), 문경(聞慶)에 박중도(朴重道), 진주(晋州)에 이하영(李夏榮), 성주(星州)에 강봉주(姜鳳周), 울산(蔚山)에 배준도(裴俊度)를 보냈다.

11월 3일(기유) 아침 이후에 비가 쏟아지고 오후가 되자 하늘에 큰 천둥이 한 차례 들렸다. 어두워지자 비바람이 크게 불고 냇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순상이 비를 맞으면서 거제(巨濟)로 들어갔다.

11월 4일(경술)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께청해져 날씨가 8월, 9월의 정경과 같았다.

11월 5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임자) 아침에 가랑비가 오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저녁에 나는 안정사(安靜寺)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11월 7일(계축) 가끔 비가 내렸다. 돈 5전(五錢)으로 《상례비요(喪禮備要)》<sup>231)</sup>를 샀다.

11월 8일(갑인) 날씨가 추웠다.

11월 9일(을묘) 매우 추웠다.

11월 10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1일(정사) 어제의 추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11월 12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오후에 눈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해 가을부터 돌림감기 같은 괴질(怪疾)이 있었는데 병의 증세가 여기(癘氣)보다 심하였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왕왕 사망에 이르렀다. 오명항(吳命恒)·조태억(趙泰億) 제공이 모두

**231)** 《상례비요(喪禮備要)》 : (책명) 조선중기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하고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윤색한 상례에 관한 책이다. 《가례(家禮)》 본문을 위주로 하고 고급의 여러 학설을 절충하여 초상(初喪)으로부터 장례(葬禮)에 이르는 의식 절차를 기술하였고, 사당(祠堂)·신주(神主)·진찬(陳饌) 등의 도설(圖說)을 함께 실었다.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마을 사이에 이 증세가 두루 크게 퍼져 요통(腰痛)이 극히 심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온 몸이 딱 졸라 묶인 듯 말을 못하고 코피를 쏟았는데, 심한 자는 15,6일 경미한 자는 7,8일 앓았다. 또 호남(湖南)에는 독이 있는 바다 물고기가 있는데 이를 먹은 사람이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 닭이나 돼지에게 이 물고기를 먹이자 또 독이 있었다고 하니, 괴이한 일이다.

11월 13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중 율희(允熙)가 술을 가져왔다.

11월 14일(경신) 따뜻하다가 저녁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밤중에는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대낮같이 밝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쳤다. 괴이하도다. 이 무슨 징조인가.

11월 15일(신유) 하늘이 맑았다. 식후에 구름이 다시 너울너울 날리고 바람이 또 세차게 불었다. 눈이 가끔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중 찬민(贊敏)이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11월 16일(임술) 햇벌이 나왔으나 추웠다.

11월 17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근래 일과(日課)를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 오경(五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종소리를 듣고 얼핏 잠들었다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11월 18일(갑자) 비가 땅을 적셨다. 중 치상(致祥)이 벽어(碧魚 청어, 청새치) 4마리를 사서 주었다. 나는 근래 재종 정창세(丁昌世)와 김대흥(金大興)과 사미승 몇 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글을 지어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나는 노련한 농부이다. 농사를 으뜸으로 여기는 부류이다. 농부들이 가끔 나에게 농사일을 묻는데 나는 반드시 말하기를 ‘농사일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힘써 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네.’라고 한다. 어느날 쟁기를 밟어지고 문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선생이 농사에 노련하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남쪽 농토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봄에 갈고 여름에 김매고, 일지(日晷 하지)가 되었을 때에 익는다네.’라고 하였다. 쟁기를 메고 온 자가 ‘예, 예.’하며 물러갔다. 그가 날카로운 보습으로 남쪽 농토에 가서 농사를 시작하여 백곡을 파종하고 돌아와 여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꾸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 독항아리를 밟어지고 농토로 갔더니 가라지[稂莠]가 우거져 있어 곡식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곡식이 황폐하여 이미 창고를 채울 가망이 없어 마침내 울컥 나에게 화를 내기를, ‘어찌 노련하다는 농부가 나를 속이는가.’라고 하였다.

아, 후직(后稷)<sup>232</sup>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직접 남의 밭에 가서 다 김을 매주던가. 이런 이치는 없으니 의심하지 말게. 후직이 어찌 직접 남의 밭을 김매겠는가. 토질에 적당한 곡식을 살펴보고 백성으로 하여금 밭에 들어가게 해서 심고 가꾸며 김매게 할 적에 반드시 제 때에 맞게 할 뿐이다. 심고 가꾸며 김매는 것을 제 때에 맞게 한 후에 어찌 3백 군(困)을 거두지 못할까를 근심하겠는가. 밭이 비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곡식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니 100무(畝)의 농지가 제대로 경작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지 않고 도리

**232)** 후직(后稷) : (인물) 주(周)나라의 시조 후직이 순(舜) 임금 때 농관(農官)이 되어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농사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어 나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하니 또한 잘못 아닌가. 이와 같은 자를 어찌 공밥을 먹는다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근면한 자는 분명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게으른 자는 분명히 부자의 문 앞에서 배고파 배를 두드리며 저자거리에서 굶주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힘 쓸지이다.

이날 밤 오경(五更) 종소리 후에 과업(課業)으로 《맹자》 허행장(許行章)을 다 읽고 〈범수 채택열전〉을 아울러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때 구름이 사라지고 중천에 달빛이 휘영청 한가로이 비추었다.

11월 19일(을축) 햇볕이 나와 따뜻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구름이 짙 차고 우박이 구슬처럼 떨어졌다. 저녁에 눈이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중 철훈(哲勳)이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11월 20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1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2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1월 23일(기사)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밤이 되자 비바람이 쳤다. 심군이 계속 머물렀다.

11월 24일(경오)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 시냇물이 용솟음치다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해가 나왔다. 심군이 정제(丁弟)와 함께 내려갔다. 이날 왕세자(王世子 효장세자(孝章世子))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11월 25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중 진관(震寬)이 점심밥을 공양했고, 혜문(惠文)이 저녁밥을 공양했다.

11월 26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감기 몸살로 글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시로 회포를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쓸쓸한 빈 서재에 너무 무료한데	空齋寥落太無聊
누워있던 긴 밤에 몇 번 종소리 들었던가	臥數寒鍾度永宵
산창에서 편히 잠들기 어려웠기에	緣底山窓難穩睡
인간세상 비바람으로 저물녘 쓸쓸해라	人間風雨暮蕭蕭

또 동궁(東宮)의 상(喪)에 곡하면서 시를 지었다.

선리<sup>233</sup>의 봄 가지 옥엽이 새로워

仙李春枝玉葉新

**233** 선리(仙李) : (고사) 《신선전(神仙傳)》에 의하면, 노자(老子)의 어머니가 마침 오얏나무[李樹] 밑에 이르러 노자를 낳았는데, 노자는 막 태어나서부터 능히 말을 하여 오얏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내 성을 삼으리라.[以此爲我姓]”라고 했다는 사실을 인하여, 이씨(李氏) 당(唐)나라가 일찍이 노자의 후예(後裔)로 자칭했던 데서 전하여 선리는 곧



대궐 <sup>234</sup> )에서 비바람 호위하였는데	風持雨護在楓宸
큰 과실로 맺기 전에 서리 먼저 내려	未成碩果霜先過
초목에 우로의 은택 <sup>235</sup> ) 입기 어려워라	草木難沾雨露恩

11월 27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종이를 도련하였다. 통인(通印 통인(通引)) 이중근(李重根)이 술을 얻어 와서 주었다.

11월 28일(갑술)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밤이 되자 점점 많이 내렸다. 수각교(水閣橋) 기둥에 다음과 같이 제(題)하였다.

입산해서 아무 일 없어 그저 돌아오니	入山無事卽空還
이 다리 건너면 얼굴에 땀 흘리지 않으리라	渡此其能不汗顏
공명이 너무 늦는다고 웃지 마시게	莫笑功名何太晚
대장부가 어찌 빈한한 포의로 오래 있으리	丈夫寧久布衣寒

또

산을 대하니 부동을 보고	對山看不動
물을 보니 이와 같음을 취했네 <sup>236</sup> )	觀水取如斯
이 속에 인과 지를 겸하였으니 <sup>237</sup> )	這裡仁兼智
공부가 여기에 모두 있네	工夫摠在茲

또

남아 공명이 몹시도 더디지만	男子功名苦太遲
인간세 돌아보면 모두 무지하지	回頭人世摠無知
저물녘 조만간 좋은 기약으로 약속하며	佳期早晚黃昏卜
다리 앞 만날 때 계수나무 가지 <sup>238</sup> ) 지니리라	會見橋頭拂桂枝

11월 29일(을해) 어제부터 내린 비가 여전히 견히지 않았다. 중 회진(會震)이 저녁밥을 공양했다.

모든 이씨를 일컫게 되었다. 여기서는 바로 조선 왕실(王室)을 가리킨 것이다.

**234)** 대궐 : (고사) 원문 ‘풍신(楓宸)’은 제왕의 궁전을 말한다. 신(宸)은 북신(北辰)이 있는 곳으로 임금의 궁궐을 뜻하는데, 한(漢)나라 때 그곳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235)** 우로(雨露)의 은택 : 임금의 은택으로, 비와 이슬로 비유한 것이다.

**236)** 물을 보니 이와 같음을 취했네 : (고사)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께서 시냇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누나.[逝者如斯夫 不捨晝夜]’ 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237)** 이 속에 인과 지를 겸하였으니 : (고사) 《논어》 〈옹야(雍也)〉의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知者樂水 仁者樂山]”라는 공자의 말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동적(動的)이고 인한 자는 고요하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한 데서 온 말이다.

**238)** 계수나무 가지 : (고사) 계수나무 가지는 과거 급제를 뜻하는 말로, 진(晉)나라 극선(郤詵)이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고 나서 ‘계림(桂林)의 일지(一枝)’로 자신을 비유한 고사가 있다. 《晉書 卷52 郤詵列傳》

11월 30일(병자) 날씨가 매우 추워 입동 이후 가장 추웠다. 밤에 절간 사미승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왔다. 세자저하(世子邸下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상례(喪禮)에 신민(臣民)들은 백립(白笠)을 쓰고, 13일 동안 복기(服基)하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12월 소월(小月). 6일 소한(小寒), 21일은 대한(大寒).

12월 1일(정축) 날씨가 따뜻하였다. 파접(罷接)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김대흥(金大興)에게 주었다.

삼 개월 함께 웃으며 대화 나누며	笑話同三月
백년 인생을 속마음으로 기약했지	心期許百年
인생에 이별이 많긴만	人生別離足
산천으로 막힌 것을 어찌하리오	其奈隔山川

이날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일(무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정과총(丁把摠)의 5촌 막내 누이가 오늘 사위를 맞이했는데, 사천(泗川) 산영리(山影里)에 사는 사위 이문재(李文栽)가 왔다. 이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구름이 걷혔다.

12월 3일(기묘) 따뜻하였다.

12월 4일(경진) 내일이 부음을 들은 후 13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곡반(哭班)에 참여하기 위해 벗 박범석(朴範錫)과 함께 동행하여 읍에 들어갔을 때 날이 이미 어둑어둑하였다. 그래서 박범석 집에서 묵었다. 이날 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12월 5일(신사) 아침에 곡반(哭班)에 들어갔고 백립(白笠)을 벗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나가면서 갈산(葛山)에 사는 자형(姊兄) 댁에서 식사하였다. 김해(金海) 익교(益橋)에 세 차례 붉은 색 강물이 흘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는 길가는 사람들이 전한 말로 사실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무슨 징조인가. 칠실(漆室)의 근심<sup>239)</sup>을 견딜 수가 없다.

12월 6일(임오) 돈 1관(貫) 2전(錢)으로 흰색 본체에 푸른 꽃모양이 달린 중국 신발을 샀다.

12월 7일(계미) 날씨가 추웠다. 나는 아우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술병 하나를 가지고 안정사에 들어가서 용화당(龍華堂) 승려들에게 대접하여 밥을 지어 공양했던 수고를 사례하였

---

**239)** 칠실(漆室)의 근심 : (고사)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칠실이란 읍(邑)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임금은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 하였다. 《列女傳 卷3 漆室女》 이는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국사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겸사로 쓰인다.

다. 그 곳에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12월 8일(갑신)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 병술년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이다.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끝냈다.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12월 9일(을유) 가끔 조각구름이 해를 가렸으나 날씨는 매우 따뜻하였다. 송정(松亭)에 사는 허생원 등 여러분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0일(병술)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흠비가 산을 가려 2,3월 간의 정경과 같았다. 밤이 되자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잠깐 소리 내며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우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밤새도록 번개가 동남쪽에서 번쩍었다.

12월 11일(정해) 흠비가 내려 어두워 매우 가까운 거리조차도 분간하지 못하였으나 해가 막 떠오를 때 햇볕이 불처럼 붉었다. 식후에 비가 걷혀 쾌청하였다. 나는 또 송정(松亭)에 가서 바둑을 두고 소일하고 돌아왔다.

12월 12일(무자) 따뜻하였다. 아우 정창세(丁昌世)가 《통감(通鑑)》 제4권을 끝내고 다시 읽었다. 또 송정에 가서 바둑을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가동(可洞)에 사는 상주(喪主) 강성주(姜聖周)가 방문하였다.

12월 13일(기축) 따뜻하였다. 하루 종일 강상주(姜喪主)와 함께 문장을 논하였다. 밤에 또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 즈음 달빛이 낮처럼 밝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삼경(三更) 무렵에 앞 들판에서 노루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슬펐다. 울음이 그치더니 막대기 끄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그치더니 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필시 함정에 빠졌다가 대나무 막대기를 뽑고 달리자 사내종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쫓아가 잡은 것임을 알겠다. 노루가 슬피 울었던 것은 바로 가시덤불 사이에서 대나무 막대기에 막혀 빠져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힘들게 함정에서 빠져나와 가시덤불 속에서 구사일생 살아났는데 마침내 사냥개에게 사로잡혔으니 아, 어찌 짐승에게만 있는 일이겠는가. 사람에게도 전혀 뜻밖의 화(禍)가 있는 법이다. 노루가 산에서 내려와 먹이를 찾아 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그 또한 사람이 악착스럽고 구차하게 사느라 지름길을 피하지 않고 혹은 병기(兵器)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혹은 물리고 붙잡히는 근심을 만나기도 하니 어찌 다르겠는가. 사람의 입신과 처세는 삼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12월 14일(경인) 아침에는 맑았으나 식후에 다시 구름이 끼었다. 강상주(姜喪主)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12월 15일(신묘) 구름이 짙게 끼고 어두워지자 눈이 갑자기 날렸다.

12월 16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이날 남원(南原) 사람 김이장(金以章), 정근서(丁瑾庶), 조필신(趙弼臣)이 그 소유 사내종 손순립(孫順立) 등을 추쇄하려고 월촌(月村)에 도착해 보니, 옛터가 이미 버려져 있어 유숙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방문하여 숙

식을 청하였다.

12월 17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세 명의 객(客)은 바로 남원(南原) 북면(北面) 월곡(月谷) 사람이다. 멀리서 와서 낭패를 당하여 돌아가는데, 양식을 이을 방도가 무척 어렵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약간의 양식[糧太]을 주어 그들의 나그네 길에 보탬을 주었다. 식사한 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12월 18일(갑오) 맑았지만 매우 추웠다.

12월 19일(을미) 지극히 춥고 북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12월 20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바람이 불어 구름이 날렸다. 육군(陸軍)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다.

12월 21일(정유) 날씨가 추웠다. 사또 양등(楊等 양취달(楊就達))에 대한 근무 평론이 없이 상고(上考)였다.

12월 22일(무술) 날씨가 따뜻했으나 흐렸다.

12월 23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로부터 눈꽃이 어지럽게 날려 저녁이 되자 2치쯤 쌓이고 구름이 흩어졌다.

12월 24일(경자) 날씨가 맑고 온화하여 쌓였던 눈이 매우 많이 녹았다. 진성(晋城)에 사는 상인(喪人) 정최걸(鄭最杰)이 아침에 읍에서 와서 방문했다가 식사한 후에 돌아갔다. 이웃집 노인 송승준(宋承俊)의 연세가 85세인데 오늘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이 없으니 가련하다.

12월 25일(신축) 따뜻하였다.

12월 26일(임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12월 27일(계묘)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여 마치 삼월 정경과 같았다. 송정(松亭)에 사는 상주(喪主) 이재첨(李再瞻)이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12월 28일(갑진) 구름이 수레바퀴처럼 둥근데 어지럽게 날렸다. 송노인[宋承俊]의 장사(葬事)를 치렀다.

12월 29일

12월 30일(을사) 아침에 날씨가 청명하다가 식후에 북풍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눈이 조각 조각 날렸다. 어제 아침 하늘이 흔들렸다는 말을 들었다. 어두워지자 서풍이 세차게 불다가 밤이 깊어서야 그쳤다. 금년 흉년도 아니고 또한 풍년도 아니기에 달아나 흩어진 백성이 없

었다.

기유년

1월 대월(大月). 6일 입춘(立春), 21일 우수(雨水).

1월 1일(병신) 북풍이 쓸쓸히 불었다. 닭 울음소리가 더러 18.9 차례나 울었다. 하늘이 맑아 하나의 띠를 이룬 먹구름만이 남쪽 하늘을 지나가고 또 돼지 모양의 몇 점의 구름이 동쪽 하늘에 떠 있었다. 식후에는 햇별이 나왔는데 북풍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1월 2일(정미) 아침에 햇별이 나왔는데 저녁에 구름이 짙게 끼었으며, 밤에는 구름이 말려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1월 3일(무신) 날씨가 청명하였다. 이해 방문했던 친족 및 근처에 사는 벗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 지금 우선 빼놓았다.

1월 4일(기유) 날씨가 청명하였다. 나는 통영에 들어가 남문(南門) 밖에 이르러 여러 친구들을 만나 그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천동(泉洞)에 사내종과 말을 돌려보내고 밤에 충렬사(忠烈祠)에서 묵었다. 충렬사 유사는 여군 도규(余君道揆)이다.

1월 5일(경술) 따듯하였다. 천동(泉洞)에서 식사하고, 서재(書齋)에 묵었다. 또 진사 윤상갑(尹相甲)을 가서 만나보았는데. 초면이었다. 밤에 눈이 조금 내렸다.

1월 6일(신해)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셨는데 산머리에 흰 눈이 쌓였다. 서재에서 유숙하였다.

1월 7일(임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나 포 소리처럼 들렸다.

1월 8일(계축) 조부모님 기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 구름은 없었는데, 흐릿하여 밝지 못하고 식후에는 또 흐렸다. 아침에 또 지진이 있었다. 이날 저녁 우함장(禹函丈)의 건강이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형님과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가서 문후하였다.

1월 9일(갑인)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맹렬하게 불었다. 한양 관문(關文)에 추운 겨울에 감기에 걸린 사람 중 땀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동변[童便] 중간 사발 하나와 참기름 1홉[勺]을 복용하여 조절하면서 취한(取汗 땀을 내는 것)한다면 조금씩 차도가 있다고 하였다. 이날 밤에 또 우함장 댁에 갔다.

1월 10일(을묘) 햇별이 나왔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1월 11일(병진) 햇별이 나왔다. 이날 저녁 우함장이 세상을 떠나셨다. 1섬 10두(斗) 조(租)

로 부의(賻儀)하였다.

1월 12일(정사) 따뜻하였다. 우함장의 장례식 장소에 가서 장사(匠事 관(棺)을 만드는 일)를 살펴보았다.

1월 13일(무오) 바람이 불어 추웠다. 안정사(安靜寺)에서 나례(儺禮)<sup>240</sup>를 하는 무리들이 본촌(本村)에 도착했는데, 나는 한 동이 술을 보내주고 아울러 조(租) 10두와 콩 2두를 주었다.

1월 14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5일(경신) 햇별이 나왔는데 바람이 차가웠다. 이때 순영의 관문으로 모록<sup>241</sup> 유생(冒錄幼學)과 향반 서얼은 수첩군관(守堞軍官)으로 정하여 1필의 포를 받고, 한산(閑散)의 서얼 및 중인 서얼은 바로 군역에 충정한다고 하였다. 관패(官牌)가 사방에서 내려오니 소란이 막심하였다. 달이 조금 높이 떠올랐다고 한다.

1월 16일(신유) 증조부님의 기제사를 지낼 적에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동풍이 불어 추웠는데 맑았다. 진주(晉州)에 사는 생원 우순석(禹舜錫)과 수재(秀才) 우득손(禹得孫)이 저녁밥을 제공하였다. 월식(月食)이 있었다.

1월 17일(임술) 날씨가 추웠다. 우생원 숙부와 조카가 일찍 식사한 후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8일(계해)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바람이 매우 추웠다.

1월 19일(갑자) 동풍이 불어 차갑고 구름이 끼었다. 밤에는 빗방울이 내리더니 야밤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하였다.

1월 20일(을축)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판에는 비가 내리더니 저녁이 되자 산과 들판에 모두 눈이 내려 밤이 되자 몇 치가 쌓였다.

1월 21일(병인)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춘궁(春宮 효장세자)의 인산일(因山日)이 오는 25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졸곡(卒哭) 이전에 각 제향(祭享) 날짜를 미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산에 기도하기 위해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가니, 눈이 산길에 가득하여 정강이가 눈속에 빠져 오르기 어려워 고생고생 고개를 넘어 저물녘 암자에 들어갔다.

1월 22일(정묘) 눈을 쓸고 등불을 가지고 식사 후에 가섭암(迦葉庵) 길을 경유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햇별이 나왔는데 바람이 갑자기 추웠다. 생원 강성익(姜聖翼)이 사위를 맞이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보고 돌아왔다. 김귀진(金貴珍) 역시 새 신랑에게 시집갔다.

**240)** 나례(儺禮) : 원래 민가와 궁중에서 음력 선달 그믐날 즈음 목은해의 마귀와 잡신을 쫓아내려고 베푸던 의식이다.

**241)** 모록(冒錄) : 위조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월 23일(무진) 날씨가 추웠다. 허합(許滄)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월 24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5일(경오)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맹렬하였다. 오후가 되자 남관(南關)에 사는 파총 김유담(金有潭)이 방문해서 조출한 술상을 마련해 마시고는 그 자리를 파했다. 허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26일(신미) 날씨가 따뜻했는데 밤이 되자 동풍이 불어 추웠다. 시장에서 청어(靑魚) 2속(束)의 값은 전(錢) 10엽(葉)인데, 통영(統營) 시장은 6엽(葉)이라고 한다. 소금 값은 매우 비싸 1말의 값이 조(租) 1말반이다. 병환을 앓고 있는 좌수 이석함(李錫咸)에게 가서 문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학장(學長) 윤덕휘(尹德輝)를 아울러 방문하고 돌아왔다.

1월 27일(임신)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곧 눈으로 변해 산야가 같은 빛깔이 되었다.

1월 28일(계유) 습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날씨가 매우 추웠다.

1월 29일(갑술)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바람이 매우 추웠다. 은산(銀山) 눈 쌓인 산)이 사면에 우뚝 솟아 있고 옥로(玉路 눈길)가 천 갈래에 솟돌과 같았는데, 마을 노인들이 옛날에도 없었던 눈이라고 말하였다.

1월 30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아 쌓인 눈이 녹지 않았다.

2월 소월(小月). 초6일 경칩(驚蟄), 21일 춘분(春分).

2월 1일(병자) 햇벌이 나와 따뜻하다가 저녁이 될 즈음 다시 흐려졌다. 순상(巡相)이 유업(儒業)을 권장하려고 도회관(都會官)<sup>242</sup>을 정하여 각기 4, 5읍(邑), 혹은 6, 7읍을 관할하면서 시(詩)·부(賦)·의(疑)·의(義)·표(表)·책(策) 등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1월 15일 이후로부터 시작하는데, 15일 동안 5수(首)를 과업(課業)으로 삼게 하였다. 고성읍은 자여도<sup>243</sup> 찰방(自如道察訪)에 예속되었는데, 사또가 1월 20일 이후 순영에 갔는데, 여러 날 눈에 길이 막혀 곧장 순제(巡題)를 회시(回示)해 주지 않았는데, 고시관이 과업을 매우 급하게 재촉했기 때문에 향교에서 또 밤낮없이 독촉하였다.

2월 2일(정축) 온화하였다. 공부를 시작하였다. 사또가 비로소 관아에 돌아왔다.

---

**242)** 도회관(都會官) : (제도)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큰길에 인접해 있는 고을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말한다. 한 도의 수령들을 대표하였고, 사안(事案)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갖가지 도회소(都會所)를 으레 도계(道界)의 머리가 되는 고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계수관(界首官)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世祖實錄 9年 1月 12日》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勸》

**243)** 자여도 : (지명) 조선시대 경상도 창원외의 자여역(自如驛 현 창원시 동면 송정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2월 3일(무인) 온화하였다.

2월 4일(기묘) 바람이 불어 추웠다. 정노를 보내 돈을 가지고 진성(晋城)에 가져가게 했다. 이는 예전에 상주(喪主) 정최술(鄭最述)과 노비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월 5일(경진) 날씨가 추웠다. 정노(正奴)가 진성(晋城)에서 금동(今同)·금례(今禮) 등의 명문(明文)을 받아 왔다. 1월 18일 매매 문서를 작성했는데, 필집(筆執)은 바로 정원규(鄭元規)이다. 도로에 쌓인 눈 두께가 3자 쯤 되어 행인이 다닐 수 없고 또한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2월 6일(신사) 오싹할 정도로 추웠다. 오늘 저녁 삼성(參星)이 달이 지고 얼마 뒤에 나타났다.

2월 7일(임오) 날씨가 따뜻하였다. 이때 산 속은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송정리(松亭里)에 쌓인 눈만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괴이하도다. 이날 사창(司倉) 환자[還上]를 나누어 주었는데 가을날 받을 때에 기장으로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지금 모두 팔부(八夫)에 나누어 주었다.

2월 8일(계미) 날씨가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가서 노닐다가 돌아왔다.

2월 9일(갑신) 종일 구름이 끼었다.

2월 10일(을유) 매우 따뜻하였다. 관가(官家)에서 순제(巡題)를 성화(星火)보다 심하게 재촉하여 향교 사내종을 매를 때리려고 하자, 향교 사령이 사망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내가 향교로 갔다. 밤에 시 2수를 지었다. 당시 재장(齋長)은 도유사(都有司) 제하봉(諸夏封)이다.

2월 11일(병술) 아침에 또 시 한수를 지었으니, 이전에 지었던 시와 합하여 모두 5수를 관에 바쳤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금동(今同)과 금례(今禮) 등의 노비문서를 사출(斜出) 공증하였다. 이날 종일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릴듯하더니 저물녘에는 해가 붉은 치마처럼 불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어두워지자 구름이 사라지고 달이 휘영청 밝았다.

2월 12일(정해) 따뜻하고, 석양이 또 붉었다. 갈산에 가서 노닐다가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3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석양이 또 붉었다.

2월 14일(기축) 온화하였다. 오시(午時)에 큰 형님이 사내아이를 낳았다. 어두워지자 비가 내렸다.

2월 15일(경인) 비가 여전히 걷히지 않아 산에는 눈이 거의 다 녹았다. 오후에는 비가 그쳤



으나 구름은 여전히 습하였다.

2월 16일(신묘) 따뜻하였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하였다.

2월 17일(임진) 따뜻하였다. 심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2월 18일(계사) 따뜻하였다.

2월 19일(갑오) 따뜻하였으나 구름은 짙게 끼었다. 나는 송정(松亭)에 갔다가 이어 가리동(佳里洞) 윤덕휘(尹德輝) 서재(書齋)에 도착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맑고 깨끗한 몇 칸의 초가집	瀟灑茅齋結數間
고요한 가운데 구름 낀 산만 마주하네	靜中相對只雲山
소탈한 가슴에 소음과 먼지 걱정해	疎襟恐被囂塵汚
대 밖 사립문이 대낮에도 닫혀있네	竹外荊扉白晝關

오후에는 가랑비가 갑자기 내렸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도 구름이 여전히 걷히지 않았다.

2월 20일(을미) 비가 그치지 않아 개울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이날 금비(今婢 금례(今禮))가 귀재(貴才)에게 시집갔다.

2월 21일(병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2월 22일(정유) 청명하고 온화하다가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즈음에 서남쪽 멀리서 우레 소리가 들렸다. 초당 앞에 한 떨기 해바라기꽃[葵花]<sup>244</sup>을 심어 정성을 부쳤다.

2월 23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호적 면도감(戶籍面都監)인 장의(掌議) 허호(許虎), 서기(書記) 박명유(朴命宥)가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

2월 24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으며 어두워지자 구름이 걷혔다.

2월 25일(경자) 오후에 다시 구름이 끼고 밤에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6일(신축) 아침에는 구름이 끼어 여전히 습했다가 식후에 다 걷혔다.

2월 27일(임인) 오후에 다시 구름이 끼었다. 이날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아내가 산후(産候)가 있었다가 오시(午時) 끝에 여자 아이를 낳았다. 동변[童便]<sup>245</sup>과 모주[母

**244)** 해바라기꽃[葵花] : (고사) 태양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므로,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245)** 동변[童便] : 열두 살 이하 사내아이의 오줌. 두통, 학질, 해수, 골절상, 종창 따위에 쓰이며, 약재를 잡그는 데에도 쓰인다.

酒] 각 한 종류로 조제하여 따뜻하게 임산부에게 복용하게 하였다.

2월 28일(계묘)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였다. 통제사가 순찰하면서 남촌진(南村鎭)에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진해(鎭海)로 향했다고 한다.

2월 29일(갑진)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저녁에 동풍이 세차게 불었다.

3월 대월(大月). 초8일 한식(寒食)·청명(淸明), 23일 곡우(穀雨).

3월 1일(을사) 동풍이 하루 종일 불어 밤에도 그치지 않았다. 이 때 현임 좌수 허표(許標)가 호적 도감(戶籍都監)을 겸임했는데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허표의 선조 묘소를 파헤쳤다고 한다.

3월 2일(병오) 어제부터 불던 동풍이 지금도 그치지 않았다. 식사 후에 남관(南關)에 들어갔다가 충렬사(忠烈祠)에서 거접(居接)하였다.

3월 3일(정미)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려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때문에 사내종과 말을 도로 보낼 수 없었다.

3월 4일(무신) 정오에 비가 그치고 밤이 되자 구름이 걷혔다. 오후에 사내종과 말을 돌려보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3월 5일(기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3월 6일(경술) 정경이 맑았다.

3월 7일(신해) 해가 나왔다. 벗 여도규(余道揆)가 사천(泗川)에 갔다.

3월 8일(임자) 아침에 이군 담령(李君聃齡)이 아침밥을 장만하여 와서 나를 대접하였다. 햇별이 나오고 온화하였다.

3월 9일(계축) 따뜻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3월 10일(갑인) 가랑비가 툭툭 떨어졌다.

3월 11일(을묘) 우박이 떨어졌다.

3월 12일(병진) 비가 주룩주룩 내려 물이 용솟음쳤다.

3월 13일(정사) 비가 그치고 해가 나왔다.

3월 14일(무오) 햇볕이 나오고 온화하였다. 온갖 사물이 모두 생기(生氣)가 있었다. 향교 하인이 와서 일과(日課)를 거두어 갔다.

3월 15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한시 5수를 관아에 올렸다. 식사 후에 도리동(桃李洞) 임훈장(林訓長)을 방문하였다.

3월 16일(경신) 아침에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다가 금방 그치고, 이어 햇볕이 나와 온화한 날씨가 되었다. 이날 벗 여도규(余道揆)가 아버지 상(喪)을 당하자 내가 즉시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다.

3월 17일(신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가서 윤진사를 방문했다.

3월 18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9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녁에 해운대(海雲臺)에 올라 회포를 풀었다.

3월 20일(갑자) 햇볕이 나왔다. 또 윤진사를 방문하였다.

3월 21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북문 안에 사는 정동석(鄭東碩)이 새 매부(妹夫)를 맞이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보고 돌아왔다.

3월 22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가늘게 내렸다.

3월 23일(정묘) 비가 갠지만 여전히 흐렸다. 식사 후에 중영(中營)에 들어가니 윤진사가 출제(出題)하고 오는 것을 보았다.

3월 24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25일(기사)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천동(泉洞)에 사는 윤선(尹先) 집안이 금년 우리 마을 소재 농토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노비를 보내서 그곳으로 가게 했다.

3월 26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 때 항상 숭무당(崇武堂)에 머물면서 공부하였다.

3월 27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는 비가 잠깐 내렸다. 여러 벗들과 함께 시축(詩軸)을 소매에 넣어 중영(中營) 아중(衙中)에 들어가 윤진사에게 성적을 매기게 하였다.

3월 28일(임신) 햇볕이 나왔다.

3월 29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들으니 순상(巡相)이 관문(關文)을 여러 고을에 보내어 액외 교생(額外校生)을 태강(汰降 탈락)하는데, 사또가 액외생 및 원생(院生)을 모아 직접

손으로 “저는 양반의 후예로서 글과 학문을 힘쓰지 않아 지금 갑자기 충군(充軍)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라고 쓰게 하자, 자필로 쓰지 못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니, 놀랍고 놀랍다.

3월 30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중영(中營)에 들어가 시(詩)를 성적을 매기게 하였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을해) 저녁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오늘 들으니,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인장(印章)을 그린 문서를 봉(封)하여 원문(轅門 군문(軍門))에 도착했는데, 안동(安東)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수문장이 열어보니 그 가운데 백지 3장만 있을 뿐이었다. 통제사가 안동에 관문(關文)을 보내 유향소(留鄉所) 사람을 붙잡아 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4월 2일(병자) 햇벌이 나왔다. 벗 김세보(金世寶)가 거제(巨濟)로 갔다.

4월 3일(정축)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4일(무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5일(기묘) 비가 내렸다.

4월 6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7일(신사)

4월 8일(임오) 햇벌이 나왔다. 사내종 점발(占發)이 고향 집에서 와서 집안 소식을 전하였다. 어제 들으니, 두포(頭浦)에 사는 이매형(李妹兄)이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4월 9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식후에 햇벌이 나왔다. 선달(先達)<sup>246</sup> 양창기(梁昌紀)의 상례에 가서 조문하고, 그길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호암(虎岩)에 이르러 말을 끌고 오는 금노(今奴)를 만나 곧바로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우 정창세(丁昌世)가 내일 신행(新行)하기 때문에 나는 영중(營中)에서 여러 도구를 챙겼다.

4월 10일(갑신) 날씨가 비로소 무척 더워졌다. 식사한 후에 송정(松亭)에 사는 허생원 등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하였다.

4월 11일(을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관첩(官帖)을 보니, 자여도 찰방이 휴가를 받아 상경하자 대신 진주목(晉州牧)에서 겸임하였다.

---

**246)** 선달(先達) : 원래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조선 기 이후에는 주로 무과에 급제하고서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다.

4월 12일(병술) 날씨가 쾌청하였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했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4월 13일(정해) 햇벌이 나오고 온화하였다.

4월 14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과 동행하여 남관(南關)에 들어갔다가 곧 사내 종과 말을 돌려보냈다.

4월 15일(기축)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졌다. 학도(學徒) 20여인과 함께 통제사에게 글을 올려 충렬사(忠烈祠) 훈장(訓長)의 급료 인상을 청원하였다. 통제사가 그 청원서를 받아 두었다.

4월 16일(경인) 햇벌이 나오고 온화하였다. 공부를 하였다.

4월 17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8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진사가 중영(中營) 아객(衙客)<sup>247</sup> 박양설(朴良說)과 함께 군교(軍校)의 첩문(帖文)을 위조해서 군뢰(軍牢)<sup>248</sup>를 시켜 이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곳에 제출하여 장난을 쳤다. 나는 거짓임을 헤아려 알고 흔들리지 않았으니 한바탕 웃고 파하였다.

4월 19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0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1일(을미) 아침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근자에 자못 가물어 보리 뿌리[麥根] 끝부분이 말랐다.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습한 구름이 곧 걷히고 밝은 해가 내리쬐었다.

4월 22일(병신) 아침에는 해가 나왔으나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이담령(李聃齡) 가관(加冠 관례)하는 예식을 가서 보았다.

4월 23일(정유) 날씨가 쾌청하였다.

4월 24일(무술) 햇벌이 나오고 따뜻했으나 밤기운이 갑자기 차가웠다.

4월 25일(기해) 온화하였다.

4월 26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

**247)** 아객(衙客) : 조선시대 지방 수령을 찾아와서 관아에 묵던 손님.

**248)** 군뢰(軍牢) : 조선시대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

4월 27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8일(임인)

4월 29일(계묘)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샘물이 용솨음쳤다.

4월 30일(갑진) 비가 개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나무에 녹음은 짙었다.

5월 소월(小月). 10일 망종(芒種), 25일 하지(夏至).

5월 1일(을사) 날씨가 따뜻하였다.

5월 2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3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4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5일(기유) 아침에 햇벌이 나왔는데 저물녘에는 흐렸다. 세병관(洗兵館)에서 전투 훈련을 구경하였다.

5월 6일(경술) 비가 내렸다.

5월 7일(신해) 계속 비가 내렸다.

5월 8일(임자) 맑았다. 이담령(李聃齡)이 나에게 도선(桃扇 복숭아꽃 문양을 그린 부채) 한 자루를 주었다.

5월 9일(계축) 날씨가 찌는 듯이 덥다가 저녁에 구름이 북쪽에서 몰려왔는데 갑자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떠들썩하다가 곧바로 견히고 무지개가 나타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어가다가 비현(碑峴)에 이르니, 중영(中營)의 아객(衙客) 역시 오늘 본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교(軍校)와 창기(妓倡)와 추도(騶徒 수행하는 하인)와 작별 잔치를 열었는데 길거리에 가득하여 혼잡스러워 지나갈 수가 없어 나는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5월 10일(갑인) 매우 더웠다. 심군과 동행하여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후 심군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월 11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교복(校僕 향교의 노복)이 와서 시축(詩軸)을 거두어 관아에 바쳤다.

5월 12일(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13일(정사) 여전히 구름이 끼었다.

5월 14일(무오)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나는 향교로 들어갔다. 현임 도유사 최경전(崔慶全), 장의 이정인(李挺寅), 장의 노해관(盧海觀)을 만나보고 계속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타고 왔던 말을 계동(契洞)에 사는 매형 집에 돌려보내 여물을 먹이게 하였다.

5월 15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후에 계동에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6일(경신) 더욱 더워졌다. 교임(校任)이 요청했던 호적을 필사했는데 14장을 다시 썼다.

5월 17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이 방문하여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떠나갔다.

5월 18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모종을 옮겨 심은 곳에 이따금 거북 등처럼 갈라져 농가(農家)에서는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다. 우리 집은 오늘에서야 겨우 이양(移秧)이 끝났는데, 봉천전답(奉天田畓)<sup>249</sup> 몇 뼤기는 우선 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들으니 상도(上道)<sup>250</sup>에는 이양하지 않은 곳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나는 남관(南關)에서부터 처소로 돌아온 후 한 번도 교외에 나가지 않았다. 오늘 극히 무더워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딜 수 없었다. 드디어 동편 교외에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5월 19일(계해) 아침에 비가 이슬처럼 내리더니 곧바로 그쳤다. 옥천사(玉泉寺)에 가서 이광점(李光漸)·정중걸(鄭仲杰)·이방협(李邦協)·남국승(南國升)·문사익(文思益)·유창수(柳昌壽)·허즙(許楫)·정후(鄭垉)·정규(鄭圭)·정연(鄭淵)·정휴(鄭休)·최곤(崔王+崑)·강배악(姜配岳)·이광태(李光泰)와 함께 거접(居接)했는데 허즙과 정휴는 사정이 있어 작별하고 돌아갔다.

5월 20일(갑자) 새벽에 비가 땅을 적셨다.

5월 21일(을축) 비가 가끔 걸렸다.

5월 22일(병인) 비가 개었다.

5월 23일(정묘) 청명하였다. 생원 허즙(許楫)이 왔다.

5월 24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5일(기사) 비가 내렸다.

5월 26일(경오) 날씨가 매우 추웠다.

**249** 봉천전답(奉天田畓) : 물이 공급되는 곳이 없어 오로지 빗물에 의존해서 경작하는 논밭.

**250** 상도(上道) : 안동을 중심으로 한 현재 경북 지방을 가리킨다.

5월 27일(신미)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하였다. 밤에 시(詩) 한 수를 지었다.

5월 28일(임신) 비가 개었다.

5월 29일(계유) 더웠다. 접중(接中)에서 사적으로 백일장을 개최했는데 내가 일등을 차지했다.

6월 대월(大月). 12일 소서(小暑), 17일 초복(初伏), 27일 중복(中伏), 28일 대서(大暑).

6월 1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접중에서 8일 청곡사(靑谷寺)<sup>251</sup>에 이접(移接)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내종과 말이 왔다.

6월 2일(을해) 맑고 온화하였다. 거접하는 접우들이 옥천사 큰 누각 들보에 이름을 쓰고, 오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15인이 말을 타고 나란히 출발하니, 또한 좋은 일이다. 문사익(文思益)은 나와 함께 동행 했다가 마암(馬岩)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작별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천(新川)을 향하고, 나는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떡구름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와서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6월 3일(병자) 새벽에 안개가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지고 더위가 찌는 듯하였다.

6월 4일(정축)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5일(무인)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하는데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현재 고을 동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가에서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6월 6일(기묘) 비 올 기색이 어제와 같았다.

6월 7일(경진) 더러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별이 나기도 하였다. 나는 청곡사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일에 제지를 받는 근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종을 통해 동산(桐山)에 사는 생원 이광점(李光漸)에 편지를 보내 가보지 못한다고 알려왔다.

6월 8일(신사) 비가 내렸다.

6월 9일(임오) 비가 내려 시내와 들판에 물이 넘쳐 제방과 농토가 제법 손상되었다.

6월 10일(계미) 비가 그치지 않아 들판에 물이 넘쳐 흘렀다.

6월 11일(갑신) 더러는 해가 나기도 하였으나 비 올 기색이 여전히 농후하였다. 시냇가와

---

**251)** 청곡사(靑谷寺)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이다. 월아산(月牙山) 서쪽에 있는데,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602년(선조35)에 중건되었다.



농토에 비피해로 무너진 곳이 상당히 많았다.

6월 12일(을유)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 비를 맞고서 남관(南關)에 들어가 윤진사(尹進士 윤상갑(尹相甲))를 만나보았다. 인하여 시제(詩題)를 내어 시 한 수를 지었다.

6월 13일(병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6월 14일(정해) 가끔 해가 나왔다.

6월 15일(무자)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16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17일(경인)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덩기도 하였다.

6월 18일(신묘) 찌는 듯이 더웠다. 윤진사는 바로 통상(統相) 김공 흡(金公滄)이 예우하여 초청한 분이다. 드디어 충렬사(忠烈祠)에서 훈장 직임을 행하였다.

6월 19일(임진) 가랑비가 잠깐 내렸으나 매우 더웠다.

6월 20일(계사) 더웠다. 매일 공부하면서 충렬사에서 유숙하였다.

6월 21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2일(을미) 저물녘에 천둥이 치고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으나 금방 그쳤다.

6월 23일(병신) 더웠다.

6월 24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5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6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7일(경자) 가끔 구름이 끼었으나 더웠다. 이날 밤에 좀도둑이 학도(學徒)의 의복을 도둑질했다.

6월 28일(신축)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났다가 했는데 비가 먼지를 적시지 못할 정도였다.

6월 29일(임인) 가끔 구름이 끼고 매우 더웠다.

6월 30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소월(小月). 14일 입추(立秋), 17일 말복(末伏), 29일 처서(處暑).

7월 1일(갑진)

7월 2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었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저녁에 가랑비가 살짝 내렸다.

7월 3일(병오) 가끔 구름이 끼었다가 밤에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렸다.

7월 4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물이 가끔 떨어졌다.

7월 5일(무신) 더웠다.

7월 6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7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8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9일(임자) 구름이 끼었다.

7월 10일(계축) 가랑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그쳤다.

7월 11일(갑인)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2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3일(병진) 가끔 구름이 끼고 더웠다.

7월 14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6일(기미)

7월 17일(경신) 비가 내렸다.

7월 18일(신유) 날씨가 쾌청하였다.

7월 19일(임술) 더웠다.

7월 20일(계해) 더웠다.

7월 21일(갑자) 통제사가 출제(出題)했다. 개인적으로 시제(試題)를 냈는데, ‘연포(蓮浦)에 달빛 비추는 밤에 연꽃 따는 여자를 만나 함께 관산(關山) 가는 길을 묻네’였다. 오시(午時)에 제술을 끝나치고 제출했는데 내가 일등을 차지하여 문방구를 상으로 받았다.

7월 22일(을축) 오후에 비가 내리고 밤에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7월 23일(병인) 계속 비가 내렸다.

7월 24일(정묘) 제일 더웠다. 함장께서 근래 학길에 걸려 오늘 본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북(項北)까지 전송했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밤에 재실로 돌아왔다.

7월 25일(무진) 매우 더웠다.

7월 26일(기사) 무더위가 어제와 같은데, 한 밤중에 우레가 쳤다.

7월 27일(경오) 비가 내렸다. 근자에는 날마다 환후를 앓고 계시는 함장께 가서 문후하였는데, 오늘은 비에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

7월 28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29일(임신) 비가 내렸다.

윤7월 대월(大月). 16일 백로(白露).

윤7월 1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윤7월 2일(갑술) 맑았다. 심익룡(沈翼龍)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윤7월 3일(을해) 비가 내렸다.

윤7월 4일(병자) 비가 내렸다. 함장께서 환후가 있어 걱정하느라 부지런히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집으로 돌아오고 사내종과 말도 들어왔다.

윤7월 5일(정축) 더웠다. 함장(函丈)을 문후하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심군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려 저녁 내내 대화를 나누다가 작별하였다.

윤7월 6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산(葛山)에 가서 노닐다가 돌아왔다.

윤7월 7일(기묘) 가랑비가 내리고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윤7월 8일(경진) 가랑비가 가끔 내렸다.

윤7월 9일(신사)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그치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가끔씩 내렸다. 나는 심군과 함께 청곡사(靑谷寺) 접소(接所)로 가기 위해 명전(明田) 주막에 도착했는데 이운지(李雲枝)를 만나니, 파접(罷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장 동산(桐山)으로 향했는데, 이생원은 청곡사에서 파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왔다. 이날 날씨가 매우 더웠다.

윤7월 10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세동(細洞)에 이르러 심군과 갈림길에서 헤어져 각자 돌아갔다.

윤7월 11일(계미) 비가 내렸다.

윤7월 12일(갑신) 저물녘에 개었다.

윤7월 13일(을유) 심군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산에서 비를 만나 옷이 다 축축하게 젖었다. 밤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달빛이 밝았다. 심군이 운자(韻字)를 부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응대하였다.

옥동에 구름이 걷혀 비가 잠깐 개이자	玉洞雲歸雨乍晴
서리 속 둥근 달이 발에 들어와 밝구나	一輪霜月入簾明
샘물에 다시 거문고 소리 연주하니	流泉更奏調琴響
가슴에 세속 걱정이 갑자기 맑아지구나	頓覺胸中俗慮清

윤7월 14일(병술) 구름이 질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윤7월 15일(정해) 비가 그치지 않고 오시(午時)에 천등과 번개가 쳤다.

윤7월 16일(무자) 비가 쏟아졌다. 금노(今奴)가 양식을 지고 왔다. 처음에는 한산전(寒山殿)에 거처를 잡았다가 지금 선당(禪堂)으로 옮겼다. 이날 회포를 읊조리며 장난삼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음과 같이 불렀다.

북해에서 봉새가 거대한 날개 먼저 드리워	鵬翼姑垂北海中
천지에 머물며 큰 바람 일어나길 기다리네	乾坤留待起長風
옆 사람들과 오래 잠복했다고 웃지 마시게	傍人莫笑鱗潛久
한 번 나래에 창공을 훨훨 나는 걸 보리라	一舉將看截半空

또

상서로움을 하늘이 짐짓 보호해	異祥天故護
숨어있는 곳이 텅빈 곳 같았네	藏處若虛空
표범은 남산 속에서 숨고 <sup>252)</sup>	豹隱南山裡
봉새는 북해에서 날개 드리우네	鵬垂北海中
기이한 무늬는 장차 연무에 변하고	奇文將變霧
큰 날개는 큰 바람 타기를 기다리네	大翼佇乘風
품부함이 뜻이 없지 않으니	稟降非無意
어찌 이 곤궁함을 근심하리오	寧愁此困窮

중 선오(禪悟)가 점심을 공양하고, 치상(致祥)이 저녁 식사를 공양하였다.

윤7월 17일(기축) 비가 그치지 않았다. 중 법징(法徵)이 점심을 공양하였다.

윤7월 18일(경인) 비가 개었다. 절 안에서 조식(朝食)을 공방하였다. 소월암(笑月庵)을 유람하였다.

윤7월 19일(신묘) 비가 그치지 않았다.

윤7월 20일(임진) 매우 맑디맑았다. 파접(罷接)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7월 21일(계사) 날씨가 청명하였다. 도보로 향교에 가니, 전곡(典穀) 허세징(許世徵), 번유(番儒)<sup>253)</sup> 배만서(裴萬瑞)가 향교에 있어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심군을 방문해서 점심을 먹은 후에 돌아갔다.

윤7월 22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7월 23일(을미) 구름이 끼고 서늘하였다. 별장 최익해(崔翼海)와 서방(書房) 이성원(李聖源)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별하였다.

윤7월 24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7월 25일(정유) 맑고 온화하였다. 상인(喪人) 우홍주(禹洪疇)가 제문을 지어달라고 청하여 그의 매부(妹夫)인 당장(堂長) 고(故) 이석겸(李錫謙)에게 치전(致奠)하였다.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공이 살아계실 때 친족, 봉우, 향당이 의지하여 우러렀었지요. 공이 세상 떠나시니 친족, 봉우, 향당이 앞으로 누구에게 묻고 상의하리오. 아, 공의 행실과 의리로도 후세에 물려주지 못하고, 공의 문예(文藝)로도 당시에 빛나지 못했으니, 하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조물

**252)** 표범은 남산 속에서 숨고 : (고사) 남산의 검은 표범이 자신의 털 무늬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무우(霧雨)가 계속된 7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도 가만히 머물러 있기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列女傳 卷2 陶答子妻》

**253)** 번유(番儒) : 입번 유생(入番儒生)으로, 순번으로 당직을 맡은 유생을 가리킨다.

주의 장난인가? 규방의 어린 아내와 슬하의 고아를 사람들이 함께 슬피하니 공이 어찌 차마 잊고 떠나셨는가. 텅 빈 방안 적막하여 말쑤를 듣기 어렵고, 기나긴 밤에 킁킁하여 그 음성과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네.

생각해보면, 공이 돌아가신 후, 저 어린 아이를 잊기 어려울 텐데. 애석하구나, 옥 같이 뛰어난 자질을 누가 새기고 다듬어 줄까? 내가 지금 거두어 길러서 조금이나마 절차탁마할 수 있게 한다면, 피부가 해마다 점차 채워질 것이니 재주와 학문을 무엇을 염려하리오? 날로 함께 성장하여 성취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하늘이 공에게 보답하는 방도가 여기에 있으리라. 복이 오히려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공을 위해 경하하노라.

아, 역적 중 살아남은 목숨들은 하늘과 귀신이 함께 주별하리라. 작년에는 노모(老母)께서 돌아가셔서 곡했는데 금년에 또 아버지의 죽음을 당하였지. 집안의 가르침이 이미 옛 것이 되었으니, 색동옷 재롱은 다시 하기 어렵구나. 무슨 얼굴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잠들어 깨어나지 말아야 했도다. 아, 애통하도다.

이승과 저승이 간격이 없고 혼령이 지각이 있다면 장인과 사위가 서로 돌보고 보호하리라. 아침저녁으로 저승에서 만나 여러 인간세상 일을 다 말하리라고 응당 알겠네. 공께서는 처자식이 쓸쓸하고 외로울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살아 있으니, 어찌 형제간 같은 깊은 우애 없겠는가. 나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탁하네. 아, 공에게 바라노니 모름지기 장인과 사위의 깊은 정을 다하시게. 애통하도다. 우리 부모님께 지금 어디로 가서 알려 줄까? 여러 자녀 우선 아무 탈 없다고 알려주시오.

아,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아 소상(小祥)이 어느덧 다가오네.

저승에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우니, 길이 통곡한들 어쩔 수 없지. 애사(哀詞) 한 편으로 천고토록 통곡하노니, 글자 글자마다 슬픈 심정이고 눈물 줄줄 흘리며 슬피 우노라. 혼령이 계신다면 부디 오시어 흠향하소서.

지사(地師 지관(地官))인 한양 사람 성만의(成萬宜)가 우상인(禹喪人) 집에 왔는데, 나도 같이 만났다.

윤7월 26일(무술) 따뜻하였다.

윤7월 27일(기해) 과행(科行)을 위해 출발하여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 댁에서 묵었다.

윤7월 28일(경자) 아침에 비가 내렸다. 식사한 후에 출발하여 심익룡(沈翼龍)과 동행해서 갈천현(葛川峴)<sup>254</sup>을 넘어 시냇가에서 점심을 먹고 동산(桐山)을 지나 저녁에 소촌(召村) 서부(西部)에 사는 상한(常漢 상놈) 윤필수(尹必守) 집에서 묵었다. 이날 비가 내려 더러 먼지를 적셨다.

윤7월 29일(신축) 아침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내리려고 하였다. 관방리(冠坊里)에서 점심을 먹고, 문사익(文思益)을 방문하고, 용당진(龍塘津)<sup>255</sup>을 건너 사리원(士利院) 시장 길

**254)** 갈천현(葛川峴)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이다. 갈천리는 본래 고성군 대둔면의 지역으로서 갈라진 내(川)가 있으므로 갈내 또는 갈천이라고 하였다. 구상덕은 제향에 참여하기 위해 대가면 갈천리에 있는 갈천서원에 자주 왕래하였다.

을 경유하여 신지동(新支洞)으로 나왔다. 저녁에 삼가(三嘉) 토골[兎洞]<sup>256</sup> 마을에 사는 상한(常漢) 정진웅(鄭進雄) 집에서 묵었다. 이 때 구름이 가끔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윤7월 30일(임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안구(安丘)에서 아침밥을 먹고, 지나는 길에 생원 박래겸(朴來謙)과 신기(新基)에 사는 남생원(南生員) 여러분을 두루 방문했다. 합천(陝川) 연호사(烟湖寺)에서 점심을 먹고, 함벽루(涵碧樓)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지래치(支來峙) 하촌(下村) 집에서 묵었다.

8월 소월(小月). 초7일 추분(秋分), 16일 한로(寒露).

8월 1일(계묘) 일찍 지래치를 넘어 고령(高靈) 귀수원(貴藪院) 주막에서 아침밥을 먹고, 성주(星州) 안원(安院)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날 낮에 먹구름이 하늘에 짙 차고 빗방울이 때때로 내렸다. 성치(星峙)를 넘어 저물녘에 성주(星州) 읍저(邑底) 주막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비가 많이 내렸다.

8월 2일(갑진) 비가 쏟아지더니 오후에는 기세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출발하여 인동(仁洞) 약목(若木) 소미촌(所美村)에 이르러 마을 상한(常漢) 이원(李遠) 집에서 묵었다. 이원의 집에 연세가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있는데, 홍시[紅柿]를 먹어 장수했다고 한다.

8월 3일(을사) 비가 개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읍(邑)인 선산부(善山府) 앞 감천(甘川) 물가에 도착하니, 수세(水勢)가 상당히 세차 말을 타고 건너갈 수가 없어 드디어 옷을 벗고 서로 부여잡고 사탄(沙灘)을 따라가서 잘 건넜다. 사령청(使令廳)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방협(李邦協)을 만나고, 선산부 서쪽 사방동(射榜洞) 상한(常漢) 박금금(朴今金) 집에 하관(下館)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4일(병오) 비가 내렸다.

8월 5일(정미) 비가 개었다. 이때 영원군(靈原君) 이현(李德)·남원군(南原君) 이숙(李櫛)이 법천사(法泉寺) 소재 덕흥군(德興君)<sup>257</sup> 화상(畫像)을 살펴보고 바야흐로 고성(固城)을 향했다가 어제 본부(本府)에 들어갔다. 지금 비로소 행차가 출발하니, 각 읍에서 도로를 특별히 닦아 숫돌처럼 평탄하여 구덩이가 한 군데도 없었다.

8월 6일(무신) 따뜻하였다. 진성(晋城)의 접우(接友)들이 뒤늦게 도착했다.

8월 7일(기유) 따뜻하였다. 전(錢) 4전(錢) 5푼(分)으로 시지(試紙) 1장을 샀다. 전(錢) 1전 5푼을 진해(鎭海)에 사는 정연(鄭淵)에게 주어 시지(試紙) 값에 보충하게 하였다.

**255)** 용당진(龍塘津) : (지명) 용당나루로, 경상남도 진주시의 대곡면 대곡리 한실마을 앞 남강변에 위치한 나루터였다.

**256)** 삼가(三嘉) 토골[兎洞] : (지명) 지금의 합천군(陝川郡) 삼가면(三嘉面) 외톨이(外吐里)이다.

**257)** 덕흥군(德興君) : (인물) 선조(宣祖)의 생부로 이름은 초(岺)이다. 중종(中宗)의 일곱째 아들로,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소생이다. 명종(明宗)이 후사가 없이 죽자 덕흥군의 아들인 하성군(河城君)이 태통을 이어 즉위하니 바로 선조이다.

8월 8일(경술) 따뜻하였다.

8월 9일(신해) 따뜻했는데 오후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녹명(錄名)하고 시험지를 마름질하였다.

8월 10일(임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권(試卷)에 관인(官印)을 찍었다. 이 때 무신년 이후 7읍(邑) 정거(停擧) 과거 응시자격 정지하는 논의가 행하지 않는 사안으로 어떤 사람이 사관(四館)<sup>258</sup> 문 밖에 방문(榜文)을 걸어 “흉악한 여열(餘孽)이 뒤섞여 들어오니 의리상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성주(星州)와 상주(尙州) 등 고을의 응시자 가운데 파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8월 11일(계축)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과장에 들어갔다. 시제(詩題)는 ‘조래(徂徠) 선생<sup>259</sup>이 <조연사전(趙延嗣傳)> 을 지음을 대신하다.’이며 ‘전(傳)’자가 압운이다.

8월 12일(갑인) 하루 종일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3일(을묘) 가끔 비가 내렸다. 종장(終場)<sup>260</sup>에 들어가 보니, 시험장에 소요가 발생하는 폐단이 없었다.

8월 14일(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진성(晋城)의 동접(同接)들과 함께 출발해서 부상치(扶桑峙) 아래 시냇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성주(星州) 대마坪(大馬坪) 불모촌(不毛村)에서 묵었다.

8월 15일(정사) 날씨가 온화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성주읍 앞 승을촌(僧乙村) 상놈 이지화(李枝華)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고령(高靈) 안림역(安林驛)에서 묵었다.

8월 16일(무오) 새벽에 출발하여 초계(草溪) 지방리(猪方里) 주막에서 아침밥을 먹고, 회래치(回來峙) 아래 석계(石溪) 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의령(宜寧) 정곡(鼎谷)에 사는 생원 강중후(姜重厚) 집에서 묵었다. 이날 날씨가 온화하였다.

8월 17일(기미) 아침식사 후 출발하여 중교(重橋)에 도착하였다. 진성(晋城) 접우와 길에서 헤어졌는데 나는 함안(咸安) 읍리(邑吏) 조처동(趙處東) 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팔진(八鎭) 처갓집에서 묵었다.

8월 18일(경신) 바람이 추웠다. 심익룡(沈翼龍)은 먼저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대산(大山)에 머물렀는데 정연(鄭淵)이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고는 함께 잠을 잤다.

8월 19일(신유) 아침식사 후 출발하여 두포(頭浦)에 도착하니, 비 올 기색이 많았다. 막 집

**258)** 사관(四館) : (제도) 과거시험을 맡아보는 네 관아로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을 이른다.

**259)** 조래 선생 : (인물) 송나라 석계(石介)로, 자가 수도(守道)이며, 호가 조래이다.

**260)** 종장(終場) : (제도)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과거 시험에서, 마지막 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에 들어가자 비가 먼지를 적실 정도 내렸다.

8월 20일(임술)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21일(계해)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8월 22일(갑자)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가끔 비가 내렸다. 올해 식년(式年) 무과(武科) 초시(初試)의 과장(科場)을 본읍에서 설행하였다. 아침 전에 진주(晋州) 서면(西面)의 덕산(德山) 시천(矢川) 정상갑(鄭尙甲)과 윤상즙(尹尙楫)이 와서 머물렀다.

8월 23일(을축) 하루 종일 더러 바람이 불고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오전에는 동풍이 불고 오후에는 북풍이 불었다.

8월 24일(병인)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25일(정묘)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잔잔하였으며 날씨는 매우 따뜻하였다.

8월 26일(무진)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8월 27일(기사) 온화하였다. 과장(科場)을 열었다.

8월 28일(경오) 구름이 끼었다. 진성(晋城)에 사는 생원 남국훈(南國薰) 형제가 와서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8월 29일(신미) 날씨가 따뜻하였다. 닭과 술을 가지고 가서 이번 무과 시험에 응시한 남관(南關)의 여러 벗과 같은 고향 친구 10여 인을 대접하였다. 그저께부터 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정재종(丁再從)과 협력해서 접대하였다. 남국훈(南國薰) 형제는 그대로 머물렀다.

9월 대월(大月). 초2일 상강(霜降), 17일 입동(立冬).

9월 1일(임신) 따뜻하였다.

9월 2일(계유) 시험이 끝났다. 고성(固城) 3명, 진주(晋州) 5명, 하동(河東) 1명, 사천(泗川) 1명, 산청(山淸) 1명, 단성(丹城) 2명, 초계(草溪) 1명, 김해(金海) 1명이 합격했다. 이날 비가 내렸다.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와서 유숙하였다. 정상갑(鄭尙甲)과 윤상즙(尹尙楫)이 무과 시험에 낙방하고 돌아왔다.

9월 3일(갑술) 비가 계속 그치지 않고 냇물이 용솟음쳤다.

9월 4일(을해) 쾌청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5일(병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6일(정축)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9월 7일(무인)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반반 정도였다.

9월 8일(기묘) 매우 따뜻하였다. 송정(松亭)에 사는 배세장(裴世章) 상례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다.

9월 9일(경진) 비가 내리다가 밤 삼경(三更) 이후에 구름이 다 없어지고 달빛이 휘영청 비추었다.

9월 10일(신사) 청명하였다. 새 사또는 무변(武弁) 출신 신무(申王+戊)가 부임하였다. 천동(泉洞)에 사는 윤선(尹先) 집에서 내일 사위 김백봉(金百朋)<sup>261</sup>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매형 이여섭과 함께 내일 일찍 출발하자고 약속을 잡았다.

9월 11일(임오) 날씨가 청명하였다. 매형 이여섭과 동행하여 천동(泉洞)에 들어갔다.

9월 12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항북(項北)에 사는 함장(函丈) 윤진사(尹進士) 거처에서 묵었다.

9월 13일(갑신)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14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음. 매형 이여섭이 돌아갔는데, 나는 계속 남관(南關)에 머물렀다.

9월 15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6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7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8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때 서재에 머물면서 글을 읽었다. 밤중에 바람이 오동나무 잎사귀에 불어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쓸쓸한 분위기에서 삼경 쯤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책상 앞 독서 끝내고 늦게 잠드는데	讀罷兀頭就枕遲
등불 꽃 다 떨어지고 깊은 밤일세	燈花落盡夜闌時

**261)** 김백봉(金百朋) : (인물) 천동(泉洞)에 사는 윤선(尹先)의 사위로, 구상덕과 교유하며 정수사(淨水寺) 등 산사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였다. 1732년 4월 26일 용동(龍洞)에 사는 어린 자식인 수아(壽兒)가 두역에 걸렸을 때 구상덕이 김백봉 집에 머물러 있었다.

창문 앞 잎새에 부는 바람소리 홀연 들리니 窓前忽聽風吹葉  
쓸쓸한 가을 소리 내 슬픔을 돕는구나 蕭瑟秋聲□□悲

9월 19일(경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0일(신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1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추웠다. 저녁에는 구름이 흩어졌으나 바람은 여전히 추웠다.

9월 22일(계사) 청명하고 바람이 추웠다.

9월 23일(갑오)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24일(을미) 맑고 추웠다.

9월 25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6일(정유) 자못 거센 바람의 기운이 있었다.

9월 27일(무술)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28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9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우함장(禹函丈)의 장기(葬期)가 다음달 2일로 정했기 때문에 서방(書房) 신만석(辛萬碩)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0일(신축) 날씨가 청명하였다.

10월 소월(小月). 초2일 소설(小雪), 17일 대설(大雪).

10월 1일(임인) 따뜻하였다. 나는 우함장 영전 앞에 치전(致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문을 지었다.

나 소자는	余小子
스승 문하에 옷을 걷고 <sup>262)</sup>	樞衣德門
섬기고 가슴 속에 새기니	承事服膺
존귀한 스승이시라	函丈之尊
그 자태는 순정하시고	有醇其姿

**262)** 옷을 걷고 : (고사) 제자가 스승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할 때 하는 거동으로 스승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보인다.

그 말씀은 모범이 되어	有範其言
진실로 군자로다	展也君子
옥 같은 분이셨지	如玉其人
안연처럼 안빈낙도하여 <sup>263)</sup>	顏瓢累空
가난을 근심하지 않았지	不憂其貧
장사꾼이 물건 팔리지 않아 <sup>264)</sup>	賈用不售
밝은 달은 화를 내어	明月見嗔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棄公車舉
외진 물가로 물러나 살았네	退處窮澗
깊이 숨고 재능 팔지 않아	深藏不市
아름다운 은둔이니 정하여 길하니라 <sup>265)</sup>	嘉遯貞吉
영특한 회포는 막힘없어	靈襟無滯
외물을 밖으로 여겼지	能外是物
자족하여 스스로 즐겁게 사니	嚚嚚自樂
하늘의 일민 <sup>266)</sup> 일세	天民之逸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	一朝乘化
땅 속도 거부하지 않았네	其入不拒
어떤 때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며 <sup>267)</sup>	安時處順
올 때 왔다가 갈 때 가니	適來適去
소미성이 빛을 잃고 <sup>268)</sup>	星韜少微
조문하는 학 소리 들리네	弔鶴其語
자식이 집안을 계승하니	有子傳家
후손에게 경사가 있으리라	餘慶所在
후생은 의지할 데가 없어	後生靡依
강해를 한번 빙 둘러보네	俛仰江海
지팡이 끌고 새벽에 노래하니 <sup>269)</sup>	負杖晨歌

**263)** 안연처럼 안빈낙도하여 : (고사) 《논어》 〈雍아편(雍也篇)〉에, “한 바구니 밥을 먹고 한바가지 물을 마시며, 누항(陋巷)에 있는 것은 사람마다 그 근심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안회(顏回)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어질도다 안회여!”라고 하였다.

**264)** 장사꾼이 물건 팔리지 않아 : (고사) 《시경》 〈패풍(邶風) 곡풍(谷風)〉에, “이미 나의 덕을 물리치니, 장사꾼이 물건 팔리지 않는 것과 같구나.[既阻我德 賈用不售]”라고 하였다.

**265)** 아름다운 은둔이니 정하여 길하니라 : 《주역》 〈돈괘(遯卦) 구오(九五)〉에 나오는 말이다.

**266)** 일민(逸民) : 벼슬하지 않고 재야에 은거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을 일민이라 한다.

**267)** 어떤 때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며 : (고사)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변화를 편안히 여기면서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자기에게 닥친 시운을 편안히 여기고서 그 도리를 이해하여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슬프고 기쁜 따위의 감정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68)** 소미성(少微星)이 빛을 잃고 : (고사) 진(晉)나라 사부(謝敷)는 자가 경서(慶緒)인데 성품이 맑고 욕심이 없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태평산(太平山)에 10여 년 동안 은거하였다. 하루는 달이 소미성을 범하자 점치는 사람이 “처사(處士)가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당시 명망이 높았던 대규(戴逵)가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부가 죽었다고 한다. 《晉書 卷94 謝敷列傳》

**269)** 지팡이 끌고 새벽에 노래하구나 : (고사)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뒷짐을 진 채 지팡이를 끌고 문에서 소요하며 위인의 죽음을 노래하자 자공이 그 노래를 듣고 탄식하면서 달려가니, 공자가 “사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게 오느냐.[賜爾來何遲也]”라고 하며 자신이 죽을 것을 알려 주었다는 고사가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한 가락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데	一闋而再
상여가 떠날 시간 멈추지 않아	靈辰不留
무덤 <sup>270</sup> ) 이 이루어지려 하네	馬鬣將成
진수가 오열하니	晉水嗚咽
고향 그리워하는 소리일세	懷鄉之聲
내가 한 잔 술을 올리니	余用薦觴
부디 미미한 정성을 흠향하소서	尙格微誠

들으니, 도사(都事)가 본현에 도착하는 기간이 임박하여 관가(官家)에서 향교를 극히 엄히 신칙했기 때문에 내외재생(內外齋生)이 빠짐없이 대기하였다.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향교로 들어가려고 읍으로 들어갔다가 유사 강성주(姜聖周)를 만나 동행하여 가동(可洞)에서 묵었다. 감토(甘土)를 샀는데 값이 전(錢) 3전(錢)이다.

10월 2일(계묘) 날씨가 청명하였다. 가동(可洞)의 여러 사람과 함께 향교로 들어갔다. 우함장(禹函丈)이 오늘 이 세상과 영영 이별하는데, 나는 향교에 관한 일로 상여 줄을 잡고 영결을 하지 못하였다. 만사(挽詞)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예전 어리석은 제가 스승 가까이 갈 적에	憶昔愚庸近德門
사람 대하는 화락한 기운 어찌 잊으리오	接人和氣豈曾諷
가난을 편히 여겨 빈한한 삶 근심하지 않고	安貧不患空篋食
순리대로 살아 해진 솜옷 <sup>271</sup> )을 기꺼이 입었지	處順惟甘衣弊緇
후생을 가르친 교육에 뜻이 절실했고	志切後生開導業
속세의 시비 거리는 귀머거리였지요	耳聾塵世是非喧
스승께서 가 버리시니 지금 어찌 가십니까	吾師已矣今何逝
소자 의지할 데 없어 눈물만 절로 흘립니다	小子靡依涕自捫

10월 3일(갑진) 날씨가 청명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4일(을사) 날씨가 청명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5일(병오) 날씨가 청명하였다. 송도(松道) 심군(沈君)의 집에서 나왔다가 서방(書房) 김백봉(金百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심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6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서방 김백봉과 갈산(葛山) 고개에서 헤어지고, 나는 그길로 향교로 갔다.

나온다.

**270)** 무덤 : 원문 ‘마렵(馬鬣)’은 말갈기처럼 된 분묘(墳墓) 형태의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무덤으로 쓰였다.

**271)** 해진 솜옷 : (고사) 공자가 말하기를, “해진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은 자와 같이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아마 유일 것이다.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衣敝緇袍 與衣狐貉者 立而不恥者 其由也與 不枝不求 何用不藏]”라고 하였다. 《論語 子罕》 유(由)는 자로(子路)의 이름이다.

10월 7일(무신) 저녁에 내린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10월 8일(기유) 비가 약해졌다. 도사(都事) 이희춘(李希春)이 사천(泗川)에서부터 저녁에 본현에 도착했는데, 경유한 여러 읍의 유생(儒生) 중 셀 수 없을 정도로 낙강(落講)했다.

10월 9일(경술) 조강(朝講)하였다. 나는 고문(古文) 극시(棘寺)<sup>272</sup>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술(製述)로 낙강하는 번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 허세관(許世觀)·유충한(柳叢漢)·박중도(朴重道)·백만징(白萬徵)이 모두 떨어졌다. 식사한 후 도사는 통영(統營)으로 향해 가고, 유생은 흩어져 돌아갔다.

10월 10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10월 11일(임자) 따뜻하였다. 향교에 갔다. 밤에 송정(松亭)으로 돌아와 이만영(李萬榮)의 조부 재기(再基)를 보았다.

10월 12일(계축) 날씨가 청명하였다. 오후에 읍에 들어가 낙강(落講)한 4인을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도사(都事)가 들어주지 않았다. 향교에서 묵었다.

10월 13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침에 갈산(葛山)을 나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금년 농사는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확량은 도리어 지난해보다 못하여 1두락지 소출이 2,30두에 불과하였다.

10월 14일(을묘) 아침에 구름이 끼고 추웠다. 약정(約正) 한의량(韓儀良)이 와서 관채(官債 관아에 진 빚)를 독촉하였다.

10월 15일(병진) 조금 추웠다. 나는 필마를 타고 가동(可洞)도유사 제하봉(諸夏封) 댁에 가서 《서전(書傳)》을 빌리고자 했는데, 주인은 창녕(昌寧) 땅으로 가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계동(契洞)에 갔다가 저녁 식사 후 향교에 갔다. 전임(典任) 최경조(崔敬祖)와 배용종(裴龍宗)이 향교에 있었고, 유사 유완기(柳完祺)도 와서 명륜당(明倫堂)에서 함께 묵었다.

10월 16일(정사) 구름이 짙게 끼고 매우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7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8일(기미) 날씨가 추웠다.

10월 19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0일(신유) 매우 따뜻하였다. 다시 가동(可洞)에 사는 제생원(諸生員) 집에 가니, 벌써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핑계대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길로 용전(龍田)을 향해 갔다.

---

**272)** 극시(棘寺) : 형법(刑法)을 맡은 관아, 즉 대리시(大理寺)의 이칭이다.

10월 21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용전(龍田) 장의(掌議) 허완(許浣) 댁에 있는 《서전》을 빌려 가지고 돌아오던 중 이어 장산(獐山)<sup>273</sup>에 있는 향원(鄉員)을 방문하였다. 이때 가랑비가 약간 내렸다. 막 시동치(梯洞峙)를 넘으려고 할 적에 비올 기색이 물러났다. 음법(陰法)에 사는 장의 이석림(李錫臨) 댁에 이르러 또 《서전》 약간 권을 빌려서 왔다.

10월 22일(계해) 바람이 갑자기 추웠다. 갈산(葛山)에 사는 최선여(崔善餘)를 가서 방문하고 돌아왔다.

10월 23일(갑자) 따뜻하였다. 도선(道善)에 사는 도유사 이교년(李喬年)이 와서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0월 24일(을축)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도유사 이교년이 계속 머물렀다.

10월 25일(병인) 따뜻하였다. 도유사 이교년이 돌아갔다.

10월 26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7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8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남관(南關)에 들어가 머물러 《서전》을 읽었다.

10월 29일(경오) 아침에 비가 내리고 서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초3일 동지(冬至).

11월 1일(신미) 따뜻하였다.

11월 2일(임신) 따뜻하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3일(계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1월 4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5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6일(병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11월 7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

**273)** 장산(獐山)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이다. 마을 뒤쪽 산의 형상이 노루가 누워있는 형태와 같다고 하여 '장산(獐山)'이라고 이름하였다.

11월 8일(무인) 따뜻하였다.

11월 9일(기묘) 맑고 따뜻하였다.

11월 10일(경진) 맑고 따뜻하였다.

11월 11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2일(임오)

11월 13일(계미)

11월 14일(갑신)

11월 15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6일(병술)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이날은 바로 세자의 기상(暮祥)이다. 본현에 들어가서 곡반(哭班)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번(李東藩)과 함께 충렬사(忠烈祠) 북산(北山)에 올라 망곡(望哭)하고 상(喪)을 마쳤다.

11월 17일(정해) 비가 걷히고 하늘이 맑았다.

11월 18일(무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11월 19일(기축) 밤에 비가 내렸다.

11월 20일(경인)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았다.

11월 21일(신묘) 날씨가 청명하였다.

11월 22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3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4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25일(을미) 아침에 비가 진흙탕을 만들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개었다.

11월 26일(병신) 비가 걷히고 햇볕이 나오고 청명하였다.

11월 27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8일(무술) 날씨가 차가웠다.



11월 29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30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소월(小月). 17일 입춘(立春).

12월 1일(신축) 날씨가 추웠다.

12월 2일(임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농토를 사는 일로 아침에 강위창(姜渭昌)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12월 3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양홍준(梁弘俊)·이담령(李聃齡)·김백봉(金百朋)과 함께 정수사(淨水寺) 관음전(觀音殿)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공부하였다. 양홍도(梁弘度)도 따라왔다. 이 밤에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산이 특별한 곳을 구름과 안개로 감추니	山藏特地鎖雲烟
줄줄 서있는 봉우리들 앞뒤로 나열되었네	立立峯巒列後前
형체 밖 천지는 속세와 막혀 있으니	相外乾坤塵事隔
부처가 하늘 아래 별천지를 점유했구려	梵王能占別區天

벗 양홍준(梁弘俊)이 차운하였다.

12월 4일(갑진) 날씨가 따뜻하였다. 고성 사또 신무(申(王+戊)가 어제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2월 5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군 유징(金君有徵)거점(居接)에 뒤늦게 도착하였다. 김응규(金應奎)·황찬중(黃燦中)·이덕주(李德疇)가 술을 가지고 왔다.

12월 6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7일(정미)

12월 8일(무신) 날씨가 청명하였다. 내려갔다.

12월 9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재생(齋生)들이 관청에 들어가 통제사를 뵈고 붓과 떡을 받았다.

12월 10일(경술)

12월 11일(신해) 눈이 갑자기 땅 위를 덮었으나 햇볕이 나오자 금방 녹았다. 전임 통제사가

김공 흡(金公滄)이 통영을 떠나고, 신임 통제사 완춘군(完春君) 이공 수량(李公遂良)<sup>274</sup>이 통영에 부임해 왔다.

12월 12일(임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12월 13일(계축) 날씨가 청명하였다.

12월 14일(갑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12월 15일(을묘) 날씨가 청명하였다.

12월 16일(병진) 순상(巡相) 영성군(靈城君) 박공 문수(朴公文秀)가 순찰하는 길에 통영에 도착했다. 큰 형님이 오셨다.

12월 17일(정사) 청명하고 날씨가 추웠다.

12월 18일(무오) 매우 추웠다. 순상(巡相)이 고성(固城)과 거제(巨濟) 두 고을의 생도를 모아 세병관(洗兵館)에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부제(賦題)는 ‘가서 신원연을 만나다.[往見新垣衍]’<sup>275</sup>, 시제(詩題)는 ‘칼을 풀어 어부에게 주다[解劍贈漁父]’<sup>276</sup>였다. 나는 겨우 무료함을 면하니 가소롭다.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

12월 19일(기미) 매우 추웠다. 순상(巡相)이 통영을 나와 가셨다.

12월 20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1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2일(임술) 갑자기 추웠다.

12월 23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고 날씨가 추웠다.

---

**274** 완춘군(完春君) 이공 수량(李公遂良) : (인물) 이수량(1673~1735)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선보(善甫)이다. 1728년 (영조4) 청주에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따라 출정하여 공로를 세웠다. 이에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완춘군에 봉해졌다. 그 뒤 포도대장·평안도절도사·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지냈다. 시호는 충양(忠襄)이다

**275** 가서 신원연을 만나다 : (고사)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인 노중련(魯仲連)이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한단(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276** 칼을 풀어 어부에게 주다 : (고사)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가 난관을 피해 어부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게 되자 어부에게 그 보답으로 칼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어부가 사양하였다.

12월 24일(갑자) 온화하였다. 근래 서재에 머물면서 제술(製述)하였다.

12월 25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항북(項北)에 가서 양홍준(梁弘俊)·이담령(李聃齡)·김백봉(金百朋)·김응규(金應奎)·정태좌(鄭泰佐) 제군(諸君)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술에 취해 부축을 받고 서재에 돌아왔다.

12월 26일(병인) 추웠다. 가노(家奴) 금동(今同)이 말을 끌고 들어와 나는 즉시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7일(정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갈산(葛山)에 사는 백순건(白順健)이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가서 보고 곧장 돌아왔다.

12월 28일(무진) 바람이 불고 추웠다.

12월 29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금년은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다. 시가[市直]가 조(租) 14,5말, 미(米) 6말 혹은 6말 반이다.

#### 경술년

1월 대월(大月). 3일 우수(雨水), 18일 경칩(驚蟄).

2월 소월(小月). 3일 춘분(春分), 18일 청명(清明).

3월 대월. 4일 곡우(穀雨), 2일 입하(立夏).

4월 소월. 5일 소만(小滿), 24일 망종(芒種).

5월 대월. 8일 하지(夏至), 23일소서(小暑).

6월 대월. 3일 초복(初伏), 9일 대서(大暑), 25일 입추(立秋).

7월 소월. 3일 말복(末伏), 10일 처서(處暑), 26일 백로(白露).

8월 대월. 12일 추분(秋分), 28일 한로(寒露).

9월 소월. 13일 상강(霜降), 28일 입동(立冬).

10월 대월. 13일 소설(小雪), 28일 대설(大雪).

11월 소월. 13일 동지(冬至), 28일 소한(小寒).

12월 대월. 13일 납일·대한(大寒), 28일 입춘(立春).

1월 대월(大月).

1월 1일(경오) 밤에는 청명하다가 새벽에 북풍이 갑자기 불어 가벼운 안개를 휘감고, 한 무리의 먹구름이 동쪽 하늘을 가로질러 때로 서쪽에 걸쳐 있었다. 낮에 서북풍이 갑자기 불어왔다. 닭이 혹 두세 차례 울다가 그쳤고, 혹은 십여 차례 넘게 우는 닭이 있었는데, 무슨 징조인 줄 모르겠다.

1월 2일(신미) 서풍이 먼지를 휘말고 날씨는 매우 추웠다. 중촌(中村)의 여러 아이들이 작야(鵲野)에 다리를 만드는데 나례(儼禮) 잡귀를 쫓는 의식)하느라 산 안팎 각 마을에서 곡식을

구하었는데, 이날 먼저 생수동(生水洞)을 향해 갔다.

1월 3일(임신) 바람이 불고 매우 추웠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하였는데, 저녁에 이르러 김군 백봉(金君百朋)도 와서 모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월 4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5일(갑술) 바람의 기운이 어제보다 조금 따뜻하였다. 김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방문했던 친족 및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 지금 우선 빼놓았다.

1월 6일(을해)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 올 봄 홍진(紅疹)이 크게 발발하여 병들어 죽은 사람이 10명 중 8, 9명이다.

1월 7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8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남관(南關)에 들어가니, 김군 유징(金君有徵)이 어제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1월 9일(무인) 비가 혹 바람에 따라 보슬보슬 내렸다. 김유징이 영영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그대에게 묻노니 어디로 가는가	問君何處逝
그저 내게 수건에 눈물 적시게 하네	空使我沾巾
예전에 금란지교 맺었는데	昔托金蘭契
지금엔 저 세상 사람 되었구려	今爲寂莫人
모범을 이로부터 볼 수 없으니	典刑從此隔
회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	懷抱向誰伸
한 번 이별이 천고가 되니	一別將千古
서당은 이미 옛 자취 되었네	黌堂迹已陳

1월 10일(기묘) 새벽에 보니, 비가 겨우 먼지를 적시자마자 그쳤다. 눈이 미륵봉(彌勒峯)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지난밤에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판에는 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월 11일(경진)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날씨가 추웠다.

1월 12일(신사)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13일(임오) 가랑비가 내려 가벼운 먼지가 진흙이 되었다. 이담령(李聃齡)·김백봉(金百朋)·김응규(金應奎)·양홍도(梁弘度)와 더불어 정수사(淨水寺) 관음전(觀音殿)에 들어가 독서하였다.

1월 14일(계미) 해가 나왔다.

1월 15일(갑신) 해가 나왔다.

1월 16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파접(罷接)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중에 비가 내렸다.

1월 17일(병술) 비가 내려 물이 솟아나왔다.

1월 18일(정해) 비가 여전히 개지 않았다. 읍에 들어갔다. 겸관(兼官)인 사천(泗川) 사또 조하신(曹夏臣)이 당장(堂長) 2인과 재임(齎任) 3명과 함께 각각 찰(籤)을 잡고 고강(考講)하였다. 당시 도유사(都有司)는 이교년(李喬年), 장의(掌議)는 이형종(李亨宗)·허종(許琮)이다. 나는 저녁에 돌아왔다.

1월 19일(무자)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추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남아로 일찍이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	男兒早讀五車書
큰 눈을 뜨니 세상은 텅 빈 듯하네	大眼開來世若虛
큰 골짜기 용이 아직 펼치지도 않았는데	巨壑龍圖猶未展
아이들은 잡고기와 같다고 조롱하네	群童譏笑等凡魚

1월 20일(기축) 햇벌이 나오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향교에 가서 《시전(詩傳)》을 빌려서 왔다. 지난해 순제(巡題)를 지금 비로소 찾으러 왔다.

1월 21일(경인) 따뜻하였다.

1월 22일(신묘) 비가 내렸다.

1월 23일(임진) 빗물이 부엌 밑에서 나왔다.

1월 24일(계사) 비가 개지 않다가 저녁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

1월 25일(갑오) 습한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내가 지난 번 남관(南關)에 사는 제군(諸君)과 더불어 의상암(義湘庵)에서 공부하자고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오후에 산에 올라갔다.

1월 26일(을미)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구름이 비로소 흩어졌다. 이날 저녁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왔다.

1월 27일(병신) 바람이 불고 따뜻하였다.

1월 28일(정유) 날씨가 청명하였다. 안정사(安靜寺) 선당(禪堂)으로 옮겨 거처를 잡았다.

1월 29일(무술) 구름이 짙게 끼고 따뜻하였다. 《서전(書傳)》을 읽었다. 이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입으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절간 창문 앞 독서 끝내자 시냇물 들리는데	禪窓讀罷聽溪聲
가슴 속 다시 맑아짐을 갑자기 느끼구나	頓覺胸襟轉更清
그윽한 흥취로 한 구절 시 짓자	幽興纔成詩一句
은은히 들리는 종소리가 삼경을 알리네	疎鍾已報夜三更

1월 30일(기해)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개었다. 이군 담령(李君聃齡)이 왔다.

2월 소월(小月). 시가[市直]가 조(租)13,4말, 미(米) 6두말이다.

2월 1일(경자)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식후에 햇벌이 나왔다. 이날 밤에 입으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석탑 <sup>277</sup> 에는 먼지 없고 구름만 있는데	石榻無塵但有雲
새소리 여울소리 함께 어지럽네	鳥聲灘響共紛紛
앞 숲이 하룻밤 사이 새 비를 맞아	前林一夜逢新雨
봄빛 띠는 산은 비단 무늬로다	山帶春光畫錦紋

또

온 세상 사람들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舉世無人識我心
한 조각 나그네 수심은 누굴 위해 깊어졌나	羈愁一片爲誰深
하늘이 장풍 만드는 힘 빌려준다면	天公若借長風力
우선 해 가린 뜬 구름을 말끔히 씻어내리라	且掃浮雲蔽日陰

2월 2일(신축) 추웠다.

2월 3일(임인) 따뜻하였다. 집안 생각이 나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환한 등불 심지 돋우며 잠 못 이루는데	挑盡清燈轉不眠
돌아가고픈 마음 북당 <sup>278</sup> 앞을 길이 휘감네	歸心長繞北堂前
하늘이시여 명성을 일찍 이루게 하시어	皇天願使成名早
가까운 날 이름 날려 부모 현양하게 하소서	揚立榮親在近年

277) 석탑(石榻) : 폭이 좁고 길며 낮은 돌 침상으로, 신선이 눕는다는 침상이다.

278) 북당(北堂) :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으로,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또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산재 설렁해서 음식에 고기 없어	山齋冷落食無魚
탄협 <sup>279)</sup> 노래 끝나자 나물 밥 괴롭구나	彈鋏歌成苦菜蔬
다행히 진수성찬으로 맘껏 식사하면	幸得珍羞多飽喫
지금 내 기력이 처음처럼 건강할 텐데	今吾氣力健如初

2월 4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학생 가르치며 <sup>280)</sup> 괴로이 혀로 먹고 살았나 <sup>281)</sup>	幾向緇帷苦舌耕
책 속 스승과 제자는 내 마음 상기시키네	卷中師友起余情
옆 사람들은 글 읽는 태도 웃지 마시게	傍人莫笑啣唔態
남아 대장부가 사해에 이름 떨치리라	會做男兒四海名

법징(法徵)이 저녁을 공양하였다.

2월 5일(갑진) 오후에 비가 내렸다. 눈앞의 경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아름다운 산천 형형색색 기이하니	佳山麗水色色奇
새 울고 꽃 피운 중춘 시절일세	鳥啼花發仲春時
신령한 승경지 어이 헛되이 저버리리오	靈區勝景寧虛負
스님 불러 일으켜 다시 시 읊조리라	喚起眞僧更詠詩

2월 6일(을사) 가랑비가 오후가 되자 비로소 걷혔다. 눈앞의 경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비 갠 앞 숲에는 대승 <sup>282)</sup> 이 울고	雨歇前林戴勝鳴
사방 교외는 요란하게 소 모는 소리	四郊喧起叱牛聲
남아 스물 살에 공명이 늦었으니	男兒二十功名晚
다시 봄이 오니 곱절이나 서글퍼라	更見春來倍愴情

**279)** 탄협(彈鋏) : (고사)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의 객관(客館)에 수많은 식객(食客) 가운데 하나인 풍환(馮驩)이 처음에 자기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자 칼자루를 치며 노래하기를 “긴 칼 차고 돌아왔으나 식탁에 고기가 없네.” 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로, 다산이 조정에 벼슬하여 재주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포부를 펴보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 《史記 卷75 孟嘗君傳》

**280)** 학생 가르치며 : (고사) 원문 ‘치유(緇帷)’는 제자를 가르치는 곳을 뜻한다. 《장자(莊子)》 〈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의 숲에서 노닐고 행단의 위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통기며 노래를 불렀다.[孔子遊於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 하였다.

**281)** 혀로 먹고 살았나 : 원문 ‘설경(舌耕)’은 혀로 밭을 간다는 말로 책을 읽는 것, 또는 학생을 가르쳐 생계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282)** 대승(戴勝) : 새 이름. 이 새가 뿔나무에 내려와 앉을 때면 뿔이 피므로 이 새가 뿔밭에 내려오면 잠박을 쟁겨서 누에칠 준비를 한다. 《禮記 月令》

또

밤중 비 뿌린 앞산에는	雨過前山夜
꽃들이 막 향기 토해 내구나	群芳始吐香
소나무 한 그루만이 변함없이	孤松不隨變
만고토록 홀로 푸르네	萬古獨蒼蒼

철훈(哲勳)이 저녁을 공양하였다.

2월 7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눈앞의 경물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산 남쪽에 비 개어 습한 구름 걷히니	山南雨歇濕雲開
발 걷고 달빛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라	最愛牽簾月影來
님 계신 서쪽 소식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要待西方消息到
황혼녘 여관에서 홀로 배회하네	黃昏旅館獨徘徊

2월 8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등(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긴 등불이 밤빛 빼앗아	張燈奪夜色
달과 광채를 다투네	與月爭光明
초승달이 오래 갈 수 있으리	初月其能久
환한 등불이 오경까지 비추구나	清燈達五更

우습다. 이담령과 김백봉 두 군(君)이 모두 화답하였다.

2월 9일(무신) 날씨가 따뜻하고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었다.

2월 10일(기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윤희(允熙)가 아침밥을 공양하였다.

2월 11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협규(浹糾)가 아침밥을 공양하였다.

2월 12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3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선오(禪悟)가 저녁밥을 공양하였다.

2월 14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서전(書傳)》을 다 읽고, 또 《이소경(離騷經)》을 읽었다.

2월 15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6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7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8일(정사) 서늘하다가 따뜻하였다. 밤에 들어왔다.

2월 19일(무오) 새벽에 천둥이 크게 치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비가 걷혔다.

2월 20일(기미) 따뜻하였다. 오후에 의상암에 올랐다. 두견화(杜鵑花)가 막 피는 모습을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동방 사신이 봄 돌아왔다 알려주어	東方使者報春歸
산 북쪽 먼저 도착하여 길쌈 옷 입혔네	先到山陽被績衣
주인으로 객을 맞이하는 데 예법 있어	以主迎賓知有禮
꽃들 아래 가도록 짧은 지팡이 재촉하네	却催花下短筇飛

2월 21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의상암에 머물렀다.

2월 22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후에 심군 익룡(沈君翼龍)이 와서 운자를 부르자, 내가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시객이 한가로움 찾으려고 지팡이 들고	詩客探閑擲短筇
옥동에 함께 와서 세속 자취 씻어버리려네	全來玉洞濯塵蹤
산신령 역시 노니는 사람 뜻을 아시면	山靈亦解遊人意
동군 <sup>283</sup> 에게 분부 내려 비단 봉우리 만드소서	分付東君錦作峯

또

내 벗 기다려 <sup>284</sup> 한가한 지팡이 들어서	印須印友擲閑筇
산신령에게 분부 내려 객을 인도해야지	分付山靈引客蹤
가슴 속 큰 회포 한 번 펼치기 위해	胸裡雄懷思一敘
내일 아침 제일 높은 봉우리 올라가세	明朝期陟最高峰

내일 제일봉(第一峯)에 올라 경치를 구경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또 운자를 부르게 하여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조물주 별천지를 처음 열어주어	化工新闢別區天
먼저 스님 <sup>285</sup> 에게 점유하게 하였구나	占得還教卓錫先

**283)** 동군(東君) : 봄을 맡은 신(神).

**284)** 내 벗 기다려 : (고사) 《시경》 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 “뱃사공이 어서 타라 부르지만,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안 갈라네. 나만이 안 건너가는 것은 나와 맘 맞는 벗을 기다려서라오.[招招舟子 人涉印否 人涉印否 印須我友]” 한 데서 온 말인데,

부처가 멀리서 산 반쪽을 나눠주면<sup>286)</sup> 佛氏遙分山半面  
맑은 창가 여가에 참 신선 배우리라 晴窓暇日學眞仙

안정사(安靜寺)로 돌아왔다.

2월 23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은봉(隱峯)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 않았다. 오후에 이담령과 김백봉 두 군(君)이 자리를 파하고 돌아갔고,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4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두보 시를 배웠다.

2월 25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6일(을축)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2월 27일(병인) 따뜻하였다.

2월 28일(정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현재 고성 사또 홍후 이원(洪侯以源)의 정사가 이전 사또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이전 신무 사또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절구시 한 수를 입으로 읊조렸다.

백리 땅 선정 소리<sup>287)</sup>가 비로소 울려 百里絃歌始有聲  
남쪽 지방에 맑은 덕성이 나타나 기뻐했지<sup>288)</sup> 南天喜見德星明  
곤궁한 백성 다행히 새 교 窮民幸得霑新化  
화 입었으니 窮民幸得霑新化  
바닷가가 도성과 멀다고 어이 아쉬워하리오 海國何嫌遠帝城

2월 29일(무진) 하루 종일 바람이 불었는데 따뜻하였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기사)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285)** 스님 : (고사) 원문의 '탁석(卓錫)'은 석장(錫杖)을 꽂는다는 뜻으로, 곧 석장을 날려 터를 잡은 양(梁)나라 보지 선사(寶志禪師)의 고사를 가리킨다. 서주(舒州)에 있는 잠산(潛山)은 풍광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보지 선사와 백학도사(白鶴道士)가 잠산의 가장 빼어난 산기슭에 서로 터를 잡으려고 다투다가, 양 무제(梁武帝)의 주선으로 백학도사는 학(鶴)을 날려 그 자리로 보내고, 보지 선사는 석장을 날려 보내어 먼저 그 자리에 도착시키는 자가 터를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결과 보지 선사의 석장이 백학도사의 학보다 먼저 산기슭에 날아가 꽂혔다고 한다. 《神僧傳》

**286)** 산 반쪽을 나눠주면 : (고사) 원문의 '분산(分山)'은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경치 좋은 한 구역을 나누어 나란히 은거하는 것을 뜻한다. 송(宋)나라 장영(張詠)이 포의(布衣)로 있던 시절, 화산(華山)에 은거하고 있는 희이(希夷) 선생 진단(陳搏)을 만나서 "원컨대 화산 반쪽을 나누어 살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하니, 진단이 "공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하였던 데서 유래하였다.

**287)** 현가(絃歌) : (고사) 거문고·비파 등을 연주하며 시가(詩歌)를 읊는 것이다. 자유(子游)가 노나라 무성의 읍재(邑宰)가 되어 백성들에게 예악을 가르쳤으므로, 곳곳마다 현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다. 《論語 陽貨》

**288)** 경성(景星) : (고사) 덕성(德星) 혹은 서성(瑞星)이라고도 하는데, 왕도정치가 펼쳐지는 시대에만 나타난다고 한다.

3월 2일(경오) 비가 개었다.

3월 3일(신미) 햇벌이 나왔다. 재종 정창세(丁昌世)와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3월 4일(임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저녁에 구름이 걷혔다.

3월 5일(계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아침 전에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柳妹兄)이 왔다가 식사를 한 후 돌아갔다.

3월 6일(갑술) 가끔 구름이 끼고 따뜻하였다. 올봄 은정(銀亭)에 있는 나무는 처음에는 일시에 활짝 잎사귀가 필 듯했는데, 끝내 혹은 2, 3번 나누어 핀 듯하다.

3월 7일(을해)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나는 근자에 허리 통증이 있어 연일 과업(課業)을 빼먹었다.

3월 8일(병자)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9일(정축) 비가 어제부터 그치지 않고 내려 시냇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3월 10일(무인) 날씨가 맑게 개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통영 중군(中軍)이 본현(本縣)에 순시 차 도착했다가 곧장 진해(鎭海)로 향하였다.

3월 11일(기묘)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3월 12일(경진) 비가 내렸다.

3월 13일(신사) 햇벌이 나왔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3월 14일(임오) 햇벌이 나왔다. 심군이 돌아갔다.

3월 15일(계미)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 정도 있었다.

3월 16일(갑신) 비가 그치지 않아 샘물이 용솟음쳤다.

3월 17일(을유) 따뜻하였다.

3월 18일(병술) 더 따뜻해졌다. 들으니, 올봄에 홍진(紅疹)이 조선팔도에 한 그물처럼 퍼져 혹은 온 집안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으며, 새로 시집 장가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만 사람, 재주가 뛰어난 준재로 요절한 자가 그 수가 이루 다 셀 수가 없다고 하니, 이 어찌

작은 번고이겠는가.

3월 19일(정해) 비가 내렸다.

3월 20일(무자)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새벽꿈에 흰 용이 들보를 둘러싸고 옥처럼 광채가 빛났다. 밤에 꿈을 꾸니 흰 학이 뜰 문으로 날아 왔다.

3월 21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2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비가 내렸다.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방문하였다.

3월 23일(신묘) 가끔 구름이 끼고 더웠다. 김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작별하고 돌아갔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매형이 술을 보내 와서 부모님께 드렸다.

3월 24일(임진) 아침에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안개처럼 내렸다. 오후에는 동풍이 세차게 불어왔다. 공부를 하였다.

3월 25일(계사)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는데, 바람의 기세가 여전히 세차게 불었다.

3월 26일(갑오)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개이지 않다가 오후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샘물이 용솟음치며 나왔다.

3월 27일(을미) 식후에 비가 갑자기 개었다.

3월 28일(병신)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가끔 태양이 보이기도 했지만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궁녀가 궁중에서 저주하여 세자(世子)의 죽음을 초래한 번고를 일으켰는데 지금 일이 발각되어 다시 추국청(推鞠廳)<sup>289</sup>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3월 29일(정유)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다가 오후에 빗줄기가 드문드문 내렸지만 구름은 여전히 습하였다.

3월 30일(무술) 오후에 햇벌이 나오고 날씨가 더웠는데, 저녁에는 다시 구름이 끼었다. 아객(衙客) 이동규(李東奎)·오영후(吳永厚)가 편지를 보내 초대했는데 함께 공부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가서 만나보고 남관(南關)에서 거접(居接)하고 있다고 사양하고,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저녁 김상인(金尙仁)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불타버렸다.

4월 소월(小月).

---

**289)** 추국청(推鞠廳) : (제도) 조선시대에 왕명에 따라 국사범을 신문하거나 그 절차를 ‘추국’이라 하며, 추국청은 의금부에 설치하였다.

4월 1일(기해) 다시 비가 내렸다. 심군(沈君)이 비를 맞고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4월 2일(경자) 비가 개고 하늘이 맑았다. 남관(南關)에 들어갔다.

4월 3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군 백봉(金君百朋) 집을 주인집으로 정하고 공부를 하였다.

4월 4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5일(계묘) 아침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4월 6일(갑진) 날씨가 청명하였다.

4월 7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8일(병오)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심군(沈君)이 뒤늦게 와서 거접(居接)하였다.

4월 9일(정미) 비는 갠으나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4월 10일(무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11일(기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12일(경술)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벌이 나오기도 하였다.

4월 13일(신해) 아침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14일(임자) 가랑비가 갑자기 내렸다.

4월 15일(계축) 매우 더웠다.

4월 16일(갑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4월 17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북관(北關)으로 옮기길 독발(督發)하기 위해 파견된 어사(御史) 민공 익수(閔公益洙)가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4월 18일(병진) 햇벌이 나왔다. 어사(御史)와 통제사가 누선(樓舡)을 바다에 띄우고 유람하였다.

4월 19일(정사)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4월 20일(무오)

4월 21일(기미)

4월 22일(경신)

4월 23일(신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4월 24일(임술) 비 올 기색이 있었다.

4월 25일(계해) 햇벌이 나왔다.

4월 26일(갑자) 비가 쏟아졌다.

4월 27일(을축) 햇벌이 나왔다가 저녁에 흐렸다.

4월 28일(병인) 비가 쏟아졌다.

4월 29일(정묘) 온화하였다. 이상으로 시(詩) 18수를 지었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무진)

5월 2일(기사)

5월 3일(경오)

5월 4일(신미)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5월 5일(임신) 아침에 흐렸다. 여러 친구들과 세병관(洗兵館)에 들어가 각전(角戰 씨름)을 구경하였다.

5월 6일(계유) 비가 쏟아졌다.

5월 7일(갑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벌이 나오기도 하였다.

5월 8일(을해) 비가 내렸다. 가노(家奴) 금동(今同)이 와서 집안 소식을 전하였다.

5월 9일(병자)

5월 10일(정축)

5월 11일(무인)

5월 12일(기묘) 이상 비가 내렸다.

5월 13일(경진)

5월 14일(신사)

5월 15일(임오)

5월 16일(계미) 이상 가랑비가 내렸다.

5월 17일(갑신) 비가 쏟아졌다.

5월 18일(을유)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5월 19일(병술)

5월 20일(정해)

5월 21일(무자)

5월 22일(기축) 이상 날씨가 비가 가끔 쏟아졌다.

5월 23일(경인) 가랑비가 가끔 내리고 습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5월 24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태양이 가끔씩 보였다.

5월 25일(임진) 비가 쏟아졌다.

5월 26일(계사) 비가 개고 햇볕이 나왔다.

5월 27일(갑오) 아침에 비가 내렸다.

5월 28일(을미) 가끔 가랑비가 내렸는데 햇볕이 나왔다.

5월 29일(병신) 가랑비가 내렸다. 시(詩) 30수를 지었다.

5월 30일(정유) 저녁에 비가 내렸다. 이 당시 무고(巫蠱)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정사효(鄭思孝) 집에까지 그 재앙이 이르러 처자(妻子)를 적몰하고 저가(瀝家)<sup>290</sup>하였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무술)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일식(日食)이 있었다. 이 때 괴질(怪疾)이 호서(湖西)에서부터 시작되어 경향(京鄕) 각지에 두루 퍼졌는데 소고기[牛肉]로 치료하였다.

6월 2일(기해)

6월 3일(경자) 이상 날씨는 아침에 안개가 사방을 가리다가 금세 사라지고, 날이 찌는 듯이 더웠다.

---

**290)** 저가(瀝家) : (제도) 나라에 반역(反逆)을 도모하거나 강상(綱常)에 저촉된 중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던 형벌.

6월 4일(신축) 아침에 안개가 사방을 가리다가 금세 사라지고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5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금노(今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괴질에 걸렸기에 소고기[牛肉]로 치료하였다.

6월 6일(계묘) 날씨가 매우 덥다가 저녁에 다시 구름이 끼고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7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니가 지난달 그믐 사이부터 몸이 편찮으셨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아내가 또 괴질에 걸려 손발에 동통(疼痛)이 있자 소고기로 치료하였다. 이 때 순상(巡相)이 각 읍과 마을에 관(關)을 보내 소를 도살하여 괴질을 치료하려고 하고, 소 똥즙[牛糞汁] 또한 좋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6월 8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니의 병환에 조금 차도가 있었다. 조보(朝報)를 보니, 4월 28일 대궐 북쪽 서리가 내렸는데, 눈처럼 두꺼웠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발이 네 달린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즈음 경기지역에 큰 비가 내려 지세가 크게 변했다고 한다.

6월 9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0일(정미) 어제처럼 덥고 동풍이 또 불었다.

6월 11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난달 25일 이후 비록 더러 비가 내렸더라도 흠을 폭 적실 수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극히 덥기 때문에 봉천전토(奉天田土)<sup>291</sup>는 대부분 메말랐다.

6월 12일(기유) 동풍이 불다가 그치고, 많이 흐리고 햇볕이 적었다. 허흡(許迺)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6월 13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허합(許迺)이 떠나갔다. 이때 괴질이 있었다. 세속에서 ‘스리치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증상이 먼저 손발부터 쭈시고 아프다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 부분부터 아래로 쏠리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소고기를 써서 치료하였다. 그러나 통증이 위로 올라가면 가볍고, 아래로 쏠리는 것은 위중하다고 하였다. 또 ‘더우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증상이 마치 광란(霍亂)<sup>292</sup>과 같은데 풀을 태워서 남은 재를 물이나 술에 타서 먹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또 ‘씩씩귀(鬼)’가 있는데, 먼저 그 귀신을 만나면 ‘씩씩’하고 사망에서 다투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이 귀신은 칼을 잡고 있거나 혹은 깃발을 잡고 있는데, 백명 혹은 천명이 무리를 지어 빙빙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 자는 갑자기 죽게 된다. 그런데 곧바로 구리그릇을 쳐서 큰소리 내고 놀라게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쫓아내면 살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괴상한 증세에 걸린 자가 두세 번

291) 봉천전토(奉天田土) : 기출

292) 광란(霍亂) : 몸살이 들고 열이 심하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가슴과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증세이다.



홀쩍 뛰어 오다가 죽는데, 반드시 한 번 뛰었을 때 결박해서두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후에 살려낼 수 있다고들 한다. 이러한 요사스런 이야기들이 길에 떠들썩하게 전해지니 사람이 혹 광란을 앓다가 설사 등의 대수롭지 않은 병도 싫어해서 곧바로 괴질이라고 하면서 기필코 소고기를 쓰고, 또 떠들썩하게 큰소리를 내니, 어찌면 시사(時事)의 허탄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괴이하고 괴이하다. 오늘 밤에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지어 다니며 징이나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괴귀(怪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6월 14일(신해)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익룡(沈翼龍)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6월 15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심군이 떠나갔다. 나는 읍에 들어가 아객(衙客) 오영후(吳永厚)·이동규(李東奎)를 보고, 나와서 심군 집에서 묵었다. 밤에 월식이 있었다.

6월 16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관아에 들어가 사또를 문후하고서 인하여 아객(衙客)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순상의 관문(關文)을 보니, 매귀(埋鬼)<sup>293</sup>하는 일로 민간을 놀래고 소란스럽게 하며 극히 요망스러우니 곧장 절대로 금지한다고 하였다.

6월 17일(갑인) 동풍이 불다가 그쳤다. 아침 구름은 갑자기 비를 내렸다.

6월 18일(을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아침에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그쳤다. 무더위[盾威]<sup>294</sup>가 더 심하였다. 이날 동회(洞會)에 이진태(李進太)·진성(進成) 및 천석(千石) 등 형제, 사촌 형제들이 서로 다투어 화목하지 못한 일로 장차 관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6월 19일(병진) 동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 아침에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니 어제처럼 내렸다. 오곡(五穀)이 시들고 말라 농사가 걱정스럽다.

6월 20일(정사) 동풍이 구름을 몰고 와서 어제보다 더 흐렸다.

6월 21일(무오) 동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으며 가랑비가 약간 내려 이슬처럼 풀잎을 적셨다.

6월 22일(기미) 흐리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며, 바람이 거센다가 잔잔해졌다. 형제들과 매형 이여섭(汝涉)과 아우 창세(昌世)와 함께 춘원포(春元浦)에서 물고기를 잡아 친정(親庭) 아버님께 올렸다. 계동(契洞)에 사는 큰 누님이 왔다.

**293)** 매귀(埋鬼) : 원래 민속신앙으로, 음력 선달 그믐날 밤 또는 정월 초순에 풍물을 치며 잡귀를 물리치는 마을 굿. 부락을 한 바퀴 돈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농촌의 민속 행사이다.

**294)** 무더위[盾威] : (고사) 여름날의 태양은 두려움을, 봄날의 얼음은 조심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 춘추 시대 노국(潞國)의 대부(大夫) 풍서(鄭舒)가 진(晉)나라 가계(賈季)에게 “진(晉)의 대부 조돈(趙盾)과 조쇠(趙衰) 중에 누가 더 어진가?”라고 묻자, 가계가 “조쇠는 겨울날의 태양이요, 조돈은 여름날의 태양이다.[趙衰冬日之日也 趙盾夏日之日也]”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주(註)에 “겨울 햇빛은 사랑할 만하고, 여름 햇빛은 사람을 두렵게 한다.[冬日可愛 夏日可畏]”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7年》

6월 23일(경신) 날씨가 찌는 듯하였다. 역적 정사효(鄭思孝)·도룡(道隆) 부자, 이해탁(李垓) 형제, 박필웅(朴必雄), 박재창(朴再昌)·도창(道昌), 궁녀 순정(順貞)·세정(世貞) 등을 토벌한 데에 대한 사문(赦文)이 장차 도착하기에 나는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6월 24일(신유) 타고 찌는 듯하였다. 사차관(赦差官)이 저물녘에 읍에 들어왔다. 본 고을 사또는 곤양(昆陽)의 옥사를 심리하다가 지금 사차관과 함께 돌아왔다.

6월 25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문(赦文)은 거제(巨濟)로 향하고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갔는데, 어제 저물녘에 통영의 동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괴귀(怪鬼)가 왔다’라고 소리치자, 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두 사람이 소리 질러 백 집, 천 집에 퍼지고 성 안팎으로 퍼져 해평리(海坪里)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남녀노소가 각자 구리, 철, 나무, 돌기물을 잡고 시끄럽게 쳐서 소리를 내느라 천지가 진동하였는데, 3일 밤을 이와 같이 했고 어제 밤이 그 중에 가장 심했다고 한다.

또 총을 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총을 쏘았던 6명을 수색해 찾아내었는데 통제사가 장차 효시(梟示)하려고 하여 세병관(洗兵館)에서 대대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군의 위엄이 성대하게 펼치고 남문 밖에 장막을 설치하고 두 병비(兵裨)로 하여금 참수하는 것을 입회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총소리가 나자 도수(刀手)가 나아가려고 하자 통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에워싸고 뜰을 가득 메워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어 죽음을 면하였다. 가소롭고 괴이하다.

6월 26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제사가 아침에 어제 죄인을 치죄했는데 곤장을 각기 10대씩 때렸다. 나는 오후에 말을 재촉하여 출발했는데 진치(晋峙)에 이르러 구름이 가득하고 우레 소리가 쳤다. 그리고 멀리에서부터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27일(갑자)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 은정(銀亭)에서 동제(洞祭)를 지냈는데 나는 소소포(召所浦)에서 비장(裨將)들 모이는데 가서 참석하여 회와 탕을 먹고, 취해서 저물녘에 돌아왔다.

6월 28일(을축) 찌는 듯하였다. 사또께서 벽방산(碧芳山)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

6월 29일(병인) 닭이 처음 울적에 우리가 치고 번개가 번쩍거렸는데 비가 겨우 먼지를 적시고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나오고 찌는 듯이 더웠다. 현재 본읍에 조화를 손상시키는 변고가 많이 발생했다. 구만(九萬)에는 수숙(嫂叔)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간에 서로 해치려고 하고, 동문(東門)에서 중과 부녀자가 간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두 감옥에 갇혀있다. 아, 읍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어찌 오래 살 수 있는 곳이리오.

6월 30일(정묘) 찌는 듯이 덥다가 오후가 되면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나 흙먼지도 적시지 못하였다. 저녁에도 비가 잠깐 내려 땅을 적셨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고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시가[市直]가 조(租) 9말, 미(米) 4말이다.

7월 2일(기사)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3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4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 때 각 청(廳), 각 마을로 하여금 산천(山川)에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나는 벽방산(碧芳山) 축문(祝文)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벽방산	碧芳之山
철성 <sup>295</sup> 의 동악이로다	鐵城東岳
지리산에서 나온 산맥	智異分脉
용수암 <sup>296</sup> 아울러 서있구나	龍水並立
바다 눌러 보고 하늘 닿을 듯	壓海摩天
구름 일으켜 비 내리게 했지	興雲作雨
묵묵한 감응 어긋나지 않아	冥應不忒
영험한 신령 예로부터 있었지	靈異自古
벽방산 주변 못사람들	環山有衆
입은 은택 끝이 없어라	被澤無涯
여기에서 낳고 성장해서	生於長於
이곳에 쌓아두고 보관했지	積斯倉斯
지금 어찌하여 한번 가뭄이	今何一早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되어	自夏而秋
한발로 곡식이 타들어가는데	谷糵其曠
단비가 흐르지 않아	甘霖不流
사방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龜坼四野
만백성이 물고기처럼 입만 빼금거리니	魚喁萬姓
애처롭다 우리 백성	哀我斯民
보전하기 어려운 건 대명 <sup>297</sup> 이요	難保大命
아프면 반드시 부르기 마련이네	疾痛必呼
분주히 달려와서 하소연하니	駿奔來訴
바퀴 자국의 붕어 목숨 <sup>298</sup>	期涸鮒命

**295** 철성(鐵城) : (지명) 고성(固城)의 군명 중 하나이다. 고성은 고자(古自)·고주(固州)·철성으로 불리웠다.  
**296** 용수암(龍水巖) : (지명) 고성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샘이 있는데 바닥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깊다. 가을 때에 비 내리기를 빌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고성현(固城縣)》  
**297** 대명(大命)이 …… 다가왔다 : (고사) 나라의 운명이 급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시경(詩經)》 〈대아(大雅) 운한(雲漢)〉에, 죽음의 운명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의 ‘대명근지(大命近止)’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298** 바퀴 자국의 붕어 목숨 : (고사) 붕어 한 마리가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 있으면서 길 가는 장주(莊周)에게, 한 말이나 한 되쯤 되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장주가 장차 오월(吳越) 지방으로 가서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 대주겠다고 하자, 그 붕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장 한 말이나 한 되쯤의 물만 얻으면 살

은혜로운 과도 기대하네	沾恩波浩
신령은 보우하사	神其保佑
위로 푸른 하늘 열어	上啓蒼旻
속히 큰비 내려주시어	速施大霈
우리 곤궁한 백성 살려주소서	活我窮民
높디높지만 멀지 않으니	高高不迺
백성들을 보호하소서	元元可保
삼가 희생과 술 차려 놓고	謹以牲酒
정성스럽게 경건히 고합니다	用伸虔告

이날 저녁에 경종대왕(景宗大王) 비(妃) 어씨(魚氏)께서 지난달 29일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7월 5일(임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이날 아침 동네 사람이 모여 은정(銀亭) 아래에서 망곡(望哭)하였다. 내일은 바로 외조부 기제사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고연리(古延里)에 가셨다. 나는 향교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7월 6일(계유) 매우 더웠다. 나는 곡반(哭班)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7월 7일(갑술)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가랑비를 내리다가 곧바로 그치고, 저녁에도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쳐 땅에 한 치 정도 스며 들었다.

7월 8일(을해) 닭이 처음 울 때부터 천둥이 치고 비가 주룩주룩 내려 말랐던 샘에 물이 가득 차고, 식후에도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쳤다. 지금 사또 홍후 이원(洪侯以源)이 무신년 공신으로 가선대부의 자급에 올랐기에 전례에 따라 전문(箋文)을 봉해 올리기 때문에 나에게 전문을 쓰도록 청하여 나는 하는 수 없이 읍에 들어갔다.

7월 9일(병자) 햇벌이 나오고 더웠다. 본읍에서는 오늘 새벽에 성복(成服)했는데 흰 갓[白笠]을 쓰고 삼베 띠[麻布帶]를 두르고 기년(基年)을 추도했다. 이날 전문(箋文)을 필사했는데 주상전하는 백침(白籤 흰 찌), 대왕대비전은 청침(靑籤 푸른 찌), 중궁전은 백침 이렇게 세 폭(幅)을 저녁에 봉(封)하여 보냈다. 관아에서 장지(壯紙) 1속, 백지(白紙) 2속, 황필(黃筆) 3자루, 진현(眞玄, 떡) 3개를 주어 그 수고를 사례하였다. 이 밤에 황덕중(黃德中) 집에서 묵었다.

7월 10일(정축) 더웠다. 관아에 소장되어 있던 《감란록(勘亂錄)》<sup>299)</sup> 한 질 4권을 빌려 와서 다 열람하였다. 이여함(李汝涵) 노형이 방문하여 그대로 머물렀다.

---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일찌감치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매우 곤경에 처한 것을 비유한다. 《莊子 外物》

**299)** 《감란록(勘亂錄)》 : (책명) 1728년(영조 4)에 일어났던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의 난에 대한 전모를 정리한 책자. 1729년(영조 5)에 송인명(宋寅明)·박사수(朴師洙)가 각종 자료를 모아 간행하였다.

7월 11일(무인) 이여함 노형이 돌아갔다. 예전에 비가 크게 쏟아졌지만 갈리진 농토가 지금도 메말랐다.

7월 12일(을묘) 구름과 햇빛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으며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3일(경진) 얽은 구름이 저물녘에 사라졌다. 나는 하루 종일 들판에 물을 대었다. 통영(統營) 땅에 지난 초7일에 비가 내려 채우 흙먼지를 적셨다는 말을 들었다.

7월 14일(신사) 매우 더웠다. 우리 삼형제와 매형 이여섭과 정재종(丁再從) 형제 및 머슴 몇 명과 함께 춘원포(春元浦)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와 탕으로 먹었다.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에 약하게 천둥이 치다가 곧바로 멈추었다.

7월 15일(임오) 매우 덥고 서쪽 하늘에 또 천둥이 쳤다. 화월리(禾月里)에 사는 서숙모(庶叔母)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도착해 큰 형님이 가서 곡하고 돌아왔다.

7월 16일(계미) 매우 더웠다.

7월 17일(갑신) 더러 구름이 끼었지만 매우 더웠다. 오시(午時)에 생수동(生水洞) 위 남쪽 하늘에서 주먹만한 옥색(玉色)이 뛰어졌는데 별이 떨어진 것인 듯하다.

7월 18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19일(병술) 가끔 비가 땅을 적셨다.

7월 20일(정해) 여전히 구름이 끼고 밤에 비가 땅을 축축히 적셨다.

7월 21일(무자) 여전히 구름이 끼었다.

7월 22일(기축) 여전히 구름이 끼고 비 올 기색이 가득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왔다가 비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7월 23일(경인) 새벽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쳤다.

7월 24일(신묘) 햇벌이 나왔다.

7월 25일(임진) 햇벌이 나왔다. 나는 아내를 데리고 대산(大山)에 갔다.

7월 26일(계사) 햇벌이 나왔다. 노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계속 대산(大山)에 머물면서 온수동(溫水洞)에 사는 서삼촌숙(庶三寸叔)을 가서 만나고 대산으로 돌아왔다. 해가 낮다가 밤에 또 구름이 끼었다.

7월 27일(갑오) 비가 오후에 그쳤는데 샘물이 비로소 흘러나왔다.

7월 28일(을미) 집으로 돌아갔다가 길에서 정연(鄭淵)을 만나 말에서 내려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7월 29일(병신) 동풍이 불어 갑자기 차가웠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정유) 동풍이 불어 차가웠다. 노인과 병자는 솜옷을 입었다.

8월 2일(무술) 햇벌이 나오고 동풍이 불었다.

8월 3일(기해) 저녁이 되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어두워져서는 비가 내렸다.

8월 4일(경자)

8월 5일(신축) 이상 비가 내렸다.

8월 6일(임인) 햇벌이 나왔다. 남관(南關)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8월 7일(계묘) 햇벌이 나왔다.

8월 8일(갑진) 햇벌이 나왔다.

8월 9일(을사) 햇벌이 나왔다.

8월 10일(병오) 햇벌이 나왔다.

8월 11일(정미) 햇벌이 나왔는데 한 밤중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2일(무신) 저물녘에 소낙비가 내려 먼지를 적시고 크게 천둥이 치다가 금세 멈추었다.

8월 13일(기유) 햇벌이 나왔다.

8월 14일(경술) 햇벌이 나왔다.

8월 15일(신해) 햇벌이 나오고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6일(임자) 구름이 끼었다.

8월 17일(계축) 비가 내렸다.

8월 18일(갑인)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9일(을묘)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20일(병진) 아침 식사 이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1일(정사) 비가 내렸다.

8월 22일(무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윤진사(尹進士) 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8월 23일(기미) 새벽부터 비가 내려 길이 진흙탕이 되었다.

8월 24일(경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25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치고 해가 나왔다.

8월 26일(임술)

8월 27일(계해)

8월 28일(갑자)

8월 29일(을축)

8월 30일(병인) 이상 햇벌이 나왔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정묘) 햇벌이 나왔다. 심군 익룡(沈君翼龍)이 들어왔다.

9월 2일(무진)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벌이 나기도 하다가 저녁에는 맑디맑았다.

9월 3일(기사) 햇벌이 나왔다.

9월 4일(경오) 햇벌이 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5일(신미) 새벽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식후에는 이따금 햇벌이 나왔으며 밤에는 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6일(임신)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렸으나 가끔 햇벌이 나왔으며 밤에는 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7일(계유)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9월 8일(갑술)

9월 9일(을해) 이상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10일(병자) 날씨가 청명하였다. 예전에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 향중(鄉中)에 통문을 돌려 송사를 일으켜 관찰사에게 보고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관찰사의 제사(題辭 처분, 지시)가 많이 운운(云云)하였고, 양쪽 다 각기 형신(刑訊)을 한 차례씩 가하고 다시 심문하였다.

9월 11일(정축) 맑았다.

9월 12일(무인) 맑았다.

9월 13일(기묘) 저녁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9월 14일(경진) 비가 개었다.

9월 15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통영에 사는 김운서(金雲瑞)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9월 16일(임오)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시고 곧바로 개었다. 김운서가 떠나갔다.

9월 17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렸다.

9월 18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렸다가 밤에 맑디맑았다. 아우 정창세(丁昌世)와 함께 가동(可洞)에 사는 강상(姜喪) 장례식을 가서 보았다.

9월 19일(을유)十{九}。온화하였다. 백생 준채(白生俊采)와 함께 두포(頭浦) 상인(喪人) 허세징(許世徵) 집의 초기(初碁 첫 기제사)를 가서 보았다.

9월 20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백생(白生 백준채)과 함께 돌아왔다.

9월 21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2일(무자) 햇벌이 나왔다.

9월 23일(기축) 순상(巡相) 조공 현명(趙公顯命)<sup>300</sup>이 관할 지역을 순시하다가 본현에 도착하였다. 남진(藍津) 정과부(鄭寡婦)는 풀어주고, 상놈 강씨(姜氏)는 사형 죄에 해당시키고,

---

**300** 조공 현명(趙公顯命) : (인물) 조현명(1690~1752)의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이다. 1713년(숙종39) 진사가 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721년(경종1) 연잉군(延昞君 훗날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겸설서(兼說書)로서 왕세제 보호에 힘썼다. 훗날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로 《귀록집》이 있고, 《해동가요》에 시조 1수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최(崔)·이(李)의 경우는 각각 형신(刑訊)을 한 차례 가하고, 허숙(許淑)은 장(杖) 20대를 맞았다. 나는 아버님을 모시고 읍에 들어갔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밤중에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에 막 도착하여 밤이 깊었는데 비가 내렸다.

9월 24일(경인) 이따금 비가 내리거나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9월 25일(신묘)

9월 26일(임진) 저녁에 비가 내리고 밤에 또 비가 내렸다.

9월 27일(계사) 비가 걷혔다. 읍에 들어가 형벌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을 보고 저녁에 돌아왔다. 순상(巡相)이 통영에서 읍으로 돌아왔다.

9월 28일(갑오)

9월 29일(을미) 이상 햇볕이 나왔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병신) 햇볕이 나오고 바람이 차가웠다.

10월 2일(정유) 수면에 얼음이 얇게 얼었다.

10월 3일(무술) 추웠다.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10월 4일(기해)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당시 재임(齋任)인 장의(掌議) 이국배(李國培)가 사직 단자를 올려 다시 망(望 후보자 명단)을 올려 대신 장의 허점(許點)이 뽑혔다. 나는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5일(경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

10월 6일(신축) 어제와 오늘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0월 7일(임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아버님이 화월리(禾月里)에 가서 서숙모(庶叔母)의 장례에 치전(致奠)하였다.

10월 8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밤에 비가 올 조짐이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10월 9일(갑진)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가리동(佳里洞) 서재를 새로 지었다. 오늘 낙성식이 있었는데 나를 초청하였다. 나는 서재에 가서 유숙하였다.

10월 10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재중(齋中)에서 나에게 서

재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청하니 나는 ‘낙열재(樂悅齋)’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논어(論語)》의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뜻을 함께하는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고 한 구절을 취하였다. 곧바로 편액에 쓰고, 또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 마음에 흡족하면	學而時習浹於心
좋은 벗들 역시 멀리서 찾아오지	亦有良朋自遠尋
한 마디 하노니 생도는 부디 노력해서	寄語生徒須着力
‘낙열’이란 이름 걸었던 뜻 깊다오	揭名樂悅志惟深

또 읊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푸른 파도 위 벽방산 끝자락	滄波之上碧山垠
좋은 땅 천년동안 주인 기다렸네	勝地千年待主人
서까래 기둥 들보 차례로 들어서	椽桷柱樑收以次
대문 담장 방들이 무척 새로워졌네	門墻堂室極其新
어진 스승의 덕은 공경 <sup>301</sup> 에 감응하고	賢師德必三鱣應
여러 제자의 재능은 육예 <sup>302</sup> 가	群弟才能六藝均
부디 열심히 배우고 때때로 익혀	須着學而時習力
유학의 일맥을 찬연하게 하라	斯文一脉賴彬彬

이날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을 겸하여 방문해서 곤장을 맞았던 상처 부위를 물었는데 만류하느라 계속 머물렀다. 어두워지자 비가 내렸다.

10월 11일(병오) 구름이 길게 끼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낙열재(樂悅齋)를 지나 갔다. 이날 해질 무렵 춥고 비가 내렸으며 찬바람이 세차게 불다가 곧바로 그쳤다.

10월 12일(정미) 춥고 눈이 갑자기 내렸다. 우상주(禹喪主)가 순천(順天)에 일이 있어 가려고 말을 빌려갔다. 이날 통영 남문(南門) 안의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0여 호가 연달아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월 13일(무신) 나는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10월 14일(기유) 햇벌이 나왔다. 도사(都事) 남공 태제(南公泰霽)가 순시하면서 본현에 이르러 오리정(五里亭)<sup>303</sup>에 도착해서 곧바로 거운(巨云)<sup>304</sup>의 들판으로 향했다. 찌를 뽑아[抽

**301)** 삼전(三鱣) : (고사) 공경(公卿)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양진(楊震)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서도 여러 차례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새가 전어(鱣魚) 세 마리를 물고 날아와 강당(講堂)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상을 하였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전어는 대부들이 입는 옷의 무늬이고, 세 마리는 삼태(三台)의 조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양진이 과연 태위(太尉)에 올랐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302)** 육예(六藝) :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가리킨다.

**303)** 오리정(五里亭) : 5리(里)마다 만들어 놓던 이정표. 오리정(五里程)으로도 표기한다.

**304)** 거운(巨云)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이다. 옛날에 거운지(巨云池)라는 못이 있고, 앞에는 들판이

姓] 무작위로 출발한 것이다. 나는 그대로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15일(경술)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졌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임 장의(掌議) 배순구(裴舜玖)가 다시 망(望 후보 명단)을 올려 장의(掌議) 정재후(鄭再垆)가 뽑혔다.

10월 16일 따뜻하였다.

10월 17일(임자) 햇별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지난번 순상(巡相)이 통영(統營)에 있을 때 열읍(列邑)의 전최(殿最)를 행했다. 초5일 진주(晋州)에 있을 때 개탁(開塚)했더니 고성 사또는 상고(上考)의 성적을 받았고, 제목은 ‘송사 처리가 더러 치우치나, 성실하게 힘쓰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聽節或偏 勤勵足尙]’였다. 논의하는 자들이 앞 구절은 이번 향전(鄉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편(偏)’자가 매우 불쾌하다고들 하였다. 오늘 아침 경주인(京主人)의 고목(告目)<sup>305</sup> 내용에 ‘전조(銓曹 이조)로부터 파출되었고, 무반출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만흥(李萬興)이 대신하여 수망(首望)에 올랐다’고 하였다.

10월 18일(계축) 햇별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나는 근래 배를 타면 아찔아찔하여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콩일 죽[藿粥]을 먹었다.

10월 19일(갑인) 구름이 끼고 추우며 이날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이날 경순왕비(景純王妃) 인산일(因山日)에 현궁(玄宮 관곽(棺槨))을 무덤에 내리는데, 나는 약을 복용 중이라 망곡반(望哭班)에 참여할 수 없었다.

10월 20일(을묘) 따뜻하였다.

10월 21일(병진) 구름이 끼고 추우며 빗방울이 가끔씩 떨어졌다.

10월 22일(정사) 새벽에 비가 먼지를 적시고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10월 23일(무오)

10월 24일(기미) 이상 날씨가 추웠다.

10월 25일(경신) 날씨가 추웠다.

10월 26일(신유) 갑자기 따뜻해졌다.

10월 27일(임술) 따뜻하고 저물녘에 구름이 자욱하여 비 올 기색이 다분하였다.

10월 28일(계해) 구름이 날고 바람이 불어 차가웠다. 심군 익룡(沈君翼龍)이 방문했다가 저

---

있었다. ‘巨雲地’라고도 표기한다. 《승총명록》에는 ‘巨云之’로 표기되어 있다.

**305)** 고목(告目) : 서리가 수령 등에게 올리는 편지 형식의 문서임.

녁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0월 29일(갑자) 햇벌이 나왔다.

10월 30일(을축)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팔진(八鎭)에 사는 사내중 순이(順伊)가 술과 음식을 끓여지고 왔다.

11월 소월(小月).

11월 1일(병인) 비가 개었다. 읍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순상(巡相) 조공(趙公)이 상주(尙州)에 도착하였는데, 좌·우도 수령 15자리가 파직 당했다. 이에 계(啓)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보잘것없는 자질로 외람되어 크나큰 직무를 맡아 밤낮으로 두려워 마치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前) 감사(監司)의 연좌(連坐)로 인하여 춘등(春等)과 추등(秋等) 전최(殿最)<sup>306</sup>를 대신 행하였습니다. 다만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보고 들은 내용이 폭넓지 못하여 출척(黜陟)이 타당성을 잃었는데 어필(御筆)까지 번거롭게 하여 수점(受點)해서 승정원에 내렸습니다. 해조(該曹)가 또 따라서 크게 논박(論駁)하여 바로잡아 70여 고을 수령의 교체가 거의 4분의 1에 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다스린 공효가 이미 드러났지만 신의 ‘하(下)’자가 중도를 지나쳐 동일한 사례(事例)로 잘못 걸려 하토(下土)의 잔악한 백성으로 하여금 때 아닌 시기에 영송(迎送)을 하느라 거듭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모두 신이 서투르고 경솔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 점에 대해 실로 황공하여 대죄(待罪)하고 싶은 지극한 심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성현(固城縣)의 경우는 금년에 입은 재해가 가장 혹독하여 진휼(賑恤) 시행을 의논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수령이 바뀌게 되었으니 낭패스런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신은 진실로 장계(狀啓)를 올려 영임(仍任)<sup>307</sup>을 청하고 싶는데 이미 바뀌어 후임자가 나간 뒤라서 해조에서는 필시 허락할 리가 없을 것이므로 정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고성 읍은 물자가 많고 땅이 크지만 풍속이 사나울 뿐 만 아니라, 또 통영(統營)의 소속 지방에 관련해서 모든 책응(責應)이 백성들에게 절박한 폐해를 입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름난 관리로 명망 있는 자들이 파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민(邊民)을 꼭 잡아 편안하게 하려는 이유 또한 통영(統營)에서 엄히 짓누르기 때문이니, 그 뜻이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래 중서(中庶) 신분의 비천한 무리들이 (~이하 원문탈락~)

지금 이번에 새로 제수된 현령 이만흥(李萬興)은 본래 저절로 등용될 만한 인물이고 또 군공(軍功)에도 들어가 있어 수령의 직임을 맡기에 진실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 읍의 장교에서 뽑혀 갑자기 큰 고을을 맡아, 위로는 영문(營門)에서 엄하여 기피하는 점이 있고 아래로는 변속(邊俗)을 꼭 붙들어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만흥이 결코 잘 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전주(銓注)<sup>308</sup>하는 신하가 어찌 이것을 모르고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답습했으니 변민(邊民)의 기쁨과 근심이 관련된 바가 중요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실로 그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흥을 우선 체개(遞改)하여 다른 자리를 기다리게 하고, 그 대신 시종신(侍從臣) 가운데 명망 있는 자를 특별히 선택하여 파견하

**306)** 전최(殿最) : (제도) 지방관(地方官)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데, 최하를 전(殿)이라 하고 최상을 최(最)라 한다.

**307)** 영임(仍任) :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 둬.

**308)** 전주(銓注) : (제도) 인물을 심사하여 적당한 벼슬자리에 배정함.

소서. 그리고 문신(文臣) 자리로 정하여 영구히 준행하는 것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  
쳐하게 하옵소서.

11월 2일(정묘) 바람기운이 매우 추웠다.

11월 3일(무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4일(기사) 아침에 찬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더니 금세 그치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유만종(柳萬宗)이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11월 5일(경오) 날씨가 추웠다.

11월 6일(신미) 따뜻하였다.

11월 7일(임신) 따뜻하였다. 새 사또 이만흥(李萬興)이 순사(巡使)가 계과(啓罷 임금께 아뢰  
어 파직시킴)를 인하여 교체되었는데, 예비 후보자로 수망(首望)은 김후 동준(金侯東俊),  
부망(副望)은 남태제(南泰霽), 말망은 임정(任珽)이었다.

11월 8일(계유)

11월 9일(갑술)

11월 10일(을해)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11일(병자) 따뜻하였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수령에게 진대(賑貸)하신 뜻을 사례하  
여 아뢰었다.

삼가 아뢰입니다. 사또께서 부임하신 이래로 밤에 도둑이 없어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현리(縣吏)가 문을 두드려도 편안하였으니, 흐뭇하게 온 고을이 화락하여 태고의 봄빛을 만  
회하였습니다. 늙고 병들어 수척해진 사람들이 거의 따뜻하게 살이 오르고 고달픔에서 벗어  
났고, 머리털이나 치아가 난 아이까지 모두 덩실덩실 발 구르며 춤추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  
다. 다만 생각하건대 저는 한 가닥 지루하게 목숨을 연명한 자로, 두 눈이 멀어 안보여 이  
미 세상에서 버려져 골짜기에서 죽어 뒹구는 것을 면하지 못한 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수  
령께서 백성들을 아픈 사람처럼 잘 생각해주시어 궁핍한 자들을 구출해주는 성대한 은혜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죽은 뼈에 살을 붙여주고 마른 몸이 살지도록 해주신  
감사함을 어찌 다만 결초보은 정도에 그칠 뿐이었습니까.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가까이 계시  
면서 갓난아이를 안아 젖을 먹이는 듯이 하셨으니, 선정을 칭송하는 노래가 비로소 불릴 즈  
음에 도로 돌아가신다는 생각에 두 줄기 눈물을 흘리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왕공(王公)께서 만년 영광인 당상관 자급이 없어 한스럽고, 또한 구군(寇君)을 일 년  
만 더 유임시켜 줄 것<sup>309)</sup>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애처롭도다. 우리 가자(賈子)<sup>310)</sup>와 얼손

**309)** 구군(寇君)을 일 년만 더 유임시켜 줄 것 : (고사) 지방관의 유임(留任)을 열망하는 데 비유한 말이다. 후한(後漢) 때 구순(寇恂)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서 선정을 베풀고 기한이 차서 그곳을 떠나게 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하기를 “구군(寇君)을 1년만 더 빌기를 바란다.”며 섭섭해했다는 고사이다. 《後漢書 寇恂列傳》

**310)** 가자(賈子) : (고사)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사람인 가표(賈彪)가 고을을 맡아 효렴(孝廉)으로 잘 다스렸다. 백성들이

(孽孫)같은 백성들이 어찌하여 부모님 같은 분[召父杜母]<sup>311)</sup>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생각하건대 백성들을 죽을 운명에서 이미 살려주시어 남다른 은택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달려가 수레를 막고 싶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괴로운데 또 굶주림과 추위까지 닳쳤습니다. 산음(山陰)의 돈<sup>312)</sup>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순양(順陽)의 도가(塗歌)<sup>313)</sup>를 노래합니다. 감히 편지로 대신 아뢰오니 더욱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주께서 특별히 용서하여 주소서.

11월 12일(정축)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 추웠다. 정조(正租) 15섬으로 통영에 사는 강위창(姜渭昌)의 다용동(多龍洞) 논 5두락지를 매입하였다.

11월 13일(무인) 바람이 불고 추웠다. 통영에 들어갔다.

11월 14일(기묘) 전(錢) 11냥으로 통영 사람 황우추(黃友樞)의 다용동(多龍洞) 밭과 논 한 뼤기를 매입했는데 매매 명문(賣買明文)은 10일에 작성하였다. 따뜻하였다.

11월 15일(경진)

11월 16일(신사)

11월 17일(임오)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나는 김군 백봉(金君百朋)과 함께 정수사(淨水寺) 관음전(觀音殿)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독서하였다.

11월 18일(계미) 추웠다. 승당(僧堂)으로 옮겨 거처를 정했다. 용동(龍洞)에 사는 아이 윤경(尹經)도 와서 공부하였다.

11월 19일(갑신)

11월 20일(을유)

11월 21일(병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22일(정해)

11월 23일(무자)

11월 24일(기축) 이상 날씨가 추웠다.

---

빈곤하여 자식을 기르지 않으려는 습속이 있었는데 이를 교화하여 바로잡았으니, 이에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가자(賈子)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가녀(賈女)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後漢書 卷67 賈彪列傳》

**311)** 부모님 같은 분[召父杜母] : (고사) 아버지 같은 소신신(召信臣)과 어머니 같은 두시(杜詩)라는 뜻이다. 서한(西漢)의 소신신과 동한의 두시가 전후로 남양 태수가 되었는데 백성들을 위한 정사를 많이 일으켜 치적이 있었으므로 남양민들이 “전에는 소부(召父)가 있고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네.”라고 칭송하였다. 《후한서(後漢書) 卷21 두시전(杜詩傳)》

**312)** 산음(山陰)의 돈 : (고사) 후한(後漢) 유충(劉寵)이 회계 태수(會稽太守)가 되어 선정이 많았는데, 장차 그 곳을 떠나려고 할 때 부로(父老)들이 돈을 주어 전송하자, 각각 100전을 송별금(送別金)으로 주었는데, 유충이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서 단지 1전씩 받아서 가지고 갔으므로 일전태수(一錢太守)라고 칭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산음은 회계에 속한 지역이다. 《後漢書 卷76 循吏列傳 劉寵》

**313)** 순양(順陽)의 도가(塗歌) : (고사) 후한(後漢) 유도(劉陶)가 환제(桓帝) 때 순양장(順陽長)에 임명되어 간사한 자들을 귀신처럼 붙잡아 다스렸다. 병으로 면직하자 관리와 백성들이 사모하여 노래를 불렀다.

11월 25일(경인) 벗 양홍준(梁弘俊)과 벗 김준식(金俊軾)이 또 찾아왔다. 연경(燕京)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햇벌이 나왔다.

11월 26일(신묘)

11월 27일(임진) 이상 햇벌이 나왔다. 벗 김응규(金應奎)가 다시 와서 독서하였다.

11월 28일(계사) 따뜻하였다.

11월 29일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1월 30일(갑오)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갑자기 영저(營底)에 갔다가 저녁에 접소(接所)로 돌아왔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을미)

12월 2일(병신) 이상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2월 3일(정유)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내렸다. 근래 《사기》와 〈애강남부(哀江南賦)〉<sup>314</sup>를 외고, 오늘 또 〈익주비(益州碑)〉<sup>315</sup>를 읽었다.

12월 4일(무술) 여전히 구름이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12월 5일(기해) 비가 개지 않고 가끔 눈이 내렸다.

12월 6일(경자) 매우 추웠다.

12월 7일(신축) 햇벌이 나왔다.

12월 8일(임인)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나는 객지에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 벗들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천동(泉洞)에서도 술을 보내 주었다.

12월 9일(계묘) 햇벌이 나왔다.

12월 10일(갑진) 가랑비가 내리고, 밤에 가끔 눈이 내렸다.

12월 11일(을사) 습한 구름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측간에 갔는데, 쥐가 똥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엮드려 숨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느낀 점이 있어 절구시 한 수를 다

---

**314)** 〈애강남부(哀江南賦)〉 : (작품) 북주(北周)의 시인 유신(庾信)이 후경(侯景)의 난을 당해 강릉(江陵)으로 도망쳐 피신하였는데, 높은 관직에 오른 뒤에도 늘 고향을 생각하며 〈애강남부〉를 지어 노래하였다고 한다.

**315)** 〈익주비(益州碑)〉 : (작품) 당(唐)나라 왕발(王發)의 작품인 〈익주부자묘비(益州夫子廟碑)〉를 가리킨다.

음과 같이 읊조렸다.

큰 창고에 날마다 곡식 썩어 나갈 지경인데      太倉紅腐尙陳陳  
변소에 사는 쥐는 어찌하여 몸을 숨기는가      居厠胡爲竄伏身  
미물이 사람을 격동시키니      微物令人能激勵  
이사가 서쪽 진나라로 간 이유일세<sup>316)</sup>      李斯良以入西秦

12월 12일(병오) 햇벌이 나왔지만 추웠다. 가노(家奴)가 찾아왔다.

12월 13일(정미) 구름이 끼고 추웠으며 저녁에 비가 내렸다. 밤에는 가끔 눈이 내렸다.

12월 14일(무신) 습한 구름이 걷히지 않다가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12월 15일(기유) 아침에 눈비가 이리저리 떨어졌는데 오후에 눈이 1치 정도 쌓였으며 저녁  
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

12월 16일(경술) 햇벌이 나왔다. 이날 하루에 백번씩 읽는 과업(課業)을 끝마쳤다.

12월 17일(신해) 햇벌이 나왔다. 과접(罷接)하고 영하(營下)로 돌아갔다.

12월 18일(임자) 햇벌이 나왔다. 항북(項北)에 머물면서 《장자(莊子)》를 읽었다.

12월 19일(계축)

12월 20일(갑인)

12월 21일(을묘) 이상 날씨가 햇벌이 나고 따뜻하였다.

12월 22일(병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23일(정사) 한 밤중에 가랑눈이 내렸다.

12월 24일(무오) 구름이 끼고 추웠다. 금노(今奴)가 와서 큰 형님이 수일 전부터 몸이 편치  
않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원에게 약 처방을 물었다.

12월 25일(기미) 바람이 불고 춥더니 저녁에는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6일(경신) 온화하였다. 아버님이 황리(黃里)에 사는 서방(書房) 전수(田洙)가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가서 보았다.

---

**316)** 이사가 서쪽 진나라로 간 이유일세 : (고사) 이사(李斯)는 원래 초(楚)나라 사람인데 일찍이 고향에서 하급 관리로  
있다가 측간에 들어가서 똥을 먹는 쥐를 보고는 탄식하기를, “이 쥐가 이 더러운 데 있지 않고 나라의 쌀창고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편하고 배부를 것인가. 사람도 이와 같다.” 하고는 곧 서쪽 진(秦)나라에 들어가서 승상(丞相)이 되어 부귀를 누리다가  
마침내는 혹독한 형벌을 받아 죽었다.



12월 27일(신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아버님이 황리에서 돌아오셨다. 오후에 좌수 이석함(李錫咸)과 별감 남이규(南以圭)와 장의(掌議) 이국배(李國培) 그리고 거주지가 서울인 지사(地師) 박씨 성(姓)인 사람이 방문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하였다.

12월 28일(임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앞 울타리 넓혀 개간하는데 세금으로 매년 정조(正租) 30말을 약정하였다.

12월 29일(계해)

12월 30일(갑자) 따뜻하고 햇볕이 나오다가 어두워지자 솜털구름이 갑자기 뭉쳐 은하수가 흐렸다.

신해년 일기는 휴지축(休紙軸)에 잘못 들어가 기록할 수 없어 대략적인 내용만 기록한다.

1월

2월

3월 사또 김후 동준(金侯東俊)이 백일장을 설행하여 예(禮)를 갖추고 선비를 모았다. 시(詩)·부(賦)·고풍(古風)의 문재(文才)를 시험 보았다. 시제(詩題)는 ‘바라건대 서교의 곁에 묻어주소서[乞埋西郊傍]’<sup>317</sup>였다. 나는 이중등(二中等)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남관(南關)의 접우 중참방(參榜) 합격자 명단된 자가 10여인이다. 잔치가 끝난 후 일제히 우리 집에 모였는데. 비에 하루 동안 길이 막혀 날씨가 개기를 기다려 동행하였다. 통영에 들어갔다가 토치(土峙)를 지나가니 10여리 도화(桃花) 가운데에서 말을 나란히 타고 동행하니, 또한 좋은 일이다.

4월

5월 이상 날씨가 마르고 가물었다. 이 때 해와 달이 나오거나 들어갈 즈음 붉은 빛이 찬란하였다. 모종할 시기를 놓쳐 사람들이 당황하고 겹을 먹었다. 내가 남관(南關)에 거접할 때 우후(虞候) 허전(許鑣)의 아들 허정(許定)이 와서 함께 공부하였다.

6월

13일 비로소 단비가 내려 모종을 옮겨 심었다. 우리 집은 25일에 이앙을 끝냈다.

26일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소명(少名)은 능대(能大), 관명(冠名)은 봉관(鳳觀)이고, 사주(四柱)<sup>318</sup>는 신해(辛亥)·을해(乙亥)·정사(丁巳)·신축(辛丑)이다. 나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진양(晉陽) 공도회(公都會)<sup>319</sup>에 응시하지 않았다.

---

**317)** 바라건대 서교(西郊)의 곁에 묻어주소서 : (고사) 굴저(屈姐)의 유언으로, 그녀는 원래 명나라 황후의 궁녀였다가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으로 왔다. 늘 중원 회복을 소망하다가 죽을 즈음 효종이 북벌할 적에 출정하는 군사를 보겠다고 서교의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 따라 고양군(高陽郡) 대자동(大慈洞)에 장사(葬事)를 지냈다. 《존주록(尊周錄)》에 이 내용이 보인다.

**318)** 사주(四柱) : 연(年), 월(月), 일(日), 시(時)를 가리킨다.

**319)** 공도회(公都會) : (제도)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도내의 유생들을 선발하여 매달 한 번씩 일정한 장소에서 보이던

7월 통영 중영(中營)에 들어가 우후(虞候)의 아들 허정 사안(許定士安)과 함께 책방(冊房)에서 공부하였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해는 흉년이 들었다.

---

시험으로, 입격자에게는 곧바로 진사시나 생원시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승충명록 2권

초1일 기미(己未) 새벽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없었다.

서기 1737년 영조 13년 정사년 건륭 2년.

이 2권은 공이 27세 임자년부터 32세 정사년까지 6년간의 일기이다. 책 장수는 75매이다.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현익 곤돈(玄默困敦)<sup>320)</sup>

【서기 1732년, 영조8년, 옹정(雍正) 10년, 임자년 공의 나이는 27세이다.】

1월 대월(大月). 1일 기미, 9일 입춘 정월절(正月節), 24일 우수 정월중(正月中).

영월(令月 2월) 소월(小月). 1일 기축, 9일 경칩 2월절, 춘분 2월중.

잠월(蠶月 3월) 대월(大月). 1일 무오, 10일 청명 3월절, 11일 한식, 26일 곡우 3월중.

정양지월(正陽之月 4월) 소월. 1일 무자, 11일 입하 4월절, 27일 소만 4월중.

정월(貞月 5월) 소월. 1일 정사, 13일 망종 5월절, 29일 하지 4월중.

윤5월 대월. 1일 병술, 16일 소서 6월절, 25일 초복.

서월(暑月 6월) 소월. 1일 병진, 2일 대서 6월중, 5일 중복, 17일 입추 7월절, 25일 말복.

상월(相月 7월) 대월. 1일 을유, 4일 처서 월중(月中), 19일 백로 8월절.

계월(桂月 8월)<sup>321)</sup> 대월. 1일 을묘, 5일 추분 월중, 20일 한로 9월절.

국월(菊月 9월)<sup>322)</sup> 대월. 1일 을유, 5일 상강 월중, 20일 입동 10월절.

양월(良月 10월) 소월. 1일 을묘, 5일 소설 월중, 20일 대설 지절(至節).

지월(至月 11월) 대월. 1일 갑신, 5일 동지 월중, 20일 소한 납절(臘節).

납월(臘月 12월) 소월. 1일 갑인, 5일 대한 월중, 6일 납일, 19일 입춘래정절(立春來政節)./

**320)** 현익 곤돈(玄默困敦) : 고갑자로 현익은 임(壬)을, 곤돈은 자(子)를 가리킨다.

**321)** 계월(桂月) : 계추(桂秋)라고도 한다.

**322)** 국월(菊月) : 국화가 피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말한다.

1월 임인년 올봄 연변(沿邊)의 각 읍에서 지토선(地土船)<sup>323</sup>을 건조하였다.

1월 1일(기미) 새벽에 하늘이 청명하고 바람이 없다가 서북쪽 하늘에 생겨난 희미한 구름 기운이 갑자기 동쪽 하늘을 둘러싸고 이어 얽은 구름이 하늘에 짙어졌다. 석양이 질 무렵에 햇별이 나와 온화하였다. 닭 울음소리가 많이 운 것은 12차례조금 우는 것은 3차례였다. 햇별이 비록 더러 나왔지만 끝내 구름이 열리지 않았다. 밤에는 청명했지만 남쪽 하늘에 먹구름이 갑자기 뒤덮었다.

1월 2일(경신) 동운(同雲)<sup>324</sup>이 저녁에 흩어졌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천지가 맑지 않았다.

1월 3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고 오후에 햇별이 나왔다. 나는 읍으로 들어가 사또 김후 동준씨(金侯東俊氏)를 뵈고 문후를 올리고, 재장(齋長) 이석임 대수씨(李錫臨大壽氏)를 아울러 문후하고, 이어 유사 정사교(鄭師僑)와 함께 교당(校堂)에서 묵었다. 밤에 비 올 기색이 있었다. 조카아이 윤억만세(尹億萬世)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월 4일(임술) 아침에 서풍이 불어 구름이 흩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구름이 또 분주히 치달았다. 설을 쇠기 전에 지었던 시권(試券)을 관아에서 모아 거두니, 이는 순상(巡相)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이날 지붕을 이었다.[苫蓋] 저녁에 바람이 누그러졌다. 이 밤에는 바람이 잔잔하고 하늘이 맑았다. 윤생 덕휘(尹生德輝)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파했다.

1월 5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바야흐로 지금 팔도(八道)가 모두 흉년이 들고 또 도적들이 곳곳에서 몰래 일어나고 있다. 경기 지역 내 마포(麻浦)에서 지난번 도적들이 노략질을 하여 조정에서 각 도에 선진관을 파견하여 방비를 경계시켰고, 영장(營將)과 수령은 각 읍의 의견을 모아 도검(都檢)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면에서는 면도검(面都檢)을 정하여 밤마다 순찰하면서 경계하도록 하였다.

1월 6일(갑자) 햇별이 나왔다. 오전에 서풍이 불다가 오후에 그쳤다.

1월 7일(을축) 햇별이 나오기 따뜻하였다. 오후에 바람이 불다가 밤이 되어서야 그쳤다.

1월 8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1월 9일(정묘) 흐렸다.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갔다가 정래봉(鄭來鳳) 집에서 묵었다. 이 밤에 비가 올 듯 했는데 내리지 않았다.

1월 10일(무진) 날씨가 따뜻하였다. 식사한 후에 들어가 우후(虞候) 허전(許鎭)과 아객(衙客) 허정 사안(許定士安)과 양우수(梁禹壽)를 만나보았다. 이날 밤에는 벗 양홍준(梁弘俊) 집

**323)** 지토선(地土船) : 지방민의 배를 가리킨다.

**324)** 동운(同雲) : 기출

에서 묵었다.

1월 11일(기사) 햇볕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5말, 미(米) 2말에 가승(加升)<sup>325</sup>이다. 저물녘 배석장(裴石長)의 울타리 아래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즉시 불을 껐다.

1월 12일(경오) 구름이 없고 북풍이 매우 추웠다. 오늘날 가뭄이 오래되었다. 연전(年前) 11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도로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샘물이 고갈되어 마을 물 길는 아낙네들이 모두 시내 도랑에 모였다.

1월 13일(신미) 햇볕이 나왔다. 식후에 북풍이 세차게 불고, 찬 구름이 치달렸다. 고성 사또가 급재(給災)<sup>326</sup>를 많이 받았는데, 1부(夫) 내 80복(卜), 1결(結) 내 9복(卜) 1속(束)을 분급 받았다. 지난겨울 추위는 근자에 있지 않았던 추위인데, 어제 오늘의 추위가 겨울철 혹은 한이 뒤지지 않고, 비 올 기미는 아득하니 괴이한 일이다. 밤에 바람이 약해지고 달이 밝았으며 찬 기운이 벽에 스며들었다. 《전목재집(錢牧齋集)》<sup>327</sup> 필사가 다 끝나쳤다.

1월 14일(임신) 북풍이 매우 추워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밤이 되자 바람이 그치고 달이 밝아 자못 화평한 현상이 있었다.

1월 15일(계유) 아침에 햇볕이 나와 따뜻하더니 식후에 북풍이 불어 먼지를 날렸다. 나는 가리(加里) 서재(書齋)에서 윤덕휘(尹德輝)를 가서 방문했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술사(術士) 황형(黃瑩)이 방문했다. 보름달이 요사암(妖蛇岩) 아래에서부터 답릉(塔陵)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노인들이 조금 아래라고 말하였다.

1월 16일(갑술) 아침에 흠비가 내려 산이 보이지 않았다. 황형(黃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날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날 저녁 정하중(丁夏中)의 울타리 아래에 불길기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제해서 불을 껐다.

1월 17일(을해) 날씨가 따뜻하였다. 몽아(夢兒)가 한자음(漢字音)을 알았다.

1월 18일(병자) 따뜻하고 동풍이 하루 종일 불었다. 어두워지자 바람이 더욱 세게 불다가 밤이 깊어서야 그쳤다. 이 날 얇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1월 19일(정축) 동풍이 또 불고 얇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걸어서 읍에 들어가서 옥중에 갇혀있는 좌수 이경석(李慶錫)을 보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

**325)** 가승(加升) : (제도) 가승이란 원래 세곡을 징수할 때에 축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3되씩 더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3되 정도라는 말인 듯하다.

**326)** 급재(給災) : (제도) 재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면제하여 주는 것.

**327)** 《전목재집(錢牧齋集)》 : 명나라 목재(牧齋) 전겸익(錢謙益)의 문집이다. 만력(萬曆) 연간 때 진사에 급제하여 예부시랑을 지냈는데, 당시에 문장가로 이름났다.

1월 20일(무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얇게 끼었다. 나는 와룡동(臥龍洞)<sup>328</sup>에 사는 도유사 이담년(李聃年)에게 가서 문안하고,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동풍이 갑자기 불더니 밤이 깊어서는 북풍이 또 불었다.

1월 21일(기묘) 새벽에 북풍이 사각사각 불어 소나무 처마에 바람 소리가 났다. 이 때 밀산촌(密山村)에 도깨비불이 누차 나타났다. 오후에 집에 돌아갔는데, 의령(宜寧)에 사는 허열(許悅)이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밤에 북풍이 세차게 불어 잠을 편안히 자지 못했다.

1월 22일(경진) 닭이 운 후에 바람의 기세가 잠시 약해졌다. 식사 후 허열(許悅)이 작별하고 떠났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바람의 위세가 더욱 매서우니 괴이하다. 이때가 상서롭지 못한 징조인가. 오늘은 서북풍이 크게 불고 누런 먹구름이 휘날려 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들판에는 짙은 구름이 끼었는데 밤이 되어서야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요즘 천연두가 크게 번지고 전염병이 또 일어나 흉년에 병들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자못 많다. 본현에서 이번 달 7일부터 비로소 진흙을 실시하는데 결복(結卜)이 없는 자들은 그냥 지급하고, 파·숙·복(把束卜)이 있는 자들은 더 추가할 수 없으며, 60복(卜) 이하인 자는 유토(有土)의 환곡을 받고, 60복 이상인 자는 거론하지 않아서 민간에 흑 원성이 있기도 하였다. 이때가 되어서야 식량 대신 칩을 찡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니 백성의 곤궁함을 상상할 수 있다.

낮에는 서북풍이 크게 불고 누렇게 검은 구름이 떠다녔으며, 도로에는 먼지가 일어 들판이 희미함. 밤이 되어서야 바람이 점점 약해짐

1월 23일(신사) 서북풍이 불어 차가웠다.

1월 24일(임오) 해가 나왔다. 읍에 들어가 감옥에 갇혀있던 좌수 이경석(李慶錫)을 만나보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1월 25일(계미) 서북풍이 세차게 불고 또 흠비가 음산하게 내렸다.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서남풍이 세차게 불어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였다.

1월 26일(갑신) 서남풍이 또 불고 먼지가 공중에 가득하여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였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7일(을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또 향교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1월 28일(병술) 햇벌이 나오고 가끔 바람이 불었다. 감진어사(監賑御史) 박공 문수(朴公文秀)가 고성현을 순시했는데 내가 유서(諭書)를 읽었다.

1월 29일(정해) 어사가 통영(統營)에 들어갔는데 나 역시 통영에 들어갔다. 이날 햇벌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통제사 정공 수송(鄭公壽松)<sup>329</sup>이 기치(旗幟)를 거느리고 나가 오리정(五

**328)** 와룡동(臥龍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있다. 와룡산(臥龍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남면에도 와룡산이 있다. 고성과 사천의 와룡산 모두 고려 현종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里程 五里亭)에서 어사(御史)를 맞이하여 전도(前導)하며 왔다. 지금 이 유서(諭書)는 바로 목민관들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사는 선유(宣諭)의 예식을 행하지 않고, 어사를 기다려 관사(館舍)인 동상방(東上房)에 들어가게 했는데, 검을 차고 호수(虎鬚)를 낚고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였다. 나는 벗 양홍준(梁弘俊) 집에서 묵었다.

1월 30일(무자) 오후부터 서풍이 썩썩 불어 산의 나무들이 모두 울었으며, 구름이 말이 달리듯 떠다니고 흠비가 연기처럼 뿌연게 내렸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약해졌다. 어사는 거제(巨濟)로 향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 2월

2월 1일(기축) 하루 종일 온화하고 얽게 구름이 끼었다. 이좌수(李座首)가 죄의 경중에 따라 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형 이어섭이 오늘 출발하였다. 대구(大丘)에 가서 검률(檢律)을 만나볼 계획이다.

2월 2일(경인) 하루 종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밤에 하늘이 맑아졌다. 강악봉(姜岳奉)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송아지 두 마리가 불에 타서 죽었다. 어사(御史)가 도로 본현에 도착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염문(廉問)<sup>330</sup> 대상자에 들어가 성화(星火)와 같이 수색하여 붙잡았다. 좌수 허표(許標)는 죄를 지어 근처 읍(邑)에 옮겨 다니며 조리를 돌렸다.

2월 3일(신묘) 동운(同雲)<sup>331</sup>이 끼었다가 저녁에 빗방울이 비가 똑똑 떨어졌다. 이날 밤에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와서 땅에 1치 정도 스며들었다.

2월 4일(임진)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숙맥(宿麥)<sup>332</sup>의 경우 딱 들어맞아 농사가 잘 되는데, 마른 우물은 마른 사정을 적셔주는 은택이 조금 없었다. 햇볕이 나왔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허좌수(許座首)가 사천(泗川)에 이르러 형벌 14대를 맞고 석방되었다.

2월 5일(계사) 북풍이 불어 춥고, 산의 눈이 녹지 않았다.

2월 6일(갑오) 해가 나왔다. 새 매화에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한매 가지 하나 집 곁에 심었더니	寒梅一樹傍軒栽
눈 속의 봄빛이 사랑스러워라	爲愛春光雪裡回
식물이 오히려 주인의 뜻을 아는지	植物猶知主人意
바람결에 그윽한 향기 불어 보내네	因風吹送暗香來

**329)** 정공 수송(鄭公壽松) : (인물) 정수송(1683~미상)의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자는 송년(松年)이다. 1710년(숙종 36) 증광시 무과에 병과 25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충청도수군절도사·경상우도병마절도사·경기수군절도사·함경북도병마절도사·금군별장(禁軍別將)·영변부사(寧邊府使)·포도대장·평안도병마절도사·총융사(摠戎使) 등을 역임하였다.

**330)** 염문(廉問) : 어떤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

**331)** 동운(同雲) : 기출

**332)** 숙맥(宿麥) :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보리를 말한다.

향교에 들어갔다 재실에 머물렀다.

2월 7일(을미) 햇벌이 나왔지만 추웠다.

2월 8일(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밤에는 맑아졌다.

2월 9일(정유) 석채(釋菜)<sup>333</sup>를 행하였다. 이날 매우 추웠다. 나는 사직제(社稷祭)에 대축(大祝)의 직분을 행하였다.

2월 10일(무술) 제사를 지내는 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이날 햇벌이 나오기 따뜻하였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1일(을해)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매형 이여섭이 대구(大丘)에서 돌아왔다.

2월 12일(경자) 청명하고 동풍이 불었다. 윤덕휘(尹德輝)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2월 13일(신축)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산에는 눈이 덮혀 있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저녁이 되자 맑았다. 큰 형님 댁 어린 아이가 두환(痘患)에 걸렸다.

2월 14일(임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기유년 생 딸아이가 두환에 걸려 마마자국이 처음에는 시루처럼 생겼다.

2월 15일(계묘) 서남쪽에서 미풍이 불고 날씨는 맑고 온화하였다.

2월 16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7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18일(병오) 따뜻하였다.

2월 19일(정미) 밤중에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2월 20일(무신) 나는 근자에 전염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안채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입으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서방 높은 손님이 곁에 계시니	西方尊客在傍臨
한결같은 마음으로 깊은 밤 맞이하네	一念祗承到夜深
홀연 동림에 밝은 달빛 나와	忽見東林明月出

**333** 석채(釋菜) : (제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향교(鄕校)에서 선성(先聖)·선사(先師)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신령이 내 마음 비추는 듯 하구나   忱疑神鑑照余心

이날 밤의 달빛이 낮처럼 밝았다.

2월 21일(기유)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22일(경술) 낮에는 맑고 밤에는 구름이 끼었다.

2월 23일(신해) 관아에서 기르던 국마(國馬)<sup>334</sup>가 고삐에서 벗어나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날 밤에 빙고(氷庫 얼음 창고)가 불에 타버렸다.

2월 24일(임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능대(能大)가 두환에 걸려 마마자국이 처음에는 시루처럼 생겼다. 밤에 구름이 검게 끼었다.

2월 25일(계축) 새벽에 비가 내렸으나 식후에 개고 구름이 흩어져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26일(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7일(을묘) 남풍이 불고 따뜻하였다.

2월 28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9일 남풍이 불고 따뜻하였다.

2월 30일(정사)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3월 1일(무오) 구름이 짙게 끼고 서풍이 불었다.

3월 2일(기미) 동풍이 불고 따뜻하다가 저물녘에 서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흐렸다. 윤매형(尹妹兄)이 서도(西道 평안도)에서 왔다. 밤경치가 청명하였다.

3월 3일(경신) 서남풍이 불었다. 윤매형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오늘날 가뭄이 극심하여 우물 밑에 봄풀이 생기고 샘물의근원이 끊겨 흐르지 않을 지경이니, 이 무슨 징조인가.

3월 4일(신유) 남피[南皮] 6속(束)을 걸보리 반(半) 말과 바꾸었다.

3월 5일(임술) 가랑비가 내렸다.

---

**334)** 국마(國馬) : 나라에서 경영하는 목장의 말.

3월 6일(계해) 어제부터 비가 밤새토록 내리고 또 하루 종일 내렸으나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다.

3월 7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8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역신(疫神)을 떠나보내는 제사를 지냈다.

3월 9일(병인)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고 밤에는 우레가 크게 치고 비가 쏟아져 냇물이 비로소 흘렀다.

3월 10일(정묘)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3월 11일(무진) 동풍이 불고 찬 구름이 끼었다. 당시 좌수 최후전(崔厚全)이 소금가마[鹽釜]에 관한 일로, 상사(上使)에게 그저께 17대의 곤장을 맞았다고 한다. 밤중에 또 비가 내렸다.

3월 12일(기사)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3월 13일(경오) 비가 어제와 같았다. 전임 좌수가 체직되고 좌수 최원망(崔元望)으로 교체되었다.

3월 14일(신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었다.

3월 15일(임신) 서남풍이 불고 구름이 수레바퀴처럼 달려갔다. 밤에 달이 밝고 바람이 멎었다.

3월 16일(계유) 시가[市直]가 조(租) 4말 반이다.

3월 17일(갑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3월 18일(을해) 마[麻]를 경작하였다.

3월 19일(병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20일(정축)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였다.

3월 21일(무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제목이 없는 시를 80운으로 지었다.

남아 나이 들수록 마음 더욱 졸렬하니	男兒年大心轉拙
가소롭다 공명이 어찌 이리도 더딘가	可笑功名何太遲
거원은 말년에도 잘못을 반성했건만 <sup>335)</sup>	回頭蘧瑗暮年非

반악은 가을날 슬퍼함 견딜 수 없었지 <sup>336)</sup>	不堪潘岳清秋悲
맑게 갠 창가 오후에도 책 안고 누워 있고	晴窓日午抱書臥
차디찬 옷 어루만지며 <sup>337)</sup> 탄식 자아냈지	手撫寒袍興歎吞
아홉 살적부터 뜻이 장대하여	生年初九思卽壯
어릴 적 영예를 섭사리 여겼네	早歲榮名指掌爲
뜰을 지나다가 부친의 명을 받들었고 <sup>338)</sup>	趨庭既奉孔父命
책 상자 짊어지고 자주 모친 훈계 <sup>339)</sup> 따랐지	負笈頻承鄒母儀
어느덧 겨울 <sup>340)</sup> 에 배움이 차츰 진보되어	居然歲餘學漸進
집을 떠나 배우지 않아도 지식이 있었지	不離家庭頗有知
붓 들고 글씨 쓰면 획이 씩씩했고	揮毫寫字畫必健
입 열어 말하면 표현 역시 기특했지	開口成詞辭亦奇

집에선 이웃할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묻고	居家不恥問鄰嫗
밖에선 모두가 나의 스승이 항상 있었건만	出外恒存皆我師
궁벽진 학교라 황량해 도리어 가여워	還憐絕域學校荒
어디에서 가서 경서를 볼까	更向何處書經披
열세 살 때 뜻이 더욱 퇴보해	行年十三志益退
다시 치유 <sup>341)</sup> 에서 부지런히 글 읽지 않고	不復緇帷勤喔咩
한가롭게 일 마친 사람에 스스로 견주어	閑中自視了事漢
술꾼과 바둑 손님이 서로 따라 다녔지	酒徒碁客還相隨
어느새 목곡에 참다운 선비께서	翻看嘿谷有眞儒
엄무 <sup>342)</sup> 연간에 수령으로 오시니 <sup>343)</sup>	闡茂年間來一麾

**335)** 거원(蘧瑗)은 말년에도 잘못을 반성했건만 : (고사) 지나온 인생의 잘못된 점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거원은 춘추시대 위(衛) 나라의 현대부(賢大夫)로서, 거백옥(蘧伯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나이 50에 49년의 잘못됨을 알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는 유명한 고사가 전해 온다.

**336)** 반악(潘岳)은 가을날 슬퍼함 견딜 수 없었지 : (고사) 반악은 진(晉)나라의 문장가로, 〈추흥부(秋興賦)〉를 지었다.

**337)** 차디찬 옷 어루만지며 : (고사) 중국 전국 시대 진(秦)나라의 재상이었던 범수(范雎)는 범수는 본디 위(魏)나라 사람으로 처음에 위나라 중대부(中大夫) 수가(須賈)와 함께 위나라를 섬기다가 수가의 횡방을 받아 모친 곤욕을 당하고 진나라로 도망쳐 가서 재상이 되었다. 뒤에 진나라가 위나라를 치려고 하기에 위나라 수가가 진나라에 사신 갔을 적에 범수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해진 옷차림으로 수가를 찾아가 보았는데 수가는 범수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그의 혈범은 모양을 불쌍히 여겨 숨 둔 옷을 주었던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79 范雎列傳》

**338)** 뜰을 지나다가 부친의 명을 받들었고 : (고사) 공자가 홀로 뜰에 서 있을 때에 아들 백어(伯魚)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자[趨庭], 공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서 시(詩)와 예(禮)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論語 季氏》

**339)** 모친 훈계 : (고사) 원문의 ‘추모(鄒母)’는 맹자(孟子)의 어머니로, 추(鄒)나라는 맹자가 태어난 곳이다. 어려서 공부를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機]에서 짜던 베를 갈로 자르고는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맹자가 이 말을 듣고 분발하여 대유(大儒)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列女傳 卷1 鄒孟軻母》

**340)** 겨울 : (고사) 원문의 ‘세여(歲餘)’는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좋은 세 가지 여가인 삼여(三餘)의 하나이다. 해의 나머지[歲之餘]인 겨울, 날의 나머지[日之餘]인 밤, 때의 나머지[時之餘]인 음우(陰雨)이다.

**341)** 치유(緇帷) : (고사) 고인(高人)과 현사(賢士)가 강학하는 곳에 둘러친 검은 장막을 말하는데, 공자(孔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검은 장막을 치고서 《시경》과 《서경》을 강학한 데서 비롯되었다.

**342)** 엄무(闡茂) : 지지(地支) 중의 술(戌)의 별칭이다.

**343)** 수령으로 오시니 : (고사) 원문의 ‘일휘(一麾)’는 일휘출수(一麾出守)의 준말로, 외방의 관원을 뜻한다. 남조 송나라의

문옹이 촉 지방 이미 교화했 <sup>344</sup> )	文翁蜀中已化俗
유공이 누대에서 자주 술잔 들었지 <sup>345</sup> )	庾公樓頭頻舉卮
복숭아꽃 오얏꽃 핀 길에 삼춘 맞아	桃蹊李逕遇三春
은택의 비바람이 한 나뭇가지에 넉넉하구나	甘雨恩風饒一枝
좋은 옥이 박옥에서 나올까 생각했는데	思將美玉璞裡出
울타리 아래 난초 시들어 슬프구나	實恰芳蘭籬下萎
삼년동안 매각 <sup>346</sup> )에서 깊은 교분 맺었더니	三年梅閣托深契
하루아침에 되돌아가시어 멀리 떠났네	一朝口兀旋嗟遠離
공이 후거 <sup>347</sup> )에 싣고자 하는 걸 알겠지만	知公實欲後車載
나는 촉 땅 출신 인물 <sup>348</sup> ) 아니라 부끄럽네	愧我元非蜀產資
이별할 적에 봉성 <sup>349</sup> )가는 길 가리켜	臨分指点鳳城路
어진 스승 계시니 의당 돌아가야지	曰有賢師歸去宜
당시 글 올린 가을 구월달	時維上章九月秋
필마 타고 떠난 안산 산기슭	匹馬行色安山陲
너울너울 옥 같은 미소년으로	翩翩玉貌美少年
시원스런 맑은 문장 좋은 글이 많았지	洒落清製多奇詞
거문고 연주 <sup>350</sup> )에 진심을 의탁하니	峩洋絃上托片心
남과 나 산중에서 구의 <sup>351</sup> )를 끝내네	人我山中絕九疑
깊은 봄날 묵동에서 몇 번 피끄리에 화답했나	春深墨洞幾和罵
밤새 청루에서 자주 금 거북이 풀었지 <sup>352</sup> )	夜蘭青樓頻換龜

안연지(顔延之)가 〈오군영(五君詠)〉을 지으면서, 완함(阮咸)에 대해 “몇 번 추천받아도 벼슬자리 못 얻다가, 순옥(荀勗)이 손 한번 내저으매 수령으로 나갔도다.[屢薦不入官 一麾乃出手]”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文選 卷21 五君詠 阮始平》

**344** 문옹(文翁)이 촉 지방 이미 교화했<sup>344</sup>) : (고사) 문옹은 서한(西漢) 경제(景帝) 때의 인물로, 촉(蜀)의 군수가 되어 교화를 펼치고 학교를 일으켜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다. 이를 계기로 무제(武帝) 때에 와서 온 천하에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文翁》

**345** 유공(庾公)이 누대에서 자주 술잔 들었지 : (고사) 유공은 진(晉)나라 때 무창(武昌)의 지방관으로 와서 그 곳 남루(南樓)에 올라 놀기를 좋아한 풍류가 있었다.

**346** 매각(梅閣) : (고사) 매화가 활짝 핀 관아(官衙)를 가리킨다. 남조(南朝) 양(梁) 나라의 하손(何遜)이 양주(揚州)의 법조(法曹)로 있었는데, 관아의 동쪽 청사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이 만개하였으므로 하손은 그 아래에서 매일 시를 읊곤 하였다. 하손이 뒤에 낙양(洛陽)으로 돌아왔으나 그 매화를 잊을 수가 없어 다시 그곳으로 부임할 것을 청하여 도착하니 역시 매화가 활짝 피었으므로, 그 아래에서 하루 종일 시를 짓고 읊었다. 이후로 동각관매(東閣官梅)라 하여 지방의 관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347** 후거(後車) : (고사) 주 문왕(周文王)이 길조(吉兆)를 얻고 사냥을 나가서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하는 강태공을 만나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와 재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사기(史記)》 권32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실려 있다.

**348** 촉(蜀) 땅 출신 인물 : (고사) 예로부터 촉 땅에서 많은 인물이 났는데, 양웅(揚雄)·이백(李白)·소식(蘇軾) 등이 이곳 출신이다.

**349** 봉성(鳳城) : 도성에 대한 미칭(美稱)이다. 원래 장안(長安)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일에는 일반적으로 도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50** 거문고 연주 : (고사) 거문고의 명인인 백아(伯牙)가 높은 산을 연주하면 친구인 종자기(鍾子期)가 “태산처럼 높고 높도다.[峨峨兮若泰山]”라고 평하였고, 흐르는 물을 연주하면 “강하처럼 양양하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평했다는 아양(峨洋)의 고사가 있다. 《列子 湯問》

**351** 구의(九疑) : (고사) 구의산(九疑山)으로, 일명 창오산(蒼梧山)이다. 순(舜) 임금의 장사(葬事)한 곳인데, 그 아홉 봉우리가 비슷비슷하여 바라보는 파객(過客)의 의심을 자아내므로 그리 일컬음이다.

**352** 밤새 청루에서 자주 금 거북이 풀었지 : (고사) 이백(李白)의 〈대주억하감(對酒憶賀監)〉 시 서문에 “하지장(賀知章)이

어찌 알았으리 방장실 한번 이별이  
 인생 세상에서 영영 작별이란 것을  
 한때에 부질없이 산중턱 달빛이 비추고  
 옛 집에 누가 삼년 휘장을 내리던가<sup>353)</sup>  
 묵은 풀 자란 황량한 분묘에 곡 마치고  
 바다 보고 산에 오르니 세월 지나가구나  
 전해 들으니 진수가 천곡 되었다고  
 먼지 낀 갑 속 문필 씻고자 하니  
 연산의 꽃과 달에 바둑과 술잔 늘어 놓고  
 옥정의 바람과 연무가 북과 깃발을 펼쳤네  
 하늘은 맹동야<sup>354)</sup>를 현달하지 못하게 했고  
 곤궁한 귀신이 한퇴지를 찾아다니고<sup>355)</sup>  
 광산<sup>356)</sup>에 십년 약속 있더라도  
 구름 낀 산에서 오래 굶주림 참기 어렵네  
 한가로운 지낸 세월 쉽게 사라져  
 이십년 세월 삼시간에 지나갔네  
 당시 갑신년<sup>357)</sup>으로  
 어린아이가 무기로 황지에서 장난쳤지<sup>358)</sup>  
 쥐와 개 같은 무리를 몹시 싫어하니  
 천년 공맹의 터전을 거의 더럽혔네  
 끝내 하늘의 이치가 순역이 있기에  
 위태롭던 종묘사직 안정됨을 보았도다  
 유생<sup>359)</sup>들이 다시 책상을 나란히 하니  
 서서와 동상<sup>360)</sup> 그곳에 문화가 있도다  
 그 사이 인간사에 생사가 있었으니

那知丈室一場別  
 永負人間百年期  
 寒梅虛照半山月  
 舊院誰下三年帷  
 荒墳宿草罷一哭  
 觀海登山星影移  
 傳聞晉水作泉谷  
 塵匣文鋒要濯斯  
 蓮山花月列碁酒  
 玉亭風烟張鼓旗  
 蒼天不達孟東野  
 窮鬼相尋韓退之  
 匡山雖有十載約  
 雲巘難忍長年飢  
 優遊日月易消磨  
 廿二年光駒隙馳  
 當時歲甲在涪灘  
 弄兵兒子撓潢池  
 偏憎一種鼠狗輩  
 幾汚千年鄒魯基  
 終緣天理有順逆  
 果見宗社除艱危  
 圓冠方領更聯床  
 西序東庠文在茲  
 中間人事有存沒

나를 처음 보고는 적선인(謫仙人)이라고 일컬으면서, 허리에 찬 금거북 패물을 풀어서 술을 사 주며 즐거워하였다.[解金龜換酒爲樂]라는 말이 나온다.

**353)** 휘장을 내리는가 : (고사)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일찍이 “휘장을 내리고 글을 강독했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전하여 깊이 들어앉아 독서에 전념하는 것을 가리킨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354)** 맹동야(孟東野) : (인물) 한유(韓愈)의 벗으로, 맹교(孟郊)를 가리킨다. 한유의 “관직도 없는 우리 동야, 너무도 쇠한 백발의 몸. 조금 교활한 나 한자, 장송에 붙은 덩굴인양 스스로 부끄러워.[東野不得官 白首誇龍鍾 韓子稍姦黠 自慙青蒿倚長松]”라는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韓昌黎集 卷5 醉留東野》

**355)** 곤궁한 귀신이 한퇴지를 찾아다니고 : (고사)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에, 다섯 궁귀(窮鬼) 즉 지궁(智窮), 학궁(學窮), 문궁(文窮), 명궁(命窮), 교궁(交窮)을 내쫓으려다가 포기하고 그들을 상좌(上座)에 앉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56)** 광산(匡山) : (고사) 이백(李白)이 일찍이 은거(隱居)하여 글을 읽었던 대광산(大匡山)을 가리키는데, 두보(杜甫)의 〈불견(不見)〉 시에, “광산의 글 읽던 곳으로, 머리 희었으니 종이 돌아올지이다.[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라고 하였다.

**357)** 군탄(涪灘)은 : 고갑자(古甲子)의 십이지(十二支)의 하나로, 신(申)을 말한다.

**358)** 어린아이가 무기로 황지에서 장난쳤지 : (고사) 황지(潢池)는 물이 고여 만들어진 작은 못을 가리키는데, 한(漢)나라 공수(龔遂)가 선제(宣帝)의 하문(下問)을 받고는 “이번의 반란은 기한(飢寒)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관리들이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자, 폐하의 어린아이들이 폐하의 무기를 슬쩍 훔쳐서 황지 가운데에서 한번 장난을 쳐 본 것일 따름입니다.”라고 답변했던 고사가 있다. 《漢書 卷89 龔遂傳》

**359)** 유생 : 원문의 ‘원관방령(圓冠方領)’은 둥근 갓에 모난 옷깃으로, 옛날 학생들의 복장을 가리킨다.

**360)** 서서(西序)와 동상(東庠) : 모두 학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수준 높은 공부를 누구와 함께할까  
 세찬 여울의 조각배는 문 닫은 지조  
 망망대해에서 험난 겪었는지 모르겠네  
 사원<sup>361</sup>에 좋은 모임을 두 차례 만나니  
 다음해 늦봄 시기였지  
 분잡한 여러 악소배들  
 눈 꼬리 치켜뜨니 두루 바로잡기 어려워  
 아 바닷가 고장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헛되이 청춘에 좋은 남아 생각하도다  
 길게 뻗친 학문의 바다 파도 돌아보니  
 천 길의 용호 가에 쏟아 들어가네  
 청년의 큰 명예 높은 대안탑<sup>362</sup>에 걸고  
 조만간 장풍으로 봉새의 날개에 붙어  
 형주 문하<sup>363</sup>에서 덕을 깊이 사모하니  
 이공 수레를 누가 고삐 잡을까<sup>364</sup>  
 깊은 정성이야 눈 속의 문도<sup>365</sup>를 본받고  
 자천에 주머니 속 송곳 어이 싫어하리<sup>366</sup>  
 정리는 골육과 같아 너나 경계 없고  
 뜻 맞은 회포는 숨김과 속임 없네  
 대장대에 세운 붉은 깃발 기쁘게 보고  
 다시 초헌<sup>367</sup>타고 충렬사 올랐네  
 한 조각 철로 예리한 호미 만들어  
 오솔길 자란 풀들<sup>368</sup> 이제부터 제거하네  
 미혹된 마음 나도 모르게 당실<sup>369</sup>에 올라

上項工夫吾與誰  
 危灘片舟閉門操  
 不識滄溟經險陒  
 琳宮勝會幸得再  
 正在明年春暮時  
 紛紛諸子惡少流  
 豎眉瞋目難周規  
 堪嗟海國遠京城  
 虛壞青春好箇兒  
 回瞻一帶學海波  
 注在千丈龍湖湄  
 青年大名鴈塔高  
 早晚長風鵬背吹  
 荊州門下仰德深  
 李公車前孰轡思  
 深誠欲效雪中徒  
 自薦何嫌囊裡錐  
 情同骨肉絕畛域  
 契合襟期無隱欺  
 欣看赤幟豎將壇  
 更駕文輶登烈祠  
 携將寸鐵作利鉏  
 茅塞山蹊從此治  
 迷心不覺室堂奧

**361** 시원 : 원문의 ‘임궁(琳宮)’은 원래 도교(道敎)의 사원인데, 여기에서는 불교 사찰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362** 대안탑(大雁塔) : (고사) 대과(大科)에 급제한 것을 말한다. 대안탑은 중국 자은사(慈恩寺) 안에 있는 7층 탑 이름으로, 당(唐) 나라 때 과거 급제자들이 여기에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한다.  
**363** 형주(荊州) 문하 : (고사) 형주의 한조종(韓朝宗)에게 보낸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살아서 만호후(萬戶侯)에 봉해지는 것보다도, 한 형주를 한 번 만나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다.  
**364** 이공 수레를 누가 고삐 잡을까 : (고사) 후한(後漢)의 이옹(李膺)은 성품이 강직하고 용기가 있어 선비(鮮卑)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으며, 사대부가 그와 접견하기만 해도 높은 벼슬을 하였으므로 등용문 구실을 하였다. 순숙(荀淑)의 아들로서 뒤에 석유(碩儒)로 이름을 떨친 순상이 이옹을 찾아가 만나고 인하여 이옹의 수레를 몰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오늘에야 이옹의 수레를 몰게 되었다.”라고 하며 좋아하였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李膺》  
**365** 눈 속의 문도 : (고사) 양시(楊時)가 유초(游酢)와 함께 스승 정이(程頤)를 찾아갔을 때, 정이가 마침 눈을 감고 앉아 있자, 둘이 서서 스승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이가 눈을 떴을 때 문밖에 눈이 한 자나 쌓였다. 《宋史 卷428 道學列傳2 楊時》  
**366** 자천(自薦)에 주머니 속 송곳을 어이 싫어하리 : (고사)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의 문객(門客)인 모수(毛遂)가 “내가 일찍이 주머니 속의 송곳(囊中之錐)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송곳 끝만 밖으로 나온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송곳 자루까지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고 하면서 한번 시험해 주기를 요청했던 고사가 있다. 《史記 卷76 平原君列傳》  
**367** 초헌(輶軒) : 외바퀴가 달렸고 앉는 자리는 의자처럼 꾸며져 있는 고관의 수레이다.  
**368** 오솔길 자란 풀들 : (고사) 맹자(孟子)가 고자(高子)에게 이르기를 “산중의 오솔길이 사용하는 순간에는 길을 이루었다가, 잠시 사용하지 않으면 띠풀이 꼭 차 버리나니, 지금 자네의 마음속에도 띠풀이 꼭 찼도다.”라고 하였다.

좁은 소견으로 스승의 문 <sup>370</sup> 을 보았지	管見思向門牆窺
땅강아지가 큰 북해에서 뜻 퍼려 하지만 <sup>371</sup>	蚍蜉輒擬偃溟渤
뱀새는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어렵구나	鷓鴣難免搶藩籬
유익한 벗을 따라 함께 공부하여	因從同學輔益友
매번 문단에서 글과 술로 어울렸지	每向詞垣文酒追
봄이 오자 꽃과 새는 깊이 시름하고 <sup>372</sup>	春來花鳥幾深愁
붓 아래 강산이 시 흥취 일으키네	筆下江山詩興資
문장은 예부터 쉽게 사람 궁하게 하니	文章自古易窮人
지금 내 나이 서른아홉인데	今我時年三九而
진생이 노닐던 길이 아직도 넓지 않고 <sup>373</sup>	陳生遊道尙未廣
가의는 궁한 근심에 눈살 펴기 어려웠네 <sup>374</sup>	賈子窮愁難展眉
서재에서 이제부터 설경 <sup>375</sup> 게을렀지만	書帷從此倦舌耕
붓 잡고 조용히 읊조리니 절로 즐거워라	把筆幽吟心自嘻
종전 사업을 과연 이룰 수 있으리오	從前事業果何成

반평생 한 일이 도리어 우습구나	半世營爲還可嗤
이제야 알겠네 장부의 입신출세란	方知丈夫發迹地
평생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만 못하네	莫如平生多產費
진나라도 과부에게 제후로 봉했고 <sup>376</sup>	秦家尙有寡女侯
한나라는 돈 냄새 <sup>377</sup> 혐의하지 않았네	漢庭休嫌銅臭遺

**369** 실당(室堂) : (고사)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의 학문 수준을 두고 말하기를, “당에는 올랐고 아직 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升堂矣 未入室也]”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학문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말이다.

**370** 스승의 문 : (고사) 노(魯)나라 대부 숙손 무숙(叔孫武叔)이 조정의 대부에게 “자공(子貢)이 중니(仲尼)보다 어질다.” 하자, 자복 경백(子服景伯)이 자공에게 고하였는데 자공이 “부자의 담은 몇 길이나 되어 문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論語 子張》

**371** 땅강아지가 큰 북해에서 뜻 퍼려 하지만 : (고사) 두보(杜甫)의 〈서울에서 봉선현으로 가는 길에서 회포를 읊조리다(自京赴奉先縣詠懷)〉에서 “땅강아지나 개미들을 생각하면 단지 스스로 제 구멍만 찾으면 되는데 어찌하여 큰 고래를 사모해 번번이 큰 바다에서 뜻을 퍼려고 생각하는가[顧惟螻蟻輩 但自求其穴 胡爲慕大鯨 輒擬偃溟渤]”라고 하였다.

**372** 봄이 오자 꽃과 새는 깊이 시름하고 : (고사) 두보(杜甫)의 〈강상치수여해세료단술(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시에 “늘그막의 시편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 봄이 오매 화조는 깊이 시름치 말지어다.[老去詩篇渾漫與 春來花鳥莫深愁]” 한 데서 온 말이다.

**373** 진생이 노닐던 길이 아직도 넓지 않고 : (고사) 진생은 당나라 진계경(陳季卿)이다. 진계경이 장안(長安)에서 노닐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 대나무 잎을 타고 삼시간에 고향인 강남(江南)에 다녀온 고사가 있다.

**374** 가의(賈誼)는 궁한 근심에 눈살 펴기 어려웠네 : (고사) 한(漢)나라 가의는 스무 살의 어린 나이로 문제(文帝)의 깊은 신임을 얻어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발탁되었다가 문제의 신임을 잃고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결국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漢書 卷48 賈誼傳》

**375** 설경(舌耕) : 혀를 놀려 생계를 삼는다는 뜻으로 학생들을 가르키는 것을 말한다.

**376** 과부에게 제후로 봉했고 : (고사) 진시황(秦始皇) 때의 부자였던 파촉(巴蜀)의 과부 청(淸)은 그 선대의 재물을 받아 잘 지키고 재물을 써서 스스로를 지켜 침범을 당하지 않자, 진시황이 정부(貞婦)라 하여 객례(客禮)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쌓았다.

**377** 돈 냄새 : (고사) 원문의 ‘동취(銅臭)’는 구리 냄새라는 말로,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것을 풍자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 최열(崔烈)이 500만 전(錢)을 바쳐 삼공(三公)의 하나인 사도(司徒)의 지위에 오르자, 당시 사람들이 구리

화려하기 위해 누가 금곡을 모으지 않으리오	繁華誰不募金穀
부귀하면 반드시 치이자피 <sup>378)</sup> 를 생각하네	富貴人必思鴟夷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역시 장사했고 <sup>379)</sup>	宣尼高弟亦行商
태사공 유편 <sup>380)</sup> 을 모름지기 의심치 말라	太史遺篇須勿疑
아 내가 삶의 이치를 일찍 깨달았다면	嗟吾生理倘早悟
굳이 남의 조소를 받을 필요 없었을 텐데	不必他人嘲笑貽
좋은 밭에 힘써 경작하여 소진을 배우고 <sup>381)</sup>	良田力畊學蘇秦
긴 소매로 높이 너울너울 범수와 같으리	長袖高伸同范睢
금동을 던진 곳에 세상 다투듯이 사귀고	金銅擲處世爭交
거마로 도울 때 남이 어찌 사양하리오	車馬資時人豈辭
장경은 술집에서 그릇 씻었고 <sup>382)</sup>	長卿酒肆尚滌器
완적은 막다른 길에서 부질없이 울었네 <sup>383)</sup>	阮藉窮途空泣歧
남포 <sup>384)</sup> 에서 다시 서로 어울려 만났고 <sup>385)</sup>	方期南浦更盍簪
쇠퇴한 문풍 일으키려는 뜻 간절했지만	志切文垣重起衰
행장에는 단지 빈 손 뿐이기에	行裝只有赤手空
누렇게 뜬 말 <sup>386)</sup> 같은 초라한 행색이라네	局顧其如黃馬羸
알겠구나 소매 속에 돈 주머니 하나가	從知袖裡一囊金
책상 앞의 시 일천 수보다 좋아라	絕勝床頭千首詩
봄가을 농토에서 농사지으니	春疇夏畦務畊耘
살찐 말과 좋은 갖옷 누가 비루하게 여기리	肥馬輕裘誰鄙卑
거마를 멋지게 차리고 벗들을 방문하여	豐其車騎訪師友

냄새가 난다고 기롱한 ‘최열동취(崔烈銅臭)’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52 崔駰列傳 崔寔》

**378)** 치이자피(鴟夷子皮) : (인물) 춘추시대 범려(范蠡)의 별칭이다. 그는 월(越)나라 임금 구천(句踐)을 20여 년 간 섬기면서 오(吳) 나라를 멸망시키고 회계(會稽)의 치욕을 씻고 나서는, 월 나라를 떠나 조각배를 타고 강호(江湖)를 떠돌아다녔는데, 제(齊)나라에서는 치이자피(鴟夷子皮)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금(金)을 모아 거부(巨富)가 되었다.

훗날 자신이 뜻한 공을 이루고 나서 강호(江湖)에 몸을 숨기고 유유자적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379)**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역시 장사했고 :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을 가리킨다.

**380)** 태사공 유편 : 태사공 사마천이 치부(致富)에 관해 쓴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을 가리킨다.

**381)** 소진(蘇秦)을 배우고 : (고사) 전국시대 소진(蘇秦)이 합종책(合縱策)을 주장하여 6국의 종약장(縱約長)이 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가령 내가 낙양성 교외에 좋은 땅 두 마지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여섯 나라 정승의 인을 꿰찰 수 있었겠는가.[且使我有洛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라고 말했던 고사도 전한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382)** 장경은 술집에서 그릇 씻었고 : (고사) 장경(長卿)은 전한(前漢)의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킨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아내 탁문군(卓文君)과 함께 쇠코잠방이를 입고 시장에서 술을 팔며 그릇을 닦았다. 《漢書 司馬相如傳》

**383)** 완적(阮籍)은 막다른 길에서 부질없이 울었네 : (고사) 삼국시대 위(魏)나라 명사(名士) 완적이 혼자 수레를 몰고 돌아다니며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길이 끊어진 곳을 만나면 문득 통곡하며 돌아오곤 했던 고사가 있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傳》

**384)** 남포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이다. 고성군 최남단의 남쪽 포구마을이다. 남포는 구상덕이 벗들과 배를 타고 노닐던 장소이며, 한시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지였다.

**385)** 서로 어울려 만났고 : (고사) 원문 ‘합잠(盍簪)’은 뜻 맞는 이들이 서로들 달려와 회동하는 것을 말한다. 《周易 豫卦 九四爻》

**386)** 누렇게 뜬 말 : (고사) 《시경》 〈주남(周南) 권이(卷耳)〉에 “저 높은 산등성이 어떻게 올라갈까, 내 말이 피곤해서 누렇게 변했으니.[陟彼高岡, 我馬玄黃.]”라고 하였다.



내 곳집 양식 먹으며 공자와 문왕 담소하네	食我倉箱談孔姬
신종의 권학문 <sup>387</sup> 을 전하지 마소	神宗莫傳勸學文
책 속에 생애의 보탬 보기 어려웠네	卷裡難見資生涯
빈한한 선비는 현달하지 못한다고 하니	曾聞寒士不能達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겠네	始識其言眞實辭
당시 사람도 천한 선비 추하다고 알며	時人亦知賤士醜
한 사물도 황은을 입기 어렵구나 <sup>388</sup>	一物難荷皇恩滋
은정 숲속 한 경내 또한 한가한 지역	銀林一境亦閑區
비 갠 뽕나무 밭에 들쭉날쭉 봄빛일세	雨後桑柘春參差
산밭 몇 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山田數畝貢租稅
말썽한 초가집 삼 칸을 엮었네	蕭洒三間結茅茨
몸에 어찌 해진 솜옷 <sup>389</sup> 싫어하리	身邊豈嫌弊緇衣
누항에서 단사표음 <sup>390</sup> 을 감내하네	巷裡甘受簞瓢持
춘훤 <sup>391</sup> 의 봄빛이 당채 <sup>392</sup> 에 비추고	椿萱春色上棠棣
맑은 바람 부는 송백에 난초 에워싸고	松柏清風繞蘭芝
주위 사람은 복랍 <sup>393</sup> 의 놀이 웃지 마시게	傍人莫笑伏臘娛
이 사람 원래 명성 없고 행동 어긋났지	此漢元無名行虧
외론 몸이 한 가지에 의탁한 뱀새 <sup>394</sup> 라도	孤形縱作托枝鷦
미미한 정성은 해바라기와 같네 <sup>395</sup>	微憫堪同傾日葵
구름 밖 하늘 가린 수컷 따를 것이니	將隨雲外負天雄
쭉대 속 날개 접은 암컷 어찌 오래 있으리	豈久蓬間垂翅雌
함부로 모의하고 나아감은 필시 허물 초래하니	狂謀妄進必生愆

**387** 신종의 권학문 : (고사) 신종(神宗)이 아니라 송나라 진종황제(眞宗皇帝)이다. 그의 권학문에 “집을 부하게 하려고 좋은 밭 사지 말라 책 속에 저절로 천종의 봉록이 있다.[富家不用買良田 書中自有千種祿]”라고 하였다.

**388** 한 사물도 황은을 입기 어렵구나 : (고사) 두보의 〈낙유원가(樂遊園歌)〉에, “성조께서 천한 선비의 추함 알아주니 한 사물들도 하늘의 사랑을 입으리로세[聖朝已知賤士醜 一物自荷皇天慈]”라고 하였다.

**389** 해진 솜옷 : (고사)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가 빈부(貧富)에 마음을 동요하지 아니하고 도(道)에 나아가는 자로(子路)를 칭찬하여 “해진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을 입은 자와 같이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아마 자로일 것이다.[衣敝緇袍 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 其由也與]”라고 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였다.

**390** 단사표음 : 도시락밥과 표주박 물로, ‘일단사일표음(一簞食一瓢飲)’을 줄인 말로, 빈궁한 생활을 뜻하는 말이다. 《論語 雍也》

**391** 춘훤(椿萱) : (고사) 춘당(椿堂)과 훤당(萱堂)으로 부모를 가리킨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춘나무는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 하였으므로 장수하기를 비는 뜻에서 남의 아버지를 춘당·춘정(椿庭)·춘부(椿府)라고 칭한다. 《시경》 〈위풍(衛風) 백혜(伯兮)〉에 “어이 하면 흰초(諛草)를 얻어 집 뒤에 심을까.” 하였는데, 흰초는 곧 원추리이다. 훤(萱)은 원추리라는 풀 이름인데 이것을 집 뒤에 심으면 근심을 잊는다 한다. 후세에는 훤당이라 하여 남의 어머니를 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392** 당채(棠棣) : (고사)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나오는 상채(常棣)를 가리키는데,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의미이다.

**393** 복랍(伏臘) : 여름철의 삼복(三伏)과 겨울철의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 이름인데, 보통 이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다정한 술자리를 말할 때 시어(詩語)로 많이 쓰인다.

**394** 한 가지에 의탁한 뱀새 : (고사)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넓은 숲 속에서 뱀새가 차지하는 보금자리는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하다.[鷦鷯巢於深林 不過一枝]” 하였다.

**395** 해바라기와 같네 : (고사)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신하가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뜻한다.

순리대로 사노니 누가 하자를 찾으리오	順處循常誰覓疵
한가함 틈타 필묵을 가지고 친하니	偷閑只與翰墨親
괴로움 겪을지언정 기구한 운명 걱정하리오	喫苦寧憂身命崎
하늘이 남자에겐 필시 쓰임이 있을 것이니	天生男子必有用
다시 시례를 열심히 연마하리라	更琢詩禮揮金鎚

3월 22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고 북풍이 불었으며 가끔 햇볕이 나왔다. 금년 여역(癘疫)으로 천지가 일망타진 되고 아울러 기근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았다.

3월 23일(경진) 구름이 얇게 끼었다.

3월 24일(신사) 햇볕이 나와 따뜻하고 동풍이 불었다.

3월 25일(임오) 온화하였다.

3월 26일(계미) 남풍이 훈훈하게 불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은정(銀亭)의 나무들이 종류마다 잎사귀를 피어 위 부분은 덮개와 같고, 동쪽 가지는 그늘을 드리우고 중간 부분의 가지와 잎은 혹 무척이나 피지 않았으니,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 아버님이 읍에 들어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처갓집 할머니 부음이 도착하였다. 시가[市直]가 조(租) 4말 혹은 4말반이다.

3월 27일(갑신) 동풍이 불고 햇볕이 따뜻하였다. 처갓집 사내중이 오자, 조(租) 2말, 쌀 2되, 유자[榴] 3개, 짚자리[草席] 1립(立)을 부의로 보냈다. 저물녘에 동풍이 불어 무척 추웠는데, 밤이 깊어서야 바람이 그쳤다.

3월 28일(을유) 바람이 어제처럼 춥고, 밤중에 비바람이 모두 불었다.

3월 29일(병술) 바람의 기세는 약해졌으나 비는 쏟아져 물이 땅에서 솟았다.

3월 30일(정해) 북풍이 갑자기 불었으나 쾌청하고 햇볕이 따뜻하였다. 노루 한 마리를 사냥해서 원산(圓山) 위에서 모여 구워 먹었다.

4월

4월 1일(무자) 맑고 따뜻하였다. 사또께서 데려오신 가족 중 크고 작은 아이들이 두역(痘疫)을 잘 치렀기 때문에 나는 사또께 가서 축하를 드리고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금방 사라졌다. 시가[市直]가 조(租) 4말이다.

4월 2일(기축)

4월 3일(경인) 온화하였다. 몽아(夢兒)가 《백련초해》를 배웠다.

4월 4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흑 구름이 얇게 끼었다. 남산에서 뽕잎을 따다.

4월 5일(임진) 가랑비가 내렸다.

4월 6일(계사) 또 비가 내렸다.

4월 7일(갑오) 가랑비가 가끔씩 내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백성 배돌상(裴玆上)이 전염병을 겪은 후에 생선을 먹고 보지(寶池)를 지나다가 죽었다.

4월 8일(을미)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9일(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10일(정유) 맑고 따듯하였다.

4월 11일(갑술) 다시 흐렸다.

4월 12일(기해) 계속 흐렸다.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금년 봄은 흉년이 매우 심한 데다 전염병까지 겹쳐서 사망자가 잇따라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살림이 넉넉한 집안에서도 필시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었으며, 그 다음 집안은 간혹 끼니를 거르는 때가 있으니, 칩뿌리가 없었다면 가난한 백성은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이다. 고을 사또의 새로운 정사에 대해 혹 잘했네, 못했네 하는 기룡이 있기도 하지만 중간에는 자못 선정을 베풀었다는 칭송이 많았다. 진흙을 베풀던 날이 되어 백성들 가운데 더러 원통함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끝에는 타당하게 처리했으니 그런대로 잘 다스린 관리라고 할만하다. 처음에는 얼굴에 누렇게 뜬 기색이 있는 자를 골라서 진소(賑所)에 보냈고, 지금은 또 유토(有土) 중에서 굶주림이 심한 사람을 가려내서 진소에 보내 부지런히 구활(救活)하도록 하였다. 본읍의 백성 중에 굶주려 죽은 자가 다른 읍에 비해 적었던 것은 우리 사또의 은혜이다.

4월 13일(경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 푸른 풀들이 부쩍 늘어져 있었다.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붉은 꽃 푸른 버들 작은 시내 남쪽	花紅柳綠小溪南
비온 뒤 잔 노을이 비취색 남기에 젖었네	雨後殘霞濕翠嵐
천연의 기이한 정경 앉아서 다 얻으니	坐得天然一奇盡
용면거사 <sup>396</sup> ) 행장 속 붓 많은 말이 필요없네	龍眠橐筆不多談

4월 14일(신축)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히고 날씨가 매우 따듯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상인(喪人) 백준채(白俊采)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저녁에 멀리서 우레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396)** 용면거사(龍眠居士) : (인물) 송(宋)나라의 유명한 문인화가(文人畫家) 이공린(李公麟)의 호이다.

4월 15일(임인) 청명하면서 가끔 구름이 끼었다. 어제 함안(咸安) 땅에 큰 우박이 내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4월 16일(계묘) 봄비가 흡족하지 않아 못자리에 물 부족에 대한 근심을 면하지 못했다.

4월 17일(갑진) 나는 남관(南關)에 들어가 거접(居接)하였다. 이날 저녁에 서북쪽에 바람이 불고 비가 떠 내렸다. 밤에는 비바람이 크게 치고 냇물이 칼칼 용솟음 쳤다.

4월 18일(을사) 식후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다.

4월 19일(병오) 비로소 공부를 시작했다.

4월 20일(정미)

4월 21일(무신)

4월 22일(기유) 이상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23일(경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4일(신해) 가랑비가 내렸다. 분접(分接)해서 승부를 겨루었다.

4월 25일(임자) 비가 개었다.

4월 26일(계축) 해가 나왔다. 용동(龍洞)의 어린 아이가 두역(痘疫)에 걸렸기 때문에 김군 백봉(金君百朋) 집에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였다.

4월 27일(갑인) 가랑비가 햇볕을 업신여기듯 내렸다.

4월 28일(을묘)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29일(병진)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밤이 되자 점점 가늘어졌다.

5월

5월 1일(정사) 어제 비와 오늘 비로 냇물이 칼칼 흐렸다. 오후에 비가 그쳤다.

5월 2일(무오) 얇은 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5월 3일(기미) 가랑비가 내렸다. 밤이 되자 서남풍이 심하게 불면서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5월 4일(경신) 아침에 크게 천둥이 치더니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으나 오후가 되어서는 하늘

이 맑아졌다.

5월 5일(신유) 해가 나왔다. 용동(龍洞)의 수아(壽兒)가 이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

5월 6일(임술) 해가 나왔다.

5월 7일(계해) 또 비가 내려 물이 솟아나왔다.

5월 8일(갑자) 계속 비가 내렸다.

5월 9일(을축) 서풍이 불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5월 10일(병인) 따뜻하였다.

5월 11일(정묘) 약간 흐렸다. 시 10수를 지었다.

5월 12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13일(기사)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했으나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5월 14일(경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농가에서는 농사가 잘 되기를 몹시 소망했다.

5월 15일(신미) 가끔 해가 나기도 했으나 구름이 많이 끼었다.

5월 16일(임신)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5월 17일(계유) 가랑비가 가끔 내리기도 하고, 구름이 끼고 햇볕이 나왔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에 나는 측간을 가려고 배에 올랐는데, 그 순간 배가 물러나면서 몸이 땅에 떨어져 주위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이 때 이미 병의 빌미가 있어 한기와 열기가 번갈아 일어나 뼈마디가 옥신거렸다.

5월 18일(갑술) 가끔 비가 내렸다. 병이 낫지 않아 집에 이 사실을 알렸다.

5월 19일(을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 정도씩 나뉘어 있었다. 정노(正奴)가 들어왔다. 나는 병든 몸을 말에 싣고서 돌아갔다. 수락현(水落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청량죽[靑梁粥]을 마셨다. 저녁에 정노(正奴) 집에서 머물렀다.

5월 20일(병자) 가끔 비가 내렸다. 병이 나서 자리보전하였다.

5월 21일(정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연속 무가산(無價散)<sup>397</sup>을 복용하였다.

---

**397)** 무가산(無價散) : 진사(辰砂) 2전 5푼, 경분(輕粉) 5전 감수(甘遂) 면(麵)에 싸서 삶아 배건(焙乾)한 것 1전 5푼을

5월 22일(무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땀을 흘렸다.

5월 23일(기묘) 가끔 비가 내렸다. 원기(元氣)가 조금 소생하였다.

5월 24일(경진) 비가 크게 내렸다.

5월 25일(신사) 비가 걷혔으나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26일(임오) 매우 더웠다.

5월 27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날 나는 교외에서 바람을 쐬고 돌아왔는데, 지금 한창 이양(移秧)하는 시절이라 무척이나 분주하였다. 밤에는 청명하였다.

5월 28일(갑신) 청명하고 찌는 듯이 더웠다. 나는 보리를 수확하는 곳에 가서 두 묶음 보리를 가지고 네 묶음 남초(南草)로 바꾸어서 임시 처소로 돌아갔다. 오늘부터 다시 담과[痰破]<sup>398)</sup>를 피웠는데 병을 겪은 후에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도 역시 만나서 따라가지 않아 답답하고 무료하여 호미를 가지고 직접 돌밭[石田] 목화 얼마 정도의 땅을 경작해 보았다. 저녁에 동풍이 불고 또 흐렸다. 우리 집은 보리 수확을 끝마쳤다.

5월 29일(을유)

5월 30일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 기운이 무척 좋지 않았다. 오후에 집에 들어갔다. 저녁에 가랑비가 방울방울 내렸다. 이양(移秧)이 끝났다.

윤5월

윤5월 1일(병술) 하루 종일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황형(黃瑩)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또 편치 못한 기운이 있었다. 시가[市直]가 모(牟) 11,2말이다.

윤5월 2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황생(黃生 黃瑩)이 또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나는 끽 끽 앓은 병이 계속 차도가 없었다. 본읍(本邑) 세전(稅缸)이 침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윤5월 3일(무자) 황생이 점괘로 인일(寅日)을 얻어 차도가 있을 것이니, 내일 이곳에서 동쪽으로 나가 피접하라고 말하였다.

윤5월 4일(기축) 비가 먼지를 적셨다. 정시적(丁時迪)의 빈 집으로 나가 피하였는데, 밤새도

---

연(研)하여 세말(細末)해서 매번 1자(字 1푼 반)씩 먹는다. 《證治準繩方》

**398)** 담배 : 세속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痰)을 제거할 수 있다 하고, 따라서 담배를 담과고(痰破姑)라 부른다.[두주] ‘담과고’는 포르투갈어의 tabacco[담배]에서 온 것인 듯하다.[역주]

록 크게 아파서 한 밤중에 취한(取汗)하였다.

윤5월 5일(경인) 가끔 햇볕이 나왔는데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병세가 조금 누그러졌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柳妹兄)와 갈산(葛山)에 사는 유매형이 와서 문병하고 돌아갔다.

윤5월 6일(신묘) 가끔 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모(牟) 10말, 혹은 9말이라고 한다. 올벼[早稻]를 김맸다.

윤5월 7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낮잠을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읊시 한 수를 지었는데 그래도 염(簾)<sup>399</sup>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오랫동안 병들어 밤이 괴롭게 길더니	久病沈吟苦夜長
어찌하여 아직도 회복되지 않나	如何尙不復平常
파리나 벌레 귀찮게 해 잠 못 이루니	煩兼蠅蝸難成寢
이불 속에서 있으니 미칠 것 같구나	爇擁衾裯每欲狂
이미 몸에 병으로 고통당한 날 많으니	已使身當多日痛
오직 아버지 백년 강녕하시길 기원하네	惟祈親有百年康
나머지로 식구들도 끝까지 무탈하여	自餘十口終無患
영영 평안하고 일마다 번창하기를	永歲安寧事事昌

들으니, 사또가 법천사(法泉寺)에서 한 고장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밤새도록 잔치를 열어 술을 마셨으니, 대개 경박한 풍속을 탕평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두보(杜甫)의 읊시 중 운자 하나를 차운하여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여가에 봄날 별세계에서 노니는데	暇日優遊別界春
이곳에 한 고장 사람 다 모였구나	一場會合一鄉人
원님이 함께 팔짱 끼고 형제로 보니	郡公同把看兄弟
경박한 풍속이 맘 속 불평 <sup>400</sup> 없기 기약하네	薄俗期無反口脣
얼마 오래 준마가 소금수레에 곤욕 당했나 <sup>401</sup>	何久塩車困騏驎
임금님 마구간에 기린마를 기른다고 들었네	曾聞天廐養猊麟
잔치 참석한 여러분이 교화 더욱 입었으니	同筵諸子尤沾化
반드시 마음 다스리고 몸 삼가 해야 하네	必自治心慎厥身
병중에 힘쓰라는 시를 졸렬히 읊조리니	病中拙吟益加詩
병들어 사람들 보고 불만으로 여기리라	病令人見之不滿

한번 꺾꺾 웃는다. 이날 빗물로 진흙탕이 되었다.

**399)** 염(簾) : 한시에서 평성(平聲)과 측성(仄聲)을 반복하여 음조를 맞추는 것을 염이라고 한다.

**400)** 맘 속 불평 :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401)** 준마가 소금 수레에 곤욕 당했나 : (고사) 현재(賢才)가 둔재(鈍才)와 뒤섞여 불우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윤5월 8일(계사) 가끔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사또께서 법천사(法泉寺) 모임 중에서 운자를 다음과 같이 추후 화운(和韻)하였다.

관아의 온갖 공무 잠시 잊고서	公庭百事暫相忘
다시 선비들 불러 한 당에 모였네	更引衣冠會一堂
말씀 지극정성으로 경박한 풍속 되돌리니	言出誠心回薄俗
위엄과 덕치가 먼 고장을 감화시키네	政因威德化遐鄉
마음 통해 절로 곤궁한 백성 즐거움 있고	通情自有窮民樂
창고 열어 끝내 굶주려 죽은 사람 없네	發廩終無餓莩僵
오늘 여러 선비들 응당 기록 남기니	當日諸儒應記實
큰 비석에 글자가 몇 천 줄이로다	豐碑文字幾千行

내가 10여 년 전에 백일홍을 집 앞에 심었는데 지금 벌써 정자처럼 그늘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보 율시의 운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가시 숲에 빼어나게 우뚝 자라나	亭亭秀出棘林中
덧개나 대야 같이 허공에 만들었지	如蓋如盤便架空
가까이 맑은 시냇가에서 달빛 먼저 들고	近澗清溪先得月
멀리 높은 언덕 임하면 절로 바람 부네	迥臨高岸自生風
봄날 성에 꽃들 다 피어 따르지 않았는데	春城不逐群芳盡
가을 정원에 백일홍만이 피었네	秋苑惟開百日紅
그늘 짙어 더위 씻을 수 있어 사랑스러워	更愛繁陰能滌暑
그 아래 소요하며 나무 어루만지리라	逍遙其下可攀叢

정노(正奴)가 아파 누워있다.

윤5월 9일(갑오) 또 비가 내렸다. 내가 향중(鄉中) 괴귀(怪鬼)한 자들이 꽤거리를 지어 직임을 다투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또 사또가 지은 시를 다음과 같이 화운(和韻)하였다.

우리 곤궁한 백성 사랑해 잠시도 잊지 않고	愛我窮民不暫忘
밤낮으로 동헌에 앉아 노심초사 하시네	勞心夙夜坐公堂
정무와 형벌로 간사한 무리 깨뜨리기 어려워	政刑難破奸邪黨
예의와 겸양으로 괴상한 고장 교화하러 하네	禮讓思齊鬼怪鄉
사람들이 평소 서로들 화합하면	人若平居相會合
위급한 일 당해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事當危急不顛僵
사또님이 지극정성 힘쓰는 곳을 보라	須看明府推誠處
몇 줄 가득 새 시를 지어 보노라	寫出新詩滿幾行

면주인(面主人) 권농유사(勸農有司)들이 모환(牟還)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느라 촌마을에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올봄 보리농사는 비록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식량으로 죽을 먹을 시기에 들어갔고, 또 이앙을 다하는 날이다. 현재 굶주리고 식량이 부족한 자가 태반이었다.



나는 임장(任掌)들이 분주히 다니는 모습을 가엾게 여겨 두보 시의 운을 사용하여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대낮에도 어린이들 집 문 뚝뚝 닫고	白晝兒童固閉門
현 아전이 앞마을에 왔다고 서로들 말하네	爭言縣吏到前村
민가 생계 고갈되니 조세를 어떻게 마련하리	民家枯渴租何出
이임은 접대 준비에 날이 이미 저물었네	里任支供日已昏
개 소리 듣고 간담이 거의 떨어질 듯 하고	幾聽犬聲空墮膽
매번 부르는 소리에 곧장 겁이 덜컥 나네	每當人叫卽驚魂
잠깐 사이 막대기 끌고 소리치며 들어오니	須臾曳杖長呼入
낭자하게 매질하는 걸 누가 감히 따지리오	狼藉鞭笞孰敢論

근래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어 축축한 기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병든 소회에 더욱 답답하기에 입으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산 위의 뜬 구름이 그늘진 땅과 이어져	山上浮雲接地陰
열흘 동안 그치지 않고 비가 되어 내렸네	連旬不捲釀成霖
내일 아침 어떻게 긴 바람으로 쓸어버려	明朝安得長風掃
맑은 하늘에 흰 해 비춤을 쾌히 보리라	快觀青天白日臨

윤5월 10일(을미)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별이 나오기도 하였다. 현재 경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질은 구름 흩어져 아침 햇살 비추려고 하니	陰雲欲散淨朝暉
연무 속 산 빛이 은은히 보이구나	霧裡山光見隱微
노래 끝난 피꼬리 근심스레 가지 앉아있고	歌罷黃鸝愁濕坐
높이 나는 백로 바쁜 날개 짓으로 말리네	翔回白鷺劇乾飛
친한 벗이 없어 오는 편지 드물고	生無親友書來少
깊은 숲에 집이 있어 손님이 드무네	家在深林客到稀
앞마을에서 처음 술 거른다고 하니	聞道前村初壓酒
아이 불러 빨리 술사서 가져오라 했지	呼兒沽取急時歸

우습다. 오후에 습한 비가 부슬부슬 내려 쓸쓸한 조그마한 방에 파리들이 앵앵거려 이불을 덮고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병든 심회가 답답하다.

윤5월 11일(병신) 또 비가 내렸다. 은정(銀亭)에 다음과 같이 제(題)하였다.

천 길 높이에 몇 아름 정도인데	長幾千尋抱幾連
이 나무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구나	不知栽植亦何年
깃든 새는 맑은 가을날만 알고	栖禽但識清秋日
좌객은 한여름 날씨 온통 잊어버리네	坐客渾忘盛夏天

바로 우리 유자가 예의 익히는 곳인데      正合吾儒儀禮習  
 어찌 무인에게 각궁<sup>402</sup>을 걸게 하리오      寧教武士角弓懸  
 문 앞에 소요할 수 있는 세계 얻었으니      門前自得逍遙界  
 굳이 광막한 들판<sup>403</sup> 구할 필요 없도다      不必求他廣漠邊

윤5월 12일(을유) 햇별이 많이 나고 구름은 적었다. 날씨가 매우 더웠다.

윤5월 13일(무술) 동풍이 차갑고 얇게 낀 구름이 흩날렸다.

윤5월 14일(기해)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5월 15일(경자) 동풍이 불고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오후에 비와 함께 바람이 불고 진흙탕이 되었다.

윤5월 16일(신축)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정노(正奴)가 황달(黃疸)이 있어 인진탕(茵蔯湯)<sup>404</sup>을 복용했다.

윤5월 17일(임인) 서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처음 머리를 빗었는데 세수를 하지 않았다. 정노(正奴)의 병이 갑자기 차도가 있었다.

윤5월 18일(계묘) 구름이 조금 끼고 햇별이 많이 나왔다. 나는 비로소 세수를 하였다.

윤5월 19일(갑진) 동풍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윤5월 20일(을사)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 하였다.

윤5월 21일(병오) 큰비가 내렸다.

윤5월 22일(정미)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닭이 울 때 시내와 들판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북쪽 도랑에 범람하는 기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놀라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다. 아버님이 직접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세(水勢)를 살피시고 돌아가셨다. 아침 식사 즈음 비가 그쳤다. 오후에 심군 익룡(沈君翼龍)이 정리(情理)가 있어 와서 사정을 묻고는 저녁이 되어 작별하고 돌아갔다. 어제는 바로 지난 계사년 윤5월 악수(惡水)가 있던 날인데, 지금 두 차례의 물난리는 계사년보다 못하지 않다.

윤5월 23일(무신) 가랑비가 내렸다. 감영이 지난번 화재로 관공서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

**402)** 각궁(角弓) : 소나 양의 빨로 장식한 활로, 빨활이라고도 한다.

**403)** 광막한 들판 : (고사) 장자가 무용하게 보이는 큰 박은 그대로 강호(江湖)에다 띄우면 될 것이고, 그 나무는 무하유(無何有)의 고장 광막(廣莫)한 들에다 심으면 될게 아니냐고 하였음. 《莊子 逍遙遊》

**404)** 인진탕(茵蔯蕩) : 속칭 인진쑥을 말하는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이고 발한(發汗), 해열(解熱), 이뇨 작용(利尿作用) 등의 효과가 뛰어나 약재로도 사용된다.

었다.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남촌(南村)에서부터 방문하였다. 어두워지자 비바람이 다시 일어났다.

윤5월 24일(기유) 오후에 비가 약해졌다.

윤5월 25일(경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윤5월 26(신해)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으며 북쪽에 우렛소리가 들렸다. 고성 사또 김후(金侯)께서 유행병[時疫]으로 오늘 세상을 떠났으니, 슬픈 일이다.

윤5월 27일(임자) 더웠다.

윤5월 28일(계축) 가장 더웠는데, 여름 이후로 최고였다.

윤5월 29일(갑인) 매우 덥다가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안정사(安靜寺)에 들어가 선방(禪房)에서 머물러 묵었다.

윤5월 30일(을묘) 매우 더웠다. 나는 남촌진(南村鎭) 서재(書齋)에 가서 계속 머물렀다. 당시 훈학(訓學)은 중 시삼(是森)이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병진) 매우 더웠다. 내가 계속 서재에 임시로 머물렀기에 사내종이 양식과 행장을 지고 왔다.

6월 2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입으로 다음과 같이 절구시를 읊조렸다.

좋은 산수를 구름과 연무로 감싸 안아	佳山麗水護雲烟
시원한 서가래 몇 개 올린 초가집	蕭洒茅齋結數椽
하늘이 은자를 위해 별천지 열어주었으니	天爲幽人開別界
시냇가에 복숭아나무 심지 마시게	莫將桃樹種溪邊

6월 3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4일(기미) 매우 더웠다. 나는 걸어서 고삭(高朔) 들판 가운데로 나아가 집안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탐지하고 임시 처소로 돌아갔다. 동풍이 불었다.

6월 5일(경신) 동풍이 불고 약한 비가 밤새 보슬보슬 내렸다. 이 때 병충해가 자못 곡식을 상하게 하는데 이번 내린 비로 씻어낼 수 있겠는가.

6월 6일(신유)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도 여전히 보슬보슬 내리다가 오후에 그쳤다.

6월 7일(임술) 가끔 구름이 끼고 매우 더웠는데, 이날 소낙비가 내렸다. 병충해가 더욱 심하다고 말들 하였다. 나는 또 본리(本里)에 도착하여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 댁에서 점심을 먹고, 집안의 소식을 탐지하고 임시 처소로 돌아갔다.

6월 8일(계해) 날씨가 더웠으나 가끔 음산하게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와서 함께 공부하였다.

6월 9일(갑자) 더웠다.

6월 10일(을축) 나는 또 본리(本里)로 돌아와서 정재종(丁再從 정창래) 댁에 머물렀다.

6월 11일(병인) 식사한 후에 임시 처소로 돌아왔는데, 정래봉(鄭來鳳)이 또 도착해서 함께 공부하였다.

6월 12일(정묘)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13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매우 무더웠다.

6월 14일(기사) 매우 무더웠다.

6월 15일(경오) 아침에 가랑비가 이슬처럼 내리다가 식후에 구름이 걷혔다. 나는 또 본리(本里)로 돌아와서 정재종(丁再從) 댁에서 묵었다. 사또의 상여가 출발하였다.

6월 16일(신미) 임시 처소로 돌아왔다.

6월 17일(임신) 벗 세 명이서 남촌진(南村鎭)에 가서 식사를 한 후 돌아왔다.

6월 18일(계유) 동풍이 불고 구름이 날렸다. 나는 임시 처소에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9일(갑술) 가랑비가 떨어지자마자 금방 마르고 매우 더웠다.

6월 20일(을해) 바람과 구름이 어제와 같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1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정래봉과 김백봉이 두 사람이 머물러 있는 남촌(南村) 서재(書齋)를 가서 보고 돌아왔다.

6월 22일(정축) 밤에 빗방울이 내려 땅에 1치쯤 스며 들었다.

6월 23일(무인) 춘원포(春元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정래봉(鄭來鳳)과 김백봉(金百朋) 두

군(君)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비가 갑자기 내렸으나 별빛이 가끔 구름 사이로 새어 나왔다.

6월 24일(기묘) 아침에 비가 오고 구름이 말렸다 퍼졌다 하였다. 정래봉과 김백봉이 공부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6월 25일(경진) 향교에 갔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서쪽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쳤고,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26일(신사) 삼[麻]을 삶듯이 매우 더웠다. 밤 삼경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27일(임오) 무더위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8일(계미) 나는 대축(大祝)으로서 무이산(武夷山)에 기우제를 지냈다. 당시 별감(別監) 이수종(李秀宗)이 관장(官長)을 대신하여 헌관(獻官)의 예식을 행하였다.

6월 29일(갑신) 제사를 지낼 때 먹구름이 띠를 이루어 동쪽 바다에서 일어나 연무(煙霧)와 노을이 눈앞을 가려 산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올봄에 여역(癘疫)이 근고(近古)에 없던 일로, 이질(痢疾)까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온역(瘟疫)이 곳곳마다 포악을 떨치고 보리 고개 시기가 임박하여 굶주림과 곤란함이 특히 심하였다.

화재의 경우 경성(京城)은 선혜청(宣惠廳) 영자고(盈字庫)가 소실되었고, 동래(東萊)는 왜관(倭館)이 소실되고, 본도(本道 경상도)는 감영(監營)이 또 불에 탔고,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두 감영 역시 불에 탔다.

병충해의 경우 연변(沿邊)의 소나무가 우거졌던 읍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본읍의 서면과 남면 및 포도도(葡萄島)와 안정(安靜)과 황리(黃里) 등의 들판 역시 남아있는 작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산 안쪽 큰 들판은 우선 대풍이 될 조짐이 있다.

한재(旱災)의 경우 경기(京畿)와 충청(忠淸) 두 도는 아직도 이앙을 하지 못한 곳이 있다. 본도의 대구(大丘)와 칠곡(漆谷) 등의 읍(邑) 역시 혹독한 가뭄이 들었다. 콩[豆太]이 말라 쓰러진 것이 더욱 심하다고 한다.

임금님께서 손수 치른 기우제가 지금 이미 6번이라고 한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을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나 먼지도 적시지 못하고 날씨는 매우 더웠다.

7월 2일(병술) 천둥이 치고 비가 갑자기 내렸으나 먼지만 적셨다. 무더위는 어제와 같았다.

7월 3일(정해) 무더위가 어제와 같았다.

7월 4일(무자) 무더위가 어제와 같았다. 소소포(召所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5일(기축) 동풍이 불어 구름이 치달렸다. 아내가 곽란(霍亂)<sup>405</sup>을 앓아 깜짝 놀랐다.

7월 6일(경인)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허합(許迺)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7월 7일(신묘)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쳐 나무가 꺾이고 벼가 쓰러졌다.

7월 8일(임진) 서풍이 불고 청명하고 벼이삭이 시들고 메말랐다. 허합(許迺)이 작별하고 떠나갔다. 햇쌀[新稻]을 수확했다.

7월 9일(계사) 날씨가 청명하였다. 남촌포(南村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10일(갑오) 매우 더웠다. 춘원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11일(을미)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고, 밤에 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7월 12일(병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모환(牟還)을 나누어 주었다. 지난 초7일 비바람 불고 병충해가 더욱 심해져 논물이 잿물 같고 흐르는 냇물도 그러하였다. 풍재(風災)와 병충해로 농사가 걱정스럽다. 올벼쌀의 소출이 상당히 줄었고, 밥맛 역시 없었다.

7월 13일(정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웃사람 송즙(宋楫)이 죽었다.

7월 14일(무술) 가랑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가 여제(厲祭)를 치르는데 대축(大祝)이 되었다.

7월 15일(기해) 구름이 끼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 여제단(厲祭壇)에서 돌아오는 길에 심익룡(沈翼龍)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파하였다.

7월 16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시가[市直]가 조(租) 3말, 미(米) 1말, 혹은 1말에 가승(加升 3되 정도)하고, 겉보리[皮牟] 4말이다. 통영에 사는 김호서(金虎瑞)가 지나가다 머물렀다.

7월 17일(신축) 비가 내렸다. 붓 만드는 장인 배대성(裴大成)이 찾아와서 계속 머물면서 붓을 만들었다.

7월 18일(임인) 비바람이 심하여 시내와 땅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이번 내린 비는 윤5월 내린 빗물에 배가 되니, 괴이하도다. 일년 안에 여찌 다시 두 번이나 큰 비가 내린단 말인가. 지난번 강가의 여러 읍(邑)에 풍년 든 농사가 모두 침수되었다고 하니, 이 해의 운수가 아닌 것이 없구나. 새 사또로 예조 좌랑(禮曹佐郎)이었던 전주인(全州人) 이봉명(李鳳鳴)이

---

405) 곽란(霍亂) : 기출

장차 내려오려고 하였다. 지평(持平) 이유신(李裕身)<sup>406</sup>이 바로 예전 진해 현감(鎭海縣監) 좌천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상소하기를,<sup>407</sup> “고성은 바닷가 다스리기 어려운 읍입니다. 또 통제사의 영하읍(營下邑)이니, 지방관은 남평사(南評事)의 옛 전례(前例)대로 명망 있는 인물을 가려 보내야 합니다. 이봉명과 같은 자는 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파직하여 그 대신 당시 장령(掌令)으로 황간 현감(黃澗縣監)을 역임한 사또 허석(許錫)을 보냈다.

7월 19일(계묘)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0일(갑진) 햇벌이 나왔다. 김호서(金虎瑞)와 배대성(裴大成) 등이 떠났다.

7월 21일(을사) 병충해가 크게 치성하여 흐르는 시냇물이 피와 같았다. 거제(巨濟) 땅의 인민(人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행렬이 계속되었다. 이 읍의 동문 밖과 송도역(松道驛) 중벼[中稻]가 매우 잘 여물어 거의 수확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병충해의 피해로 푸르고 푸른 곡식이 다 말라 죽고 말았다. 시가[市直]가 예전대로 길보리[皮牟] 4말, 황조(荒租) 5말, 미(米) 1말 2되이다.

7월 22일(병오) 비가 내렸다.

7월 23일(정미) 큰비가 내려 들판에 물이 넘쳐 흘렀으니, 이 무슨 1년 동안 세 차례나 큰 물난리가 일어났단 말인가.

7월 24일(무신)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본동(本洞)에서 소를 잡고 술을 마련해 은정(銀亭) 물가에서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 병충해를 물리치기를 기원하고 소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여 땅이여	天乎地乎
아버지 어머니로다	父也母也
만백성이 자식이로다	子萬民兮
개거나 비온 날씨 순조로워	若暘若雨
생재 <sup>408</sup> 가 없어	無災無眚
오곡을 길러 주니	養五穀兮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라	非天惟天
식량이 또한 백성의 하늘로	食亦民天

**406)** 이유신(李裕身) : 《승충명록》 원문은 ‘이수신(李綏身)’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영조실록》으로 이유신(李裕身)으로 정정하였다.

**407)** 상소하기를 : 이 상소 내용은 《영조실록》 영조 8년 6월 22일 기사에 보인다.

**408)** 생재(眚災) : 무의식적인 실수로 재해로 인하여 지은 죄를 말한다. 《서경》 〈강고(康誥)〉에 “큰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지르려고 작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무의식적인 실수로 범한 것이거나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이미 그가 자기의 죄를 뺄짐없이 다 말하였다면 죽이지 말아야 한다.[乃有大罪非終 乃惟眚災適爾 既道極厥辜 時乃不可殺]”라는 말이 나온다.

큰명이 매달렸도다	大命係矣
이미 낳고 기르면서	既生而育
식량 있어 배불리 먹고	有食而飽
항심 <sup>409</sup> )으로 즐겁도다	恒心樂矣
어느 해에 왔던가	于何年來
길한 징조가 이르지 않구나	休象不至
참혹한 피해가 서로 이어져	酷害相荐
지난해 이미 흉년이었는데	去歲既凶
올 봄도 곤궁하도다	今春亦窮
실낱같은 위태로운 목숨	危命如綫
물난리 나고 가뭄 들고	水旱之餘
해충이 또 발생하여	蠹賊又起
날로 불길처럼 심해져	與日熾盛
모든 곡식이 시들고	百穀委靡
사방 들녘이 황폐해졌네	四野焦黃
구월 사이 정경	九月間景
아 우리 백성들 삶이여	嗟我民生
아침저녁으로 위급하여	朝暮危急
농토에 모여 눈물 흘리지만	聚泣田畝
하늘이 돌보지 않아	旻天不弔
하소연한 들 아무 소용없어	呼籲莫及
돌아가자 어디에 물어보라	歸歟何叩
땅은 우리 어머니이니	地唯我母
극도로 궁하면 반드시 부르니	困極必呼
못 사람들 일제히 소리쳐	衆口齊聲
어머니와 자식	曰母曰子
은혜와 사랑 이미 깊으니	恩愛已深
부디 우리들 심정 살피주소서	倘鑑輿情
어머니 아니면 양육 되지 못하고	非母不育
식량 없으면 살기 어렵네요	無食難生
어머니 알아주소서	母兮諒歟
우리 어머니 부르고	呼我之母
우리 굶주림 울부짖네	啼我之飢
어머니 가엾게 여기소서	母兮怜歟
더러운 토지를 씻고	滌土地汚
요상한 연무 다 쓸어버리고	掃蒙霧妖
황충이 절로 사라져	虫蝗自消
자식같은 백성 보존하고	子民者存
하늘같은 식량이 생산하여	天食者生
아 신이 밝게 임하소서	繫神之昭

409) 항심(恒心) : (고사) 맹자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일정한 산업[恒産]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恒心]이 있다.”라고 하였다.



7월 25일(기유)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자 천둥이 치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정노(丁奴) 차선(次先)이 죽었다.

7월 26일(경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시가[市直]가 진모(眞牟) 4말, 백미(白米) 1말 반, 조(租) 6말, 황조(荒租)는 혹은 9말인데 미(米)는 2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어두워지자 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7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 호적 감색(戶籍監色)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

7월 28일(임자)

7월 29일(계축) 이상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

7월 30일(갑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나는 들어가 석전제(釋奠祭)에 참여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신임 사또 허후(許侯, 許錫)가 상관(上官)하여 좌수 최원망(崔元望)을 체직시키고 최섬(崔暹)을 대신 시켰다.

8월 2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장이 재소(齋所)에 들어갔다.

8월 3일(정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또 사직제(社稷祭) 대축(大祝)이었기에 비를 맞고 행역(行役)하였는데 고달픔이 비할 수 없었다.

8월 4일(무오) 제사 지낼 때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만약 이 때 날씨가 개이지 않았다면 거의 제사를 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비는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니교(泥橋)의 길은 여전히 다닐 수 없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말을 들으니, 조선 팔도가 모두 흉년 중인데, 경기(京畿)는 봄부터 크게 가물었다가, 7월 16일에 비로소 비가 내렸는데, 악수(惡水)가 크게 들이닥쳐 이미 거들 만한 작물이 하나도 없게 된 땅이 되었다고 한다.

8월 5일(기미) 날씨가 청명하였다.

8월 6일(경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식후에 구름이 사라졌다가 밤에 또 비가 내렸다.

8월 7일(신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산천을 유람하는 나그네인 함안(咸安) 사람 조희성(趙希聖) 와서 유숙하였다.

8월 8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밤 나는 들판에 나가서 벼를 지키다가 입으로

나오는 대로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성품	惟天所賦莫非人
선악이 어찌하여 각자 고르질 않는지	善惡如何各不均
칼 들고 밤새도록 교외에서 서 있으니	按劍通宵郊外立
세상인심 이로부터 모두 어진 사람 없어라	世情從此摠無仁

우습다.

8월 9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춘원포(春元浦)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동풍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빈 손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갑자)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1일(을축)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저녁에 윤진사가 관아에서 와서 방문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밤에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12일(병인) 식후에 비가 걸렸다. 윤진사가 작별하고 떠나갔다.

8월 13일(정묘) 해가 나왔다. 소분(掃墳)<sup>410</sup>하였다.

8월 14일(무진) 밤에 추웠다.

8월 15일(기사) 밤에 추웠다.

8월 16일(경오) 달이 밝지 않았다. 나는 읍에 들어가 사또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8월 17일(신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8월 18일(임신) 비가 개었다. 황형(黃瑩)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8월 19일(계유)

8월 20일(갑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황생이 떠났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1일(을해) 비가 내려 물이 솟아나왔다.

8월 22일(병자) 비가 조금 내렸다.

8월 23일(정축) 가끔 햇볕이 나오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

410) 소분(掃墳) :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돌보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

8월 24일(무인) 또 비가 내렸다.

8월 25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통영에 사는 김석기(金碩器)와 그 손자가 노비를 추쇄하는 일로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서 묵었다.

8월 26일(경진) 약간 흐렸다.

8월 27일(신사) 청명했는데 저녁이 되자 흐리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사내종 금동(今同)이 재차 벼를 도둑질하였다.

8월 28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9일(계미) 동북풍이 세차게 불었다.

8월 30일(갑신)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9월 1일(을유) 가끔 햇볕이 나왔다. 다용동(多龍洞)의 뱃짐을 다 거두어서 집으로 들어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8말 반, 혹은 10말에 이르고, 미(米) 3말이다. 순상(巡相) 조공 현명(趙公顯命)이 거제(巨濟)에서 통영(統營)으로 들어가 시사(試射)하고 잔치를 벌였다. 어제는 본읍에 도착했고, 오늘 아침에는 사천(泗川)을 향해 갔다.

9월 2일(병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3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대비전(魚大妃殿)<sup>411</sup>을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는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문(赦文)이 반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읍에 들어갔다.

9월 4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향교에 머물렀다. 아객(衙客) 허척(許惕)이 방문하였다.

9월 5일(기축) 저녁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머물렀다. 사차관(赦差官)과 순영의 심약(審藥)<sup>412</sup>이 본현에 도착했다.

9월 6일(경인)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최좌수(崔座首)는 장(杖)을 맞고

---

**411) 어대비전(魚大妃殿) :** (인물) 경종의 계비(繼妃)인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이다. 1718년(숙종44)에 9월 세자빈(世子嬪)으로 책봉되었고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724년(경종4) 경종이 승하하자 20세의 나이에 왕대비가 되어 1726년(영조2) 경순왕대비(敬純王大妃)라는 존호를 받았다.

**412) 심약(審藥) :** (관직) 조선시대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하던 종9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태거(汰去)되었기에 대신 좌수 이석노(李錫老)가 나왔다.

9월 7일(신묘) 비가 오후에 개었다. 면약정(面約正) 전일화(田一和)가 와서 묵었다.

9월 8일(임진) 햇벌이 나왔다. 울타리를 보수하여 방비했다.

9월 9일(계사) 조카아이 윤억만세(尹億萬世)가 와서 머물렀는데 학업을 한 지 오래되어 매우 부모님 생각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남면(南面)에 갔다.

9월 10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올 듯하였다. 해가 뜰 때 먹구름이 마치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듯하였다. 이날 밤중에 대포 소리처럼 지진이 일어났다.

9월 11일(을미) 햇벌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2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내일은 바로 처 조모의 장기(葬期)이기에 정재장(丁再章)과 함께 팔진(八鎭)에 갔다.

9월 13일(정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14일(무술) 날씨가 청명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쏟아지다가 밤이 깊어서 야 그쳤다.

9월 15일(기해)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9월 16일(경자) 온화하였다. 정과총(丁把總) 족장(族丈)과 함께 가서 음법(陰法)에 사는 이도유사(李都有司)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예식을 보고 돌아왔다. 간평 감색(看坪監色)이 도착했다.

9월 17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가을 하촌(下村)과 간평 감색의 접대를 나누어 이바지하기 때문에 감색(監色)이 하촌에 옮겨 묵었다.

9월 18일(임인) 해가 나오고 북풍이 불어 추웠다. 올해 가을이 아직껏 서리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 괴이한 일이다.

9월 19일(계묘) 햇벌이 나왔다. 밤에 서리가 처음으로 내렸다.

9월 20일(갑진) 햇벌이 나왔다.

9월 21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었다.

9월 22일(병오) 비가 내렸다.

9월 23일(정미) 비가 개었다.

9월 24일(무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9월 25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님께서 계동(契洞)에 사는 매형 집에 갔다. 가을 걷이가 끝났다.

9월 26일(경술) 햇볕이 나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7일(신해) 햇볕이 나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윤진사(尹進士)에 함께 연역소(烟役所)에서 묵었다.

9월 28일(임자) 저물녘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나는 읍에서 계속 유숙하였는데, 첨지(僉知) 이만근(李萬根) 역시 모여 묵었다.

9월 29일(계축)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윤진사가 돌아갔다. 첨지 이만근이 평안 병영(平安兵營)을 향해 떠나갔다. 내가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님이 계동(契洞)에게 돌아왔는데, 조카 유상순(柳尙純)이 모시고 따라왔다.

9월 30일(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여제(厲祭) 대축(大祝)으로 참여하기 위해 읍에 들어갔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을묘) 햇볕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일(병진) 햇볕이 나왔다.

10월 3일(정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10월 4일(무오)

10월 5일(기미) 북풍이 불고 갑자기 추워졌다.

10월 6일(경신) 바람이 차가웠다. 매형 이여섭이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10월 7일(신유) 바람이 차가웠다.

10월 8일(임술) 저물녘에 북쪽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10월 9일(계해) 새벽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조카 유상순이 병이 나서 돌아갔다.

10월 10일(갑자) 추웠다.

10월 11일(을축) 추웠다. 시가[市直]가 조(租) 6말이다.

10월 12일(병인) 추웠다.

10월 13일(정묘) 아주 추웠다.

10월 14일(무진) 나는 향교에 갔다가 돌아왔다.

10월 15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10월 16일(경오) 추웠다. 새벽에 월식이 있었다.

10월 17일(신미) 밤에 도둑이 울타리를 뚫고 곳간을 도둑질하였다.

10월 18일(임신) 추위가 어제와 같았다. 도유사 노윤겸(盧允謙)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0월 19일(계유) 노 어른이 돌아갔다.

10월 20일(갑술) 갑자기 따뜻해졌으나 바람 끝이 화살같이 매서웠다.

10월 21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조(租) 5말, 미(米) 2말이다.

10월 22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3일(정축) 햇볕이 나오고 추웠다.

10월 24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5일(기묘) 북풍이 땅을 휩쓸고 눈을 날렸다.

10월 26일(경진) 바람이 불고 날씨가 극히 추웠다. 함안(咸安)에 사는 조명익(趙溟翼)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0월 27일(신사) 조생(趙生 조명익)이 돌아가겠다고 고하였다. 몽아(夢兒)가 《천자문》과 《백련초해(百聯抄解)》를 함께 읽었는데 지금 《천자문》을 끝마쳤다. 날씨가 추웠다.

10월 28일(임오) 날씨가 어제처럼 추웠다.

10월 29일

10월 30일(계미) 추위가 어두울수록 차츰 누그러졌다.

11월 대월(大月).

11월 1일(갑신) 증조고(曾祖考)의 기제사를 치렀다.

11월 2일(을유)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방문하였다.

11월 3일(병술) 정래봉(鄭來鳳)이 아침에 와서 식사를 하고 떠나갔다. 허척(許惕)이 책방(冊房)에서 방문했다가 계속 머물렀다.

11월 4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허척이 다시 책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또 읍에 들어갔다. 이때 먹구름이 몰려오고 눈발이 날렸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고 한다.

11월 5일(무자)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기축) 매우 따뜻하였다. 나는 또 읍에 들어가서 적번미(籍番米) 7두를 받아 가지고 왔다. 이날 재유사(齋有司) 망기(望記)<sup>413</sup>가 와서 나는 즉시 사직 단자를 올려 사임하였다. 금년 대구어(大口魚)가 매우 많아져 1관(貫) 전(錢)으로 3속(束) 3,4마리를 살 수 있고, 거제(巨濟) 지역은 45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한다. 계명성(啓明星 셋별)이 평소 하나뿐인데, 금년에는 큰 별과 작은 별이 있어 작은 별이 큰 별보다 앞서 있다. 근래 이후 작은 별이 빨리 앞서가는 것은 이 무슨 징조인가? 지난 초겨울에 하늘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발생하며 무지개가 동쪽에 나타나고 또 달빛 비치는 밤에 나타나니, 이 또한 무슨 징조인가?

11월 7일(경인) 추웠다. 당중(堂中)에서 나의 사직 단자를 돌려보내고 또 사람을 시켜 편지로 강력히 요청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향교에 들어가 공무를 수행하였다. 유사 유완기(柳完祺)가 지난번 환자[還上]에 관한 일로 보경창감(補傾倉監)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11월 8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동임(洞任)인 조군 윤채(曹君胤采)가 들어왔다.

11월 9일(임진) 추웠다.

11월 10일(계사) 어제처럼 날씨가 추웠다.

11월 11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근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극히 추워서 포구(浦口)

---

**413)** 망기(望記) : (제도) 어떤 직임에 합당한 자를 적은 문서로, 곧 후보 명단을 말한다. 망단자(望單子), 망통(望筒)이라고도 한다.

주변에 얼음이 얼었다. 정아 창국(丁兒昌國)이 와서 수학하였다.

11월 12일(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당회(堂會)에서 내일 통제사에게 탄원서를 올리는 일로 유완기(柳完祺)가 능멸을 당한 수치를 풀고자 하였다. 정창국이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3일(병신) 추위가 갑자기 풀렸다. 여러 유생들이 출발해 통영에 향하여 도선동촌(道善洞村)에서 묵었다.

11월 14일(정유) 바람이 불고 제일 추웠다. 통영에 들어가 현사(縣司)에 숙소를 마련했다. 내가 가슴 통증이 있어 따뜻하게 먹으니 차츰 풀렸다.

11월 15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식사 후에 일제히 통제사 앞으로 나아가 탄원서를 올리니, 통제사 정공(鄭公)이 사실이면 창감(倉監)을 태거(汰去)한다고 허락하면서도 탄원서 중에 ‘작나(作拏)’ 두 글자가 있어 훗날 사론(士論)이 일어날까 걱정되어 장차 관문(關文)을 보내 유완기와 창고 사령과 감관(監官)을 불러들여 대질심문한다고 하였다. 오후에 되돌아와서 초경(初更) 후에 향교에 들어갔다. 이번 행차의 수석은 장의 배순문(裴舜文), 다음은 장의 이국배(李國培), 다음은 나이고, 나머지 아무개, 아무개 합하여 10여 인이다.

11월 16일(기해) 날씨가 추웠다. 사또가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생신 잔치를 마련했는데, 음악은 연주하지 않았다.

11월 17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정창국이 들어와 저녁이 되자 나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8일(신축) 극히 추웠다. 유사 유완기(柳完祺)와 창감(倉監) 그리고 사령(使令)이 모두 통영에 들어갔다.

11월 19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유완기는 별탈없이 돌아왔다. 창감(倉監)은 태체(汰躋) 쫓아 버리고 교체함)되었다. 나는 또 향교에 갔다.

11월 20일(계묘) 날씨가 추웠는데, 근고(近古)에 매우 드문 일이다. 향교 수노(首奴) 승선(承先)이 환자[還上]를 납부하는 일로 통영에 들어갔다.

11월 21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2일(을사) 추위가 조금 풀렸다. 정창국과 몽아(夢阿)가 들어왔다.

11월 23일(병오) 추웠다.

11월 24일(정미) 조금 따뜻하였다. 아아(兒阿)가 돌아왔다.



11월 25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6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4말[斗] 반, 차조(次租) 5말, 미(米) 2말인데 말 용량이 매우 작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27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 수노(首奴)가 석방되어 돌아왔다.

11월 28일(신해) 추웠다.

11월 29일(임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나는 돈 3전(錢)으로 제만재(諸萬載)에게 언해가 구비된 《서전(書傳)》 제4권을 샀다.

11월 30일(계축) 추웠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갑인) 추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일(을묘)

12월 3일(병진)

12월 4일(정사) 이상 극히 추웠다. 이 때 백성의 기근이 매우 심하고 날씨가 극히 추워 길가에 강시(僵尸 시신)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 놀란 마음에 참혹하여 스스로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12월 5일(무오) 조금 따뜻하였다. 나는 또 향교에 갔다. 수노(首奴)가 영창미(營倉米)를 납부하지 않은 일로, 상사(上使)에서 관문(關文)을 보냈다.

12월 6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미(米) 1말 8되, 조(租) 4말, 황조(荒租) 5말이다. 이날 내가 관청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한 걸인(乞人)이 막대기를 의지해 가다가 어질어질 스스로 서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져 꼬덕꼬덕하더니 죽고 말았다. 죽으려고 할 즈음에 기괴한 모습과 형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날 흰 색의 띠모양 구름 하나가 태양 주변을 꿰뚫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사망하는 변고가 병화(兵火)와 같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12월 7일(경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2월 8일(신유)

12월 9일(임술)

12월 10일(계해)

12월 11일(갑자)

12월 12일(을축)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8월 장맛비 이후 9월과 10월 사이에 단지 한 두

차례 먼지를 적실 정도만 비가 내리고 이후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물이 마르지 않았으니, 괴이한 일이다. 이 또한 앞으로 징조가 있는 것인가.

12월 13일(병인) 추위가 또 극히 심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가노(家奴) 금동(今同)이 죄를 저질러 쫓아버렸다.

12월 14일(정묘)

12월 15일(무진) 이상 날씨가 매우 추웠다.

12월 16일(기사) 조금 따뜻하였다. 나는 향교에 갔다.

12월 17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8일(신미) 서풍이 불어 땅을 휘 쓸고 흠비가 내려 어두워졌다.

12월 19일(임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극히 추웠다.

12월 20일(계유) 추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12월 21일(갑술) 극히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2일(을해) 매우 추웠다. 근래 도적들이 모여 노략질하는 자들도 있고, 자식을 길가에 버린 자도 있고, 부부가 함께 목을 매고 죽은 경우도 있다. 기이하고 놀라운 소식과 소문이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알려오니 아, 이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12월 23일(병자) 날씨가 추웠다.

12월 24일(정축) 조금 따뜻하였다. 향교에 갔다.

12월 25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6일(기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조윤채(曹胤采)가 보내준 곡식 종자를 금동(今同)이 등에 지고서 도망갔다.

12월 27일(경진) 조금 따뜻하였다. 향교에 갔다. 송아지 한 마리를 도살하여 재중(齋中)의 세찬(歲饌)으로 삼았다.

12월 28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장의(掌議) 안국창(安國昌)이 어제 향교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같은 마을에 윤삼(尹三)이란 아이가 네다섯 살도 되지 않았는데 그 부모를 잃고 돌아다니며 걸식하다가 정칠봉(鄭七奉) 집에서 자식처럼 길러진 것이 지금 거의 10여년이 되었다. 이번 큰 흉년을 당하여 정칠봉도 굶주려 죽게 될 형편이

라 운삼이를 내보내며 알아서 삶을 도모하도록 했더니 운삼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이날 밤에 들에서 통곡을 하였다. 그 아이의 성품이 본래 순수하고 정직한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거두어다가 어제부터 머슴 일을 시켰다. 그가 덕을 베풀어준 것에 감사하여 마침내 노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 정상이 가없고 가없다.

12월 29일(임오) 동풍이 불고 구름이 얇게 끼었다. 금년 1월과 2월 사이에 날씨가 가물어 우물물이 다 말라서 물 길는 자들이 모두 하천 도랑으로 갔다. 이양할 때에 비가 때마침 내려 벼 곡식이 무성하다. 5월 장마 이후에는 큰물이 드물었고 6월에 큰 가뭄이 이어졌기에 병충해가 매우 심하여 들판이 온통 황폐해졌다. 염병, 역병(疫病), 이질(痢疾) 세 가지 재앙이 또 번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겨울 내내 먼지 적실 정도의 비조차 내리지 않고 혹독한 추위 또한 옛날에도 없던 추위라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얼어 죽은 시체가 삼대처럼 많아 마을 사람들이 새끼줄로 시체의 발을 묶어 끌어서 구덩이에 던지니 길에 시체를 끈 자국이 마치 수레바퀴 자국 같았다.

통영(統營)은 거지 시체를 이루 다 매장할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시체 하나씩 끌어들고 묻는데 각각 묻기가 어려워 여러 시체를 한데 쌓아서 흙을 가져다 덮었다고 한다. 본현의 각 마을에는 감관(監官)과 감고(監考)를 두어 시체를 매장하였다.

봄철의 큰 걱정은 예로부터 없었는데 지금은 도처에서 화재에 대한 소식이 봄철보다 더하니, 사람들이 잠자리에 등을 붙이고 편히 잘 수가 없다. 겨울 가뭄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보리가 싹을 틔우지 못하여 흙을 조금 파서 들여다보면 비로소 약간 싹을 틔운 것이 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쪼아 먹는 것을 이루 다 막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평소 같지 않은 일이다.

길거리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사람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호남(湖南)에서는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은 자가 있다고들 하였다. 전하는 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다.

겨울 내내 가뭄이었는데도 우물물이 마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혹 길조인가?

작년 여름에는 해삼(海參 해삼(海蔘))이 아주 많아서 삼태기나 통마다 주워 담은 자들을 옛날에는 보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작년보다 해삼이 더 많았다. 그런데 농사는 작년에도 흉년, 올해도 흉년인가, 이것이 혹시 징조인가?

대보름달이 조금 아래에서 떠오르니, 흉년의 징조인가?

은정(銀亭)의 나무들이 군데군데 잎사귀가 났는데 어떤 것은 말라버린 나무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꽃술이 맺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미 그늘을 드리우기도 했으니 이 또한 흉년의 징조라서 그런 것인가? 우선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다.

이날 밤에 도둑이 짚을 묶어서 불을 붙여 동쪽 울타리에 던졌다. 한 묶음이 다 타도록 불이 울타리에 옮겨 붙지 않았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한밤중이 되어갈 무렵 향교 소속 수복(首僕)들이 내일 새벽 망궤례 집사에 대령하지 못할까 하는 일로 나에게 와서 고하였다. 내가 달려서 갈산(葛山)에 이르러 백일초(白日初)를 불러서 읍에 들어갔더니 문덕순(文德純)이 읍저(邑邸)에 먼저 와 있었다. 조금 있다가 닭이 울자 문덕순, 백일초 두 사람이 객사에 들어가 대령하였고, 나는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

작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7월 사이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자못 많았는데 본읍 사또 김공(金公)의 진휼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덕분에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살아난 자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김공(金公)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겨울 사이에 굶어

죽은 백성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 까마귀와 술개, 개와 돼지가 시신을 찢고 흠어 놓아 혈육이 낭자하고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다. 추위까지 또 심하여 굶어서 동상 걸린 파리 마냥 얼굴색이 푸르스름한 채로 양지쪽에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시체 파묻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다. 금년 겨울도 이와 같으니 내년 춘궁기의 형편은 이미 상상할 수 있다. 한탄스러움이 어찌 이리 심한가.

소양 적분약(昭陽赤奮若)<sup>414</sup> 1733년(영조9)

1월 대월(大月). 1일 계미. 5일 우수중, 20일 경칩 이절(二節).  
2월 소월(小月). 1일 계축. 5일 춘분중, 30일 청명 삼절(三節).  
3월 대월. 1일 임오. 7일 곡우중, 22일 입하 사절(四節).  
4월 소월. 1일 임자. 8일 소만중, 24일 망종 오절(五節).  
5월 소월. 1일 신사. 10일 하지중, 26일소서 육절(六節).  
6월 대월. 1일 경술. 초복, 13일 대서중, 29일 입추 칠절(七節).  
7월 소월. 1일 경진. 말복, 1일 처서중.  
8월 대월. 1일 기유. 백로절, 16일 추분중.  
9월 대월. 1일 경진. 한로절, 16일 상강중.  
10월 소월. 1일 기유. 입동절, 16일 소설중.  
11월 대월. 1일 무인. 1일 대설절, 17일 동지중.  
12월 대월. 1일 무신. 소한절, 16일 대한중.

1월 대월(大月).

1월 1일(계미) 닭이 10차례 울었다. 사방에 구름 기운이 있었으나 정오에는 청명하고 날씨는 화평하였다. 한번 바라보니, 연무(煙霧)를 깨뜨리고 동풍이 불어오는 듯하였다. 새벽에는 동쪽 하늘에 먹구름이 남북 쪽에 뻗혀 있는데 갈대 모양이 있었다. 이 날이 저녁에 서풍과 북풍이 불더니 혹 남풍이 갑자기 불었다. 나는 아침 전에 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정월 초하루에는 마을에 세배하는 사람이 없고 도로에 취객을 볼 수 없었다. 몽아(夢兒)가 처음으로 《사략》 첫 권을 배웠다. 밤에 얇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1월 2일(갑신) 아침 전에 구름이 끼고 추웠으나 식후에는 햇볕이 나오고 따뜻해졌다. 서풍이 갑자기 불었고, 밤에는 얇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었다.

1월 3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고 서풍이 불었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柳妹兄)이 와서 묵었다.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려 먼지를 적셨다. 지난해 9월 초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물이 마르지 않으니, 이는 필시 징조가 있다.

1월 4일(병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유매형이 아침 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7, 8일 전부터 눈병이 있어 흙덩이인 양 앉아있으며 바람을 두려워하니 근심되고 걱정된다.

**414)** 소양 적분약(昭陽赤奮若) : 고간지(古干支)로, 소양(昭陽)은 계(癸)이고, 적분약(赤奮若)은 축(丑)이다. 즉 계축(癸丑)을 가리킨다.

1월 5일(정해) 햇벌이 나오고 서풍이 불었다.

1월 6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머리[精明]에 침을 맞았다. 시가[市直]가 조(租) 4말, 가전(加錢) 8푼인데, 미(米)의 경우 통행하는 되용량으로 2말로, 1말 7되에 불과하다. 조카 유상순(柳尙純)이 진주 남명전(南明田)에 신행(新行)하였다.

1월 7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영에 사는 벗 김준식(金駿軾)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월 8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벗 김준식이 떠났다. 나는 향교에 갔다.

1월 9일(신묘) 서풍이 불었지만 심하게 춥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0일(임진) 조금 추웠다. 향교에서 새 달력을 보내왔다.

1월 11일(계사) 비가 와서 빗물이 땅에 1치쯤 스며들었다. 나는 향교에 갔다.

1월 12일(갑오) 매우 따뜻하였다. 이날 밤에 도적이 읍(邑) 앞내에서 약탈하면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1월 13일(을미)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비가 내렸다.

1월 14일(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15일(정유) 날씨가 추웠다. 이날 찬 나무에 어두한 연기가 생길 때에 보름달이 막 떠올랐는데 또 전년보다 높이가 낮았다.

1월 16일(무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다.

1월 17일(기해)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윤삼(尹三)이 나무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기증이 나서 고꾸라졌더니 이것이 병이 되어 죽을 지경에 놓였다. 이것이 바로 굶주린 창자가 갑자기 포식하여 도리어 병의 빌미가 된 것이란 말인가? 괴이하도다. 올해 춘궁기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을에 우리 집만이 조금 사정이 나았는데, 사내종 하나는 칩을 채취하고 계집종 하나는 칩을 짚어 한 사내종과 계집종이 하루 행한 공역이 한 사람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 아침저녁으로 이와 같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월 18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고 어두워지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월 19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고 어제처럼 밤에 비가 내렸다.

1월 20일(임인) 비가 갑자기 와서 도랑에 빗물이 흐렸다.

1월 21일(계묘) 추웠다. 향교에 갔다.

1월 22일(갑진) 바람이 차가웠다.

1월 23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4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5일(정미) 저녁에 비가 내렸는데 물이 땅에 솟아나왔다.

1월 26일(무신) 오후에 비가 그쳤다.

1월 27일(기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나는 눈병으로 여러 차례 사직 단자를 올려 재임을 고사(固辭)했지만 체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병을 무릅쓰고 향교에 들어갔다.

1월 28일(경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저녁이 되자 눈비가 내려 지면이 하얗게 되었다.

1월 29일(신해) 눈이 내렸으나 청명하고 햇볕이 밝았다. 저물녘에 향교 사내중 봉이(奉伊)와 삭불리(朔不里)와 그 동생 누이 17,8세 여자가 담장을 넘어 창고에 침입하여 제수용 술을 도둑질하여 마시고 일이 발각되어 감히게 되었다. 민간의 급박한 굶주림의 형편을 알 수 있다.

1월 30일(임자) 밤중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아침이 되자 그쳤다. 이날 제수용 술을 다시 빗었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계축)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2월 2일(갑인)

2월 3일(을묘)

2월 4일(병진) 이상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2월 5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장(官長)이 제사에 참여했기에 내가 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체직될 수 없으니 참으로 근심스럽다.

2월 6일(무오) 새벽에 내리던 비가 저물녘에 개었다. 시내 도랑이 비로소 흘렀다.

2월 7일(기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용뇌(龍腦)<sup>415</sup>와 사청(瀉靑) 등 약물(藥物)을 얻

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향교에 머문 지 10여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니, 그 사이 마을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과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자못 많았는데, 강악봉(姜岳奉)과 윤삼(尹三) 등이 가장 불쌍하다.

2월 8일(경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2월 9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10일(임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계동(契洞)에 사는 작은 유매형이 왔다가 즉시 돌아갔다.

2월 11일(계해) 저녁에 비가 내렸는데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3말, 미(米) 1말이다.

2월 12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 또 왔다가 이어 장의암(莊義菴)을 향했는데, 대개 피우(避寓)<sup>416</sup>하기 위해서였다.

2월 13일(을축) 햇볕이 나오고 바람이 추웠다. 나는 인삼(人蔘)을 갈아 유즙(乳汁)과 찢 배[梨]와 타서 눈에 넣었다.

2월 14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유매형이 소암(蕭庵)에서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2월 15일(정묘) 비가 내렸다. 유매형이 계속 머물렀다.

2월 16일(무진) 비가 내렸다. 유매형이 계속 머물렀다.

2월 17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고 동풍이 세차게 불었다. 유매형이 집으로 돌아갔다.

2월 18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우렛소리가 크게 들렸다.

2월 19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유매형이 또 왔다가 이어 장의암(莊義菴)을 향해 갔다.

2월 20일(임신) 동풍이 불었지만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향교에 갔다. 아버님이 통영에 들어갔다.

2월 21일(계유) 매우 따뜻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유매형 또 왔다가 계속 머물렀다.

2월 22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벽에 크게 지진이 일어났다.

---

415) 용뇌(龍腦) : 용뇌향목의 수간(樹幹)에서 추출하는 향인데, 그 종류가 많다.

416) 피우(避寓) : 역질(疫疾)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임시로 거처하는 것을 말한다.

2월 23일(을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24일(병자) 비가 왔는데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2월 25일(정축) 비가 개었다.

2월 26일(무인) 날씨가 따뜻하였다. 이날 시장에서 전(錢) 4전(錢) 9푼으로 솔[釜] 하나를 샀는데, 용량이 1말 3, 4되다. 이 날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시장 행인을 보니 태반이 얼마 못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마소 가게[牛廐 馬廐]에는 사대부 부류 아닌 자가 없다.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가 삼대처럼 쓰러져 있으니 천지개벽 이래로 어찌 이런 흉년이 다시 있을까. 평년(平年)에 유리걸식하던 거지들이 남김없이 모두 죽었는데 지금 굶어죽은 자들은 모두 전날에 살림이 넉넉한 집안이었다.

2월 27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남초(南草 담배)가 안질(眼疾)에 해(害)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남초를 끊었다. 밤에 구름이 흩어졌다.

2월 28일(경진) 동풍이 불고 조금 추워졌다.

2월 29일

2월 30일(신사)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오후에 서남풍이 세차게 불었다. 새벽에 나는 거류산(巨流山)에 올라 액막이[度厄]를 하였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임오) 따뜻하였다.

3월 2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안질에 조금 차도를 보인 증세가 있었다.

3월 3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현재 마을에 전염병이 크게 치성(熾盛)하여 천지간이 일망타진 되었기에 피할 방도가 없어 오직 하늘에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

3월 4일(을유)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후가 되어서 갑자기 그쳤으나 구름은 여전히 걷히지 않았다. 큰 형님이 오늘부터 편찮은 기색이 있었다.

3월 5일(병술) 맑았으나 동풍이 불어 갑자기 추워졌다. 올 봄에는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여 청어(靑魚) 한 급(級)이 돈 3푼 혹은 2푼이고, 고합(古蛤)을 많이 캐는 자는 4, 5말, 적게 캐는 자는 2, 3말이다. 또 청태(靑苔)와 마태(麻苔)가 포구에 뒤덮여 있고 산과 들에 나물도 많다. 그런데 촌 여인들이 거의 다 굶어 죽었고, 혹 살아남은 자들은 병으로 몸져눕거나 굶주려 누워있었기 때문에 푸릇푸릇 좋은 나물들이 헛되이 쇠할 뿐이다. 지금 보리밭에는 원



래 푸른 싹이 없었는데 간혹 좋은 종자를 일찍 파종한 데만 푸릇푸릇 하였다. 그러나 전혀 싹이 나지 않은 것이 심중팔구이니 보리추수 때가 또 춘궁기보다 심할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은정(銀亭)의 나무 위아래 두 등분으로 나뉘어 회춘(回春)하였으나 잎이 필 때가 되자 마치 한 등급인 것처럼 잎이 피었고, 또 나뭇가지 하나가 나더니 가장 마지막에 잎이 피었다. 이상하다.

3월 6일(정해) 동풍이 크게 불고 비가 또 주룩주룩 내렸다.

3월 7일(무자) 비가 개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불며 흠비가 내렸다. 나는 침[針]을 맞았다.

3월 8일(기축) 하루 종일 바람이 불었다.

3월 9일(경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나는 초용탕(草龍湯)을 복용하고 진피(秦皮)<sup>417</sup>를 다린 물로 씻고, 또 침을 맞았다.

3월 10일(신묘) 바람과 흠비가 더 심해졌다. 또 침을 맞았다.

3월 11일(임진) 흠비가 어둡게 내려 산을 가렸다. 비부(婢夫) 귀재(貴才)가 염병에 걸려 죽었고, 정과총(丁把總) 족장(族丈)께서 세상을 떠났고, 무녀 규화(葵花) 할미 역시 죽었다. 갑자기 비가 내렸다.

3월 12일(계사) 바람과 흠비가 갑자기 약해졌다가 밤에 또 바람이 불었다.

3월 13일(갑오) 바람이 불고 흠비가 더욱 심하며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큰 형님 환후에 위급한 상황이 많았는데, 의약(醫藥)이 효험이 없으니, 참으로 애간장이 탄다.

3월 14일(을미) 서풍이 불었다. 둘째 형님이 통영에 들어가 약을 조제하였다. 감진 어사(監賑御史) 이종백(李宗伯)이 어제 본현에 들어왔다가 오늘 거제(巨濟)로 향해 갔다. 계동(契洞)에 작은 유매형이 유행병[時疫]으로 세상을 떠났다.

3월 15일(병신) 구름이 얇게 끼고 저녁에 비가 내렸으며 동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형님을 객실(客室)로 거처를 옮겼다.

3월 16일(정유) 어제처럼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3월 17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큰 형님의 환후가 조금 차도가 있는 듯하였다.

3월 18일(기해) 이른 아침부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고 식후에도 바람이 불고 흠비가 해

**417** 진피(秦皮) : 물푸레나무 껍질을 말린 것으로, 물푸레나무의 껍질 성질(性質)은 차고 주(主)로 열(熱)을 내리는 약재(藥材)임.

를 가려 기상(氣象)이 어둑어둑하고 암담하였다. 이날 파종과 이앙이 끝났다.

3월 19일(경자) 바람과 흠비가 갑자기 약해졌다. 큰 형님의 환후가 바깥채로 옮겨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안채로 모셨는데 너무 열이 많았다.

3월 20일(신축) 조금 따뜻해졌다.

3월 21일(임인)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3월 22일(계묘) 닭이 첫 해 소리를 울 때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이때 습한 노을이 일어났다가 개이고 새벽달이 밝다가 사라졌다. 오늘날 이웃 사방에서 곡 소리가 서로 들리니 아, 새상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3월 23일(갑진) 날씨가 청명하였다. 바깥에 빈소를 차렸다.

3월 24일(을사) 따뜻하였다.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가서 선창(缸倉)에서 유숙하였다.

3월 25일(병오)

3월 26일(정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3월 27일(무신) 비가 쏟아져 땅에서 물이 나왔다.

3월 28일(기유)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3월 29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30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선창(船倉)에서 계속 머물렀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임자) 조금 흐리고 따뜻하였다. 계속 선창에서 머물렀다.

4월 2일(계축) 맑고 따뜻하였다. 정재장(丁再長)이 와서 정과총(丁把摠)의 아내 백씨(白氏)의 초상이 또 지난달 그믐에 났다는 말을 전하였다.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4월 3일(갑인)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했으나, 옷도 적시지 못했다. 전(錢) 11냥으로 미(米) 1섬을 바뀌어, 헤아려보면 13말 2되이다. 정재장(丁再長)과 정하중(丁夏中) 두 사람으로 하여금 7두를 짊어지게 하고 함께 돌아왔다.

4월 4일(을묘) 맑고 따뜻하였다. 식후에 서풍이 불었다. 사내종 금동(今同)이 며칠 전에 나타났는데, 우선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심부름을 시켰다. 어제 또 쌀과 콩 등 물품을

도둑질해서 도망갔다.

4월 5일(병진) 청명하고 바람이 불었다. 갈산(葛山)에 사는 최선여(崔善餘)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4월 6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7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이 깊어진 후에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나는 정성껏 토지신과 조왕신 제사를 지내 액막이를 하였다.

4월 8일(기미) 아침에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식후에 그쳤으며, 저녁이 되어서야 구름이 흩어졌다.

4월 9일(경신) 조금 흐렸다. 올해 노비나 머슴들은 도적이 아닌 자가 없다. 지금 들판 농토 가운데 번경(反耕 논을 여러 해 갈아서 뒤집는 일)하는 밭은 백에 하나이고, 문 닫은 집이 대다수이며 진진(陳田 묵은 농토)은 셀 수도 없다. 비록 생존한 자가 있어도 종자가 없어 경작하지 못하는 자가 또한 셀 수가 없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시체들이 이어져 있어 굶주려 통곡하고 죽어서 통곡하는 곡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4월 10일(신유)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 비가 흠을 적셨다.

4월 11일(임술) 습한 노을이 산을 둘러싸고 가랑비가 내려 이슬처럼 맺혔다. 이른 새벽에 벽방산(碧芳山) 빙암(氷岩) 위에서 복을 빌었다. 옥구슬 같은 숲속이 조용하고 바위 시냇물이 졸졸 흘러 음식을 올리고 기도하니 제사 드리는 귀신이 옆에 있는 듯 흡사 제단 위로 신령스러운 명령이 강림하는 듯하였다. 식사한 후에 읍에 들어갔다 저녁에 돌아갔다.

4월 12일(계해)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13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었으며 가끔 햇별이 나왔다. 새로 부임한 통제사 박공 찬신(朴公纘新)이 통영에 들어와 직무를 보았다.

4월 14일(을축) 햇별이 나고 바람이 불었다. 인제(姻弟) 박군 시화(朴君始華)가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4월 15일(병인)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박군(朴君)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4월 16일(정묘) 날씨가 청명하였다. 월식이 있었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곧 돌아왔다.

4월 17일(무진) 맑고 따뜻하였다. 이날부터 시력을 조양(調養)하였다. 처음으로 새 보리[新麥]를 수확하였다.

4월 18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9일(경오)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으나 식후에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20일(신미)

4월 21일(임신) 매우 따뜻하였다.

4월 22일(계유) 햇볕이 나와 따뜻하고 바람이 불었다.

4월 23일(갑술)

4월 24일(을해)

4월 25일(병자)

4월 26일(정축)

4월 27일(무인) 이상은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28일(기묘) 최선여(崔善餘)가 방문하였는데, 내가 보리 3말로 주어 곤궁한 형편을 구해 주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29일(경진)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까지 종일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통영에 들어갔다.

5월 2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통영에 머물렀다.

5월 3일(계미) 조금 비가 내렸다. 전(錢) 1관(貫) 반으로 통영(統營) 심약(審藥)에게 명목유기음(明目流氣飲) 40첩(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올벼[早稻]를 옮겨 심었다. 상리(上里)에 사는 이씨 계집종 조시(助是)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간청했는데, 그 후 자주 도둑질하더니 달아났다.

5월 4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5일(을유) 가랑비가 내리다가 오후가 되자 햇볕이 나왔다. 뽕나무를 불에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눈을 씻었다.<sup>418)</sup>

5월 6일(병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아내가 귀녕(歸寧)<sup>419)</sup>하였다.

---

**418)** 문수세두세안법(文殊洗頭洗眼法)으로, 당시 안질(眼疾) 예방법이다.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1년 하면 아이 눈이 되고, 2년 하면 천안(天眼)을 얻고, 3년 하면 법안(法眼)을 얻게 된다고 한다.

**419)** 귀녕(歸寧) : 부인이 친정집에 가서 문안하는 것을 가리킨다.

5월 7일(정해) 술을 빚었는데, 약을 먹을 때 쓰려고 한 것이다.

5월 8일(무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햇빛이 나오고, 오후에 또 가랑비가 내렸다. 아내가 돌아왔는데, 계집종 금낭(今娘)을 데리고 왔다.

5월 9일(기축) 햇볕이 나오고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5월 10일(경인) 햇볕이 있는데 동풍이 불어 추웠다. 나는 이 날이 천의(天醫)<sup>420</sup>이기 때문에 택일하여 비로소 약을 복용하였다. 보리 수확을 끝마쳤다.

5월 11일(신묘) 동풍이 불었다.

5월 12일(임진) 서늘하고 비가 먼지를 적셨다. 콩의 모[太苗]을 이앙하였다.

5월 13일(계사) 매우 따뜻하였다.

5월 14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5일(을미) 매우 더웠다.

5월 16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곱보리[皮牟] 1말, 이 값이 전(錢)으로는 1전(錢) 5,6푼(分)이다.

5월 17일(정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18일(무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저녁이 되자 위로는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왔다.

5월 19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20일(경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길가 아래 논에 이앙을 마쳤다.

5월 21일(신축) 이날 관(官)이 벽방산(碧芳山)에서 기우제를 치렀다. 숙부님이 숙환이 있었는데 오늘 미시(未時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에 별세하셨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5월 22일(임인) 구름이 짙게 끼고 날씨가 더웠다.

5월 23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거세며 날씨가 맑지 않았다. 눈이 침침한 내 질환은 여전히 여열(餘熱)이 많다. 열이 많이 나는 날은 멀리 바라볼 경우 어둡고 미간에 약간 누르는 기운이 있으며, 잠을 자고 난 후가 가장 침침하였다. 잠을 자려고 할 때 눈꺼풀에

---

420) 천의(天醫) : 의원을 구해 병을 치료하고 침맞고 약 먹는데 효험이 있는 날짜이다.

안검에 감각이 떨어져 시큰시큰 한 듯 하기도 하고 매운 듯하기도 하다.

이번 달 초부터 비로소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눈 가장자리에 조여드는 듯 한 통증이 없다. 다만 해가 뜰 때에 햇빛이 누르스름하게 보이고 안화(眼花)로 몽롱하다. 혹은 눈자위에 진흙이 가득 낀 듯하여 눈 뜨는 것이 편치 않다. 혹은 흰자위가 연한 붉은 빛이 돌고 노육(努肉 눈구석에 돋은 군살)이 약간 쭈시고 아파서 사물이 분명치 않는데, 하품을 하여 눈물이 나면 조금 밝아진다. 간혹 눈동자와 노육이 조금 가렵다.

5월 24일(갑진) 더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오전에 가리동(加里洞) 이좌수(李座首)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5월 25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6일(병오) 비가 내렸다.

5월 27일(정미) 장맛비가 내렸다.

5월 28일(무신) 비가 내려 물이 흘러나왔다. 눈썹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짓누르는 통증이 있었다.

5월 29일(기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들으니 윤매형이 사천(泗川) 땅에 나갔는데, ■……■ 그저께 상리(上里) 삼거리 물에 이르러 세찬 여울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현재 큰 비가 내린 후 시냇물이 더욱 불어나 아직도 시신이 있는 곳을 모르니 참혹하고 애통하다. 이앙이 끝났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경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기도 하였다. 나는 읍에 들어가 들으니 윤매형의 시체를 사천(泗川) 배왕사(排王寺) 아래 물속에서 찾았다고 한다. 나는 한창 약을 복용하는 중이라 가서 곡을 할 수 없어 단지 매형 이여섭의 호상(護喪) ■……■

6월 2일(신해) 비가 내렸다. 꽤어있는 기장을 보았다.

6월 3일(임자) 가끔 비가 오고 밤에는 맑았다.

6월 4일(계축)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햇볕이 나왔다.

6월 5일(갑인)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밤에는 맑았다.

6월 6일(을묘)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식후에 햇볕이 나와 더웠다. 갈산(葛山)에 사는 유상인(柳喪人)에게 가서 위문하고 돌아왔다.

6월 7일(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황형(黃瑩)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6월 8월(정사)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와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소낙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었다. 황생이 떠나갔다. 오후에는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다.

6월 9일(무오)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와서 저물녘에 목동이 감히 개울을 건너지 못하였다.

6월 10일(기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가끔 해가 나왔다. 우리 집은 금년 수전(水田)을 많이 포기했는데 돌담 논 1두락 반의 땅은 이미 전결(田結)의 공세(貢稅)를 갚으려고 그냥 비워 두고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종을 옮겨 심었다. 참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사방 교외에 이앙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6월 11일(경신) 햇벌이 나오고 더웠다.

6월 12일(신유) 매우 더웠다.

6월 13일(임술) 매우 더웠다.

6월 14일(계해) 햇벌이 나오고 더웠다. 새로 부임한 통제사 김공 집(金公濬)이 본현에 들어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5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6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7일(병인) 덥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18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9일(무진)

6월 20일(기사) 이상 날씨가 같았다.

6월 21일(경오) 무척 더웠다.

6월 22일(신미) 가장 무더웠다. 계동(契洞)에 사는 과부가 된 자형(姊兄)이 부모님을 와서 뵈고 곧 돌아갔다.

6월 23일(임신) 덥고 동풍이 불었다.

6월 24일(계유) 더웠다. 명목음(明目飲)을 다 복용했다.

6월 25일(갑술) 더웠다.

6월 26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7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해 처음 기장을 수확했다.[始刈稷]

6월 28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9일(무인) 이른 새벽에 통영에 들어갔다.

6월 30일 날씨가 무더웠다. 나는 계속 영하(營下)에 머물렀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경진) 무척 더웠다. 나는 이른 새벽에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일(신사) 구름이 끼고 찌는듯하다가 밤에 빗방울이 내렸다.

7월 3일(임오) 빗물이 땅에 1치쯤 스며들었다.

7월 4일(계미) 새벽에 비가 오고 종일 구름이 끼었다.

7월 5일(갑신) 가끔 비가 오고 구름이 끼었다.

7월 6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앙(移秧)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적간 색리(摘奸色吏)가 도착했다.

7월 7일(병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다가 어두워지자 비가 내렸다.

7월 8일(정해)

7월 9일(무자)

7월 10일(기축)

7월 11일(경인)

7월 12일(신묘)

7월 13일(임진) 이상 날씨는 매일 비가 내렸는데 햇볕이 비추어 땅을 축축하게 적실뿐이었다.

7월 14일(계사)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땅에 흘렀으나 곧바로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와 길이 진흙탕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여제(厲祭)의 집례(執禮)로서 제단(祭壇)에 이르렀다.



7월 15일(갑오) 무척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6일(을미) 무척 더웠다.

7월 17일(병신) 북쪽 하늘에서 크게 천둥이 쳤다.

7월 18일(정유)

7월 19일(무술) 이상 날씨가 더웠다.

7월 20일(기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비로소 올벼[早稻]를 수확하였는데, 이양한 지 78일이다.

7월 21일(경자) 구름이 빨리 지나갔다.

7월 22일(신축)

7월 23일(임인)

7월 24일(계묘)

7월 25일(갑진) 이상 매우 더웠다.

7월 26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였다. 눈병이 차츰 나아지는 증세를 보였다. 이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7일(병오) 밤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7월 28일(정미) 밤에 비바람이 불어 물이 크게 불어났다.

7월 29일(무신) 저물녘 비가 개었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기유) 하늘이 청명하였다. 감동(甘洞)에 사는 파총(把總) 이여기(李汝杞)의 총각 아들이 어제 와서 먹을 것을 구하니 우선 그를 머물게 하고 나무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8월 2일(경술) 식후부터 비가 내렸는데 밤이 되자 그쳤다. 이관(李鼎)이 떠났다.

8월 3일(신해) 해가 나왔다.

8월 4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5일(계축)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6일(갑인)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8월 7일(을묘) 서늘하였다.

8월 8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향교에 갔다.

8월 9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8월 10일(무오) 동풍이 세차게 불어 날씨가 자못 서늘했으며 오후에 비가 내렸다.

8월 11일(기미) 식후에 비가 개었다.

8월 12일(경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산소를 소제(掃除)하였다.

8월 13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고 저녁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나는 일이 있어 곡두 용포(曲頭龍浦)에 이르렀다가 느릿느릿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그저께 관아에서 백일장을 열었는데 나는 눈병으로 응시하지 않았다. 시제(詩題)는 ‘어찌 의당 다시 후정화<sup>421</sup>)를 묻네 [豈宜重問後庭花]’였다.

8월 14일(임술) 비가 내려 땅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8월 15일(계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8월 16일(갑자) 비가 내렸다.

8월 17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내가 읍에 들어갔는데 니교(泥橋)의 물이 불어나 간신히 건너가 벗 박명유(朴命宥)에게 용뇌(龍腦)를 얻어 왔다.

8월 18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19일(정묘) 햇볕이 나왔다.

8월 20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후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21일(기사) 햇볕이 나왔다.

8월 22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동(契洞) 유매형(柳妹兄)이 오늘 영영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눈병으로 상여줄을 잡지 못했으니 통탄스럽다.

---

**421) 후정화(後庭花)** : 악부(樂府)의 가곡(歌曲) 이름으로, 남조(南朝) 때 진(晉)나라 후주(後主)가 지었는데, 소리가 몹시 애달파서 후대에는 망국(亡國)의 음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8월 23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4일(임신) 조금 흐렸다.

8월 25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8월 26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군이 돌아갔다. 시가[市直]가 미(米) 3말 반, 조(租) 12말이다.

8월 27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8일(병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 차가웠다.

8월 29일(정축) 가끔 비가 내렸다. 지사(地師) 신만흥(辛萬興)이 와서 대동(垚洞) 선영 아래 계좌(癸坐)의 언덕에 산소를 정하였다.

8월 30일(무인)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지사 신만흥을 무기정(舞妓亭)<sup>422</sup>에 사는 상인(喪人) 박창서(朴昌瑞)가 초대했기에 그곳으로 갔다. 그러므로 내가 그와 함께 박상인(朴喪人) 집에 가서 유숙하였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기묘) 해가 나와 따뜻했고 저물녘에 구름이 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일(경진) 맑고 따뜻하였다.

9월 3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4일(임오) 비가 지면을 적셨다. 재종(再從)인 상인(喪人) 정창래(丁昌來)가 개토(開土)하였다.

9월 5일(계미) 날씨가 청명하였다.

9월 6일(갑신) 햇벌이 나오고 따뜻했는데,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7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8일(병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

**422** 무기정(舞妓亭)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이다. 무기산(舞妓山)이라고도 하며 고성현 북쪽 2리에 있다. 전설에 옛날 고주자사(固州刺史)가 기생들을 데리고 가무(歌舞)를 즐겼다고 하여 '무기(舞妓)'라고 이름하였다. 구상덕은 이 곳을 자주 지나거나 유숙하였다. 1757년 1월 23일자 기사내용에 무기정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9월 9일(정해) 따뜻하였다. 순상(巡相) 김공 시형(金公是衡)<sup>423</sup>이 본현에 도착하였다.

9월 10일(무자) 따뜻하고 햇벌이 나왔다가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올해 가을은 좀도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나는 밤에 들판 벼를 순찰하는데도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모두 우리집 담장 안에서<sup>424</sup> 발생한 것이다.

9월 11일(기축) 습하였다.

9월 12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3일(신묘)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14일(임진) 햇벌이 나왔다.

9월 15일(계사)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 하였다. 구례(求禮)에 사는 최맹범(崔孟範)이 매형 이어섭을 대신하여 통영(統營)에서 곤장을 맞았다.

9월 16일(갑오) 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미(米) 4말 가령(加零), 조(租) 13, 4말이다.

9월 17일(을미)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최맹범(崔孟範)이 떠나갔다.

9월 18일(병신) 따뜻하였다.

9월 19일(정유) 햇벌이 나왔다. 이때 호랑이의 피해가 극히 심하였다.

9월 20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구음곡(九音谷)에 사는 한만기(韓萬起)가 어제 저물 녘 들판 벼를 지키는 오두막 가운데에 묵었는데, 사나운 호랑이가 움켜서 잡아갔다.

9월 21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2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3일(신축) 햇벌이 나왔다.

9월 24일(임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오늘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무사(武士) 190여 명을

---

**423** 김공 시형(金公是衡) : (인물) 김시형(1681~1750)의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계장(季章)이다. 1717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30년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참찬관·충청도관찰사·승지 등을 거쳐, 1732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특히 교학(敎學)의 진흥을 위하여 힘썼다. 그 뒤 판돈녕부사·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

**424** 우리집 담장 안에서 : (고사) 원문의 ‘소장(蕭牆)’은 자기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변을 이른다. 《논어》 〈계씨(季氏)〉에 “계씨의 화란이 전유(顛輿)에 있지 않고 소장(蕭牆)의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시험했는데 그중에 합격자는 30여 명이고, 나머지는 탈락시켜 일반 군사로 배정되었다.

9월 25일(계묘) 매우 따뜻하였다.

9월 26일(갑진) 아버님이 매형 이여섭과 용동(龍洞)에 가서 윤매형(尹妹兄)의 영결식을 보았다.

9월 27일(을사)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9월 28일(병오) 서리가 처음으로 내렸는데, 매우 따뜻하였다.

9월 29일(정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9월 30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사또 허후 석(許侯錫)이 경과(京罷)되었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기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0월 2일(경술) 허 사또가 삼세(三稅)<sup>425</sup>를 미납했다는 일로 조정에서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10월 3일(신해) 오후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0월 4일(임자) 가끔 비가 내렸다.

10월 5일(계축) 가랑비가 내렸다.

10월 6일(갑인) 가끔 비가 오고 북풍이 차가웠다. 신지사(辛地師 辛萬興)가 왔다.

10월 7일(을묘) 날씨가 어제처럼 추웠다. 대동(垓洞)에서 재혈(裁穴)하였다.

10월 8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신지사가 돌아갔다. 상인(喪人) 이동엽(李東燁)이 방문하고 곧장 돌아갔다.

10월 9일(정사) 조금 추웠다.

---

**425) 삼세(三稅) :** (제도) 전세(田稅)·대동(大同)·삼수(三手)이다. 삼수미(三手米)는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 즉 삼수군(三手軍)의 방료(放料)로 주기 위하여 전답에 구별 없이 1결(結)에 미곡 2말 2되를 거두었다.

10월 10일(무오) 자못 따뜻하였다.

10월 11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이 바로 정파총(丁把摠) 부부(夫婦)가 세상과 영결한 날짜이다. 아버님이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오십 여년 세월 빨리 지나 가버리니 <sup>426)</sup>	五十光陰等隙駒
애석하도다 그대 어이 볼들 수 있겠나	惜君那可力能扶
손가락 벤 효자의 명예가 길이 전해지고	孝兒割指名傳遠
부인 <sup>427)</sup> 과 한 무덤에 계시니 외롭지 않으리	賢閣同丘德不孤
평생토록 옥 같은 분 <sup>428)</sup> 의지하려고 했는데	常期百年依玉樹
오늘 생풀 한 다발 <sup>429)</sup> 올릴 줄 알았으리오	寧知今日奠生菫
우리 아이 <sup>430)</sup> 와 큰 형님 모두 세상 떠나니	家豚舍伯俱冥漠
인간 세상의 옛 정을 잊지 마소서	毋忘人間舊義乎

나는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예전에 들으니 어진 자는 장수한다고 <sup>431)</sup>	昔聞仁者壽
하늘이 이리도 빨리 빼앗아간단 말인가	天奪此何忙
효자의 피가 봄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孝血回春飲
무덤 함께 하자고 꽃다운 맹세했지	芳盟合穴藏
제일 가여운 건 어린 자식이니 <sup>432)</sup>	最恰齊戶立
자식 기다리는 부모 맘 <sup>433)</sup> 견디랴	堪歎倚闔望
한 번 이별이 천고의 세월이기에	一別將千古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뿌리네	空揮淚萬行

유사(有司) 강성주(姜聖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426)** 세월 빨리 지나가 가버리니 : (고사) 인생이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기보다 더 빠르다는 말이다. 《장자》 〈지북유(知北遊)〉에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감은 마치 흰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별안간에 끝나버린다.”라고 하였다.

**427)** 부인 : 원문의 ‘현합(賢閣)’이란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428)** 옥 같은 분 : (고사) 원문의 ‘옥수(玉樹)’는 자태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 “종지는 셋은 듯 맑은 풍모의 미소년이라, 환하기 마치 옥으로 된 나무가 바람 앞에 선 듯해라.[宗之瀟灑美少年皎如玉樹臨風前]” 하였다.

**429)** 생풀 한 다발 : (고사) 생추(生菫)는 변변찮은 부의(賻儀)를 이르는 말인데, 주로 겸사(謙辭)로 쓰인다. 후한(後漢) 때의 고사(高士)인 곽태(郭太)가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서치(徐穉)가 곽태의 마을을 찾아가 생풀 한 다발을 마을 입구에 놓고 상주는 만나 보지도 않은 채 돌아가자, 주위 사람들이 그 일을 이상히 여기어 곽태에게 말하자 곽태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남주(南州)의 고사 서유자(徐孺子 : 서치)일 것이다.

**430)** 우리 아이 : 원문의 ‘가돈(家豚)’은 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431)** 어진 자는 장수한다고 : (고사) 《논어》 〈옹야(雍也)〉에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知者樂 仁者壽]”라고 하였다.

**432)** 어린 자식이니 : 원문의 ‘제호(齊戶)’는 아이의 키가 문지방에 닿을 정도라는 의미이다.

**433)** 자식 기다리는 부모 맘 : (고사)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말한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위(衛)나라 왕손가(王孫賈)의 모친의 고사로서 아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면 문에 기대어 기다리고, 저녁에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고 한다. 《戰國 齊策》

때 아닌 때에 나온 재주를	才非時出尙堪寬
오십 세월 말이 틈새 지나가듯 흘러	五十光陰隙馬奔
반평생 의지한 이는 그대였는데	半世依憑惟子是
평생 회포를 이젠 누구와 논할까	百年懷抱向誰論
두 용이 연평진 <sup>434</sup> )으로 다시 돌아갔건만	雙龍重返延津窟
사씨 집안에 세 나무가 그래도 열렸네 <sup>435</sup> )	三樹猶開謝氏門
하례하니 임종하던 그 당시에	爲賀臨終當日事
효성 돈독한 큰 아들이 손가락 잘랐네	長兒斷指孝心敦

생원 우홍징(禹洪徵)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우리 선친 때부터 이웃으로 살아	自我先人擇結鄰
대를 이어온 교분 백발에도 새롭네 <sup>436</sup> )	世傳交契白頭新
삼경의 달빛 비춘 빈 들보에 곡하니 <sup>437</sup> )	空梁忽哭三更月
몇 자 먼지 쌓인 옛 칼을 누가 갈나	古劍誰磨數尺塵
천도는 반드시 어진 사람이 장수하는데	天道必然仁得壽
저승 이치 알기 어려우니 어찌하리	冥司其奈理難伸
손가락 끊었던 효자를 뒤돌아보니	回看血指兒誠孝
꽃다운 이름 길이 변치 않으리라	可使芳名永不淪

대아(大雅) 우홍범(禹洪範)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남아의 뜻 이루지 못했는데	未遂男兒志
전광석화처럼 세월 지나	光陰石火忙
늙은 모친 <sup>438</sup> )은 저녁 비가 근심스럽고	老萱愁暮雨
한 치 풀 <sup>439</sup> )은 봄별이 막혔구나	寸草隔春陽
손가락 끊으니 타고난 효성 알겠고	割指知生孝
부부가 함께 묻히니 천생연분일세	同丘認娶良
구천은 어이 그리도 적막하여	九原何寂寞

**434)** 연평진(延平津) : (고사) 진(晉)나라 장화(張華)와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라는 암수의 두 보검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두 보검이 절로 연평진(延平津)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두 마리 용으로 바뀐 채 유유히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 《晉書 卷36 張華列傳》

**435)** 사씨 집안에 세 나무가 그래도 열렸네 : (고사) 사씨 집안은 명문가를 가리키고, 세 나무는 집안을 잘 계승한 아들 삼형제를 가리킨다.

**436)** 백발에도 새롭네 : 젊어서부터 백발이 되도록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새로 사귄 벗이나 다름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437)** 삼경의 달빛 비춘 빈 들보에 곡하니 : (고사) 두보(杜甫)의 〈몽이백(夢李白)〉 시에 “지는 달빛 지붕마루에 가득하니, 아직도 그대 얼굴이 비추는가 하노라.[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흔히 친구를 그리워하는 뜻으로 쓰인다.

《杜少陵詩集 卷7》

**438)** 늙은 모친 : 원문의 ‘훙(萱)’은 훙초(諛草 원추리)로, 어머니를 뜻한다.

**439)** 한 치 풀 : (고사)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游子吟)〉에 “한 치의 풀과 같은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봄날의 햇볕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답하기 어려워라.[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는 구절이 있다.

나를 부질없이 애간장을 찢어지게 하나 令我謾摧腸

매형 이여섭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어진 데 장수하지 못하니	仁而不得壽
이 이치 참 알기 어렵구나	此理誠難知
어찌 생각했으랴 영원한 작별에	豈意終天訣
효자의 마음으로 임종하셨지 <sup>440)</sup>	方從啓足時
꽃다운 맹세 ~ 결락 ~	芳盟同□氏
효성스런 백유 <sup>441)</sup> 같은 자식	純孝有兪兒
끝이로다 이웃해서 살았던 뜻	已矣卜鄰意
바람 앞에서 통곡하노라	臨風痛哭之

과총(把摠) 이국림(李國霖)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병석에도 장례에도 다 가보지 못해	病不臨床沒亦如
지금 멀리 떠나는데 마음이야 어떠하리	今當定遠意何如
내 한 번 병들어 여기에서 끝났으니	緣吾一疾如斯已
누가 전날 정이 골육 같다고 여기리오	孰謂前情骨肉如

생원 안서구(安瑞壽)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삼세 동안 좋은 마을에 사니	三世處仁里
친한 정이 한결 같았다고	親情如一般
지곤 <sup>442)</sup> 할 때 애석할 것 없었고	指困無所惜
바다를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네 <sup>443)</sup>	轉海亦非難
담소 나눴던 은림은 적막하고	談笑銀林寂
노닐던 죽마는 한가하구나	交遊竹馬閑
빈 들보에 달만 보이니	空梁惟見月

**440)** 효자의 마음으로 임종하셨지 : (고사) 증자가 임종 때에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걷고 나의 발을 보고 나의 손을 보아라.[啓予足 啓予手]” 하고는, 이 시구를 인용하며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보전하라고 당부한 내용이 《논어》〈태백(泰伯)〉에 나온다.

**441)** 백유(伯兪) : (고사) 한나라 때 효자 백유가 일찍이 과실이 있어 자기 어머니가 매를 때리자 영영 울므로,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른 때는 너에게 매를 때려도 네가 울지 않더니 지금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라고 하자, 백유가 대답하기를 “유가 죄를 지어 매를 맞을 때면 매가 항상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쇠약하여 아프게 때리지 못하시는지라, 그래서 울니다.《說苑 建本》

**442)** 지곤(指困) : (고사) 쌀 창고를 손으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삼국시대 오(吳)나라 노숙(魯肅)이 주유(周瑜)에게 쌀 창고를 가리켜 보이면서 그것을 주유에게 준 고사에서 온 말인데, 후세에는 일반적으로 친구 간에 서로 도와주는 것을 비유하여 말한다.《三國志 卷54 吳書 周瑜傳》

**443)** 바다를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네 : (고사) 역량(力量)이 거대함을 비유한 말이다. 이백(李白)의 《옛날 노닐던 일을 추억하며 초군 원참군에게 부치다[憶舊遊寄譙郡元參軍]》에서 “산과 바다를 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정리를 쏘아 예석한 바가 없네 [回山轉海不作難 傾情倒意無所惜]”라고 하였다.



슬픈 눈물이 절로 흐르는구나

哀泪自然流

대장(代將) 박용서(朴龍瑞)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반평생 회포 논하는 곳에	半世論襟地
아양곡 <sup>444</sup> 몇 가락 연주했지	峩洋數曲中
의리는 혼인 <sup>445</sup> 으로 맺어졌지만	義雖瓜葛托
정이야 실로 형제 <sup>446</sup> 와 같았지	情實鶴鶴同
하룻밤에 한풍 <sup>447</sup> 으로 변하여	一夕韓馮化
천년의 화표주 <sup>448</sup> 텅 비어있네	千年華表空
병석이라 상여 줄 잡지 못해	攀輻違伏枕
서풍을 향해 눈물 뿌리네	洒泪向西風

10월 12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3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가끔 구름이 끼었다.

10월 14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5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암말을 구매하였다.

10월 16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정조(精租) 11말이다. 대구(大丘) 중군(中軍)이 순상의 명령으로 10여일 전부터 본현에 도착해서 절감(折減)된 군액(軍額)을 채워 충당하려고 장차 통영(統營) 한정(閑丁)을 쓰려고 하였다. 이에 통제사가 계청(啓請)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중군(中軍)이 오늘 통영(統營)에서 다시 본읍(本邑)으로 돌아와 한정(閑丁)을 성화(星火)와 같이 추착(推捉)하였다.

10월 17일(을축) 읍에 들어가 관사(官事)를 보고 곧장 돌아왔다.

**444) 아양곡(峩洋曲) :** (고사) 아양곡은 춘추 시대 백아(伯牙)가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들었다는 거문고 곡조로,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이라고도 한다. 백아가 거문고를 잘 땀는데 종자기는 이것을 잘 알아들었다. 그리하여 백아가 마음속에 ‘높은 산[高山]’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험준하기가 태산과 같다.[善哉 峨峨兮若泰山]” 하였으며, 백아가 마음속에 ‘흐르는 물[流水]’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광대히 흐름이 강하와 같다.[善哉 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 《列子 湯問》

**445) 혼인 :** (고사) 원문의 ‘과갈(瓜葛)’은 덩굴이 뻗어서 서로 얽힌 외와 꺾으로, 집안의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를 뜻한다.

**446) 형제 :** (고사) 원문의 ‘척령(鶴鶴)’은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나오는 말이다.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듯, 급한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러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는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읊은 노래이다.

**447) 한풍(韓馮) :** (고사) 옛날 전국시대 송나라 강왕(康王)이 한풍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다. 한방이 자살하자 그의 아내도 자살하였으므로 어느 산기슭에 묻었더니, 두 무덤에서 각기 나무 하나씩이 나서 가지가 서로 얽히었다. 송나라 사람들이 그 나무를 상사목(相思木)이라 하여 이들의 사랑을 가련하게 여겼다.

**448) 화표주(華表柱) :** (고사) 요동 사람 정영위(丁令威)가 선도(仙道)를 배워 터득한 뒤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화표주에 앉아 있다가 탄식하며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搜神後記 卷1》

10월 18일(병인) 햇볕이 나왔다. 나는 안정사(安靜寺)에 갔다가 즉시 돌아왔다.

10월 19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0일(무진) 매우 따뜻하였다. 관(棺)에 송진[松脂]을 칠하였다.

10월 21일(기사) 흐리고 따뜻하다가 밤에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이날 개토제(開土祭)<sup>449</sup>를 치렀다.

10월 22일(경오)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그쳤다.

10월 23일(신미) 따뜻하였다. 산역(山所)을 비로소 시작하여 노소(老少)에 따라 두 편을 나누어 일을 했는데 산역을 부지런히 하였다.

10월 24일(임신) 새벽에 구름이 끼고 비 올 기색이 다분했으나 종일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는데 매우 따뜻하였다. 인시(寅時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에 계빈(啓殯)<sup>450</sup>은 유방(西方 서쪽)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해시(亥時 밤 9시부터 11시까지)에 숙부님과 형님의 상여 수레가 일시에 발인하여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웠다. 담군(擔軍)<sup>451</sup> 역시 노소(老少)로 편을 나누어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로웠다. 이날 밤은 맑고 따뜻하였다.

10월 25일(계유)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에 달이 뜬 이후 매우 조심조심 하관(下棺)하였다. 이날 더러 구름이 끼었다.

만장(挽章)

관중과 포숙아 천년 후에	管鮑千年後
그 사귄 정이 우리 두 사람일세	交情我二人
들보 위 헛되이 달빛 마주하고	屋梁虛對月
거문고 갑에 먼지만 쌓였구나	琴匣已生塵
아비 여윈 다섯 살 자식	五歲孤兒子
칠순이신 두 노친	七旬兩老親
저승길 그대의 통한을 생각하면	念君泉下恨
누가 수건에 눈물 적시지 않으리오	誰不淚沾巾
우홍범(禹洪範)	

매형이 갑자기 떠날 줄 생각이나 했으리	豈意妹兄遽至斯
만사 짓고자 해도 눈물이 먼저 떨어지네	欲題哀挽泪先垂
새 집의 옆 자형나무 <sup>452</sup> 는 시들고	紫荊憔悴新堂側

449) 개토제(開土祭) : 묘를 쓸 때 흙을 파기 전에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

450) 계빈(啓殯) : 발인을 할 때에 관을 꺼내기 위하여 빈소를 엮.

451) 담군(擔軍) : 짐을 지고 가는 사람으로, 짐꾼을 말한다.



시든 당채화 <sup>457</sup> 의 언덕	憔悴唐棣阜
맑은 모습 끝내 적막해졌고	清儀終寂寞
빼어난 몸을 황량한 곳에 묻혔구려	英骨葬蓬蒿
이 이별이 돌아올 날이 없으니	此別無歸日
슬프도다 슬프도다	悲來乎悲來乎
곡하여 슬픔 다하니 마음이 애타는 구려	哭盡哀心似熬

이국즙(李國楫)

제문(祭文)

아! 애통하도다	嗚呼痛哉
공은 잠 드셨습니까	公其寢耶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其亡也無
불러도 일어나지 않으니	呼而不起
필시 돌아가신 것입니까	必也亡乎
오호라!	嗚呼
당 위에 양친	堂上雙親
슬하에 고아	膝下孤兒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니	一朝棄去
공은 차마 이렇게 한단 말인가	公胡忍茲
오호라!	嗚呼
대낮 촛불 <sup>458</sup> 이 처량하여	晝燭淒涼
외로운 그림자 꺼지려 하네	孤影欲滅
자형나무 <sup>459</sup> 시들었는데	紫荊憔悴
한 가지 벌써 꺾였습니다	一枝已折
오호라	嗚呼
내 일생 돌아보면	顧我平生
오직 공의 호의를 믿었지요	惟恃高誼
이웃으로 서로 만나 쉬고	比薨相息
물고기 떼처럼 노닐었지요	魚隊相戲
의리상 먼 친인척 <sup>460</sup> 이지만	義雖葭莩
정은 실로 형제간이었네 <sup>461</sup>	情實鵲鴒
인생 백년 기약으로 삼아	百年爲期
서로 멀리 있지 않았네	無有逕庭
오호라	嗚呼
봄 삼월 초에	春三月初
공이 비로소 병에 들어	公始有疾

**457)** 당채화(唐棣花) : 자형화(紫荊花)인데,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피었으므로 형제에 비유한다.  
**458)** 대낮 촛불 : 대낮에 촛불을 켜도 그 불빛이 희미하듯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459)** 자형나무 : 기출  
**460)** 먼 친인척 : (고사) 원문의 '가부(葭莩)'는 갈대 속의 얇은 막으로, 촌수가 먼 친인척을 뜻한다.  
**461)** 형제간이었네 : 기출

공의 두 아우와 함께	與公二弟
상의해서 약을 처방했는데	同議用藥
육일 만에 땀을 흘려	六日取汗
병세가 조금 나아진 듯하여	病候似歇
장수하리라 믿었고	仁壽可恃
건강하리라 확신하였네	強全期必
어찌하여 한 번 병들어	于何一疾
열흘 동안 병으로 누워 계시더니	連旬沈綿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蒼天不弔
어느덧 돌아가셨군요	遽爾溘然
오호라	嗚呼
깊은 우애가	友愛深情
지금 이미 끝나버렸구나	今旣已矣
너그러운 모습과 후한 마음	寬容厚意
누가 다시 이을 수 있나	更誰繼耳
저승과 이승이 막혔으니	幽明已隔
말과 용모 찾기 어려워라	音容難尋
인간사 이 지경이니	人事到此
하늘의 뜻을 어찌 믿으리오	天意何斟
오호라	嗚呼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胡至斯乎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胡至斯乎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	欲見未見
애통하면서 불러보네	慟泣而呼
제수 변변치 못하지만	奠雖菲薄
정이 졸렬한 글에 있으니	情在荒詞
천고에 한 번 이별이	千古一別
이 밤 오늘 이 시간이로다	此夜今時
술잔 따르고 제문 올리니	置觴薦辭
애간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누나	腸摧肚裂
영특한 혼령 어둡지 않을 것이니	英靈不昧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庶幾來格
오호라	嗚呼

위로 같음.

아버님이 조고비(祖考妣) 산소에 다음과 같이 제문을 지었다.

일년동안에	一年之內
가문이 쇠퇴해지려 하네	家門欲傾
이미 장자를 잃고	已失長子
또다시 형님을 곡했습니다	又哭舍兄

선영 아래에	先隴之下
길지 얻어 하관하니	卜地而窆
삼가 존귀한 영령께서	伏惟尊靈
보호하사 어려움 없게 하소서	保佑無艱

오시(午時)에 이르러 산역이 끝나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부슬부슬 비가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입장(入葬)하는 날 모든 사항의 거행 절차

동원(洞員)이 상여를 점검한 후 정좌(定坐)하기 전에 청주(淸酒)를 한 순배 돌렸다. 정좌한 후 定坐後, 均坐酒 청주를 한 순배 돌리고, 포제(日晡祭)<sup>462</sup>을 올리고 탕물(湯物)을 모두 주었다. 청주와 탁주를 각 1사발을 골짜기 무덤 앞에 봉하여 놓았다가 저녁에 밥을 들어 보냈다. 발인하기 전에 아침밥으로 죽을 먹었다. 산소 일이 다 끝난 후에 옥식(蓐食)<sup>463</sup>하였다.

10월 26일(갑술)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고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전문(箋文) 집사(執事)로 비를 맞고 밤새도록 가서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구허역(九墟驛)에 이르러 비로소 동틀 무렵이 되었다. 아침 전에 전문(箋文)이 봉하여 출발시켰다.

10월 27일(을해) 어두웠다. 천동(泉洞)에 묵었다.

10월 28일(병자) 식후에 비가 약간 내리다가 그쳤다. 항북(項北)에 이르러 조금 쉬었다가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9일(정축) 햇별이 나고 따듯하였다. 지난 25일에 좌수(座首) 이석함씨(李錫咸氏)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흐르는 냇물처럼 육십 년 세월이 지나	六十光陰若逝川
우리 고향에 이젠 현인이 안 계시네	吾鄉從此乏高賢
오늘 아침 끝없는 통한 남아 있건만	今朝別有無窮恨
묘소 앞에 제수를 올리지 못하구려	未把生芻奠墓前

11월 대월(大月). 2일 대설절(大雪節), 17일 양생중(陽生中)<sup>464</sup>.

11월 1일(무인) 하루 종일 동풍이 불고 밤새 추웠다.

11월 2일(을묘)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저물녘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밤새 보슬보슬 내렸다.

**462)** 일포제(日晡祭) : 발인(發柩) 전에 영결(永訣)을 고하는 제사.

**463)** 옥식(蓐食) : 이른 아침에 이부자리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급히 서둘러 새벽밥을 먹고 출발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464)** 양생(陽生) : 일양시생(一陽始生)하는 날로, 바로 동지(冬至)를 가리킨다.

11월 3일(경진) 어제부터 내린 비가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11월 4일(신사) 오후에 막 해가 나왔으나 잠시 뒤에 다시 구름이 끼고 더러 비가 와서 종일토록 해가 나오지 않았다.

11월 5일(임오) 날씨가 따뜻하다가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6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한 밤중 즈음에는 비가 내렸다.

11월 7일(갑신) 어제부터 내린 비가 아침 식사 후에 갑자기 걷히고, 밤에 또 약간 흐렸다.

11월 8일(을유) 하루 종일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9일(병술) 밤에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방장산(方丈山 지리산)이 두 차례 파열되면서 울렸다는 풍문이 있었다. 몽아(夢兒)가 연내 글 읽기를 그만두었다가 지금 비로소 다시 공부하였다.

11월 10일(정해)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 아침에야 그쳤다. 용동(龍洞)에 사는 윤생원이 왔는데 그대로 머물렀다.

11월 11일(무자) 날씨가 추웠다. 윤생원이 작별하고 떠나갔다. 견내량진(見乃梁津)이 하룻밤 사이에 얇은 여울이 되어 배가 다니지 못했다는 풍문이 있었다.

11월 12일(기축) 날씨가 추웠다.

11월 13일(경인) 맑고 추웠다. 매형 이여섭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11월 14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제 저녁 정창옥(丁昌玉) 집에 향아리 안에 비축해 두었던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웃집을 살펴보다가 가운데 중(中)자 이름의 당숙 집에서 찾게 되었다. 오늘 한창 다투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11월 15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6일(계사)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7일(갑오)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도선(道善)에 사는 도유사(都有司) 이교년씨(李喬年氏)가 방문하고서 유숙하였다.

11월 18일(을미) 햇볕이 나왔는데 바람이 차가웠다. 식후에 이교년이 떠나갔다.

11월 19일(병신) 날씨가 제일 추웠다. 내가 이날부터 흉부에 통증이 있었다.

11월 20일(정유) 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1일(무술) 햇볕이 나왔는데 추웠다.

11월 22일(기해) 날씨가 추웠다.

11월 23일(경자) 갑자기 따뜻해졌다.

11월 24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5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내 눈병은 지난여름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열(餘熱)이 있다. 잠자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얼마 뒤에 눈동자가 건조하고 끈끈러운 증상이 있고, 자고 난 후에도 여전하다. 사물을 오래 보고 있으면 처음 잠에서 깬 때의 눈 상태와 같아 불빛이 둥글게 햇무리 지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으니 주색(酒色) 모두 신중을 기할만하다.

이날 저녁에 한양에 사는 만호(萬戶) 오필제(吳弼齊)라는 자가 오선달(吳先達)이라고 하는 자와 함께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걸어와서 이웃집에 투숙하였는데 자못 수선스런 행동거지가 있고 행적이 이상하였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 관아에 신고하려고 그들의 동정을 살폈더니 포도부장(捕盜部將)의 무리인 듯해서 내가 이끌어 객실에 숙박하여 머물게 하고 마을을 요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1월 26일(계묘) 조금 따뜻하였다. 한양사람이 작별하고 남촌진(南村鎭)으로 향해 갔다. 나는 생원 우홍징(禹洪徵)의 청원서를 써 주었다. 고을 사또 허후 석(許侯錫)이 취리(就理)<sup>465</sup>를 받고서 풀려났는데, 지금 내려오다가 성주(星州)에 이르러 병들어 몸져누웠다고 한다.

11월 27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또 허석(許錫)이 오늘 관직에 복귀하였다.

11월 28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저녁에 이웃 김태방(金太方) 집이 화재로 불타버렸다.

11월 29일(병오)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날 저녁 김준식(金駿軾)·황형(黃瑩)·이국성(李國城)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1월 30일(정미) 심하게 춥지는 않았다. 식사 후에 손님 세 명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정노(正奴)가 그 집을 사서 아래 덕 행랑(行廊)으로 옮겨 들어갔다.

12월 대월(大月). 1일 소한절(小寒節), 16일 대한중(大寒中).

465) 취리(就理) : 죄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가서 심리를 받음.



12월 1일(무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12월 2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3일(경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전결(田結)을 감세 및 면세하자는 뜻을 합동으로 묘당(廟堂)에 품처(稟處)했는데 본현의 경우 50결을 면제받았다. 적간 감색(摘奸監色)이 오늘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

12월 4일(신해) 밤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부터 비가 내리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개었다.

12월 5일(임자)

12월 6일(계축)

12월 7일(갑인)

12월 8일(을묘)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2월 9일(병진)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에 눈비가 내렸다.

12월 10일(정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12월 11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매형(尹妹兄)■……■ 묘소에 고유(告由)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용동(龍洞)에 갔다.

12월 12일(기미) 구름이 짙게 끼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 역시 윤매형(尹妹兄) 묘소 앞에 가서 곡하였다. 밤중에 용동(龍洞)으로 돌아왔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달빛이 낮처럼 밝았다.

12월 13일(경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갔다. 억아(億兒)가 함께 왔다.

12월 14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꿈속에서 절구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몸에 은자의 옷 <sup>466</sup> 을 입고	身邊却被芰荷衣
옥도끼 쇠 철퇴를 손에서 휘두르며 <sup>467</sup>	玉斧金椎手裡揮
남아 대장부가 서쪽 보고 웃음 짓을 때 <sup>468</sup>	會待男兒西笑日

**466** 은자의 옷 : (고사) 지하의(芰荷衣)는 은자의 복장으로, 《이소경(離騷經)》에 “연꽃 잎새로 웃옷 해 입고, 부용으로 아랫바지 만들어 입네.[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고 하였다.

**467** 옥도끼 쇠 철퇴를 손에서 휘두르며 : (고사) 시문(詩文)을 같고 다듬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468** 서쪽 보고 웃음 짓을 때 : (고사) 원문의 ‘서소(西笑)’는 원래 중원(中原)의 사람이 서쪽의 장안(長安)을 향해 웃음 짓는다는 뜻이다. 후한(後漢) 환담(桓譚)의 《신론(新論)》 〈거폐(祛蔽)〉에 “사람들이 장안의 음악을 들으면 문을 나서면서 서쪽을 향해 웃음 짓고, 고기 맛이 좋은 것을 알면 푸줏간을 대하고서 입맛을 크게 다신다.”라는 관동(關東)의 속담을

계수가지 연꽃 봉우리 머리 가득 돌아오네<sup>469)</sup>      桂枝蓮萼滿頭歸

12월 15일(임술) 바람이 차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수재(秀才) 윤필징(尹弼徵)이 여러 번 방문했는데 지금 또 입 크고 푸른 비늘 물고기[巨口碧鱗]를 가져왔다. 저녁에 돌아갔다.

12월 16일(계해) 아침부터 흐리다가 저물녘에 해가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면(西面) 외갓집에 갔다.

12월 17일(갑자) 바람이 불고 조금 추웠다. 표숙(表叔 외숙)의 생일이기에 술자리가 마련되었다.

12월 18일(을축)

12월 19일(병인) 이상 날씨가 매우 추웠다.

12월 20일(정묘) 추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계동(契洞)으로 돌아갔다. 이날 조카 유상순(柳尙純)이 가족에게 돌아갔다.

12월 21일(무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매우 추웠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12월 22일(기사) 추웠다.

12월 23일(경오) 추위가 갑자기 풀렸다. 동임(洞任) 김하석(金夏石)이 족침(族侵)<sup>470)</sup>으로 자못 놀래고 괴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허 사또가 근무 평가에서 하(下)를 받았는데, 평가에 ‘백성들이 속히 돌아가기를 바라니 나머지는 무엇을 따지리오.[民願速歸 其他可論]’라고 하였다.

12월 24일(신미) 조금 따뜻해졌다. 최선여(崔善餘)·황형(黃瑩)·이국성(李國城)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2월 25일(임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오후에 손님 세 명이 각자 돌아갔다.

12월 26일(계유) 서풍이 불었으나 오히려 따뜻하였다.

12월 27일(갑술) 따뜻하였다. 도령(都令) 우홍범(禹洪範)은 현재 나이가 41세인데, 이제야 장가를 갔다.

---

소개하는 말이 나온다.

**469)** 계수가지 연꽃 봉우리 머리 가득 돌아오네 : (고사) 계수나무는 달 속에 있는 계수나무를 말한다. 옛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절계(折桂)라 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부를 계적(桂籍)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말이다.

**470)** 족침(族侵) : (제도) 조선시대 부당하게 부과하던 징세(徵稅)의 하나이다. 족징(族徵) 즉 생활의 곤궁으로 군역(軍役)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친족이 대신하여 군포(軍布)를 납부하게 하던 일이다.

12월 28일(을해) 동풍이 불고 매우 따뜻하다가 밤중에 비가 내렸다. 비를 맞고 햇불을 밝히면서 정침(正寢)에 떠플 지붕을 이었다.

12월 29일(병자) 하루 종일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2월 30일(정축) 오전에 햇별이 나오고 따뜻했으며, 오후에도 얇게 구름이 끼었으나 여전히 따뜻하였다. 금년 봄의 기근, 흉년, 돌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만고(萬古)에 드문 해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으나 가을은 풍년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기근과 질병으로 경작하지 못한 자들의 곤궁한 사정은 작년과 다름이 없으니 내년 봄의 상황을 벌써 상상해볼 수 있을 뿐이다. 마을에 머물렀는데 전염병도 걸리지 않아 농사에 힘쓴 자들은 이루 다 먹지 못할 정도이다. 본읍의 전야(田野)로 말하자면 경작하지 않은 자가 절반이고, 비록 힘써 농사지어 속백(粟帛)을 많이 거두었어도 인침(鄰侵)과 족징(族徵)으로 살림이 풍비박산이 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설 전 시가[市直]는 조(租) 8말, 미(米) 3말이다. 지금 설달 그믐날에 취서(醉瑞)를 볼 수 있으니 작년에 비하면 풍년이라고 할만하다. 지난봄에 구덩이와 도로를 메운 시체들을 다 매장하지도 못하고 까마귀와 솔개, 개와 돼지의 먹이가 되고 파리와 모기, 개미들이 빨아먹었으며 위장이 튀어나오고 뼈들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는 행인들이 측은함을 견딜 수 없었는데, 이는 눈길 닿는 곳마다 셀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시대의 변고인가. 불쌍할 뿐이다.

금년 여름 이양은 6월 10일 사이에 마쳤는데도 오히려 평년 농작에 절반 정도를 놓치지 않았으니, 시기가 늦었다고 농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신해년은 봄 가뭄으로 말미암아 7월 초에 이르러서야 이양을 했는데 수확을 본 자들도 간혹 있다.

이 겨울 길가에서 제목도 없고 지은이도 모르는 다음과 같은 시를 들었다.

저 무슨 괴물이	彼何奇怪物
철성 <sup>471)</sup> 관아에 들어왔나	來入鐵城衙
놀란 토끼가 중후함 바라고	厚重希驚兔
비쩍마른 개구리가 풍성함 선망하네	豐盈羨曝蛙
죄없는 감옥을 비가 무너뜨리고	雨頽無罪獄
돈 있는 집에 개가 짖네	犬吠有錢家
응당 패두(우두머리) 출신은	應是牌頭產
형장 치는 연습한다고 늘 말하네	常稱習杖撻

또

어떤 괴물이 정당에 들어갔나	何物奇形入政堂
인간세상 천하에 한 밥주머니 <sup>472)</sup>	人間天下一譏囊

**471)** 철성(鐵城) : 고성(固城)을 가리킨다.

**472)** 주옹반낭(酒甕飯囊) : (고사) 술독과 밥주머니라는 말로, 그저 먹고 마실 줄만 알 뿐 일 할 줄은 모르는 무능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후한(後漢)의 예형(禰衡)이 “순옥 정도는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너무나 진흙으로 만든 인형과 같아서 사람과 모습은 비슷해도 사람의 정기가 없으니, 모두 술독이나 밥주머니일

둘러보는 것이 흡사 토끼가 제 귀 보듯이	顧瞻恰似兔看耳
단장한 모습 도리어 벼룩이 고삐에 있는 듯	粧束還疑蚤帶韁
백성을 사냥하려는 오만한 이리의 눈	獵視蒼生狼眼傲
몰래 부패한 음식 먹은 수염 긴 쥐	潛咬紅腐鼠鬚張
가련타 신임옥사 <sup>473</sup> ) 남은 고기 덩어리	可憐辛壬餘殘肉
도깨비가 변경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네	魍魎椎邊散四方

검산(檢山)의 과객(過客)이 지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 산소에 제사를 지냈는데 정향(丁向), 건선명(乾仙命 남자의 죽음) 신축(辛丑)·병자(丙子), 참파(斬破)<sup>474</sup>) 21일, 개금정(開金井)<sup>475</sup>) 같은 날, 혈의 깊이 3자 7촌, 안장(安葬) 계축 10월 25일, 계유일 축시에 하관(下棺) 하였다.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소월. 1일 무인 입춘절, 16일 우수중(雨水中).

1월

1월 1일(무인) 닭이 12차례 길게 울었다. 새벽에 동풍이 갑자기 불고 서방(西方)에 먹구름이 가볍게 날아왔으나 하늘은 맑고 별빛은 뚜렷하며 서리는 눈처럼 두텁게 내렸다. 식후에 동풍이 점점 일어나고 조각구름이 수레바퀴처럼 떠다녔으며 밤에 바람과 구름이 점점 심해졌다.

1월 2일(기묘) 새벽에 비가 오고,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1월 3일(경진) 햇벌이 나왔다.

1월 4일(신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나는 눈병을 앓아 아직도 햇빛이 너무 부시고 똑바로 보지 못하는 증세가 있었다.

1월 5일(임오)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6일(계미) 밤에 북풍이 세차게 불고 구름이 떠다녔다.

1월 7일(갑신) 햇벌이 나왔지만 북풍이 매우 추웠다.

1월 8일(을유) 청명했지만 바람이 매우 추웠다. 조모님 기제사 날짜이다.

뿐이다.”라고 조롱하였다. 《抱朴子 彈禰》

**473)** 신임옥사(辛壬獄事) : (역사) 신축년(1721, 경종1)부터 임인년(1722) 사이에 일어났던 옥사로, 훗날 영조인 연잉군(延昞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이 노론 사대신(四大臣) 등을 죽인 옥사이다.

**474)** 참파(斬破) : 참초(斬草)와 파토(破土)로, 풀을 베고 흙을 파는 일.

**475)** 개금정(開金井) : 금정틀을 놓고 관을 들여놓을 구덩이를 파는 일.

1월 9일(병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10일(정해) 오후에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나는 대산(大山)에 갔다.

1월 11일(무자) 눈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온수동(溫水洞) 서숙(庶叔)에게 가서 조문하고, 대산(大山)으로 돌아와서 묵었다.

1월 12일(기축) 바람이 불어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동해(東海)에 해가 떠오르는 꿈을 꾸었다.

1월 13일(경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월 14일(신묘) 추웠다. 계집종 금낭(今娘) 모녀(母女)가 대산(大山)에서 12일에 작성한 사내종 소읍진(沙邑進)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1월 15일(임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보름에 떠오르는 달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전년과 같으리라 생각된다.

1월 16일(계사)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증조부님의 기제사 날짜이다.

1월 17일(갑오) 눈이 몇 치정도 쌓였으나 저녁에 해가 나와 다 녹았다. 대산(大山)에 사는 인제(姻弟)가 아침 전에 왔다.

1월 18일(을미) 햇볕이 나왔다. 인제(姻弟)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9일(병신) 햇볕이 나왔지만 추웠다. 근래 사나운 호랑이가 마구 다니며 사람 죽이기를 삼대 베듯 하였다.

1월 20일(정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월 21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니가 어깨 통증이 있어 쑥뜸을 하였다.

1월 22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3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날 밤에 차가운 눈이 땅에 깔려 지면이 하얗게 되었다. 나는 생원 우홍징(禹洪徵) 형제와 상인(喪人) 어수한(魚受漢), 수재(秀才) 이응손(李應孫)과 함께 은봉암(隱峯庵)에 올라가서 기복(祈福)하였다. 상인 어수한이 길사(吉事)의 의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일을 행하니, 한바탕 포복절도하였다.

1월 24일(신축) 구름이 흩어졌다. 식사 후에 산에서 내려왔다.

1월 25일(임인) 날씨가 청명하였다.

1월 26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7일(갑진) 맑고 추웠다.

1월 28일(을사) 매우 온화하였다. 본읍이 흉년을 당한 정도가 나라 안에서 우심(尤甚)한 지역이었다. 순상(巡相)이 특별히 비장(裨將)을 보내 유진장(留鎭將)으로 삼아, 신임 사또가 도임하기 이전까지 감진(監賑)하는 방도를 수행하게 하였다. 순영의 비장이 본면(本面)의 굶주린 백성을 순시 점검했는데, 오늘 본촌(本村)에 도착하여 가장 굶주린 백성을 점검하였다.

1월 29일(병오) 햇벌이 나왔지만 갑자기 추워졌다.

2월 소월(小月). 초1일 경칩절(驚蟄節), 17일 춘분중(春分中).

2월 1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 향교에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

2월 2일(무신) 빗방울이 떨어져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2월 3일(기유)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2월 4일(경술) 서풍이 불고 조금 추워졌다.

2월 5일(신해) 따뜻하였다.

2월 6일(임자) 햇벌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2월 7일(계축)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2월 8일(갑인) 비가 와서 냇물이 용솟음쳤다.

2월 9일(을묘)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10일(병진) 구름이 끼었다.

2월 11일(정사)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향교에 갔다가 돌아왔다.

2월 12일(무오) 약간 흐렸다.

2월 13일(기미) 구름이 끼고 추웠다.

2월 14일(경신) 햇볕이 나왔는데 가끔 흐렸다.

2월 15일(신유) 구름이 떠다니고 햇볕이 나왔다.

2월 16일(임술) 따뜻하였다.

2월 17일(계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18일(갑자) 비가 계속 와서 시냇물이 시끄러웠다.

2월 19일(을축) 또 비가 내렸다. 갈산(葛山)에 사는 최생원(崔生員) 집에서 사위를 맞이하는 예식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2월 20일(병인) 어제처럼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자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힘.

2월 21일(정묘) 다시 흐렸다.

2월 22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3일(기사) 가끔 해가 나기도 하고 구름이 끼었는데 빗방울이 맺히기도 하였다.

2월 24일(경오)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김군 백봉(金君百朋)이 방문하여 함께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2월 25일(신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김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2월 26일(임신) 식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방 걷히고 햇볕이 나왔다.

2월 27일(계유)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나는 갈산(葛山)에 가서 윤만첨(尹萬瞻) 이름으로 백준건(白俊健)에게 논을 매입한 문서를 받았다.

2월 28일(갑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나는 읍으로 들어가 동문 밖 도가(都家)<sup>476</sup>에서 묵었다.

2월 29일(을해) 성황단 제사를 지냈다.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2월 30일(병자)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

476) 도가(都家) : 동업자들이 모여서 상의(商議)하는 집이다.

3월 소월(小月). 초2일 청명절(清明節), 3일 한식(寒食), 17일 곡우중(穀雨中).

3월 1일(정축)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3월 2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3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4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 봄에 대합[조개? 古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지난 해에 뒤지지 않았다. 많이 주운 사람이 6,7두(斗) 정도였다.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닌 자들이 시장에 가는 듯이 행렬이 이어졌다.

3월 5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상인(喪人) 박중환(朴重煥), 수재(秀才) 윤필징(尹必徵), 수재 이중징(李重徵)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파하였다.

3월 6일(임오)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3월 7일(계미) 매우 따뜻하였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3월 8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향교에 관한 일로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3월 9일(을유) 조금 흐리다가 식후에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어제처럼 매우 따뜻해짐. 저녁에 다시 구름이 끼었다. 상인(喪人) 정재종(丁再從)이 올린 소장(訴狀) 초고를 썼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지난봄에는 전에 없던 흉년에다가 참혹한 집안의 화(禍)까지 겹쳐 열흘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솔이 모두 한꺼번에 거의 죽어 부서진 등지에 위태로운 새알처럼 이 한 몸 만에 없습니다. 약간의 집안 농토는 이미 장례비용으로 들어가 거처할 집도 없이 고향 이웃과 친족 사이에서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으니 죽지 못한 모진 목숨입니다. 지금 잠시 인간 세상에 의탁하여 살고 있는데 내일이 바로 돌아가신 부친의 첫 기일(忌日)입니다. 스스로 형편을 생각하자니, 물 한 그릇이라도 영전에 올리는 데에 우려할 바입니다. 저 금수(禽獸)를 보아도 매는 새로 제사지내고 수달은 물고기로 제사지내면서 오히려 뿌리를 잊지 않으니, 돌아보건대 저의 몸뚱이 정도만을 우선 보전하고 있으니, 금수보다 못한 상황에 자식된 입장에서 망극한 애통이 이 지경에 이르러 땅을 치고 하늘을 울부짖지만 하소연이 미치지 못합니다. 감히 효도로 다스리는 사또께 이렇게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식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저녁이 되자 다시 흐렸다.

3월 10일(병술)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려 봄풀이 파릇파릇하였다.

3월 11일(정해)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3월 12일(무자) 비가 내렸다.

3월 13일(기축) 바라보니 산머리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고 들판은 비로 진흙탕이 되었다. 어머님이 지난 해 겨울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 서면(西面)에 가서 의원을 찾아갔다. 저녁에는 우박이 떨어졌다. 고연리(古延里) 외가(外家)에서 묵었다.

3월14일(경인) 구름이 끼고 추웠다. 소비포(所非浦) 진장(鎭將) 조성민(趙聖民)을 가서 보니, 습담(濕痰)을 다스리는 처방인 반하창출탕(半夏蒼朮湯)<sup>477</sup>으로 약을 명하였다. 반하창출(半夏蒼朮) 각 1돈 반, 편금주(片苓酒)·초백출(炒白朮)·남성포(南星炮)·향부자(香附子) 각 7푼, 진피(陳皮) 적복령(赤茯苓 茯苓) 각5푼, 위령선(威靈仙)·감초(甘草) 각3푼, 생강 다섯 조각을 넣는다. 5첩(貼). 식사 후에 복용하였다.

3월 15일(신묘) 북풍이 불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6일(임진) 따뜻하였다. 통영(統營)에 들어가 아차(阿次)에 이르러 사내종과 말을 돌려 보내고, 도보로 억아(億兒)와 함께 동행하여 관(關)에 들어갔다.

3월 17일(계사) 약을 조제하였다.

3월 18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렸다. 조군 윤채(曹君允采)와 계종(戒宗)과 함께 같이 돌아왔다. 저물녘에 대치(大峙)를 넘어 도선(道善) 주점(酒居)에서 묵었다.

3월 19일(을미) 아침 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3월 20일(병신)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어머님이 탕약을 복용하셨다.

3월 21일(정유) 저물녘 흐리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2일(무술)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이날은 바로 죽은 형의 초기(初基)이다.

3월 23일(기해) 동풍이 불어 추웠다. 용동(龍洞)에 사는 조카 윤억아(尹億兒)가 이곳에 왔다.

3월 24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5일(신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신에게 기도하여 액막이를 하였다.

3월 26일(임인) 비가 그치지 않아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약 복용을 끝냈다.

---

**477) 창출(蒼朮) :** 국화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인 삼주 및 같은 속 식물의 뿌리를 말린 것. 봄이나 가을에 캐서 햇볕에 말린 것으로 맛은 쓰고 맵다.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위를 튼튼히 하는 데에 쓰인다.

3월 27일(계묘) 쾌청하고 동풍이 온화하였다. 상인(喪人) 황형(黃瑩)이 산사(山寺)에서 와서 윤진사(尹進士)가 갇혔다는 소식을 전하니,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3월 28일(갑진)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3월 29일(을사)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4월 대월(大月). 초4일 입하절(立夏節), 29일 소만중(小滿中).

4월 1일(병오) 비가 내렸다.

4월 2일(정미)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어제 목화를 파종했는데 곧장 내리는 비가 맞아 반드시 손상되었다.

4월 3일(무신) 햇볕이 나왔다. 아버님 환후가 아직도 회복도지 않아 나는 또다시 통영에 사는 침지 이만근(李萬根)에게 가서 보고 문약(問藥)하였다.

4월 4일(기유) 햇볕이 나왔다. 계속 영하(營下)에 머물렀다.

4월 5일(경술)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계속 영하에 머물렀다.

4월 6일(신해)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내가 돌아가려다가 죽림(竹林)에 이르러 마을 사람을 만나보고 다시 통영에 들어갔다.

4월 7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형님과 이여섭 매형이 들어와서 오후에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윤진사가 신원(伸冤)되어 풀려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때 통영 진홀미(賑恤米)가 매섬마다 편분(便分) 6말, 포량미(砲糧米) 군량미로 징수하는 세미)는 3두 편분이다.

4월 8일(계축)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오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금년 이양이나 파종한 곡식 태반이 시들시들 사라져 다시 어린 중들이 많아졌다.

4월 9일(갑인) 서풍이 불었다. 아침 전에 상인(喪人) 조윤채(曹允采)가 통영에서 와서 방문하였는데 식사 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4월 10일(을묘)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다가 서풍이 또 불어왔다.

4월 11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2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아버님을 모시고 통영 의원 집에 갔다. 오후에 맑은 하늘에 천둥이 크게 쳤다.

4월 13일(무오)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아버님이 어깨 통증 있는 곳에 침을 맞았다.

4월 14일(기미) 서풍이 불었다. 아버님이 침지(兪知) 이만근(李萬根) 집에 머물렀다.

4월 15일(경신)<sup>478)</sup> 서풍이 불었다.

4월 16일(신유)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으며,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사람이 통영 빙고(氷庫)에 불이 나서 모두 불타버렸다.

4월 17일(임술) 서풍이 불었다. 아버님이 용동(龍洞) 매형 집에서 돌아오셨다.

4월 18일(계해)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분현(來分峴)에 이르러 비를 맞아 의관(衣冠)이 축축하게 젖었다.

4월 19일(갑자)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지난 17일 또 약을 조제하였다. 이출탕(二朮湯), 창출(蒼朮) 1돈 반, 반하자제(半夏子製)<sup>479)</sup>, 백출(白朮), 남성포(南星炮), 진피<sup>480)</sup>거백(陳皮去白), 백복령(白伏苓), 향부자 주초(香附子酒炒), 황금 주초(黃芩酒炒), 초영선주(炒靈仙酒), 영선 주세(靈仙酒洗), 강활(羌活), 감초(甘艸) 각 1돈, 생각 세 조각을 넣고 달여서 공복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10첩을 지었다.

4월 20일(을축) 햇볕이 나와 따뜻하였다. 아버님이 돌아왔다. 이날 저녁에 동풍이 갑자기 불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4월 21일(병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2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비로소 이출탕(二朮湯)을 다렸다.

4월 23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4일(기사)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날 벽방산(碧芳山) 아래에 사는 거사(居士)가 밭에 김을 매고 있을 즈음 호랑이가 움켜쥐고 가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자 호랑이가 버리고 갔는데,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였다.

4월 25일(경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26일(신미)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려 물이 흘러나왔다. 새 사또 문관(文官) 출신의 이후행민(李侯行敏)이 그저께 서문 밖에 도착해 머물다가 오늘 관아에 들억 직무를 보았다.

**478)** 원문에는 ‘旣望’으로 되어 있다.

**479)** 반하자제(半夏子製) : 반하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몇 가지 약재와 함께 가공하는 법.

**480)** 진피(陳皮) : 귤피(橘皮)가 오래 묵은 것.

4월 27일(임신) 햇벌이 나왔는데 가끔 구름이 끼었다. 현재 호랑이의 포악이 특별히 심하다. 예전에 물렸던 거사(居士)는 이미 죽었고, 광이면(光二面) 내에 또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이 두 명이다. 지난해 7, 8월에 거류산(巨流山)을 지나다니는 괴수(怪獸)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 골짜기 바위가 떨어지는 듯 했다. 처음에는 곰이라고 여겼는데, 마침내 호랑이인 줄 알게 되었다.

4월 28일(계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다.

4월 29일(갑술) 햇벌이 나와 따뜻하였다. 마을 사람 김행석(金行石)이 와서 관을 벗고 사죄하여 풀렸다. 고성 사또가 본면(本面)을 우심(尤甚)한 재해 지역이라고 하여 잡역(雜役)을 면제하고 감소시켰기 때문에 본면 내 여러 사람들이 관아에 들어가 사례하였다. 금년 보리밭의 황충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큰 손상을 입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4월 30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저물녘 비로소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향교에 들어가 재임(齎任) 장의(掌議) 최경 경옥(崔璟景玉)을 만나보고 연역소(烟役所)에서 묵었다.

5월 소월(小月). 초5일 망종절(芒種節), 21일 하지중(夏至中).

5월 1일(병자) 햇벌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황형(黃瑩)이 와서 유숙하였다.

5월 3일(무인) 동풍이 불어 조금 차가웠다.

5월 4일(기묘) 비가 내렸다.

5월 5일(경진)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 나뉘었다.

5월 6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7일(임오) 청명하였다.

5월 8일(계미) 따뜻하였다.

5월 9일(갑신) 조금 흐렸다.

5월 10일(을유) 비가 내렸다.

5월 11일(병술) 가랑비가 내렸다.

5월 12일(정해) 조금 흐렸다.

5월 13일(무자) 매우 무더웠다.

5월 14일(기축) 햇빛이 나왔다.

5월 15일(경인) 햇벌이 나왔다가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5월 16일(신묘)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7일(임진)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18일(계사) 오후에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5월 19일(갑오) 더웠다.

5월 20일(을미)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21일(병신) 비가 내렸다. 숙부님의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初暮]이다.

5월 22일(정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3일(무술) 이양(移秧)이 끝났다.

5월 24일(기해) 전세(田稅)에 관한 일로 읍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5월 25일(경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5월 26일(신축)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금방 사라졌다.

5월 27일(임인) 구름과 햇벌이 반반 정도 있었다.

5월 28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산(葛山)에 사는 유상인(柳喪人) 상사(祥事)를 가서 보았다.

5월 29일(갑진) 날씨가 덥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소월(小月). 7일 소서절(小暑節), 16일 초복(初伏), 23일 대서중(大暑中), 26일 중복(中伏).

6월 1일(을사) 구름이 연기처럼 끼고 날씨가 더웠으며, 동풍이 불었고, 저녁에 비바람이 거

세졌다.

6월 2일(병오)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내려 냇물이 졸졸 흐르고, 식후에 구름이 걷혔다.

6월 3일(정미)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슬이 내렸다.

6월 4일(무신) 구름이 얇게 끼었다. 박호징(朴虎徵)이 와서 공부를 배웠다.

6월 5일(기유)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금방 사라지고, 날씨가 매우 더웠다.

6월 6일(경술) 식후에 비가 쏟아졌다.

6월 7일(신해) 저물녘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박호징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6월 8일(임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9일(계축)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0일(갑인)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6월 11일(을묘)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으나 밤이 되자 다시 흐려졌다.

6월 12일(병진) 동풍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6월 13일(정사) 동풍이 불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14일(무오) 큰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6월 15일(기미) 가랑비가 오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

6월 16일(경신)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7일(신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 있었다. 약정(約正) 전일화(田一和)가 모환(牟還)에 관한 일로 갈산(葛山)에 사는 충의위 유천기(柳天機)를 구타했는데, 어제 형장(刑杖) 25대를 맞았다.

6월 18일(임술)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19일(계해) 하늘에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렸으나 먼지만 적시고 그쳤다.

6월 20일(갑자) 더웠다.

6월 21일(을축) 소낙비가 내렸다. 오늘날 모환(牟還)에 관한 일로, 갇힌 사람이 옥에 가득하고, 차사(差使)가 길을 이어 다녔다.

6월 22일(병인) 흐리고 비가 내렸다.

6월 23일(정묘)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6월 24일(무진) 새벽에 비가 와서 먼지를 적셨다. 별차(別差)가 집을 수색하느라 마을이 혼란에 휩싸였다.

6월 25일(기사) 서쪽에서 크게 천둥이 쳤다.

6월 26일(경오) 더웠다.

6월 27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8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9일(계유) 매우 더웠다. 시냇가에서 낚시질을 하였다.

7월 대월(大月). 10일 입추절(立秋節), 17일 말복(末伏), 25일 처서중(處暑中).

7월 1일(갑술) 더웠다.

7월 2일(을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3일(병자)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4일(정축) 오후에 우레가 치고 비가 와서 먼지를 적셨다.

7월 5일(무인) 비가 내렸다.

7월 6일(기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매형 이여섭이 가노(家奴)의 모환(牟還)에 관한 일로 감옥에 갇혔기에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7월 7일(경진) 더웠다.

7월 8일(신사)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금방 걷혔다.

7월 9일(임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0일(계미)

7월 11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저물녘에 돌아가는데 소낙비가 갑자기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다. 고생하면서 갈산에 들어가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밤이 이미 3경(三更)이었다. 올해 본읍에서 모환(牟還)을 엄히 독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7월 12일(을유) 더웠다.

7월 13일(병술) 소낙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7월 14일(정해) 천둥과 번개가 쳤다. 나는 북교제(北郊祭)에 참여하였다.

7월 15일(무자) 더웠다. 집으로 돌아갔다.

7월 16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7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교임(校任) 사직 신청서를 두 번 올렸는데,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7월 18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할 수 없이 향교에 가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7월 19일(임진)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향교에 머물렀다.

7월 20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관아에서 아노(衙奴)를 시켜 마을의 소나무 가지와 잎을 적간하게 하였다.

7월 21일(갑오) 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갔다.

7월 22일(을미) 더웠다. 향교에 머물렀다.

7월 23일(병신)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서늘하며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집으로 돌아갔다.

7월 24일(정유)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갔다. 그대로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이날 밤에 모기에 시달려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7월 25일(무술)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다시 향교로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7월 26일(기해) 매우 더웠다. 남산에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7월 27일(경자) 가랑비가 내려 먼지를 적시고 갑자기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7월 28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9일(임인) 더웠다. 가뭄이 이처럼 오래되어 벼 곡식이 바싹 말랐다. 향교에 갔다.

7월 30일(계묘) 덥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소월(小月). 11일 백로절(白露節), 26일 추분중(秋分中).

8월 1일(갑진)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일(을사) 비가 갑자기 내려 받을 적셨다.

8월 3일(병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4일(정미)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이 청명하였다. 나는 교임에서 체직되었다.

8월 5일(무신) 집으로 돌아왔다.

8월 6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7일(경술) 햇빛이 나왔다.

8월 8일(신해) 소낙비가 땅을 적셨다.

8월 9일(임자) 구름이 뽀뽀하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버님이 학질(瘡疾)에 편찮으셨다.

8월 10일(계축) 더웠다.

8월 11일(갑인)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해가 나기도 하였다. 황형(黃瑩)이 와서 머물렀다.

8월 12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황형이 돌아갔다.

8월 13일(병진) 덥고 사방에서 미풍이 불었다. 아버님의 환후에 차도가 있었다.

8월 14일(정사) 향교에 갔다.

8월 15일(무오) 새벽에 북풍이 불고 조금 추웠으나 종일 매우 따뜻하였다. 현재 순상(巡相)은 바로 전 판서(判書) 김공 재로(金公載魯)<sup>481</sup>로, 통영 우후(虞候) 허방(許芳)이 가서 알현

---

**481)** 김공 재로(金公載魯) : (인물) 김재로(1682~1759)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 또는 허주자

하려고 오늘 고성읍을 지나갔다.

8월 16일(기미)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다가 오후에 소낙비가 내려 메마른 구덩이에 물이 차다.

8월 17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호(柴胡)<sup>482</sup>를 썼다.

8월 18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9일(임술) 비가 내렸다.

8월 20일(계해) 해가 나왔다.

8월 21일(갑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8월 22일(을축) 북쪽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3일(병인) 점점이 떠다니는 구름이 빗방울을 내렸다.

8월 24일(정묘)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 사는 생원 최진한(崔震翰)이 숙환이 있는데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생각으로 와서 머물렀다.

8월 25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과행(科行)할 계획으로 향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6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출발하여 사또를 만나보고, 저녁 식사 후에 출발하여 구질포(九叱浦)에서 묵었다.

8월 27일(경오)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소촌(召村)에 점심을 먹고, 안간(安澗)<sup>483</sup>에서 이틀간 묵었다.

8월 28일(신미) 따뜻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삼가읍(三嘉邑) 시소(試所)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

(虛舟子)이다. 1731년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신임사회로 죽은 노론의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의 복관(復官)을 상소해 이를 달성시켰다. 그 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다. 1740년 영의정에 올라 1758년 관직을 떠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여 년간 영의정을 지냈다.

**482** 시호(柴胡) : 시호의 뿌리. 외감·학질(瘧疾) 등에 쓰임.

**483** 안간(安澗) : (지명)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이다. 안간역은 주의 북쪽 42리에 있다. 사근도(沙斤道)에 속했으며 옛날에는 관(館)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초사(草舍)를 안간역 앞에 옮겨졌다. 《승정원일기》에는 ‘안간역(安干驛)’으로 표기되어 있다.

8월 29일(임신) 구름이 끼었다.

9월 대월(大月). 13일 한로절(寒露節), 28일 한강중(霜降中).

9월 1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시제(詩題)는 ‘적인걸이 원하는 것을 묻자 노씨가 답하는 말을 대신하여[代盧氏答狄仁傑問所欲]’<sup>484</sup>이고 부제(賦題)는 ‘반드시 문수 가에 있을 것이다.[必在汶上]’<sup>485</sup>였다. 사또가 종시관(終試官)이 되었다.

9월 2일(갑술) 종일토록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9월 3일(을해) 쾌청하고 따뜻하였다. 과장에 들어갔다. 오시(午時)에 이르러 상주(尙州)와 단성(丹城)의 인사(人士)가 시험문제를 고쳐주길 요청하다가 과장에 소란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당상(堂上)에 돌을 던져 부시관(副試官) 밀양 사또의 머리 부위를 상하게 하였다. 도회(道會)에서 단성(丹城) 사람 유문명(柳文明)을 적발하여 형추(刑推)하고 감옥에 가두었고, 이어서 과장(罷場)되었다.

9월 4일(병자) 햇별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출발하여 진주(晉州) 신당(新堂)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소촌(召村)에 묵었다.

9월 5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목죽(睦竹)에서 아침밥을 먹고, 읍동문 밖에서 점심을 먹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9월 6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7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9월 8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방목(榜目) 과거 합격자 명단을 보니, 50인이 합격하였다.

9월 9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가끔 구름이 끼었다.

9월 10일(임오) 햇별이 나오고 따뜻했다. 통영에 들어갔다.

9월 11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영중(營中)에 계속 머물렀다.

---

**484** 적인걸이……대신하여 : (고사) 당나라 적인걸이 재상이 되어 어머니 사촌 노씨(盧氏)에게 안부 인사를 올리고 소원을 묻자, 노씨가 외아들이 여주(女主) 측천무후(則天武后)를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적인걸이 부끄러워하면서 떠났다.

**485** 반드시 문수 가에 있을 것이다 : (고사) 계씨(季氏)가 공자의 제자 민자건(閔子騫)을 비(費) 땅의 원님으로 임명하려 하자, 민자건이 사신에게 “나를 위해 말을 잘 해 달라. 만약 나를 다시 부른다면 나는 노(魯)나라를 떠나서 벌써 문수 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論語 雍也》

9월 12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머물렀다.

9월 13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저께 밤에 비가 내렸다고 한다.

9월 14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벗 서지원(徐之遠)이 방문하였다.

9월 15일(정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서생(徐生)이 작별하고 떠났다.

9월 16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냇가에서 낚시질을 하였다.

9월 17일(기축)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18일(경인) 구름과 햇볕이 반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9월 19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동풍이 불고 차가웠다.

9월 20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고 동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으며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21일(계사) 햇볕이 나왔다.

9월 22일(갑오) 빗물이 땅에 1치 정도 스며들었다. 간평 감색(看坪監色)이 도착하였다.

9월 23일(을미) 가랑비가 내렸다.

9월 24일(병신) 가랑비가 내리는데 가끔 해가 나왔다가 저물녘 구름이 끼고 추웠다.

9월 25일(정유) 햇볕이 나와 따뜻하였다. 광양(光陽) 유배객인 좌수였던 이경석(李慶錫)이 와서 곡식을 구걸하자 조(租) 1섬을 주어 요구에 응하였다.

9월 26일(무술) 온화하였다.

9월 27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대장(代將) 박명재(朴明粹)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만사(輓詞)를 지었다.

외형 잊고 너나하고 교유하며 <sup>486)</sup>	忘形到爾汝
어린 나이부터 지금 흰 머리까지	白首自童年
거문고로 아양곡 <sup>487)</sup> 연주했고	琴疊峩洋奏

**486)** 외형 잊고 너 나했지 : (고사) 두보(杜甫)가 친구 정건(鄭虔)에게 준 〈취시가(醉時歌)〉에 “외형 모두 잊고서 너니 나니 하는 사이, 통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나의 스승일세.[忘形到爾汝 痛飲眞吾師]”라는 표현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3》

**487)** 아양곡(戡洋曲) : (고사) 거문고의 명인인 백야(伯牙)가 높은 산을 연주하면 친구인 종자기(鍾子期)가 “태산처럼 높고

집안이 넝쿨처럼 <sup>488</sup> 연결되었지	門索瓜葛連
옛 검을 묻는다고 갑자기 들으니	忽聞埋古劍
언제 요동의 신선 돌아오려나	何日返遼仙
몸져누워 무덤에 갈 수 없어	伏枕違臨穴
만사 쓰고 눈물을 줄줄 흘리네	題罷淚迸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인간 세상에 선친의 벗은 공뿐으로	先友人間獨有公
대대로 사친 정리는 지친과 같았네	世傳交義至親同
한 점 남쪽 빈터에 별빛 어두워지고	南墟一點星光晦
천년 옛 기둥에는 학 그림자 없구나	古柱千年鶴影空
몸져누워 상여 줄 잡을 수 없어	相紼悲歌違伏枕
부의 <sup>489</sup> 에 눈물 흘려 눈동자 젖었네	東芻哀淚謾沾瞳
하늘이 소박한 곳에 진혈을 남겨두어	天教朴地餘眞穴
홀륭한 가문에 계속 자손 번성하리라 <sup>490</sup>	可見高門緝羽蟲

인간세상 육십 년이 한 순간이니	一瞥人間六十春
공이 오늘 떠나시니 꿈인가 생시인가	公行今日夢耶眞
염라대왕 <sup>491</sup> 에게 수명 빌리지 못했지만	遐壽不貸閻家老
경사가 사씨 집안 보배처럼 <sup>492</sup> 풍성하리라	餘慶將饒謝氏珍
산 아래 용이 서린 듯 새로 지은 집	山下龍盤新第宅
상 위에 검이 울어대니 <sup>493</sup> 옛 정신이로다	床頭劍吼舊精神
고향 이웃 고개 돌려보니 옛 자취 되어버려	回首鄉鄰陳舊迹
만사 짓고 나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哀詞題罷泪盈巾

육십 년 세월 전광석화인데	六十光陰石火忙
저물녘 산양에서 이웃집 젓대소리 <sup>494</sup>	一聲鄰笛暮山陽

높도다.[峨峨兮若泰山]”라고 평하였고, 흐르는 물을 연주하면 “강하처럼 양양하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평했다는 아양(峨洋)의 고사가 있다. 《列子 湯問》

**488** 넝쿨처럼 : (고사) 원문의 ‘과갈(瓜葛)’은 넝쿨이 뻗어서 서로 얽힌 외와 꺾으로, 집안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489** 부의(賻儀) : (고사) 원문의 ‘속추(束芻)’는 꼴 묶음을 말한다. 후한(後漢)의 서치(徐穉)는 자가 유자(孺子)로 남주(南州)의 고사(高士)라 일컬어졌는데, 매우 가난하여 곽임종(郭林宗)의 어머니 상(喪)에 조문하러 가서 풀 한 다발을 집 앞에 두고 상주(喪主)를 보지 않은 채 갔다 한다. 《後漢書 卷53 徐穉列傳》 여기서는 부의(賻儀)를 뜻한다.

**490** 자손 번성하리라 : (고사) 원문의 ‘우중(羽蟲)’은 《시경》 〈주남(周南) 중사(螽斯)〉에 나오는 말로, 문왕(文王)의 후비(后妃)가 궁녀(宮女)들과 서로 화목하여 자손이 많았으므로, 한 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는 메뚜기[螽]에 비유하여 자손의 번성함을 노래한 것이다.

**491** 염라대왕 : 원문 ‘염가노(閻家老)’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는 염라대왕이다.

**492** 사씨(謝氏) 집안 보배처럼 : (고사) 홀륭한 자제가 많은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자질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물으니,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493** 상 위에 검이 울어대니 : 검이 울어댄다는 것은 곧 남아의 장대한 기개가 끊어오름을 의미한다.

**494** 저물녘 ……젓대소리 : (고사) 원문의 ‘산양(山陽)’은 진(晉)나라의 상수(向秀)가 혜강(嵇康)·여안(呂安)과 함께 살며

부질없이 들보 위의 달 <sup>495)</sup> 조문하니	寒窓幾弔空梁月
먼지 쌓인 칼집 속 옛 칼을 늘 슬퍼하네	塵匣常悲古劍鏃
붉은 만장이 산비탈 올라 머물지	丹旒上陂留不得
슬픈 마음으로 상여줄 잡고 멀리 전송하네	哀些相紉遠于將
생추 한 다발 주노니 공은 옥처럼 맑아 <sup>496)</sup>	生芻一束人如玉
통곡하며 백양 <sup>497)</sup> 에 의지해 슬퍼하네	痛哭悲 <sup>498)</sup> 倚白楊

육십 여년 틈새 지나는 듯하니	六旬如決隙
하늘의 뜻 정녕 아득하여라	天意正茫然
벽에 별 찌르는 칼을 걸어놓고	壁掛干星劍
상에 병법서가 내버려져 있네	床拋講武篇
공의 가문에는 덕스런 어른 안 계시네	盛門無耆德
우리 고장에 훌륭한 분 떠나셨네	吾黨乏高賢
이 이별이 천고 세월 되니	此別將千古
저 돌아가 머무는 곳 그 어디인가	歸留那箇邊

9월 28일(경자) 날씨가 온화하였다.

9월 29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첩지(僉知) 이만근(李萬根)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9월 30일(임인) 매우 따뜻하였다. 이날 해시(亥時 밤 9시부터 11시까지)에 아들이 태어난<sup>499)</sup> 기쁨을 누렸다.

(그림) 甲寅水。甲戌火。壬寅金。辛亥金。五月卦。

10월 소월(小月). 13일 입동절(立冬節). 27일 소설(小雪中).

가까이 지냈던 곳이다. 두 벼이 죽은 뒤 상수가 산양의 옛 터를 지나다 이웃사람이 부는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 옛날 함께 놀던 두 벼를 그리며 〈인적부(隣笛賦)〉를 지었다. 《晉書 卷49 向秀列傳》

**495)** 들보 위의 달 : (고사) 친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정을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몽이백(夢李白)〉에 “지는 달이 지붕 마루 가득히 비추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보는 듯.[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이라는 시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杜少陵詩集 卷7》

**496)** 생추(生芻)……맑아 : (고사) 《시경》 〈백구(白駒)〉에 “회고 깨끗한 땅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다. 싱싱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하여 어진 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497)** 백양(白楊) : (고사) 두보(杜甫)의 시 〈장유(壯遊)〉에 “두곡에 노인들 이미 많이 죽어, 사방 들에는 백양이 많구나.[杜曲晚耆舊 四郊多白楊]”라고 했다. 백양은 고대 중국에서 무덤 위에 심는 나무로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498)** 원본에 한 글자가 빠져있음.

**499)** 아들이 태어난 : (고사) 원문의 ‘농장(弄璋)’은 《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이에 남자를 낳아서, 평상 위에 재우고, 긴 치마를 입히며, 구슬을 갖고 놀게 한다.[乃生男子 載寢之牀 載衣之裳 載弄之璋]”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사내아이를 낳은 것을 말한다.

10월 1일(계묘) 따뜻했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는데 어두워지자 물이 흘러나왔다. 황형(黃瑩)이 방문하였다.

10월 2일(갑진) 비에 축축했는데 저물녘에 개었다. 황생이 떠나갔다. 한 밤중이 되려는데 꿈에 초당(草堂) 앞의 괴인 물이 흐르다가 끊어진 곳에 작은 잡어(雜魚)들이 무수하게 진흙탕 속에 뛰어오르거나 숨어 있었다. 그중에 어느 한 물고기가 길이가 1자 되지 않는데 머리가 크고 골격이 기이하며, 꼬리가 넓고 수염이 길었으며, 색깔이 황적색이었다. 나는 이 물고기를 범상하지 않는 물고기로 필시 훗날 용(龍)이 되는 종류로 여겨 깊은 연못물에 풀어 주자 꼬리를 흔들고 들어갔다. 이상하구나.

10월 3일(을사)

10월 4일(병오)

10월 5일(정유)

10월 6일(무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7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8일(경술) 아침에 구름이 끼었는데 저물녘에 해가 나왔다.

10월 9일(신해) 매우 따뜻하였다.

10월 10일(임자) 따뜻하였다. 통제사가 안정사에 가서 유람하였다. 김덕일(金德一)이 와서 공부하였다.

10월 11일(계축) 비가 내렸다.

10월 12일(갑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으며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10월 13일(을묘) 짙은 구름이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김덕일(金德一)의 집에서 소고기[黃肉] 1근을 보내주었다.

10월 14일(병진)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10월 15일(정사)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10월 16일(무오) 비가 걷히지 않았다.

10월 17일(기미) 비가 걷혔으나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10월 18일(경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0월 19일(신유) 추웠다.

10월 20일(임술)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했다.

10월 21일(계해) 바람이 추웠다.

10월 22일(갑자) 동풍이 차갑고 구름이 끼었다. <양무당중수기(養武堂重修記)> 초고를 지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城)의 동쪽에 당(堂)이 있어 날아갈 듯 새로우니 바로 중수한 양무당(養武堂)이다. 튼튼히 거처를 두르고 지내니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며, 가르치고 훈련시켜 싸우게 하니 누가 가서 이기지 않겠는가. 이 당에 올라서 이름을 돌아보며 뜻을 생각하고, 이 당에 있으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면 두 글자의 이름이 또 어찌 헛되겠는가. 아, 중수한 후에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기와가 무너지고 초석이 기울어져 거의 지탱할 수 없었다. 무예를 익히고 군사 훈련하기에 불만한 위엄이 없었다. 장수와 군사들이 탄식하며 모두 수리하기를 원했지만 흉년으로 사람들이 곤궁하여 뜻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지금 거의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에 올해 가을에 별장(別將) 아무개, 파총(把總) 아무개, 장관(將官) 아무개 등 여러 사람들이 재목을 모으고 역군을 모집하여 옛 모습을 새롭게 바꾸었다. 이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며칠 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일은 분명 때를 기다리고 공(功)은 분명 사람을 기다린다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어진 사또 이공(李公)과 좌수(座首) 최(崔) 아무개가 군무(軍務)를 시급히 여기고 공역(工役)을 감독한 공로가 아니겠는가. 올해 겨울은 날씨가 좋아서 그 낙성을 아뢰었다. 이 당을 새롭게 하였으니 이곳에 거처하며 지략 있는 선비와 용맹한 무부를 길러내고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이미 지극하여 서로 술잔을 나누며 말하기를 ‘지금 옛 당을 새롭게 중수하였지만, 훗날 지금 새로운 당도 옛 당이 될 것이다. 지금 사적을 기록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훗날에 거울삼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글을 판각해 두어 길이 볼 수 있게 하고 이 중수를 이어 나가 영구할 수 있도록 도모하노라. 윤진사(尹進士) 사장(師丈)이 방문하였다.

10월 23일(을축) 추웠다. 윤진사께서 진주(晋州)로 향해 갔다.

10월 24일(병인) 따뜻하였다. 송인창(宋仁昌)의 논 2두락지와 진전(陳田) 목은 밭) 1두락지를 사고서 매매문서를 작성했다.

10월 25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6일(무진) 북풍이 불어 추웠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7일(기사) 따뜻하였다. 진전(陳田)을 적간(摘奸)하는 감색(監色)이 왔다. 서면(西面)에 사는 내종형(內從兄)이 왔다.

10월 28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별감(別監) 이국후(李國壺)가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0월 29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황형(黃瑩)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1월 대월(大月). 13일 대설절(大雪節), 27일 동지중(冬至中).

11월 1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11월 2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3일(갑술) 조금 따뜻하였다. 유사(有司) 이재첨(李載瞻), 백준채(白俊采), 이만영(李萬榮)과 함께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11월 4일(을해) 통영에 그대로 머물렀다.

11월 5일(병자)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7일(무인)

11월 8일(기묘)

11월 9일(경진) 이상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0일(신사)

11월 11일(임오) 이상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2일(계미) 따뜻하였다. 남촌(南村)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3일(갑신) 따뜻하였다.

11월 14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5일(병술)

11월 16일(정해) 이상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7일(무자) 매우 춥고 눈이 내렸다. 전임 사또 이후 행민(李侯行敏)이 출발하였다. 지난 6일에 관아에 있던 이방(吏房) 박명수(朴命受)가 영창(營倉) 감관(監官) 이필대(李必大)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그에게 죽고 말았다. 어제 초검(初檢)<sup>500</sup>을 실시하였다.

11월 18일(기축) 갑자기 따뜻해졌다.

---

**500) 초검(初檢) :** (제도) 살인 사건에 대한 최초의 시체 검안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곳의 지방관, 즉 서울이면 오부의 우두머리인 부관(部官), 지방이면 수령이 《무원록(無冤錄)》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체를 검안한다.

11월 19일(경인) 추웠다. 신임 사또 김성용(金聖鎔)이 부임했는데 좌수(座首) 남이규(南以圭)가 오리정(五里程)에 나와서 기다리지 않았기에 나태(拿汰)<sup>501</sup>되었다. 별감(別監) 배순명(裴舜明)과 병비(兵裨) 이두명(李斗明)은 관인(官印)으로 봉하는 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구(形具)에 씌고[具枷] 하옥되었다. 살인옥사에 복검(覆檢)을 위해 사천(泗川) 사또가 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한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0일(신묘) 북풍이 불어 매우 차가웠다.

11월 21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현임 좌수 최원망(崔元望)이 왔다.

11월 22일(계사)

11월 23일(갑오) 이상은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4일(을미) 구름이 짙게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이날 벽방산(碧芳山) 송전(松田)에 화전(火田)하는지 여부를 적간(摘奸)하는 영비(營裨)인 심길(沈山+吉)이 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향교에서 묵었다.

11월 25일(병신)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도사(都事)는 읍으로 들어갔다.

11월 26일(정유) 도사는 통영(統營)을 향해 갔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전석(全石 20말)<sup>502</sup>, 혹은 21,2말, 미(米) 8, 9말이다.

11월 27일(무술) 따뜻하고 가끔 비가 내렸다. 안정사(安靜寺)에 올라 유숙하였다.

11월 28일(기해) 따뜻하였다. 식사한 후에 내려왔다.

11월 29일(경자) 따뜻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몽아(夢兒)가 《춘추전(春秋傳)》을 끝마쳤다. 이날 저녁 호랑이가 용점(瓮厝) 사람을 움켜잡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구원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11월 30일(신축) 비가 그치지 않고 밤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다. 지난 신해년 11월 초에 하늘에 천둥이 치고 임자년에 흉년이 들었다. 지금 번개와 천둥이 치니 또한 무슨 징조인가. 괴이한 일이다.

12월 대월(大月). 13일 소한절(小寒節), 27일 대한중(大寒中), 31일 납일(臘日).

**501)** 나태(拿汰) : 붙잡아서 직무에서 쫓아냄을 말한다.

**502)** 전석(全石) : (제도) 10각을 1홉[습]으로 하고, 10홉을 1승(升)으로 하고, 10승을 1두(斗)로 하고, 15두를 소곡평석(小斛平石)으로 하고, 20두를 대곡전석(大斛全石)으로

12월 1일(임인) 쾌청하고 북풍이 매우 추웠다. 김해(金海)에 군사 연습에 나갔던 사람[赴操軍]들이 끝나고 돌아왔다.

12월 2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3일(갑진) 병사(兵使)가 읍에 도착해서 군인들에게 음식을 주었다. 밤에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땅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12월 4일(을사) 아침에 비가 개었다.

12월 5일(병오) 햇볕이 나오고 따뜻하였다.

12월 6일(정미) 눈이 어지럽게 날리고 북풍이 매우 추웠다.

12월 7일(무신)

12월 8일(기유)

12월 9일(경술) 추웠다.

12월 10일(신해) 추웠다. 매형 이여섭, 어린아이 두 명과 함께 은봉암(隱峯菴)에 올라갔다.

12월 11일(임자) 매우 추웠다. 산암(山庵)에 머물렀다.

12월 12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산에 기도할 때 지난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꿈에서 한 구(句)의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바다가 창공와 이어지니 물 되기 어렵고<sup>503)</sup>      海連碧落難爲水  
중이 백암을 지나는데 사람 보이질 않구나      僧過白岩不見人

산에서 내려왔다.

12월 13일(갑인)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14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5일(병진)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16일(정사) 추웠다. 시가가 조(租) 20말, 미(米) 8말이다.

---

**503)** 물 되기 어렵고 : (고사) 큰 바다를 보아 웬만한 물은 하찮게 여겨진다는 뜻이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바다를 구경한 자에게는 물이 되기 어렵고 성인의 문에서 공부한 자에게는 말이 되기 어렵다.[觀於海者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라고 하였다.

12월 17일(무오) 매우 추웠다. 어제 어떤 도적들이 감치산(甘峙山)에 숨어 있다가 저자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겁박해서 약탈했다고 한다.

12월 18일(기미) 추웠다.

12월 19일(경신) 따뜻하였다. 밤에 마을사람 이두원(李斗元)의 장사(葬事)를 가서 보았다.

12월 20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남촌(南村)에 가서, 구명삼(仇命三)과 강원발(姜元發) 등의 환미(還米)를 징수하고 돌아왔다.

12월 21일(임술) 비가 내렸다.

12월 22일(계해) 비가 내렸다.

12월 23일(갑자) 구름이 모였다가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2월 24일(을축) 새벽에 비가 가늘게 내리다가 식후에 하늘이 맑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12월 25일(병인)

12월 26일(정묘) 이상 추웠다.

12월 27일(무진)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12월 28일(기사) 따뜻하였다. 팔진(八鎭)에 사는 계집종 금낭(今娘)이 본택(本宅)에 돌아가게 놓아주었다.

12월 29일(경오) 눈이 1치 정도 쌓였으나 비가 수시로 내려 다 녹고 밤에는 개었다.

12월 30일(신미) 또 비가 내렸으나 밤이 되어 구름이 흩어지자 별이 보였다. 올해 농사가 이미 풍년이고 또 역질이 없었다. 시가[市直]가 조(租) 전석(全石 20말) 남짓에 이르고, 미(米) 8, 9말이니 다른 소망이 없는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묘년 전몽단알(旃蒙單闕)<sup>504</sup>

1월 대월(大月). 1일 임신, 12일 입춘절, 27일 우수중.

2월 소월(小月). 12일 경칩절, 27일 춘분중.

3월 대월. 13일 청명절, 28일 곡우중.

4월 소월. 14일 입하절, 29일 소만중.

윤4월 대월. 16일 망종 5절(五節).

**504** 전몽단알(旃蒙單闕) : 고간지(高干支)로, 전몽(旃蒙)은 을(乙)을, 단알(單闕)은 묘(卯)이다. 즉 을묘(乙卯)를 가리킨다. 1735년(영조11)이다.

5월 소월. 12일 하지중, 18일 소서 육절(六節).  
6월 소월. 4일 대서중, 20일 입추 칠절(七節).  
7월 소월. 7일 처서중, 22일 백로 팔절(八節).  
8월 대월. 8일 추분중, 24일 한로 구절(九節).  
9월 소월. 9일 상강중, 24일 입동 십절(十節).  
10월 대월. 10일 소설중, 24일 대설 지절(至節).  
11월 대월. 9일 동지, 24일 소한 12절(十二節).  
12월 대월. 8일 대한중, 23일 입춘 정절(正節).